

최 중
연구보고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자원활용과 연계한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Modeling Demand for Rural Tourism Related to Enhancing
the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연구기관

세 중 대 학 교

농 립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자원활용과 연계한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8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세종대학교

총괄연구책임자 : 이 희 찬

연 구 원 : 김 현

연 구 원 : 유 창 근

연 구 원 : 정 진 주

연 구 원 : 한 진 영

연 구 원 : 문 혜 선

협동연구기관명 : 충북대학교

협동연구책임자 : 유 진 채

연 구 원 : 김 미 옥

연 구 원 : 공 기 서

요 약 문

I. 제 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자원활용과 연계한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목적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약했던 요인들의 완화와 함께 대안관광으로서의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 다양한 공급참여자그룹이 조직화되어 상품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공공부문 역시 농촌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생산소득의 창출이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만족이라는 효용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서 공급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원을 구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이 공익기능자원 활용의 구체적 발현이라는 인식 하에 농촌관광 공급자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관광의 수요시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촌관광 시장에 대한 수요실태 조사·분석
- 둘째, 농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및 수요량 추정
- 셋째,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 넷째, 농촌관광 자원이용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농업은 식량공급의 전초기지라는 전통적 역할에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

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국토보존, 수자원함양, 생태계보존, 자연경관제공, 그리고 전통문화보존등과 관련된 기능이다. 즉, 농업·농촌은 식량생산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와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비농업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소득이전을 의미하는 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보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때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가치는 비사용을 전제로 한 보존가치(또는 비 사용가치)를 의미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존재 그 자체로서, 또는 미래의 선택적 이용을 위해, 그리고 후세를 위한 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의미로서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그 이용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농업·농촌은 생태학습의 장으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그리고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의 체험 장소로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체험형 및 가족형 여가행태에 대한 관심고조와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주5일 수업제, 휴가분산제 및 완전노령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기능의 비 사용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소득이전인 직접지불제가 소극적 의미로서의 소득원이라고 한다면 공익기능의 활용을 통한 사용가치의 증진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소득원 창출로 볼 수 있다.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활용은 소비자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이를 구체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곧 농촌관광이다. 녹색관광으로도 표현되는 농촌관광은 훼손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전통가치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이를 찾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통해 안정된 소득원을 구축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고유의 관광자원을 보존 또는 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동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공익기능의 선 순환적 활용을 일컫는다.

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시장외적 접근이라고 보면, 농촌관광은 그 기능에 대한 시장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은 곧 공익적 기능자원의 구체적 활용을 통한 도·농간 교류를 의미하며, 농촌관광은 농촌이라는 공간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여가효용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결하는 원·원전력으로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야만 성

립될 수 있는 관광서비스의 동시 완결형 특성으로 인해 농촌관광은 도·농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여가효용과 소득효용의 교환을 통해서 도·농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관광으로 회자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지금까지 농촌관광은 주로 관광농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광농원이 개인의 관광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결과 지역의 농업 및 지역개발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농촌경제연구원, 2000).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 특화된 관광상품의 부재, 광고홍보의 부재 등도 문제점의 일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익기능 활용방안의 전제조건인 소비자 수요 조사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익기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농촌관광 수요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공익기능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각 유형별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을 이용의 주체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수요조사를 시도하고,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농촌관광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공급자인 농업·농촌이 숙지해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이제까지 미미하였으며, 특히 농촌관광을 공익기능의 활용 또는 이용가치의 증진이라는 차원과 연계하여 구성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농촌관광의 질적 발전기에는 농촌관광 공급자간의 네트워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촌관광은 타 관광산업과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일부 경험하고 있듯이 농촌관광 내부에서도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개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공공부문 역시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관광의 공급자와 공공부문은 이러한 전략 및 시책들에 필요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결국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공급체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질 것이다.

농촌관광의 이용실태와 이용자원의 유형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그리고 수요분석모형 추정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산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농촌관광 공급자는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품질관리와 프로그램개발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농촌관광 수요 및 지출추정을 위한 시차설문조사법 개발

잠재방문자의 신규참여 및 기존방문자의 방문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에는 (잠재)방문자의 인구통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및 행위변수들이 포함되나,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변화, 농촌관광수요의 계절변동 등과 같은 동태적 변수들도 포함되어야 할 주요 결정요인들이다. 이러한 동태적 변수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1년)에 걸쳐 설문조사시기를 다양화한 후 각 시기별로 응답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이른바 시차설문조사법(wave survey method)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시차설문조사방법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 및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므로 회상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계절변동 및 주5일 근무제수용도에 따른 농촌관광 참여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의표본추출이므로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농촌관광참여율 추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타 관광활동과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분석

농촌관광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내용 중 테이블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들로서,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관광활동패턴, 주요 여가형태, 관광유형별 평균 관광지출 및 지출의 항목별 구성 등이며,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농촌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선호하는 자원이용의 형태, 농촌관광지출 및 지출의 항목별 구성, 방문자 유형, 농촌관광 참여도, 관광정보습득의 주요 원천 및 기타 주요사항을 파악한다.

3. 농촌관광 방문횟수 추정

일인 당 총 농촌관광 방문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차조사를 통해 조사된 농촌관광의 누적방문량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형태(예컨대,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관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여 농촌관광수요와 비교함으로써 전체 관광활동 내에서 농촌관광의 위치를 파악한다.

4. 농촌관광 자원이용 중심형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의 활용, 즉 수요자 측면에서 부존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농촌관광의 유형화와 방문자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수행한다. 세분시장별 응답자의 특성을 구분함으로써 시장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한다.

5. 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 모형에 따른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농촌관광시장에 신규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기존 방문자에 대한 소비량(방문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관광수요에 있어서 참여결정과 소비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려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통해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관광의 신규수요창출 및 기존방문자의 방문을 제고 위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6.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시차설문조사법은 수요예측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통계, 태도, 행위 등과 관련된 변수들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정책의 변화 및 계절변동 등과 같은 동태적 변수의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설정된 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참여결정 및 방문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같은 모형을 통해 농촌관광 참여율과 농촌관광량을 추정한다. 농촌관광 지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농촌관광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한다. 추정된 관광량과 참여율, 그리고 지출을 이용하여 총 농촌관광량 및 총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한다.

7. 농촌관광 관련문헌 연구 및 주요국가의 농촌관광시장 사례분석

기존의 농촌관광 관련연구를 수요 및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례분석을 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발전 양상에 따른 농촌관광의 진화를 규명하고 농촌관광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시사점으로 개진한다. 주요 국가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 등의 농촌관광 현황에 대해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의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등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방문량 비교를 통한 농촌관광의 위상 파악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으로서 주요 여가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는 있지만 과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시차설문조사법은 각 시점에서 조사된 단위 당 방문횟수의 평균치(Q)가 조사시차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누적분포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절한 함수의 적용을 통하여 관광유형별 방문량의 추정을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전체 국민관광 내에서 농촌관광 수요시장의 규모와 비중을 파악케 함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 정책비중과 함께 농촌관광개발의 당위성을 식별할 수 있다.

나. 농촌관광 수요예측 모듈의 개발

수요예측모형은 참여결정 및 소비량(농촌관광량)결정 모형으로 구분되며, 두 모형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총 농촌관광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일인당 농촌관광량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총 농촌관광량(TQ)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widehat{TQ} = q \times r \times P$$

식에서 q 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 r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를 의미한다. 일인당 농촌관광량, q 는 수요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되며, 농촌관광 참여율, r 은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다.

한편, 농촌관광의 총 지출규모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총 관광일수에 1인 1일당 지출액을 곱함으로써 구해진다. 총 농촌관광일수는 국내 인구수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

한 값(농촌관광 참여자 수)에 다시 참여자 1인당 총 관광일수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관광목적 참여자의 농촌관광 총 지출규모, \hat{S} 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hat{S} = ss \times d \times r \times P$$

식에서 ss 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d 는 관광참여자의 총 농촌관광일수, r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를 나타낸다. 핵심 파라미터인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ss 는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 참여자의 그룹당 지출을 체재일수와 방문그룹 인원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다. 농촌관광 수요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시차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사회경제, 태도, 행위변수 등뿐만 아니라 관광수요의 계절변동과 같은 동태적 변수,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와 휴가분산제 시행 여부 등과 같은 정책변수 등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 외에도 계절변동의 영향력, 향후 예측되는 정책변수의 변화 등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방문량 및 지출)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부문의 농촌관광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통한 효과적 마케팅전략의 수립

농촌관광은 특수목적관광이므로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한 수요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한 것이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을 참여 및 소비량결정 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참여결정모형을 통해 농촌관광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관광이라는 시장을 설정했을 때 시장(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설정을 통해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및 정책변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마케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소비량결정모형은 농촌관광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방문수요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량결정모형의 주요 결정요인(방문유형, 거주지역,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해 기존방문자에 대해 방문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마

케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용자원의 유형 및 이용시설과 관광소비량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농촌관광의 구체적 개발방향, 관리지침 및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 농촌관광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이용자원에 대해 그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소비자를 그룹화 하여 소비자그룹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생성되는 시장세분화를 이용하여 자원이용유형에 따른 표적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용자원유형에 따른 표적시장 개발은 전체적으로는 방문객 저변확대와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 활용과 농가소득

세계경제동향의 지속적인 변화, 농촌내부의 생산여력 한계와 대안적인 신규소득원의 제한,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휴가 분산제 및 새로운 여가행태의 출현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기능의 활용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원의 개발은 단기적인 정책과제에 머물 수 없다. 따라서 농촌관광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향후의 변화에 따라 공익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익자원에 대한 방문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대안적 소득원으로서의 공익기능 활용의 발전가능성 내지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을 통해 공익기능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당위성과 개발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활용의 주체

우선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이미 농촌관광을 통해 부분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는 농가 또는 민간단체와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을 모색하고 잠재적 공급자로서의 농가 또는 민간단체는 농촌관광자원이용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그룹의 시장세분화를 통해 그룹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다.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농촌관광이나 지역축제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인 부존자원을 선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자의 관광만족도를 높여 관광지출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다.

농어촌소득 개발, 농어촌휴양지 개발, 농어촌 정비 등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련 부서와 농업·농촌에 대한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의 관련 부서(예컨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는 농촌관광 수요를 예측하고 타 관광산업부문과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촌관광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여가시간확대의 동인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농촌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에 따른 수요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공급정책을 마련하여 농촌관광의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농촌관광 소비량(관광지출)의 주요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소득확대를 위한 시책수립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절변동에 민감한 자원이용유형과 이용가동률이 높은 자원유형을 파악하여 계절변동에 따른 관광소득진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된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이용을 통해 여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생활인은 농촌관광자원의 이용주체인 수요자조사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프로그램개발과 공공단체의 시책수립 및 관리정책에 따라 농촌관광이용자의 여가효용 증진과 농촌관광을 통한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잦은 교류를 통해 부문 간 이해가 증진되며,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The actual state of rural tourism demand

For the study of rural tourism demand, the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ny adults in six megalopolises and other provinces from April to November, 2004. A total of 1,912 complete and usable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Rural tourists were separated with two different types; 'tourist for rural experience' and 'tourists for visiting someone living in rural areas'. A majority of participants in rural tourism took a trip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relatives and obtained information on rural tourism from people nearby(40.1%) and Internet(29.8%). 73.6 percent of the participants used cars for their rural tourism trip.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lodging was parents' or brothers'/sisters' places(31.4%), followed by pension(15.0%) and friends' and relatives' places(14.5%). Three and four person parties comprise the largest percentage of rural tourism travel parties(14.5%). Over two thirds(69%)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rural tourism trips. Regarding the factors considered when participating in rural tourism, analyses reveal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ose factors is much lower than the degree of importance the respondents rated.

Rural tourism participants were segmented with 'rural tourists' and 'rural visi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visit of rural areas, and then investigated their trip spending by these segments. Average trip spending of 'rural tourists' is 239,585 won per party. They spent the most on travel expenses, followed by lodging expenses, other expenses, entertainment expenses, and shopping expenses. Average spending of 'rural visitors' is 174,080 won. Average trip spending per person per day of 'rural tourists' is 29,745 won(90.6% occurred at their primary destination and 9.4% at other places on the trip), while that of 'rural visitors' is 23,512 won(87.6% occurred at their primary destination and 12.4% at other places on the trip).

Trip spending was examined by different types of tourism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cultural/heritage tourism spend most on their trips(256,046 won), followed by nature/ecotourism(255,674 won), pleasure tourism(242,833 won), industrial/social tourism(171,619 won). Including any types of tourism participants, average trip spending is 240,310 won. Regarding trip spending per person per party, participants in cultural/heritage tourists spend most, followed by pleasure tourism, industrial/social tourism, natural/ecotourism. Average trip spending per person per party is 27,818 won(25,624 won occurred at the primary destination and 2,195 won at other places on the trip). Trip spending was examined in six expense categories. Food expenses comprise the largest percentage(30.7%), followed by travel expenses(24.1%), lodging expenses(18.0%), entertainment expenses(11.1%), other expenses(9.3%) and shopping expenses(6.8%). A majority of respondents(89.8%) ha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rural tourism in the future, and 94.4 percent of rural tourism participants showed their intention to revisit rural areas. Regarding the expected number of rural tourism participation, 'once and twice' comprise 60.4 percent and 'three times to five times' 32.5 percent.

The survey respondents profiled that 63.4 percent of respondents were raised in urban areas and 61.4 percent have families or relatives engaged in agriculture. 52.2 percent of the respondents are female and 49.8 percent are married. A large majority(69.6%) hold either college/university degree(58.6%) or advanced degree(11.0%). 36 percent of the respondents make 2,000,000–3,500,000 won in monthly household income.

Modeling rural tourism demand to estimate rural tourism vol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ural tourism demand model and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demand. The important point of the demand model in the study is separating rural tourists' participation decision and consumption decision. In terms of building demand models, two different econometric models were used focusing on consumers' decision-making. The Poisson-hurdle Model assumes that consumers'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decision were occurred differently, while the Tobit Model assumes those two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occurred simultaneously. In case of 'rural tourists',

tourists' decision on participation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were revealed as different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parate two decisions when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reveal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separate participation decision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decision in case of 'rural visitors'. Comparing two different econometric model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demand were different by 'rural tourists' and 'rural visitors'.

For the participants in rural tourism, the total number of rural tourism per person per year can be estimated by extending the cumulated data collected using the wave survey method from March to October to the end of the year. From the results of applying logistic function, the average number of rural tourism participation in 2004 is estimated as 2.77 per person and that of rural visitor is estimated as 3.59.

The total volume for rural tourism per year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ural tourism volume per person by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rural tourism per person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rural tourism trips per person of rural tourism participants by participation rate for rural tourism. The participation rate for rural tourism was estimated as 28.07 percent from the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volume for rural tourism per person in 2004 is 0.776 and the annual number of rural tourism trips is estimated as 37,334,000. The model for participation decision verified the visitation rate for rural areas as 18.26 perc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volume for rural visit per person in 2004 is 0.655 times and the total number of rural visit was estimated as 31,489,000. The total number of visit to rural area, including visits for the purpose of tourism as well as of visiting someone, was estimated as 68,823 per year nationwide.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rural tourism,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national tourism volume. The annual tourism volume per person was estimated by applying logistic function on cumulated number of domestic tourism which collected using wave survey method. The total number of domestic tourism per

person in 2004 is 5.22 and the national domestic tourism volume was estimated as 250,997,000. The ratio of rural tourism to total tourism volume is 14.9 percent.

Expenditure model for rural tourism and estimating trip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ural tourism demand model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trip spending. The determinants of trip spending was investigated by two different groups- 'rural tourists' and 'rural visitors'- segmented by the purpose of visit rural area. The truncated model, which includes samples with positive consumption only, was used for the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are rural tourism related variables, trip distance,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in different types of tourism, demographic variables, and rural tourism trip spending.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September in 2004 using the wave survey method to reduce recall bias.

The results identified five variables which positively affect rural tourism trip spending, those are: residence of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different types of tourism, monthly household income, male, and travel party of families.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umber of trip nights, number of travel party, lodging expenses, and shopping expenses increase the total spending on rural tourism trip. Otherwise, travel expenses affect negatively total spending on rural tourism trip. The results of the study verified that the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trip spending were different by 'rural tourists' and 'rural visitors'. The total of rural tourism trip spending was estimated 2,400 billion won for 'rural tourists' and 1,900 billion won for 'rural visitors,' respectively.

Segmentation of rural tourism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ural tourism market segments based on the choice attributes of rural tourist. It help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for rural tourism efficiently. To segment 'rural tourist' market, five factor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were identified and resulted five clusters: 'rural tourists for participating educational activities,' 'rural tourists for relax,' 'rural tourists for

enjoying local foods,' 'rural tourists of passive participation,' and 'rural tourists for complex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rural visitor' market was segmented with 'rural visitors with complex participation,' 'rural visitors for relax,' 'rural visitors of active participation,' 'rural visitors of passive participation,' and 'rural visitors as homecoming'.

These segments were profiled us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ural tourists' are mainly between 20 and 39 years of age, married, hold college/university degree. A majority of 'rural tourists' is resi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and have families or relatives engaged in agriculture. They have mixed tourism propensity or prefer to travel for relax.

'Non-rural tourists' are between 20 and 39 years of age, hold college/university degree, and have clerical jobs. They are likely to reside in Seoul and Gyeonggi areas, make about 200-300 million won i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mostly raised in urban areas.

Service quality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ose factors

The choice attributes for rural tourism service quality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rural tourists consider the quality of natural environmen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transportation/accessibility and other facilities(toilet etc.).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rural tourism trip for 'rural tourists' was highest in the quality of natural environment. 'Rural tourists' revealed almost same degree of satisfaction and importance in 'residents' kindness', otherwise they revealed the biggest difference in 'other facilities'. For rural tourist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natural environment,' 'travel information about a rural area' and 'lodging facilit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ir rural tourism trip.

Rural tourism and the value of multi-functionality in rural areas

The dichotomous choice CVM method was used to estimate the preserving value of rural resources as a public goods.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the model and WTP was estimated based on the coefficients

derived from the model. The preserving value of rural resources was estimated using WTP(Willinness to pa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value of rural resources as a public goods, the importance of recognition on the value of rural resources as a public goods, participation intention of rural tourism, residenc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dentified that 10 variables out of 19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have a significantly different influence on WTP for preserving value of rural resources as a public goods. The estimated WTP for preserving rural resources of 'rural tourists' is 101,002 won(minimum 99,563 won, maximum 113,441 won) per household per year, while 'rural visitors' have WTP of 110,234 won(minimum 95,993 won, maximum 124,475 won), a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n their WTP. On the other hand, the WTP of non-participants in rural tourism is estimated as 75,556 won(minimum 68,389 won, maximum 82,723 won). In conclusion, rural tourism was considered as factor that increase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rural resources as a public goods.

Analysis of rural tourism village as a tourism supplier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in 2005 from green tourism villages defin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ersonal interview was conducted to nine green tourism villages which were randomly selected by the proportion of household. Survey questionnaire includes questi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ources and type of tourism, facilities and programs of rural tourism, visitor characteristics, changes after developing rural tourism in their community, difficulty,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a major business of rural tourism villages is experiential programs, followed by lodging, and selling products. The lack of facilities, which limit the supply of rural tourism, was improved by continuous investment, however the needs for developing programs, education for management and service were emphasized nowadays.

Developing rural tourism helps to revitalize the rural community, such as 'improvement of community environment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of public

facilities,' 'increase of household incom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Overall, this study verified that developing rural tourism has more positive effects than negative effects. Compared to the study results in 2003, rural tourism in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growth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pressing question is to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 for management and service, to promote rural tourism village, and to develop a systematic device and support for reconciliation of residents. Rural tourism in Korea is an early stage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ural community will have a qualitative growth if they understand consumers' need and develop rural tourism programs suitable for their community.

CONTENTS

Ch 1. Introduction	1
1. Background of the study	1
2. Objectives of the study	4
3. Research method and process	7
Ch 2. Demand for rural tourism: findings & state	15
1. Methodological issues of surveying rural tourism demand	15
2. Actual state of rural tourism demand	24
3. Rural tourism expenditures	31
4. Expenditures of various types of domestic tourism	36
5. Tourism activities in general	40
6. Issu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42
Ch 3. Determinants of demand for rural tourism & estimation	46
1. Introduction	46
2. Theoretical basis of the model	48
3. Data and estimating the model	53
4. Estimating the volume of rural tourism	65
5. Suggestions from modeling the demand	77
Ch 4. Determinants of rural tourism expenditures & estimation	82
1. Introduction	82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	83
3. Data and model estimation	85
4. Estimating the expenditures	91
5. Suggestions from estimating the expenditure function	94
Ch 5. Market segmentation of rural tourism	95

1. Factoring the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rural tourism	95
2. Market segmentation: participants of rural tourism	97
3. Market segmentation: non-participants of rural tourism	101
4. Comparison of the segments	106
5. Service quality and rural tourism behavior	111
Ch 6. Valuing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 & rural tourism ...	116
1. Significance of valuing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116
2.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and value	117
3. CVM and benefit	118
4. Constructed market for CVM and data	120
5.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results	121
Ch 7. Enhancing rural tourism in supply prospective	128
1. Introduction	128
2. Conditions of rural tourism supply	131
3. Case study of foreign countries	143
4. Analyzing tourism supply conditions of rural villages	158
5. Revenue analysis for rural tourism suppliers	181
6. Suggestions for enhancing rural tourism	184
7. References	187
Ch 8. Research Summary	190
References	199
Appendixes	20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및 설계	7
제2장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15
제1절 농촌관광수요 조사방법	15
제2절 농촌관광 참여 실태	24
제3절 농촌관광 지출	31
제4절 관광유형별 지출	36
제5절 일반적인 관광활동	40
제6절 농업과 농촌 관련 사항	42
제3장 농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과 추정	46
제1절 서 론	46
제2절 이론 및 모형	48
제3절 자료 및 모형추정	53
제4절 농촌관광수요 추정	65
제5절 농촌관광 수요모형 개발의 시사점	77
제4장 농촌관광 지출의 결정요인과 추정	81
제1절 서 론	81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고찰	82
제3절 자료 및 모형추정	84
제4절 지출의 추정	90
제5절 농촌관광 지출수요모형 추정의 시사점	93
제5장 농촌관광 시장세분화	94
제1절 농촌관광 참여이유의 요인화	94
제2절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참여자)	96
제3절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비참여자)	100
제4절 세분시장별 차이비교	105
제5절 농촌관광 서비스품질과 관광행동	110
제6장 농촌관광과 농촌공익기능의 가치	115
제1절 공익기능 가치평가의 의의	115
제2절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	116
제3절 CVM과 편익추정	117
제4절 상품구성 및 자료	119
제5절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120
제7장 공급적 측면에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127
제1절 연구의 개요	127
제2절 선행연구에 나타난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공급요인과 여건	130
제3절 외국의 사례 연구	142
제4절 농촌관광 마을의 공급실태분석	157
제5절 농촌관광 마을의 수익분석	180
제6절 공급측면에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183

제7장 참고문헌	186
제8장 연구의 요약	189
제1절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189
제2절 농촌관광 수요모형 및 관광량 추정	190
제3절 농촌관광 지출모형 및 지출금액 추정	192
제4절 농촌관광 시장세분화	194
제5절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요인과 만족도	195
제6절 농촌관광과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196
제7절 농촌관광마을의 공급실태 분석	196
참고문헌	198
부 록	204

표 목 차

<표 2-1> 조사대상의 모집단 규정(연말시점조사)	18
<표 2-2> 표본의 지역별 분포(연말시점조사)	19
<표 2-3> 농촌관광 경험을 및 관광량	20
<표 2-4> 조사시점별 누적관광횟수 분포(예비 시차조사)	22
<표 2-5> 조사대상의 모집단 규정(시차조사)	24
<표 2-6> 표본의 조사시점(월)별 지역별 분포(시차조사)	24
<표 2-7>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25
<표 2-8> 응답자의 주 5일근무제 실시 현황	26
<표 2-9> 농촌관광 참여 여부	26
<표 2-10> 농촌관광 참여 동반자	27
<표 2-11> 농촌관광 참여자의 교통수단	27
<표 2-12>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관광형)	31
<표 2-13> 농촌관광 1인 1일당 지출(농촌관광형)	32
<표 2-14> 농촌방문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방문형)	33
<표 2-15> 농촌관광 1인 1일당 지출(농촌방문형)	33
<표 2-16>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관광+방문)	34
<표 2-17>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1인 1일당 지출(농촌관광+방문)	35
<표 2-18> 관광유형별 지출(방문그룹)	37
<표 2-19> 농촌관광 관광유형별 지출(1인1일당)	38
<표 2-20> 관광유형별 지출 구성비(%)	39
<표 2-21> 일반적인 관광활동 참여 횟수	41
<표 2-22> 최근 참여 관광유형	41
<표 2-23> 응답자의 관광성향	42
<표 2-24>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의견	42
<표 2-25> 농촌의 공익 기능 가치	43
<표 2-26> 농촌공익 기능 유지 보진을 위한 지원금 납부 의사	43
<표 2-27> 농촌공익기능 유지·보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 순위	44
<표 2-28> 농촌공익기능 유지·보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 순위 차이	44

<표 2-29> 향후 농촌관광 참여의사	45
<표 2-30> 향후 농촌관광 참여예정 횟수	45
<표 3-1> 변수 설명	54
<표 3-2> 농촌관광활동 유무별 변수의 기술통계	57
<표 3-3> 농촌관광모형 추정결과	59
<표 3-4> 농촌방문모형 추정결과	60
<표 3-5> 전체 농촌관광 참여자의 추정결과	62
<표 3-6> 연간 농촌관광량 및 농촌방문량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67
<표 3-7> 농촌방문자의 월별 누적 농촌방문량 및 추정치	71
<표 3-8> 연간 국내관광량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75
<표 3-9> 농촌관광수요의 시장규모	77
<표 4-1> 변수설명	85
<표 4-2>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86
<표 4-3> 농촌관광활동 지출 추정 결과	89
<표 4-4> 농촌관광 총 지출액 추정	92
<표 4-5> 총 지출의 공간분포	92
<표 5-1> 농촌관광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95
<표 5-2>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선택속성 요인의 차이분석	95
<표 5-3> 농촌관광 참여자의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97
<표 5-4> 농촌관광 참여자의 선택속성을 통한 군집간의 분산분석	98
<표 5-5> 농촌관광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군집간 차이분석	99
<표 5-6> 농촌관광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군집간 비교분석	100
<표 5-7>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101
<표 5-8>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선택속성과 편익세분화를 통한 군집간의 분산분석	102
<표 5-9>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군집간 차이분석	104
<표 5-10>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군집간 비교분석	105
<표 5-11> 농촌관광 참여/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 요인화와 군집 차이	106
<표 5-12> 세분시장에 따른 농촌관광 참여/비참여자간 변수들의 차이비교	109
<표 5-13> 농촌관광 선택속성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결과(농촌관광형)	110
<표 5-14> 농촌관광 선택속성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결과(농촌방문형)	112
<표 5-15>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기술통계	113

<표 5-16> 농촌관광 선택속성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농촌관광형)	114
<표 5-17> 농촌관광 선택속성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농촌방문형)	114
<표 6-1> 변수 설명	121
<표 6-2> 농촌관광 참여유무에 따른 변수의 기술통계	122
<표 6-3> 양분선택형 CVM에 의한 보전가치 추정모형 결과	125
<표 6-4> 농촌공익 기능 차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액	126
<표 7-1> 각 부처 마을단위 관광사업 추진현황(2005)	127
<표 7-2> 관광여행 활동형태	137
<표 7-3> 농촌관광의 수요 및 시장규모 예측	138
<표 7-4> 도시민의 농촌 여행패턴과 불편사항	139
<표 7-5> 농촌관광 사업 추진시 우선사항	140
<표 7-6> 농촌 관광자원의 기능별 중요도	140
<표 7-7> 농촌 관광자원의 기능별 중요한 자원요소	141
<표 7-8> 유럽 농촌관광시장의 단계별 특징	143
<표 7-9> 농촌관광의 등장 배경 및 주요 목적	144
<표 7-10> 선진국 농촌관광의 주요 행정지원	146
<표 7-11> 농촌관광 프로그램	148
<표 7-12>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조직과 사업내용	149
<표 7-13>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유형 구분	150
<표 7-14> DLG의 품질보증 대상 민박과 평가 항목	151
<표 7-15>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152
<표 7-16>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53
<표 7-17> 농촌관광의 특징과 국내적용의 시사점	155
<표 7-18> 조사마을의 농촌 관광사업 형태 및 참여 년도와 농가수	157
<표 7-19> 조사마을의 마을 개요	158
<표 7-20>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159
<표 7-21> 응답자의 직업과 학력	159
<표 7-22> 응답자의 소득수준	160
<표 7-23> 농촌관광 운영사업	161
<표 7-24> 농촌관광 사업 마을의 장점	161
<표 7-25> 농촌관광의 주력 사업분야	162

<표 7-26> 농촌관광 사업의 관심 계기	162
<표 7-27> 농촌관광마을의 전체 시설유무	164
<표 7-28> 농촌관광마을의 시설 보유현황	165
<표 7-29> 농촌관광마을의 숙박시설 현황	166
<표 7-30> 농촌관광 마을의 프로그램 내용	168
<표 7-31>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유형	169
<표 7-32> 농촌관광마을의 계절별 방문객 분포	169
<표 7-33>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방문목적	170
<표 7-34>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연령	170
<표 7-35>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체제 기간	171
<표 7-36>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지역적 분포(i)	171
<표 7-37> 농가 방문객의 지역적 분포(ii)	172
<표 7-38> 주변농가와 공동수행 프로그램	173
<표 7-39> 농촌관광마을의 재료 구입처	174
<표 7-40> 농촌관광 사업 농가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	175
<표 7-41> 농촌관광 사업 실시 후의 변화	176
<표 7-42> 농촌관광 사업에 대한 만족도	176
<표 7-43> 농촌관광마을의 홍보방법	177
<표 7-44> 관광 사업의 애로사항	178
<표 7-45>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시설 및 환경)	178
<표 7-46>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인적자원)	179
<표 7-47>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홍보 및 판매)	179
<표 7-48> 방문객수와 재방문 비율 및 1인당 평균 지출액(i)	180
<표 7-49> 방문객수와 재방문 비율 및 1인당 평균 지출액(ii)	181
<표 7-50> 농촌관광마을의 총 수입과 비중	182
<표 7-51> 농가 총수입의 계절별 분포	18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10
<그림 2-1> 농촌관광 경험율 및 방문량	20
<그림 2-2> 참여자 및 전체 평균 농촌관광량(1인당)	21
<그림 2-1>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원천(농촌관광형 참여자)	28
<그림 2-2> 농촌관광 숙박형태(농촌관광형 참여자)	28
<그림 2-3> 농촌관광 방문그룹의 구성인원 구분(농촌관광형 참여자)	29
<그림 2-4> 농촌관광 방문그룹의 인적 구성(농촌관광형 참여자)	30
<그림 2-5> 농촌관광 만족도(농촌관광형 참여자)	30
<그림 2-6> 농촌관광 지출 구성비(농촌관광형)	32
<그림 2-7> 농촌방문 지출 구성비(농촌방문형)	34
<그림 2-8> 농촌관광 지출 구성비(농촌관광+방문)	35
<그림 2-9> 관광유형별 지출 공간분포	39
<그림 3-1>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농촌방문량	67
<그림 3-2> 농촌관광 참여자의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추정치	68
<그림 3-3> 농촌방문자의 월별 누적 농촌방문량 및 추정치	68
<그림 3-4> 월별/관광유형별 관광참여율	73
<그림 3-5> 관광유형별 관광횟수(참여자)	73
<그림 3-6> 관광유형별 관광횟수(전체)	74
<그림 3-7> 월별 누적 국내관광량 및 추정치	7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농업은 식량공급의 전초기지라는 전통적 역할에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국토보존, 수자원함양, 생태계보존, 자연경관제공, 그리고 전통문화보존등과 관련된 기능이다. 즉, 농업·농촌은 식량생산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와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비농업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소득이전을 의미하는 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보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때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가치는 비사용을 전제로 한 보존가치(또는 비 사용가치)를 의미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존재 그 자체로서, 또는 미래의 선택적 이용을 위해, 그리고 후세를 위한 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의미로서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그 이용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농업·농촌은 생태학습의 장으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그리고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의 체험 장소로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체험형 및 가족형 여가행태에 대한 관심고조와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주5일 수업제, 휴가분산제 및 완전노령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그 활용을 통해 이용자에게는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급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 공익기능의 비 사용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소득이전인 직접지불제가 소극적 의미로서의 소득원이라고 한다면 공익기능의 활용을 통한 사용가치의 증진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소득원 창출로 볼 수 있다. 농업·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활용은 소비자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이를 구체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곧 농촌관광이다. 녹색관광으로도 표현되는 농촌관광은 훼손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전통가치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이를 찾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통해 안정된 소득원을 구축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고유의 관광자원을 보존 또는 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동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공익기능의 선 순환적 활용을 일컫는다.

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시장외적 접근이라고 보면, 농촌관광은 그 기능에 대한 시장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은 곧 공익적 기능자원의 구체적 활용을 통한 도·농간 교류를 의미하며, 농촌관광은 농촌이라는 공간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여가효용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귀결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야만 성립될 수 있는 관광서비스의 동시 완결형 특성으로 인해 농촌관광은 도·농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여가효용과 소득효용의 교환을 통해서 도·농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타 산업분야를 추월하고 있는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촌관광은 이제 단순히 농외소득증대라는 특수한 정책목표를 벗어난 지 오래다. 여가시간의 확대와 접근성의 제고 등으로 인해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들 또한 제거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양한 차원(민간기업, 공공단체, 지방정부)에서 조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등 농촌관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참여자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관광시장 속에서 농촌관광 부분은 이미 타 관광산업분야와 경쟁관계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관광상품개발 및 프로그램개발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농촌관광 시장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공급체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관광으로 회자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제까지 농촌관광은 주로 관광농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광농원이 개인의 관광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결과 지역의 농업 및 지역개발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농촌경제연구원, 2000).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 특화된 관광상품의 부재, 광고홍보의 부재 등도 문제점의 일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익기능 활용방안의 전제조건인 소비자 수요 조사

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익기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농촌관광 수요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공익기능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각 유형별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을 이용의 주체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수요조사를 시도하고,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농촌관광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공급자인 농업·농촌이 숙지해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이제까지 별로 없으며, 특히 농촌관광을 공익기능의 활용 또는 이용가치의 증진이라는 차원과 연계하여 구성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농촌관광을 주제로 쓰여진 연구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국지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농업의 경영 또는 개발측면에서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거나(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1998; 농·산·촌 수변공간의 관광자원 개발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8; 농촌마을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농림부, 1998), 농업내부의 갈등구조 해소라는 차원(농촌인구 과소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농촌경제연구원, 1998), 또는 동일 산업 내 구성간의 연계적 발전방안(관광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0), 그리고 농촌관광의 발전방향을 제도개선 및 홍보전략의 필요성(농촌관광: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2)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농촌관광은 발전단계에 따라 시장형성기, 양적 성장기, 질적 발전기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형성된 시기 면에서 볼 때 시장형성기로 볼 수 있으나 초기단계에서 농촌관광수요의 사회적 제약들이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타 산업부문의 발전과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양적 및 질적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혼재된 상황에 있다. 따라서 EU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농촌관광 발전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휴가분산제, 완전노령연금제 등의 사회정책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형, 가족형, 연중 다발형 관광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역시 질적 발전기 단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관광의 질적 발전기에는 농촌관광 공급자간의 네트워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촌관광은 타 관광산업과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일부 경험하고 있듯이 농촌관광 내부에서도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개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공공부문 역시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관광의 공급자와 공공부문은 이러한 전략 및 시책들에 필요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공급체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질 것이다.

농촌관광의 이용실태와 이용자원의 유형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그리고 수요분석모형 추정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산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농촌관광 공급자는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품질관리와 프로그램개발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약했던 요인들의 완화와 함께 대안관광으로서의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 다양한 공급참여자그룹이 조직화되어 상품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공공부문 역시 농촌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생산소득의 창출이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만족이라는 효용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서 공급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원을 구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이 공익기능자원 활용의 구체적 발현이라는 인식 하에 농촌관광 공급자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관광의 수요시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촌관광 시장에 대한 수요실태 조사·분석
- 둘째, 농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및 수요량 추정
- 셋째,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 넷째, 농촌관광 자원이용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2. 연구개발 내용

가. 농촌관광 수요 및 지출추정을 위한 시차설문조사법 개발

잠재방문자의 신규참여 및 기존방문자의 방문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에는 (잠재)방문자의 인구통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및 행위변수들이 포함되나,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변화, 농촌관광수요의 계절변동 등과 같은 동태적 변수들도 포함되어야 할 주요 결정요인들이다. 이러한 동태적 변수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1년)에 걸쳐 설문조사시기를 다양화한 후 각 시기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이른바 시차설문조사법(wave survey method)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시차설문조사방법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 및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므로 회상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계절변동 및 주5일 근무제수용도에 따른 농촌관광 참여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의표본추출이므로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농촌관광참여율 추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타 관광활동과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나.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분석

농촌관광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내용 중 테이블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들로서,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관광활동패턴, 주요 여가형태, 관광유형별 평균 관광지출 및 지출의 항목별 구성 등이며,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농촌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선호하는 자원이용의 형태, 농촌관광지출 및 지출의 항목별 구성, 방문자 유형, 농촌관광 참여도, 관광정보습득의 주요 원천 및 기타 주요사항을 파악한다.

다. 농촌관광 방문횟수 추정

일인 당 총 농촌관광 방문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차조사를 통해 조사된 농촌관광의 누적방문량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형태(예컨대,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관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여 농촌관광수요와 비교함으로써 전체 관광활동 내에서 농촌관광의 위치를 파악한다.

라. 농촌관광 자원이용 중심형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의 활용, 즉 수요자 측면에서 부존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농촌관광의 유형화와 방문자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수행한다. 세분시장별 응답자의 특성을 구분함으로써 시장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한다.

마. 시장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 모형에 따른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농촌관광시장에 신규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기존 방문자에 대한 소비량(방문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관광수요에 있어서 참여결정과 소비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려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통해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관광의 신규수요창출 및 기존방문자의 방문을 제고 위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바.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 개발

시차설문조사법은 수요예측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통계, 태도, 행위 등과 관련된 변수들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정책의 변화 및 계절변동 등과 같은 동태적 변수의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설정된 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참여결정 및 방문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같은 모형을 통해 농촌관광 참여율과 농촌관광량을 추정한다. 농촌관광 지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농촌관광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한다. 추정된 관광량과 참여율, 그리고 지출을 이용하여 총 농촌관광량 및 총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한다.

사. 농촌관광 수요공급 관련 문헌 연구 및 주요국가의 농촌관광시장 사례분석

기존의 농촌관광 관련연구를 수요 및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례분석을 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발전 양상에 따른 농촌관광의 진화를 규명하고 농촌관광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시사점으로 개진한다. 주요 국가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 등의 농촌관광 현황에 대해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의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등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설계

1. 조사방법 개발

관광수요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대안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단위 당 관광량과 관광지출이다. 특정 관광유형의 방문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말시점에서 해당연도의 관광수요량을 질문하는 연말시점조사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연말시점조사는 조사관리의 편의성도 있지만 관광량 등의 회상에 있어 회상오차가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말시점조사방법은 지출유형별로 복잡하며,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지출 등과 같은 변수의 파악에 있어서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출에 있어서는 회상오차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수요자가 참여한 관광활동과 관련해서 프로그램구성 및 만족도, 주요 이용 자원유형 및 이용시설의 종류, 활동내용 등 다양한 질문으로 조사 설문서가 구성되어야 할 경우 질문의 복잡성과 다양함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의 회상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사방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관광활동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계절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 5일 근무제 및 휴가분산제 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변화가 농촌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사상의 이러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제안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시차설문조사법인데, 이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조사시점에서 주어진 표본에 대해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달 초를 기준으로 전월의 관광지출을 포함한 농촌관광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차조사를 통해서 지출의 추정은 효과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관광량의 추정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의 시차별 누적관광량 포인트만 확보되면 연말기준의 관광량추정도 가능

하다. 주어진 시점에서 조사표본의 농촌관광 참여횟수는 시차조사의 횟수가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누적분포를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포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한 함수를 적용하여 농촌관광 방문량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차조사에 의한 관광량 추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연말시점 단일조사가 갖는 일부 장점(관광수요량, 관광참여율의 추정)을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또한 연말시점 단일조사(end-of-season survey)를 실시하였다. 연말조사는 2004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과 6개 광역시, 그리고 각도의 주요 중소 도시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일년 동안의 관광활동에 관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유형별 관광횟수와 지출 등에 적지 않은 회상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 자료는 시차조사자료에 대한 준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관광 유형구분과 소비자 시장세분화

자원이용 중심형 농촌관광의 유형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요인분석의 적용이다. 소비자의 농촌방문 유형을, 예컨대 농특산물, 지역문화재, 지역명소, 축제, 전통, 토속음식, 관광농원·민박, 풍습, 농업프로그램 등으로 나누고 또한, 관련될 수 있는 관광활동을 예컨대 유명 경치관람, 농산물축제 구경, 농산물수확 체험, 명승지 관람, 전통음식 체험, 산림휴양지 방문, 바다관광 및 수산물채취, 민속공예품 전시관람 및 제작체험, 전통문화 체험, 농가민박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방문자의 방문유형 및 접근도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면 이들 변수간의 유사성 조합에 의해 몇 개의 가상적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다.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추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농촌관광을 유형화하며, 요인별 인자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주요 농촌관광유형을 규명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특성을 반영한 몇 개의 소비자 집단을 추출하며, 이들 소비자 집단에 대해 관광지출의 규모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시장세분화를 도출한다.

3. 농촌관광수요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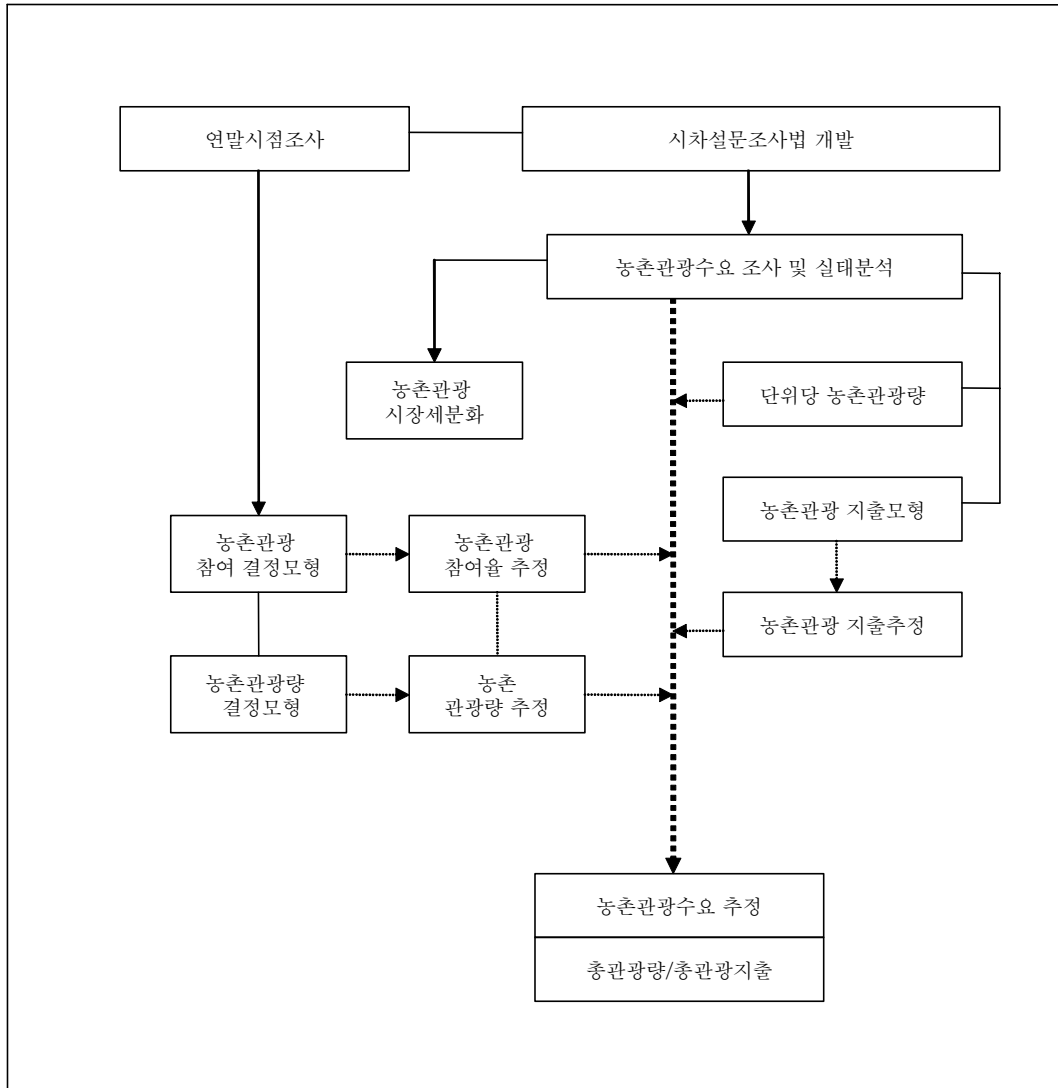
개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관광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접하는 어려움은 임의추출된 표본 중 많은 수의 관측치가 연구대상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해당 관광유형에 대한 방문횟수가 “0”으로 관찰되는 경우이다. 이 때의 소비자행동은 참여유무에 대한 결정 및 기존 참여자의 방문량에 대한 결정 등 두개의 결정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관광활동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수요모형을 설정할 경우 참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적절치 않은 통계적 절차가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표본선택모형은 참여결정을 포함하는 관광수요모형의 설정과 이러한 모형추정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표본선택모형 중 Double-hurdle 모형에서의 기본가정은 正의 소비를 관찰하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주어진 재화에 대해 잠재수요자가 될 것, 해당 재화를 실제로 소비해야 할 것 등 두 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이 모형은 관련재화에 대한 수요를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소비량결정과 참여결정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일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관광수요가 지출이 아닌 방문횟수로 표현될 경우(본 연구에서와 같이) 수요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조건은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s: 1, 2, 3,..)인 가산자료(count data)의 특성을 갖는 종속변수(방문횟수)를 내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오차항이 연속확률분포의 하나인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선형회귀분석을 離散종속변수인 가산자료에 적용할 경우 편의추정치 문제를 피할 수 없다(Hellerstein & Mendelsohn, 1993). 또한 선형회귀모형이 예측에 적용되었을 때 음의 방문량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변수의 증감에 따라 예측된 방문량이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출과 같이 등간척도로 표현되는 변수에 보다 적합한 double-hurdle 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은 관광소비량 결정과정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소비량결정모형과 관련하여 방문횟수로 나타내어지는 관광수요와 공변량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Poisson모형의 적용이다. Poisson모형은 종속변수가 비음정수로 표현되는 가산자료의 추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이다. 방문횟수로 표현되는 관광수요 역시 가산자료의 특성을 가지므로 여러 형태의 Poisson모형이 이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관광수요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소비자행동(즉, 참여유무에 대한 결정 및 기존 참여자의 방문량에 대한 결정)을 모형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참여결정을 위한 二項확률모형과 正의 방문량을 위한 조건부 확률모형을 결합하는 Poisson hurdle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Mullahy, 1986; Yen & Adamowicz, 1994). Poisson hurdle 모형은 Tobit 모형을 일반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double-hurdle 모형을 가산자료에 맞추어 변형시킨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자료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모형설정을 가능케 해준다.

4. 연구개발 추진체계



주: —————> 자료의 흐름,> 추정치의 흐름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5. 기대효과

가. 방문량 비교를 통한 농촌관광의 위상 파악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으로서 주요 여가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는 있지만 과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시차설문조사법은 각 시점에서 조사된 단위 당 방문횟수의 평균치(Q)가 조사시차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누적분포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절한 함수의 적용을 통하여 관광유형별 방문량의 추정을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전체 국민관광 내에서 농촌관광 수요시장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 정책비중과 함께 농촌관광개발의 당위성을 식별할 수 있다.

나. 농촌관광 수요예측 모듈의 개발

수요예측모형은 참여결정 및 소비량(농촌관광량)결정 모형으로 구분되며, 두 모형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총 농촌관광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일인당 농촌관광량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총 농촌관광량(TQ)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widehat{TQ} = q \times r \times P$$

식에서 q 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 r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를 의미한다. 일인당 농촌관광량, q 는 수요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되며, 농촌관광 참여율, r 은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다.

한편, 농촌관광의 총 지출규모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총 관광일수에 1인 1일당 지출액을 곱함으로써 구해진다. 총 농촌관광일수는 국내 인구수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농촌관광 참여자 수)에 다시 참여자 1인당 총 관광일수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관광목적 참여자의 농촌관광 총 지출규모, \widehat{S} 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widehat{S} = ss \times d \times r \times P$$

식에서 ss 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d 는 관광참여자의 총 농촌관광일수, r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를 나타낸다. 핵심 파라미터인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ss 는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 참여자의 그룹당 지출을 체제일수와 방문그룹 인원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다. 농촌관광 수요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시차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사회경제, 태도, 행위변수 등뿐만 아니라 관광수요의 계절변동과 같은 동태적 변수,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와 휴가분산제 시행 여부 등과 같은 정책변수 등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 외에도 계절변동의 영향력, 향후 예측되는 정책변수의 변화 등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방문량 및 지출)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부문의 농촌관광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통한 효과적 마케팅전략의 수립

농촌관광은 특수목적관광이므로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한 수요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한 것이 농촌관광 수요예측모형을 참여 및 소비량결정 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참여결정모형을 통해 농촌관광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관광이라는 시장을 설정했을 때 시장(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설정을 통해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및 정책변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마케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소비량결정모형은 농촌관광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방문수요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량결정모형의 주요 결정요인(방문유형, 거주지역,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해 기존방문자에 대해 방문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마케팅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용자원의 유형 및 이용시설과 관광소비량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농촌관광의 구체적 개발방향, 관리지침 및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 농촌관광 유형구분 및 소비자 시장세분화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이용자원에 대해 그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소비자를 그룹화 하여 소비자그룹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생성되는 시장세분화를 이용하여 자원이용유형에 따른 표적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용자원유형에 따른 표적시장(Target Market) 개발은 전체적으로는 방문객 저변확대와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 활용과 농가소득

세계경제동향의 지속적인 변화, 농촌내부의 생산여력 한계와 대안적인 신규소득원의 제한,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휴가 분산제 및 새로운 여가행태의 출현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기능의 활용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원의 개발은 단기적인 정책과제에 머물 수 없다. 따라서 농촌관광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향후의 변화에 따라 공익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익자원에 대한 방문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대안적 소득원으로서의 공익기능 활용의 발전가능성 내지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을 통해 공익기능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당위성과 개발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활용방안

우선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이미 농촌관광을 통해 부분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는 농가 또는 민간단체와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을 모색하고 잠재적 공급자로서의 농가 또는 민간단체는 농촌관광자원이용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그룹의 시장세분화를 통해 그룹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다.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농촌관광이나 지역축제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인 부존자원을 선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자의 관광만족도를 높여 관광지출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다.

농어촌소득 개발, 농어촌휴양지 개발, 농어촌 정비 등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련 부서와 농업·농촌에 대한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의 관련 부서(예컨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는 농촌관광 수요를 예측하고 타 관광산업부문과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촌관광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여가시간확대의 동인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농촌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에 따른 수요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공급정책을 마련하여 농촌관광의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농촌관광 소비량(관광지출)의 주요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소득확대를 위한 시책수립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절변동에 민감한 자원이용유형과 이용가동률이 높은 자원유형을 파악하여 계절변동에 따른 관광소득진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된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이용을 통해 여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생활인은 농촌관광자원의 이용주체인 수요자조사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프로그램개발과 공공단체의 시책수립 및 관리정책에 따라 농촌관광이용자의 여가효용 증진과 농촌관광을 통한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잦은 교류를 통해 부문 간 이해가 증진되며,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제1절 농촌관광수요 조사방법

1. 농촌관광: 정의와 범위

농촌관광의 정의와 개념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 시대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부(2005)에 따르면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산업(2차), 숙박 음식물 서비스(3차)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 활성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1994)에 따르면 농촌관광은 시골, 지방에서 발생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농촌관광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낙후된 농업과 농촌의 개발에서 시작되어 국토와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발전되어왔다(이호철, 2000). 그리고 지속적 교통망 확충과 사회적 제도변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전반적인 관광산업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농촌관광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의 새로운 역할론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국토보전, 수자원함양, 생태계보전, 자연경관, 그리고 전통문화보전 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의미함)의 제공이 비농업부문으로부터의 소득이전(즉, 직접지불)에 대한 명분을 얻으면서 농촌내부의 부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은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내부의 공익기능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란 곧 이용가치의 증진을 의미하며 이용의 주체는 공익기능자원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은 농촌 공익기능자원과 연계하여 정의되어야 마땅하다.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녹색관광으로도 표현되는 농촌관광은 훼손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전통가치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이를 찾는 소비자에게 여가효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통해 대안적인 소득원을 구축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고유의 관광자원을 보전 또는 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동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善循環的 활용을 일컫는다. 농촌관광은 이들 공익기능자원의 구체적 활용을 통한 도·농간 교류 및 이해증진의 계기를 의미하며, 수요자의 여가효용과 공급자의 소득효용의 교환을 통한 도·농간 경제적 불균형의 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촌관광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및 농촌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Roberts & Hall, 2001).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이 농촌내부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공익기능의 유형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범위는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및 농촌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거주자와의 인적 교류 및 행사참여를 포함한다. 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 외에도 지역사회 유지 및 전통문화 보전 등과 같은 인문적 기능이 포함되며, 농촌지역 거주자와의 교류 또는 행사목적으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그룹은 이러한 인문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과 고향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간에는 동기의 차이만큼이나 관광수요의 결정요인 또는 관광행동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광목적과 (단순)방문목적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관광 및 방문 목적을 포함하는 활동을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기는 했으나 논의의 초점은 주로 관광목적의 농촌방문에 주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상의 두 유형을 농촌관광과 농촌방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두 가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할 때는 광의의 농촌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2. 연말시점조사와 시차조사 방법

농촌관광 수요 및 지출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연말시점조사(end-of-season survey)이고 나머지는 연중에 이루어진 시차조사(wave survey 또는 in-season survey)이다. 두 조사방법은 농촌관광 수요량과 지출을 추정함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회상오차가 개입할 여지가 비교적 적은 관광소비량 추정의 경우 연말을 기준으로 응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말시점조사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연

말시점조사는 수요모형을 위한 시간단위로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총 관광량 및 여기에 미치는 결정요인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수요모형 추정을 위한 자료의 제공에 있어 효과적이다. 하지만 주어진 연도의 관광지출 추정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말시점조사는 지출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거에 발생한 지출을 회상하는데 있어 오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차조사는 연중 매월 초를 기준으로 전월의 관광행동 및 지출을 회상하여 응답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출 또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행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차조사에서는 충분한 시차가 확보된다면 시차(월)에 따른 (월별)관광량의 변화를 통해 연말시점에서의 관광량을 예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차조사를 통해 해당연도의 특정 관광유형의 참여율을 구하는 것과 관광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가정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두 조사방법이 갖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 농촌관광 참여율, 농촌관광횟수, 농촌관광일수 등 관광수요와 관련된 변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연말시점조사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관광지출의 결정요인 및 지출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시차조사방법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농촌관광횟수의 경우 시차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이 조사방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총 농촌관광량의 추정은 총 인구수와 농촌관광참여율, 그리고 1인당 농촌관광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총 농촌관광지출의 추정은 총 인구수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1인당 농촌관광지출(또는 1인 1일당 지출액 및 농촌관광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총 농촌관광량과 총 지출은 연말시점조사 및 시차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동시에 결합되어 추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농촌관광소비량 및 농촌관광지출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회상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차조사에 의한 정보가 연말시점조사에 비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장에서 기술한 농촌관광수요 및 관광행동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의 파악은 시차조사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였다. 연말시점조사로부터 수집된 정보 중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은 농촌관광 참여율, 농촌관광횟수, 숙박일수, 그리고 체재일수 등 농촌관광량에 관련된 것들이다.

3. 연말시점조사 개요와 농촌관광량

연말시점조사는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 및 농촌관광량(관광횟수, 숙박일수, 체재일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말시점조사는 시차조사에 앞서 실시되었으므로 시차조사 설문항목 및 내용개발, 시차조사 관리체계 확립, 시차조사결과에 대한 준거자료 제공 등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 6개 광역시, 기타 주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이다. 조사시점은 2004년 1월~3월이며, 조사대상 기간과 주요 조사내용은 200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농촌관광활동에 관한 것이다<표 2-1>.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한 층화추출표본에 대하여 무작위 조사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과대 혹은 과소 표집 되기도 했다. 할당된 층화별 표본 수에 맞추어 가구 또는 공공장소 방문 등을 통해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30개의 유효표본을 수집하였다<표 2-2>.

설문서는 크게 지난 1년 동안의 농촌관광 활동과 관련된 질문, 농촌관광 지출에 관한 질문, 타 관광 방문수요와 관련된 질문,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인식 및 가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농촌관광수요와 관련하여 농촌관광의 범위를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농촌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와의 인적 교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 예를 제시한 후 농촌관광활동 참여유무 및 (참여했을 경우) 계절별 방문횟수에 대하여 물었다.

<표 2-1> 조사대상의 모집단 규정(연말시점조사)

항목	세부 사항
조사내용	2003년도의 농촌관광활동
조사대상 및 범위	서울·수도권지역 및 6대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기타 주요 중소도시거주 일반가구
조사기간	2004년 1월~3월
조사방법	지역별 가구 수 비례 층화추출표본에 대한 무작위 면담조사
총 유효표본수	1,030개

<표 2-2> 표본의 지역별 분포(연말시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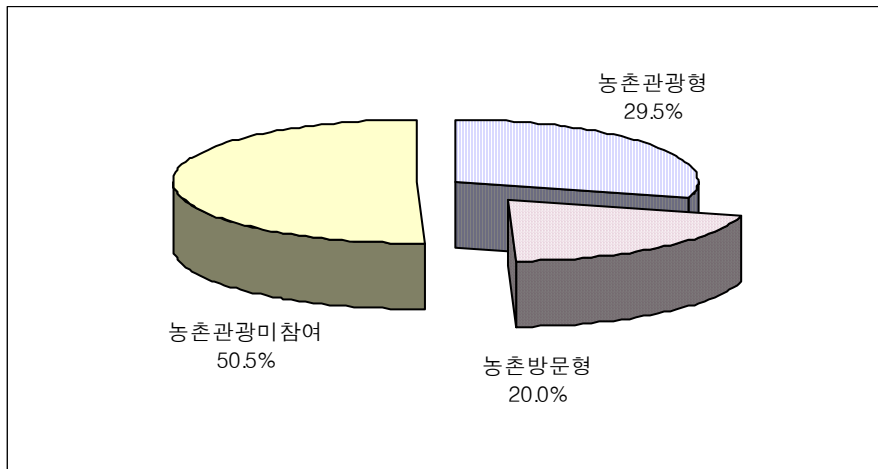
지역 구분	표본수	구성비
서울	311	30.2%
경기	134	13.0%
부산	83	8.1%
인천	56	5.4%
대구	77	7.5%
대전	58	5.6%
광주	37	3.6%
울산	25	2.4%
중소도시	249	24.2%
합계	1,030	100.0%

관광량과 관련하여 결측치가 없는 총 976개의 표본 중 지난 2003년 동안 농촌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표본의 수는 483명으로서 49.5%를 점하였다<표 2-3>. 농촌관광 유경험자 중 288명(29.5%)은 체험이 주목적인 농촌관광에, 그리고 195명(20.0%)은 인적 교류가 주목적인 농촌방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유경험자의 일인당 농촌관광횟수는 3.00회이며, 농촌방문형(3.40회)이 농촌관광형(2.73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인당 농촌관광 숙박일수는 평균 3.88일이며 역시 방문형(4.92일)이 관광형(3.17일)에 비해 높다. 따라서 농촌관광 유경험자의 농촌관광횟수와 숙박일수를 합한 참가일수는 일인당 6.87일이며, 방문형과 관광형이 각각 8.32일, 5.90일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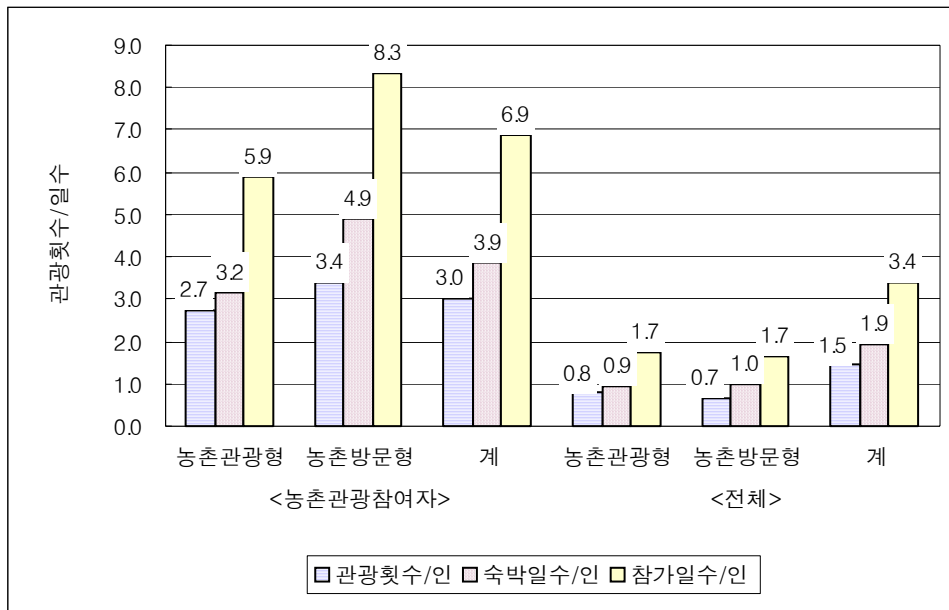
한편, 전체 표본에 대한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일인당 농촌관광 참여횟수는 1.48회, 숙박일수는 1.92일, 그리고 참가일수는 3.40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다시 농촌관광형과 농촌방문형으로 분해하였다. 농촌관광형의 일인당 농촌관광횟수는 0.81회, 숙박일수는 0.94일, 참가일수는 1.74일로 나타났다. 농촌방문형의 일인당 농촌방문횟수는 0.68회, 숙박일수는 0.98일, 그리고 참가일수는 1.66일로 계산되었다. 참가자의 경우 농촌방문형의 농촌방문활동이 관광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에 있어서는 숙박일수를 제외하고는 농촌관광형의 관광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농촌관광형의 관광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다시 정리하였다.

<표 2-3> 농촌관광 경험을 및 관광량

		참여율(%)	관광횟수/인	숙박일수/인	참가일수/인
농촌 관광 참여	농촌관광형	288(29.5%)	2.73	3.17	5.90
	농촌방문형	195(20.0%)	3.40	4.92	8.32
	계	483(49.5%)	3.00	3.88	6.87
농촌관광 미참여		493(50.5%)	-	-	-
전체	농촌관광형	-	0.81	0.94	1.74
	농촌방문형	-	0.68	0.98	1.66
	계	976(100%)	1.48	1.92	3.40



<그림 2-1> 농촌관광 경험을 및 방문량



<그림 2-2> 참여자 및 전체 평균 농촌관광량(1인당)

4. 시차조사 개요

가. 예비 시차조사

시차설문조사방법의 개발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4회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서울 및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총 971개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 조사는 2004년 4월부터 예정된 본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설문조사 항목의 내용구성과 구체적인 조사관리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본 예비조사의 목적이다. 유효표본수(928개)를 기준으로 시차에 따라 각각 329, 344, 136, 119개의 표본이 수집되었다. 주어진 시점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농촌관광을 포함하여 관광유형별로 누적관광량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 2-4>는 응답자가 기술한 총 누적관광횟수를 시차별로 나타낸 것이다.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내용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질문, 최근의 관광에서 사용된 지출유형별 금액과 관련된 질문, 농업농촌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응답자 인구특성 관련 질문 등으로 구분된다. 본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의 설문항목을 구체화시켰으며, 조사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표 2-4> 조사시점별 누적관광횟수 분포(예비 시차조사)

누적 관광량	8월		9월		10월		11월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32	(9.7)	67	(19.5)	32	(23.5)	0	(0.0)	131	(14.1)
1	58	(17.6)	68	(19.8)	19	(14.0)	15	(12.6)	160	(17.2)
2	87	(26.4)	82	(23.8)	21	(15.4)	7	(5.9)	197	(21.2)
3	73	(22.2)	53	(15.4)	27	(19.9)	24	(20.2)	177	(19.1)
4	23	(7.0)	31	(9.0)	9	(6.6)	29	(24.4)	92	(9.9)
5	21	(6.4)	18	(5.2)	12	(8.8)	15	(12.6)	66	(7.1)
6 이상	35	(10.6)	25	(7.3)	16	(11.8)	29	(24.4)	105	(11.3)
계	329	(100.0)	344	(100.0)	136	(100.0)	119	(100.0)	928	(100.0)

주요 시사점은 주어진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한 관광 중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경우 응답자는 다소 기간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최근의 관광이 아닌 보다 대표적인 관광활동(여행기간, 지출규모, 방문유형 등의 관점에서)에 대해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농촌관광이 주요 대안관광의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수요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기존의 주요 관광유형에 비해서는 아직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관광유형의 하나로 보고 타 관광활동(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사회, 위락관광 등)과 동시에 질문하였을 경우 농촌관광활동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관광수요분석을 위한 설문포맷을 위해서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분리 제시하여 응답을 구한 후 일반 관광활동과의 대체 및 보완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차조사는 주어진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관광활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므로 응답자의 회상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 중 하나이며 특히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지출항목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시차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비조사는 이러한 시차조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4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말시점 단일조사에 비해 결측치가 감소하였으며, 시차간 평균지출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예비조사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지출과 관련된 응답자의 회상오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시차조사는 기억력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관광활동 내용 및 유형별 관광지출 조사를 위한 유용한 출구임에는 틀림없으나 연간 총 관광수요량(관광횟수, 숙박일수, 관광일수 등)의 추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시차조사 역시 일정기간 동안 수집된 시차별 누적 관광량자료와 그 패턴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모형설정을 통해 연말 시점에서의 총 관광량을 추정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Lee, 1999). 특히 조사기간을 장기화하고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조사비용이 다소 과다할 수는 있지만 시차조사는 지출 및 관광량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최선의 조사방법일 수 있다.

나. 시차조사 개요

농촌관광 지출수요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촌관광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본 조사의 성격을 갖는 시차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에 대한 모집단을 규정하였다<표 2-5>.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 6개 광역시, 기타 주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이다. 조사시점은 2004년 4월~11월이며, 조사대상 기간과 주요 조사내용은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발생한 농촌관광활동에 관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한 층화추출표본에 대하여 무작위 조사로 수행되었다. 할당된 조사지역 층화별 표본 수에 맞추어 매달 초에 가구 또는 공공장소 방문 등을 통해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월 한 달간의 조사내용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총 1,912개의 유효표본을 수집하였다. 표집된 유효표본의 조사시점(월)별 조사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2-6>과 같다.

설문서는 크게 지난 한 달 동안의 농촌관광 활동과 관련된 질문(참여이유 및 동기 포함), 농촌관광 지출에 관한 질문, 타 관광수요 및 관광지출에 관련된 질문,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인식 및 가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농촌관광수요와 관련하여 농촌관광의 범위를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 농촌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와의 인적 교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 예를 제시한 후 농촌관광활동 참여유무 및 (참여했을 경우) 구체적 관광활동에 대하여 물었다. 누적 농촌관광량 및 다른 관광유형의 누적관광량을 응답하는 월의 말을 기준으로 명기하도록 하였다.

<표 2-5> 조사대상의 모집단 규정(시차조사)

항목	세부 사항
조사내용	2004년도 3월~10월 동안의 월별 농촌관광활동 및 누적관광량
조사대상 및 범위	서울·수도권지역 및 6대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기타 주요 중소도시거주 일반가구
조사기간	2004년 4월~11월
조사방법	지역별 가구 수 비례 층화추출표본에 대한 무작위 면담조사
총 유효표본수	1,912개

<표 2-6> 표본의 조사시점(월)별 지역별 분포(시차조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
서울	55	59	54	55	50	58	74	61	466	24.4
경기	50	55	53	44	60	63	56	46	427	22.3
부산	19	18	18	29	24	23	23	20	174	9.1
인천	17	13	16	25	21	22	30	21	165	8.6
대구	15	17	17	18	21	23	16	16	143	7.5
대전	16	13	20	16	20	20	15	15	135	7.1
광주	15	20	14	15	16	19	14	13	126	6.6
울산	12	13	12	14	17	15	12	13	108	5.6
중소도시	26	31	21	19	23	12	16	20	168	8.8
합계	225	239	225	235	252	255	256	225	1,912	100.0

제2절 농촌관광 참여 실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시차조사에 의해 수집된 1,912개의 표본으로부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농촌관광 참여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였다. 각 변수에 따라 결측값의 크기가 다르므로 해당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 또한 다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유년시절의 성장지역과 가족 및 가까운 친척의 농업 종사 유무를 조사하였다. 유년기 성장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응답자는 63.4%였으며,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응답자는 36.6%로 나타났다. 가족 및 가까운 친척의 농업 종사자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1.4%였고,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6.7%였다. 성별은 여성이 52.2%로 남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49.8%로 미혼자 비율과 비슷하였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8.1%,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이 11.0%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으로서 응답자의 약 36%가 200-350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직(19.7%)과 서비스직(14.4%), 전문직(13.6%)의 순을 보였다<표 2-7>.

한편, 직장에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응답자는 28.5%이며,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응답자는 11.9%였다. 응답자의 34.2%는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표 2-8>.

<표 2-7>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유년시절 성장지역	도시지역	1,201	63.4	성 별	남성	913	47.8
	농촌지역	692	36.6		여성	996	52.2
농업종사 유무	있 다	1,167	61.4	학 력	중졸이하	44	2.3
	없 다	698	36.7		고졸	534	28.1
	모 름	37	1.9		대졸	1,113	58.6
기 혼	951	49.8	대학원		209	11.0	
결혼여부	미 혼	947	49.6	직 업	전문직	259	13.6
	기 타	12	0.6		사무직	376	19.7
소 득	100-150만원 미만	161	8.5		생산·기술직	95	5.0
	150-200만원 미만	218	11.5		서비스직	275	14.4
	200-250만원 미만	222	11.7		공무원·교직원	212	11.1
	250-300만원 미만	244	12.9		자영업	132	6.9
	300-350만원 미만	232	12.2		학생	236	12.4
	350-400만원 미만	167	8.8		퇴직·무직	36	1.9
	400-500만원 미만	255	13.4		주부	189	9.9
	500만원 이상	318	16.8		기타	97	5.1

<표 2-8> 응답자의 주 5일근무제 실시 현황

	빈 도	%
주5일제 실시	543	28.5
격주 실시	227	11.9
실시하지 않음	651	34.2
관련 없음	481	25.3
합 계	1,902	100.0

2. 농촌관광 참여 실태

시차조사 응답자 1,912명 중 43.6%가 관광목적 혹은 방문목적으로 농촌관광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 중 관광목적의 농촌관광형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24.8%, 그리고 방문목적의 농촌방문형 참여경험자는 18.8%로 나타났다<표 2-9>.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상의 수치는 2004년 3월부터 10월간 각 월의 농촌관광 참여율을 산술평균한 값일 뿐, 해당연도의 농촌관광 또는 농촌방문 참여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 2-9> 농촌관광 참여 여부

	빈 도	구성비(%)
농촌관광형	475	24.8
농촌방문형	359	18.8
농촌관광 미 참여	1,078	56.4
합계	1,912	100.0

가. 농촌관광 동반자

관광목적의 농촌관광형 참여자는 주로 가족(37.8%) 혹은 친구/친지(38.9%)와 함께 농촌을 관광하며, 직장동료(8.7%) 또는 혹은 동호인(6.4%)과 함께 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반면에 농촌방문형 참여자는 대부분 가족(69.3%)과 함께 농촌지역을 방문하며, 혼자(14.2%), 또는 친구/친지(12.6%)와 함께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표 2-10>. 두 유형 간 동반자의 유형에 비교적 뚜렷한 구분이 있다.

<표 2-10> 농촌관광 참여 동반자

	농촌관광형		농촌방문형	
	빈도	%	빈도	%
혼 자	19	4.0	51	14.2
가 족	178	37.8	248	69.3
친구/친지	183	38.9	45	12.6
직장동료	41	8.7	8	2.2
동 호 회	30	6.4	3	0.8
기 타	20	4.2	3	0.8
합 계	471	100.0	358	100.0

나. 농촌관광 참여자의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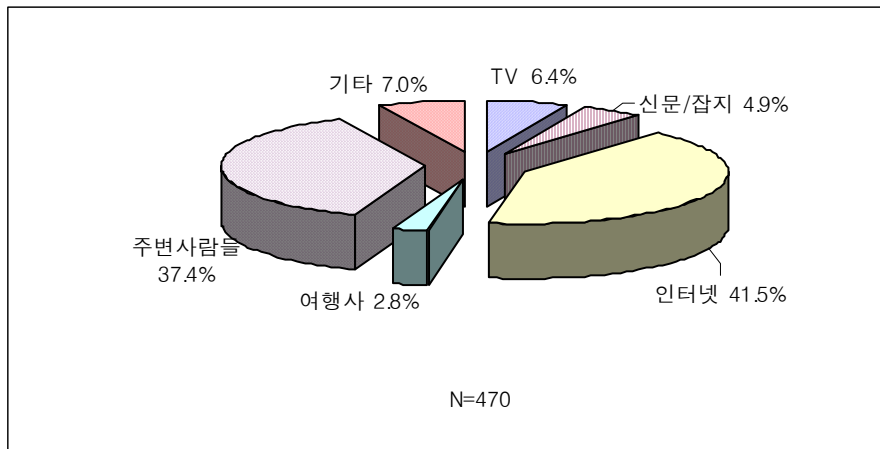
농촌관광형 참여자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승용차(72.6%)의 비중이 대부분이며 버스(18.7%)와 기차(7.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농촌방문형 역시 교통수단의 유형은 관광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표 2-11> 농촌관광 참여자의 교통수단

	농촌관광형		농촌방문형	
	빈도	%	빈도	%
승 용 차	342	72.6	268	74.9
기 차	35	7.4	13	3.6
버 스	88	18.7	70	19.6
비 행 기	4	0.8	3	0.8
기 타	2	0.4	4	1.1
합 계	471	100.0	358	100.0

다.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원천(농촌관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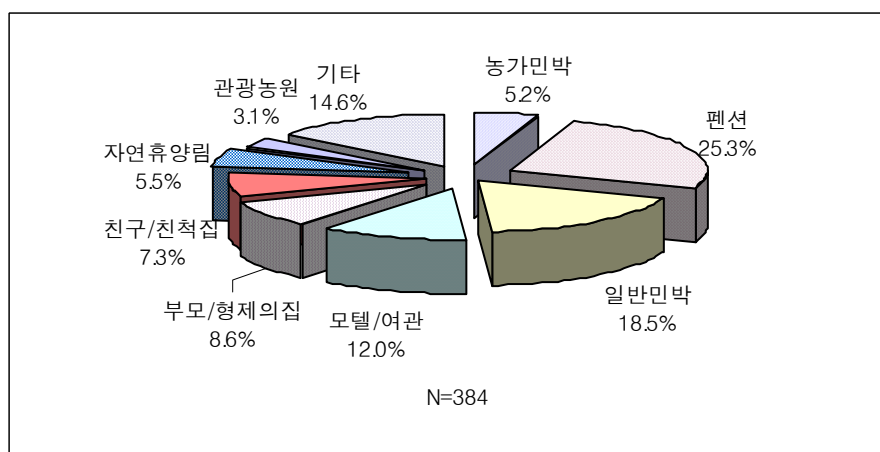
농촌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농촌관광에 관련된 정보수집의 원천은 인터넷(41.5%)과 주변사람들(37.4%)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TV(6.4%)나 신문/잡지(4.9%)도 일부 이용되고 있다<그림 2-1>.



< 그림 2-1>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원천(농촌관광형 참여자)

라. 농촌관광자의 숙박형태(농촌관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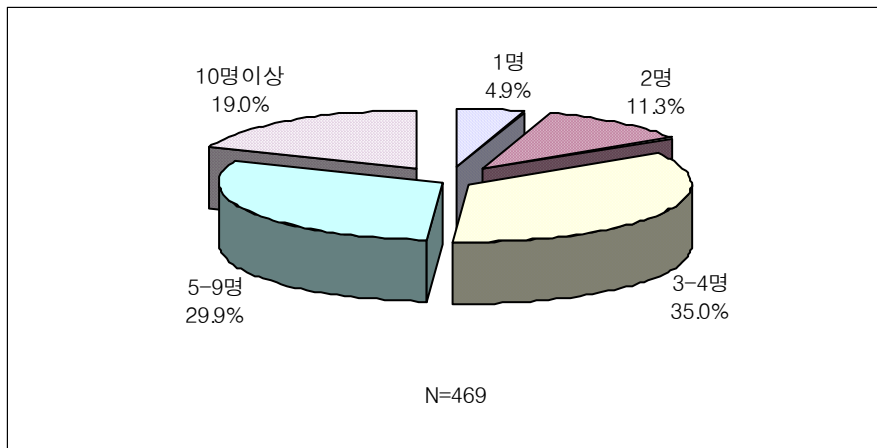
농촌관광 참여자가 이용한 숙박형태를 살펴보면, 펜션(25.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민박(18.5%)과 모텔/여관(12.0%)의 순이다. 또한 부모/형제 집(8.6%) 또는 친구/친척집(7.3%)도 일부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농가민박이나 관광농원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각각 5.2%와 3.1%로서 이용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 그림 2-2> 농촌관광 숙박형태(농촌관광형 참여자)

마. 농촌관광 참여인원(농촌관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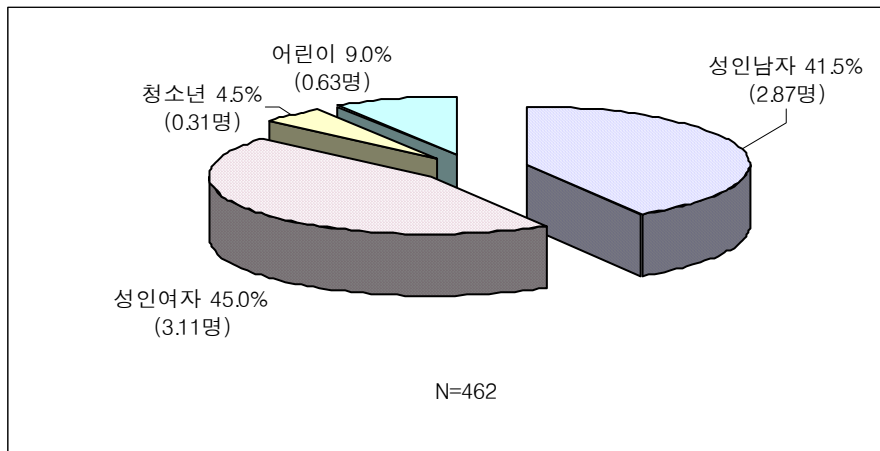
관광목적으로 농촌관광에 참여한 방문그룹의 참여인원은 3-4(35.0%)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9명(29.9%)으로 구성된 방문그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10명 이상 비교적 큰 집단이 19.0%로 나타났다<그림 2-3>.



<그림 2-3> 농촌관광 방문그룹의 구성인원 구분(농촌관광형 참여자)

바. 농촌관광 참여 구성 비율(농촌관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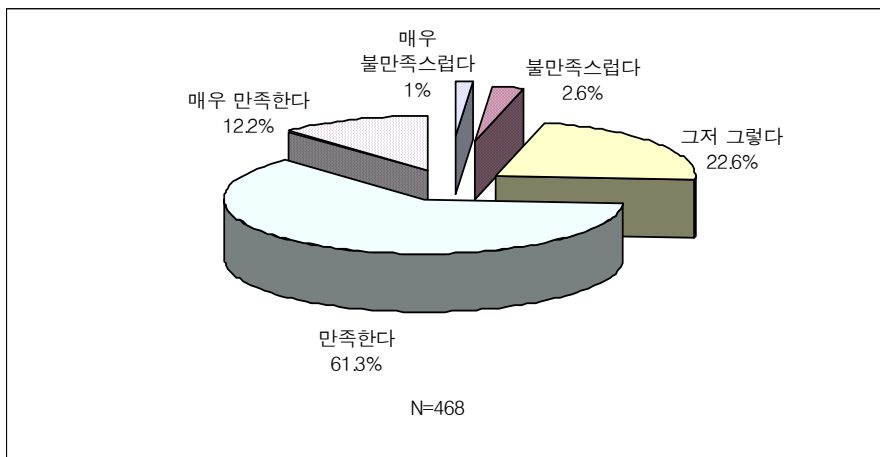
관광목적으로 농촌관광에 함께 참여한 방문그룹의 그룹당 평균 인원은 6.92명으로 조사되었다. 방문그룹의 구성원 비율을 살펴보면 성인남성(41.5%) 및 성인여성(45.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방문그룹 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와 4.5%로 나타났다<그림 2-4>. 하지만 구성원의 비율은 방문그룹의 유형(예컨대, 가족, 친구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가족방문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성비는 각각 23.5%와 10.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농촌관광 방문그룹의 인적 구성(농촌관광형 참여자)

사. 농촌관광 만족도(농촌관광형)

농촌관광 참가자 중 73.5%가 농촌관광 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은 농촌관광 경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농촌관광 만족도(농촌관광형 참여자)

제3절 농촌관광 지출

1. 농촌관광형 참여자의 지출

관광목적의 농촌관광을 위해 방문그룹이 지출한 비용은 회당 239,585원으로 계산되었다<표 2-12>. 지출유형별로 볼 때, 식음료구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이 85,801원(35.8%)으로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비와 숙박비가 각각 54,302원(22.7%), 52,320원(21.8%)으로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그 뒤를 잇고 있다. 농촌관광형 참여자 지출에 대한 공간분포로서 목적지에서 발생한 방문그룹의 총 지출은 216,992원이며, 경유지에서 발생한 지출은 22,593원으로 나타났다. 목적지와 경유지 간에 있어 지출항목별 지출의 구성비는 숙박비와 쇼핑비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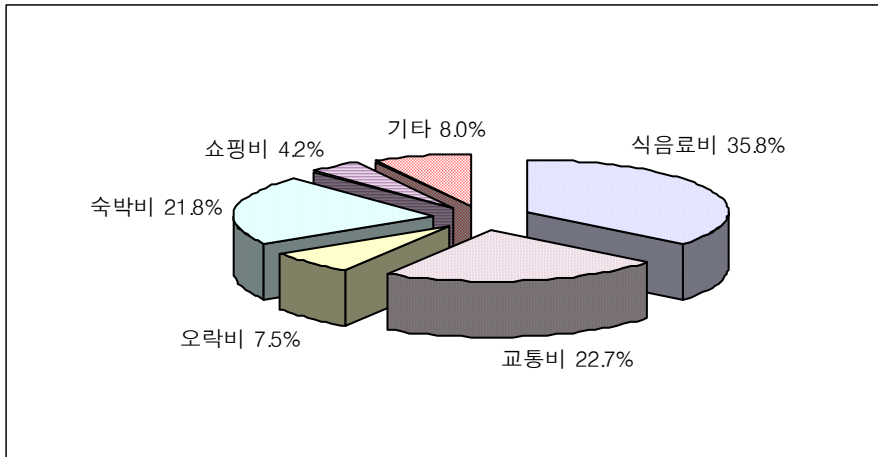
방문그룹의 지출을 그룹내 인원수(3.69명)와 체재일수(2.18일)로 나눈 1인 1일당 총 지출은 29,745원으로 계산되었다. 지출유형별로 식음료비 10,652원, 교통비 6,742원, 숙박비 6,496원 등으로 나타났다<표 2-13>. 지출의 공간분포로서 총지출 중 목적지에서 사용된 지출의 비중이 90.6%이며, 경유지는 9.4%를 점하고 있다. 이때, 그룹내 인원의 수는 1인 1일당 지출계산을 위해 조정된 계수로서 실제 지출활동에 관련된 인원만을 고려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 방문그룹당 관광참여자의 수와는 다르다. <그림 2-6>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유형별 지출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2>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관광형)

지출 유형	목적지		경유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76,950	35.5	8,850	39.2	85,801	35.8
교통비	49,210	22.7	5,092	22.5	54,302	22.7
오락비	15,858	7.3	2,181	9.7	18,039	7.5
숙박비	50,323	23.2	1,997	8.8	52,320	21.8
쇼핑비	8,554	3.9	1,499	6.6	10,053	4.2
기타비용	16,097	7.4	2,974	13.2	19,071	8.0
합계	216,992	100.0	22,593	100.0	239,585	100.0

<표 2-13> 농촌관광 1인 1일당 지출(농촌관광형)

지출 유형	목적지		경유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9,554	89.7	1,099	10.3	10,652	100.0
교통비	6,110	90.6	632	9.4	6,742	100.0
오락비	1,969	87.9	271	12.1	2,240	100.0
숙박비	6,248	96.2	248	3.8	6,496	100.0
쇼핑비	1,062	85.1	186	14.9	1,248	100.0
기타비용	1,998	84.4	369	15.6	2,368	100.0
합계	26,940	90.6	2,805	9.4	29,745	100.0



<그림 2-6> 농촌관광 지출 구성비(농촌관광형)

2. 농촌방문형 참여자의 지출

고향 또는 친지방문 등의 방문목적에 의해 농촌을 방문한 참여자가 지출한 비용은 그룹당 174,080원/회로 계산되었다<표 2-14>. 농촌방문형 참여자의 지출은 농촌관광형 참여자의 지출과 비교했을 때 약 7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출유형별로 볼 때, 식음료와 교통비가 각각 55,451원(31.9%)과 55,101원(31.7%)으로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방문형 참여자 지출에 대한 공간분포로

서 목적지에서 발생한 방문그룹의 총 지출은 152,469원이며, 경유지에서 발생한 지출은 21,612원이다. 목적지와 경유지 간에 있어 지출항목별 지출의 구성비는 농촌관광형 참여자의 그것과는 달리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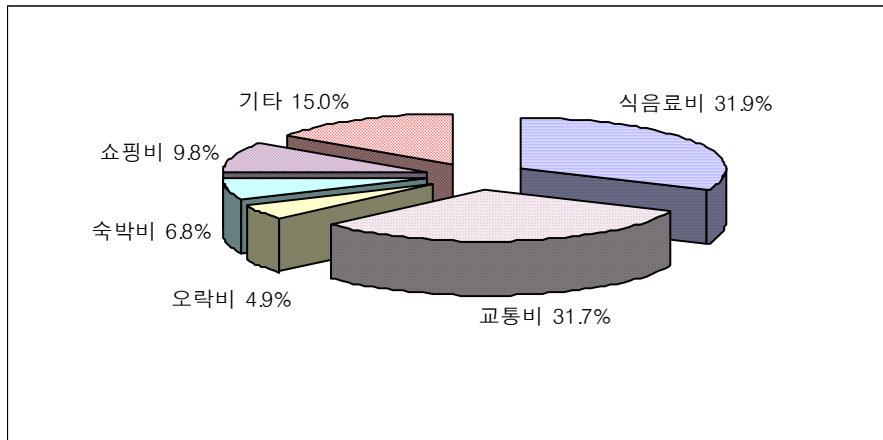
방문그룹의 지출을 그룹내 인원수(2.85명)와 체재일수(2.60일)로 나눈 1인 1일당 총 지출은 23,512원으로 계산되었다. 지출유형별로 식음료비 7,489원, 교통비 7,422원, 쇼핑비 2,300원 등으로 나타났다<표 2-15>. 지출의 공간분포로서 총지출 중 87.6%가 목적지에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2.4%는 경유지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2-7>은 농촌 방문 참여자의 지출유형별 지출 구성비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2-14> 농촌방문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방문형)

지출 유형	농촌관광목적지		경유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46,832	30.7	8,619	39.9	55,451	31.9
교통비	50,224	32.9	4,878	22.6	55,101	31.7
오락비	7,497	4.9	1,066	4.9	8,563	4.9
숙박비	9,493	6.2	2,308	10.7	11,801	6.8
쇼핑비	13,566	8.9	3,465	16.0	17,032	9.8
기타비용	24,857	16.3	1,276	5.9	26,133	15.0
합계	152,469	100.0	21,612	100.0	174,080	100.0

<표 2-15> 농촌관광 1인 1일당 지출(농촌방문형)

지출 유형	목적지		경유지 및 타관광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6,325	84.5	1,164	15.5	7,489	100.0
교통비	6,783	91.1	659	8.9	7,442	100.0
오락비	1,012	87.5	144	12.5	1,157	100.0
숙박비	1,282	80.4	312	19.6	1,594	100.0
쇼핑비	1,832	79.7	468	20.3	2,300	100.0
기타비용	3,357	95.1	172	4.9	3,530	100.0
합계	20,593	87.6	2,919	12.4	23,512	100.0



<그림 2-7> 농촌방문 지출 구성비(농촌방문형)

3. 광의개념 농촌관광의 지출

농촌관광목적과 방문 목적을 포함한 광의개념의 농촌관광을 위해 방문그룹이 지출한 비용은 회당 211,498원으로 계산되었다<표 2-16>. 지출유형별로 볼 때, 식음료구입을 위해 사용한 지출이 72,787원(34.4%)으로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비 54,645원(25.8%), 숙박비 34,946원(16.5%)의 순을 보이고 있다. 오락비와 쇼핑비의 비중은 각각 6.6%, 6.2%로서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 지출에 대한 공간분포로서 목적지에서 발생한 방문그룹의 총 지출은 189,325원이며, 경유지에서 발생한 지출은 22,172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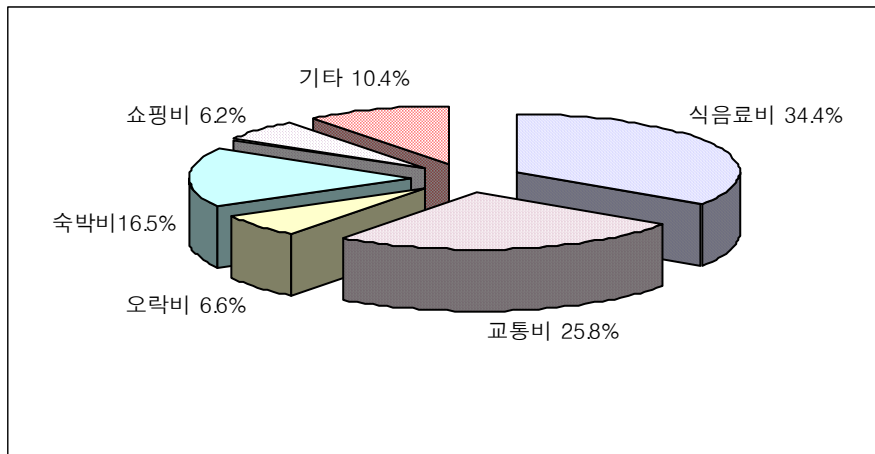
<표 2-16>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방문그룹당 지출/회(농촌관광+방문)

지출 유형	목적지		경유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64,063	33.8	8,751	39.5	72,787	34.4
교통비	49,645	26.2	5,000	22.6	54,645	25.8
오락비	12,273	6.5	1,703	7.7	13,976	6.6
숙박비	32,816	17.3	2,130	9.6	34,946	16.5
쇼핑비	10,703	5.7	2,342	10.6	13,045	6.2
기타비용	19,853	10.5	2,246	10.1	22,099	10.4
합계	189,325	100.0	22,172	100.0	211,498	100.0

방문그룹의 지출을 그룹내 인원수(3.33명)와 체재일수(2.36일)로 나눈 1인 1일당 지출은 26,898원으로서 식음료비 9,257원, 교통비 6,950원, 숙박비 4,444원 등으로 계산되었다<표 2-17>. 지출의 공간분포로서 총지출 중 89.5%는 목적지에서 나머지 10.5%는 경유지에서 사용되었다. 주어진 공간분포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유지에서는 쇼핑비의 비중이, 목적지에서는 숙박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재구성하여 보면 <그림 2-8>과 같다.

<표 2-17> 농촌관광 지출유형별 1인 1일당 지출(농촌관광+방문)

지출 유형	목적지		경유지		합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식음료비	8,144	88.0	1,113	12.0	9,257	100.0
교통비	6,314	90.8	636	9.2	6,950	100.0
오락비	1,561	87.8	217	12.2	1,777	100.0
숙박비	4,174	93.9	271	6.1	4,444	100.0
쇼핑비	1,361	82.0	298	18.0	1,659	100.0
기타비용	2,525	89.8	286	10.2	2,811	100.0
합계	24,097	89.5	2,820	10.5	26,898	100.0



<그림 2-8> 농촌관광 지출 구성비(농촌관광+방문)

제4절 관광유형별 지출

1. 관광유형별 방문그룹 지출

농촌관광에 따른 지출의 규모를 타 관광유형의 관광지출과 비교하기 위해 관광유형별 지출을 추정하였다. 관광유형은 자연/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 위락관광, 그리고 산업/사회관광으로 구분된다. 관광유형 중 역사/문화 관광 참여자의 지출이 방문그룹 당 총 256,046원으로서 가장 많은 지출하였다<표 2-18>. 공간분포별로는 목적지에서 225,151원, 경유지에서 30,895원을 지출하였다. 다음으로 자연/생태관광 참여자는 총 255,674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간분포에 따라 목적지 232,359원, 경유지는 23,314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락관광의 경우 242,833원을 지출하였으며, 목적지와 경유지에서 각각 231,933원, 10,900원을 지출하였다. 산업/사회관광 참여자의 지출은 총 171,619원으로서 목적지에서 161,072원, 경유지에서 10,546원을 지출하였다. 네 가지 관광유형의 평균 총지출은 240,310원이며, 목적지의 평균지출은 221,352원, 경유지의 평균지출은 18,958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유형에 따른 관광유형별 지출의 크기는 자연/생태 관광이 식음료비(80,835원)와 숙박비(49,454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문화관광은 교통비(65,103원)와 쇼핑비(36,196원)에서, 그리고 위락관광은 오락비(41,484원)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다.

2. 관광유형별 1인 1일당 지출

관광유형별 1인 1일당 지출을 살펴보면 역사/문화 관광이 31,578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하였으며, 공간분포에 따라 목적지 27,768원, 경유지 8,529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9>. 다음으로 위락관광이 29,528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간분포에 따라 목적지에서 28,255원, 경유지에서 1,328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사회 관광의 경우 26,438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지와 경유지에서 각각 24,813원, 1,625원을 지출하였다. 자연/생태관광 유형은 총 25,769원으로 관광유형중 1인 1일당 지출액이 가장 작았으며, 목적지 23,419원, 경유지 2,3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관광유형의 1인 1일당 평균지출액은 27,818원 이었으며 목적지에서 25,624원, 경

유지에서 2,195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유형에 따른 1인 1일당 지출 금액에 있어 위락관광이 식음료비(9,675원)와 오락비(5,054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나타냈으며 역사/문화관광은 교통비(8,029원), 숙박비(5,623원), 쇼핑비(4,461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한 것을 보이고 있다. 자연/생태 관광은 기타비용이 2,383원으로 지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관광유형별 지출의 항목별 구성

관광 유형별 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관광 유형에 따른 지출 유형의 평균 구성 비율은 식음료비가 30.7%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비 24.1%, 숙박비 18.0%, 오락비 11.1%, 기타비용 9.3%, 쇼핑비 6.8%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관광 유형별로 지출유형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연 생태관광은 식음료비가 31.6% 교통비 25.1%, 숙박비 19.3%, 기타비용 11.0%, 오락비 8.0% 쇼핑비 4.9%순이며 역사/문화관광은 식음료 27.0%, 교통비 25.4%, 숙박비 17.8% 쇼핑비 14.1%, 오락비 8.0%, 기타비용 7.7%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유형보다 쇼핑비의 구성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산업/사회관광 유형은 교통비가 29.6%로 구성비가 가장 높고 식음료비 27.0%, 숙박비 16.5%, 오락비 11.0%, 기타비용 8.6%, 쇼핑비 7.4%이다. 마지막으로 위락 관광의 경우에는 식음료비가 32.7% 가장 높았으며 오락비(17.1%)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관광 보다 높게 구성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유형별 지출 공간의 분포비율은 평균적으로 목적지가 92.1%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유지의 경우 7.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그림 2-8>. 네 가지 관광 유형에서 역사문화관광 유형이 12.7%로 타 유형보다 경유지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8> 관광유형별 지출(방문그룹)

공간 분포		관광 유형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사회	위락	관광유형 평균
목적지	식음료비	72,263	61,739	39,794	74,061	66,693
	교통비	58,406	57,708	47,814	46,986	53,338
	오락비	19,416	19,052	18,742	40,205	25,660
	숙박비	45,918	42,696	28,247	39,511	41,020
	쇼핑비	10,843	26,774	12,619	12,114	14,049
	기타비용	25,512	17,183	13,856	19,055	20,593
	합계	232,359	225,151	161,072	231,933	22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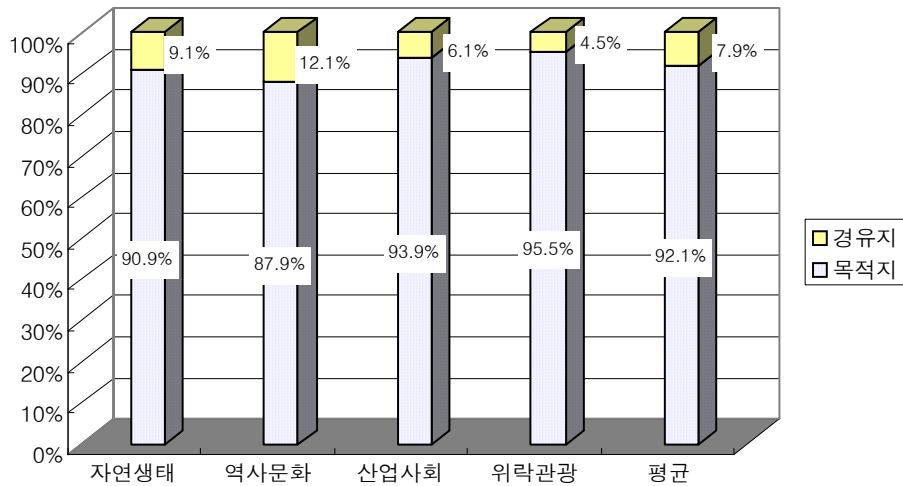
경 유 지	식음료비	8,571	7,412	6,464	5,361	7,107
	교통비	5,646	7,395	3,041	2,470	4,592
	오락비	1,161	1,316	113	1,279	1,079
	숙박비	3,536	2,895	0	858	2,124
	쇼핑비	1,750	9,395	0	447	2,337
	기타비용	2,650	2,482	928	484	1,720
	합계	23,314	30,895	10,546	10,900	18,958
전 체	식음료비	80,835	69,151	46,258	79,422	73,800
	교통비	64,052	65,103	50,856	49,457	57,929
	오락비	20,577	20,368	18,856	41,484	26,739
	숙박비	49,454	45,590	28,247	40,370	43,144
	쇼핑비	12,593	36,169	12,619	12,562	16,386
	기타비용	28,162	19,665	14,784	19,539	22,312
	합계	255,674	256,046	171,619	242,833	240,310

<표 2-19> 관광유형별 지출(1인 1일당)

공간 분포		관광 유형				관광유형 평균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사회	위락관광	
목 적 지	식음료비	7,283	7,614	6,130	9,022	7,720
	교통비	5,887	7,117	7,366	5,724	6,174
	오락비	1,957	2,350	2,887	4,898	2,970
	숙박비	4,628	5,266	4,352	4,813	4,748
	쇼핑비	1,093	3,302	1,944	1,476	1,626
	기타비용	2,571	2,119	2,134	2,321	2,384
	합계	23,419	27,768	24,813	28,255	25,624
경 유 지	식음료비	864	914	996	653	823
	교통비	569	912	469	301	532
	오락비	117	162	17	156	125
	숙박비	356	357	0	105	246
	쇼핑비	176	1,159	0	55	270
	기타비용	267	306	143	59	199
	합계	2,350	3,810	1,625	1,328	2,195
전 체	식음료비	8,147	8,529	7,126	9,675	8,543
	교통비	6,456	8,029	7,834	6,025	6,706
	오락비	2,074	2,512	2,905	5,054	3,095
	숙박비	4,984	5,623	4,352	4,918	4,994
	쇼핑비	1,269	4,461	1,944	1,530	1,897
	기타비용	2,838	2,425	2,277	2,380	2,583
	합계	25,769	31,578	26,438	29,582	27,818

<표 2-20> 관광유형별 지출 구성비(%)

공간 분포		관광 유형				관광유형 평균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사회	위락관광	
목적지	식음료비	31.1	27.4	24.7	31.9	30.1
	교통비	25.1	25.6	29.7	20.3	24.1
	오락비	8.4	8.5	11.6	17.3	11.6
	숙박비	19.8	19.0	17.5	17.0	18.5
	쇼핑비	4.7	11.9	7.8	5.2	6.3
	기타비용	11.0	7.6	8.6	8.2	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유지	식음료비	36.8	24.0	61.3	49.2	37.5
	교통비	24.2	23.9	28.8	22.7	24.2
	오락비	5.0	4.3	1.1	11.7	5.7
	숙박비	15.2	9.4	0.0	7.9	11.2
	쇼핑비	7.5	30.4	0.0	4.1	12.3
	기타비용	11.4	8.0	8.8	4.4	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식음료비	31.6	27.0	27.0	32.7	30.7
	교통비	25.1	25.4	29.6	20.4	24.1
	오락비	8.0	8.0	11.0	17.1	11.1
	숙박비	19.3	17.8	16.5	16.6	18.0
	쇼핑비	4.9	14.1	7.4	5.2	6.8
	기타비용	11.0	7.7	8.6	8.0	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2-9> 관광유형별 지출 공간분포

4. 농촌관광지출과 타 관광유형별 지출의 비교

관광목적의 농촌관광형 참여자의 지출을 타 관광유형의 지출규모와 비교하였다. 방문그룹당 총지출에 있어서 농촌관광지출 239,585원은 네 가지 관광유형의 평균치인 240,310원에 근사한 수치이다. 하지만 각 유형과의 비교에 있어서 농촌관광 지출은 역사/문화, 자연/생태, 위락관광에 이어 네 번째에 위치하며, 산업/사회관광 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관광유형에 따른 지출항목별 비교에 있어서 농촌관광지출 구성항목 중 식음료 및 숙박비의 지출규모는 타 관광의 어느 유형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쇼핑비와 오락비의 규모는 타 관광의 어느 유형에 비해서도 작게 나타났다. 교통비지출의 경우 농촌관광은 위락 또는 산업/사회관광에 비해서는 다소 높으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관광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룹당 방문인원과 체재일수를 고려한 1인 1일당 지출에 있어서 농촌관광지출 29,745원은 네 가지 관광유형의 평균지출인 27,818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타 관광유형 중 위락관광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지출을 보인 역사/문화관광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타 관광유형과 비교해 볼 때, 농촌관광의 그룹당 지출규모에 비해 1인 1일당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농촌관광의 그룹당 방문인원 또는 체재일수가 타 관광에 비해 적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관광의 1인 1일당 지출의 항목별 구성을 타 관광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시 그룹당 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음료비와 숙박비의 지출규모는 높으나, 오락비와 쇼핑비의 지출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와 경유지간 지출의 공간분포로서 농촌관광지출 중 90.6%가 목적지에서 소비되었는데 이는 타 관광유형의 평균치인 92.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관광유형별로 공간분포에 따른 농촌관광의 지출구성은 자연/생태관광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산업/사회 및 위락관광의 그것에 비해서는 목적지 지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제5절 일반적인 관광활동

1. 농촌관광을 제외한 관광활동의 유형

농촌관광을 제외한 일반적인 관광활동에 참가한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참여횟수와

숙박일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시점에서 지난 한달 간 참여한 관광유형으로는 자연/생태관광(0.52회)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사회관광(0.33회)의 참여횟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숙박일수도 자연/생태관광(0.53일)이 가장 많고 역사/문화관광(0.20일)이 관광유형 중에 숙박일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 관광활동 참여 횟수에서도 자연/생태관광이 0.85회로 가장 많은 참여횟수를 보이고 있다.

<표 2-21> 일반적인 관광활동 참여 횟수

관광유형	지난 1개월간 관광활동		1월-10월 총 참여횟수(회)
	참여횟수(회)	숙박일수(일)	
자연/생태관광	0.52	0.53	0.85
역사/문화관광	0.34	0.20	0.48
산업/사회관광	0.33	0.26	0.55
위락관광	0.39	0.27	0.57

2. 최근에 참여한 관광 유형

농촌관광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참여한 관광유형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연/생태관광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위락관광(29.5%), 역사/문화관광(17.1%), 산업/사회관광(14.4%)순으로 나타났다<표 2-22>. 참여한 관광에 대한 숙박일수는 평균 1.22일로서 장려/생태관광의 숙박일수(1.51일)가 가장 많았다. 관광에 참여한 여행인원은 평균 7.80명이며, 위락관광의 그룹당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최근 참여 관광유형

관광 유형	빈도(%)	숙박일수(일)	여행인원(명)
자연/생태관광	407(39.0)	1.51	7.62
역사/문화관광	178(17.1)	1.06	8.51
산업/사회관광	150(14.4)	1.13	3.65
위락관광	308(29.5)	0.97	9.44
계	1,443(100.0)	1.22	7.80

3. 관광성향

응답자들의 37.1%와 29.9%가 각각 혼합형 관광 및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23>.

<표 2-23> 응답자의 관광성향

관광성향	빈도	구성비(%)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 선호	563	29.9
활동적 & 체험적 관광 선호	276	14.6
혼합형 선호(휴식 관광과 활동적/체험적 관광)	700	37.1
상황에 따른 변화 선호	346	18.4
합계	1,885	100.0

제6절 농업과 농촌 관련 사항

1. 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해 농촌관광 참여자나 비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2-24>. 농촌의 공익기능 중에서 자연경관, 농촌체험 등의 장소로서의 기능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생태계 보전기능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국토보전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24>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의견

농촌 공익기능의 유형	농촌관광 참여자	농촌관광 비참여자	t-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역사회 유지 및 전통문화 보전기능	3.90(0.79)	3.92(0.79)	-0.49
생태계 보전기능	3.96(0.87)	3.97(0.83)	-0.34
자연경관, 농촌체험 등의 장소기능	4.09(0.79)	4.05(0.75)	1.25
국토 보전기능	3.71(0.92)	3.75(0.90)	-1.09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	3.95(0.90)	3.94(0.90)	0.26

2. 농촌 공익 기능의 가치

자연자원의 총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인 보전가치로 나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직·간접적인 이용을 통해 해당 자원으로부터 효용을 구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보전가치는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자원의 존재 그 자체(존재가치),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이용가능성(선택가치), 또는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적 의미로서의 가치(상속가치)로 구분된다. 농촌 공익기능의 가치에 대한 견해로서 응답자의 38.0%가 존재가치로서 공익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가치(28.4%), 이용가치(20.1%), 그리고 선택가치(11.7%)가 그 뒤를 잇고 있다<표 2-25>.

<표 2-25> 농촌의 공익 기능 가치

농촌의 공익 기능 가치	빈도	구성비(%)
존재가치	717	38.0
이용가치	379	20.1
선택가치	221	11.7
상속가치	536	28.4
무가치	33	1.7
합계	1,886	100.0

3. 농촌 공익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 납부의사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지원금 납부의사에 있어서 응답자별로 상이하게 제시된 금액에 대해 농촌관광 참여자의 47.5%, 농촌관광 미참여자의 43.4%가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26>.

<표 2-26> 농촌공익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지원금 납부 의사

납부의사	농촌관광 참여여부					
	농촌관광 참여자		농촌관광 미참여		합계	
	빈도	구성비(%)	빈도	%	빈도	%
있다	396	47.5	464	43.4	860	45.4
없다	428	51.3	606	56.6	1,034	54.6
합계	824	100.0	1,070	100.0	1,894	100.0

4. 농촌의 공익기능에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 순위

농촌의 공익기능에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순위에서 전체 응답자들은 동식물, 야생조류, 어류 등의 생태계 보전기능을 1순위로 자연경관, 녹지공간, 정서교육, 농촌체험 등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2순위,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문화 보전기능을 3순위로 희망하였다<표 2-27>. 또한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농촌의 공익기능에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사용희망 순위는 장소로서의 기능과 국토보존의 기능에서 순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2-28>.

<표 2-27> 농촌공익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 순위

농촌의 공익 기능	순위 평균	순위
전통문화 보전기능	3.13	3
생태계 보전기능	3.33	1
장소로서의 기능	3.14	2
국토보전 기능	2.58	5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능	2.82	4

<표 2-28> 농촌공익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지원금 사용희망 순위 차이

농촌의 공익 기능	농촌관광 참여자	농촌관광 비참여자	t-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통문화 보전기능	3.16(1.42)	3.10(1.41)	0.93
생태계 보전기능	3.30(1.27)	3.36(1.26)	-1.03
장소로서의 기능	3.25(1.36)	3.05(1.38)	3.00***
국토보전 기능	2.52(1.33)	2.63(1.36)	-1.85*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능	2.78(1.49)	2.84(1.53)	-0.84

주)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5. 농촌관광 참여의향

응답자들의 89.8%가 향후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94.4%가 향후에도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다소 낮은 수치지만 농촌관광에 참여치 않은 응답자들도 86.7%로 대답했다<표 2-29>. 향

후 농촌관광 참여예정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2회 참가하겠다는 응답자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회(32.5%)가 뒤를 잇고 있다<표 2-30>.

<표 2-29> 향후 농촌관광 참여의사

참여의사	농촌관광 참여여부					
	농촌관광 참여		농촌관광 미참여		합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예	773	92.7	923	86.7	1,696	89.8
아니오	52	6.2	141	13.3	193	10.2
합계	825	100.0	1,064	100.0	1,889	100.0

<표 2-30> 향후 농촌관광 참여예정 횟수

참여예정횟수	농촌관광 참여여부					
	농촌관광 참여		농촌관광 미참여		합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1-2회	331	50.2	553	68.8	884	60.4
3-5회	256	38.8	220	27.4	476	32.5
6-10회	49	7.4	23	2.9	72	4.9
11회 이상	24	3.6	8	1.0	32	2.2
합계	660	100.0	804	100.0	1,464	100.0

제3장 농촌관광 수요의 결정요인과 추정

제1절 서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타 산업분야를 추월하고 있는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촌관광은 이제 단순히 농외소득의 증대라는 특수한 정책목표를 벗어 난지 오래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제고, 그리고 대안관광에 대한 인식변화 및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개별농가와 민간기업, 공공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의 농촌관광시장 참여자그룹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을 조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이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에 있어서 농촌관광은 이미 타 관광산업분야와 경쟁 또는 보완적 경쟁관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 공급자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시장전략 및 시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수요분석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관광은 농촌에 대해 대안적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외에, 도시민의 여가효용증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분석은 농촌내부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유용한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여가효용증대를 통한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출구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나, 공급자측면에서 국지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예컨대, 박시현 외, 2003; 박호균 외, 2001; 류선무, 1999; 박석희, 1998). 이들 연구는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의 유형과 분포를 고려한 농촌관광 자원개발 및 상품화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지적 사례연구에 제한되어 있어 농촌관광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이용주체인 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간과함으로써 농촌관광 공급자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마케팅전략 수립과 지원정책을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농촌관광을 수요자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예컨대, 조재환 외, 2003; 김용근 외, 2001; 조록환, 2000). 이들 연구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하는 관광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공급자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농촌관광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수요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수요와 농촌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시책개발과 마케팅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시장세분화의 전제인 측정성(measurability)과 내용성(substantiality)에 있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여가효용 증진과 공급자의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관광으로서 농촌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개발하고, 모형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개발에 있어 주요 착안점은 소비자행동론적 시각에서 볼 때, 농촌관광수요의 본질을 수요자의 관광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참여결정이라 함은 농촌관광활동에의 참여유무와 관련된 결정을 말하며, 소비량결정은 농촌관광활동에 이미 참여한 소비자들의 방문수요량과 관련된 결정을 의미한다.

농촌관광수요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로서 주 5일 근무제 및 관련변수, 다른 유형의 관광수요,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 농촌관광 참여의 이유 등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설명변수들과 함께 수요모형에 포함된다. 농촌관광수요는 여가시간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하는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타 관광활동과의 보완 및 대체관계라는 정형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관광은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의 활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들 자원에 대한 인식이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농촌관광 참여이유로서 소비자의 선택속성 역시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설명변수가 농촌관광수요에 있어 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전제인 측정성과 내용성을 보장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마케팅전략을 가능케 한다.

제2절 이론 및 모형

1. 관광수요모형설정의 이론적 배경

개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관광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접하는 어려움은 임의추출된 표본 중 많은 수의 관측치가 연구대상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해당 관광유형에 대한 방문횟수가 “0”으로 관찰되는 경우이다. 이 때의 소비자행동은 참여유무에 대한 결정 및 기존 참여자의 방문량에 대한 결정 등 두개의 결정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Bockstael 외, 1990). 관광수요모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 중 대부분은 방문량결정만을 고려한 것들이며, 두 개의 결정과정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Bockstael 외(1990)는 낚시여행, Creel & Loomis(1992)와 Yen & Adamowicz(1994)는 각각 물새 및 야생양 사냥수요와 관련하여 수요의 결정과정을 참여 및 소비량결정으로 구분하였다. 관광활동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수요모형을 설정할 경우 참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적절치 않은 통계적 절차가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Bockstael 외, 1990).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s)은 참여결정을 포함하는 관광수요모형의 설정과 이러한 모형추정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표본선택모형에 관한 논의는 추정치의 통계적 성격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Cragg, 1971; Judge 외, 1980). 하지만 모형에 따라 상이한 행동패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재화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다. 표본 중 특정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零의 방문량을 다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본선택모형으로는 Heckman 모형, double-hurdle 모형, 그리고 Tobit 모형 등이 있다. 표본의 시장참여 유무와 참여자의 소비량결정을 다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계량경제적 접근은 시장 비참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준 효용이론에서 모든 소비자는 모든 재화의 잠재 소비자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어떤 재화의 경우 이것은 틀린 가정일 수 있다. 즉, 모든 가격과 소득 수준에서도 사람에게 따라 해당 재화를 구입할 유인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零의 관측치는 소비행위(예컨대, 농촌관광활동)에 가담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요곡선의 파라메타는 오직 시장참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이론적 고려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통계적 접근방법이 Heckman 모형이다(Blaylock & Blisard, 1993). Heckman 모형은 零의 소비를 소비결정이 아닌 시장참여 결정과 관련된 결과로 해석한다. 이 모형은 참여결정을 위한 Probit 선택모형과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OLS 소비함수 등 두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다(Maddala, 1983; Heckman, 1979).

Double-hurdle 모형에서의 기본가정은 正의 소비를 관찰하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1)주어진 재화에 대해 잠재수요자가 될 것, 2)해당 재화를 실제로 소비해야 할 것(Cragg, 1971). Heckman 모형에서와는 달리 double-hurdle 모형에서 零의 소비는 참여결정 혹은 소비량결정이 될 수도 있다. 공통적으로 Heckman 모형과 double-hurdle 모형은 관련재화에 대한 수요를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소비량결정과 참여결정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일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double-hurdle 모형의 경우 두 가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Double-hurdle 모형의 추정과정 역시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모든 표본에 대해 Probit 선택모형을 적용하는 단계로서 Heckman 절차와 동일하며, 두 번째는 正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절두(truncated)모형에 따른 표본선택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한편, 관광수요가 지출이 아닌 방문횟수로 표현될 경우(본 연구에서와 같이) 수요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조건은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s: 1, 2, 3,..)인 가산자료(count data)의 특성을 갖는 종속변수(방문횟수)를 내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오차항이 연속확률분포의 하나인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선형회귀분석을 離散종속변수인 가산자료에 적용할 경우 편의추정치 문제를 피할 수 없다(Hellerstein & Mendelsohn, 1993). 또한 선형회귀모형이 예측에 적용되었을 때 음의 방문량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변수의 증감에 따라 예측된 방문량이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출과 같이 등간척도로 표현되는 변수에 보다 적합한 Heckman 모형과 double-hurdle 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은 관광소비량 결정과정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소비량결정모형과 관련하여 방문횟수로 나타내어지는 관광수요와 공변량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Poisson모형의 적용이다. Poisson모형은 종속변수가 비음정수로 표현되는 가산자료의 추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이다. 방문횟수로 표현되는 관광수요 역시 가산자료의 특성을 가지므로 여러 형태의 Poisson모형이 이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이 분야의 최초 연구로서 Shaw(1988)는 관광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표본과 관련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

편으로 Poisson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후 Hellerstein(1989, 1991)과 Creel & Loomis(1990)는 각각 카누여행 및 수렵여행에 Poisson류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Poisson모형은 그 밖에도 낚시여행(Grogger & Carson, 1991), 하이킹(Englin & Shonkwiler, 1995; Lutz et al., 2000), 보팅여행(Gurmu & Trivedi, 1996), 산악 바이킹(Fix et al., 2000)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적용되어 왔다.

관광수요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소비자행동(즉, 참여유무에 대한 결정 및 기존 참여자의 방문량에 대한 결정)을 모형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참여결정을 위한 二項확률모형과 正의 방문량을 위한 조건부 확률모형을 결합하는 Poisson hurdle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Mullahy, 1986; Yen & Adamowicz, 1994). Poisson hurdle 모형은 Tobit 모형을 일반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double-hurdle 모형을 가산자료에 맞추어 변형시킨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자료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모형설정을 가능케 해준다.

한편, 검열자료(censored data)의 관련성을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계량경제모형으로서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수요가 제한된 값(예컨대, 零의 소비량)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는 Tobit 함수는 수요관련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형 중의 하나다. 소비자행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Tobit 모형의 주요 가정은 모든 소비자가 주어진 재화에 대하여 잠재수요자라는 점, 그리고 시장참가와 소비량 결정은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Tobit 모형에서는 농촌관광활동의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똑 같은 특성이 농촌관광의 수요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들 특성의 계수 역시 같은 크기를 갖는다. 비록 Tobit 모형에서 참여 및 방문량결정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추정된 방문수요의 한계효과는 사후적으로 시장참여효과와 조건부 소비량효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McDonald & Moffitt, 1980; McCracken & Brandt, 1987).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모형은 Poisson hurdle 모형과 Tobit 모형이다. 요약컨대, 소비자행동론과 관련하여 Poisson hurdle 모형은 관련재화에 대한 수요분석에 있어서 참여와 소비량결정의 구분이 중요한 이슈일 경우 유용한 방법이며, Tobit 모형은 참여와 소비량 결정간의 구분에 특별한 의의를 두지 않는다. Poisson hurdle 모형과 Tobit 모형의 비교를 통해 농촌관광수요에 있어서 참여결정과 방문량결정의 구분이 중요 이슈인가를 밝힐 수 있다. 두 모형간의 비교는 우도비율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검정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면 농촌관광 수요분석에 있어서 참여와 소비량결정과정의 구분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Tobit 모형은 참여 및 소비량결정이 같은 변수들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반면, Poisson hurdle 모형에서는 두 개의 결정과정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2. Poisson hurdle 모형

가산자료의 특성을 갖는 농촌관광수요를 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 간의 구분이 주요 이슈라고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이 Poisson hurdle 모형이다. 소비량결정을 위한 Poisson 모형은 가산자료 또는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방법으로서 Poisson 분포란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 내에서 사건이 무작위로 발생할 때 그 발생한 횟수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분포를 의미한다. 관광수요의 총빈도는 다음과 같은 Poisson hurdle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P(t=0) = e^{-\lambda_1} \quad (1)$$

$$P(t|t > 0) = \frac{\lambda_2^t}{(e^{\lambda_2} - 1)t!}, \quad t = 1, 2, 3, \dots \quad (2)$$

여기에서 식(1)은 농촌관광의 참여유무결정(yes/no)을 나타내는 이항확률모형을, 그리고 식(2)는 기존의 농촌관광 참여자에 대한 正의 방문횟수를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모형을 각각 의미한다. 또한 t 는 비음정수 값으로써 관광횟수를, 그리고 λ_1 는 추정되어야 할 Poisson 파라미터로서 관광발생횟수의 평균 및 분산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Poisson 파라미터 λ_1 과 λ_2 는 상이한 추정과정을 통해 관광참여 및 방문량결정 역시 상이한 형태로 모형화(포함되는 변수의 성격 및 범주라는 측면에서)될 수 있다는 점이다:

$$\lambda_1 = e^{c_1\tau_1} \quad (3)$$

$$\lambda_2 = e^{c_2\tau_2} \quad (4)$$

여기에서 τ_1 과 τ_2 는 파라미터의 벡터를, 그리고 c_1 과 c_2 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참여

유무 및 방문빈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만약 $\lambda_1 = \lambda_2$ 가 성립한다면 Poisson hurdle 모형은 표준 Poisson 분포로 수렴하게 된다.

표준 Poisson 모형에서는 오차항의 존재를 무시함에 따라 조건부 평균과 분산이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자료는 분산이 평균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산포(overdispersion)의 특성을 종종 갖는다. 과산포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산자료에 있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이 존재하거나 또는 영의 빈도가 과도할 경우 발생하나, Poisson hurdle 모형은 모형의 분리절차를 통해 과산포를 자연적으로 허용하므로 해당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Mullahy, 1986). 가산자료의 과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음이항(negative binomial) Poisson 모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 모형을 통해서서는 참여 및 방문량 결정과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Tobit 모형

특수목적형 관광인 농촌관광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표집된 응답자 중 다수는 주어진 기간 동안 농촌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본에 대한 농촌관광수요는 영으로 표현되며, 해당 응답을 영으로 처리하는 검색절차(censoring)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응답을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 모형이 Tobit 함수이다. Tobit 모형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제한된 값(즉, 0)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며, 다음과 같이 모형화될 수 있다:

$$y_i^* = x_i' \beta + \varepsilon_i \sim N(0, \sigma^2) \quad (5)$$

$$y_i = 0 \text{ if } y_i^* \leq 0,$$

$$y_i = y_i^* \text{ if } y_i^* > 0.$$

여기에서 y_i^*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0을 포함한 농촌관광 방문횟수, x_i 는 독립변수 벡터, β 는 파라미터 벡터, y_i 는 응답된 소비량, ε_i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Tobit 모형은 비록 수요의 결정과정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파라미터의 한계효과를 분해함으로써 수요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가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 한계효과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는 실제 방문수요와 관련된 조건부효

과(소비량결정)와 소비의 확률효과(시장참여결정)이다(McDonald & Moffitt, 1980). Tobit 수요모형에서 종속변수, y_i 는 각각 다음과 같은 조건부(正의 수요량) 및 무조건부기대치(正 또는 0의 수요량)로 구분된다:

$$E(y_i | y_i > 0) = \beta' x_i + \sigma \frac{\theta(\beta' x_i / \sigma)}{\Phi(\beta' x_i / \sigma)}, \quad (6)$$

$$E(y_i) = \Phi\left(\frac{\beta' x_i}{\sigma}\right) \beta' x_i + \sigma \theta\left(\frac{\beta' x_i}{\sigma}\right).$$

위 식에서 Φ 와 θ 는 각각 표준정규밀도함수와 분포함수를 나타낸다. 설명변수 x_i 의 변화가 $E(y_i)$ 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frac{\partial E(y_i)}{\partial x_i} = \Phi\left(\frac{\beta' x_i}{\sigma}\right) \frac{\partial E(y_i | y_i^* > 0)}{\partial x_i} + E(y_i | y_i^* > 0) \frac{\partial \Phi(\beta' x_i / \sigma)}{\partial x_i}.$$

우항의 첫 번째 요소는 正의 방문확률에 의해 가중화된 正의 방문수요량 기대치(소비량결정)이며, 두 번째는 正의 기대치에 의해 가중화된 正의 방문확률에 있어서의 변화(시장참여결정)를 의미한다.

제3절 자료 및 모형추정

1. 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연말시점조사로부터 수집된 전년도(2003년)의 농촌관광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농어촌과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거주가구이다. 표본추출을 위해 이들 모집단을 가구 수 비례에 맞추어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그리고 8개 도로 나누어 층화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총 1,030개이며, 주어진 표본의 크기를 모집단 층화의 비율에 맞추어 할당하였다. 할당된 층화

별 표본 수에 맞추어 가구 또는 공공장소 방문 등을 통해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요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결측치가 없는 976개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3-1> 변수 설명

변수요약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1(농촌관광형 참여)	RUTOUR	농촌관광형 참여경험 유 = 1; 없음 = 0
종속변수2(농촌관광형 소비량)	DRURAL	농촌관광형 참여횟수(회/년)
종속변수3(농촌방문형 참여)	RUITOUR	농촌방문형 참여경험 유 = 1; 없음 = 0
종속변수4(농촌방문형 소비량)	DRURALI	농촌방문형 참여횟수(회/년)
종속변수5(농촌지역방문객 전체)	RVISIT	농촌지역 방문경험자 전체
종속변수6(농촌관광/방문 소비량)	DVISIT	농촌관광/방문 참여횟수(회/년)
주5일제 관련 근무형태	DFIVE1	주5일 근무제 실시 = 1; 기타 = 0
	DFIVE2	격 주5일 근무제 실시 = 1; 기타 = 0
	DFIVE3	주5일/격 주5일 근무제 미실시 =1; 기타 = 0
	DFIVE4	주5일/격 주5일 근무제 무관련 =1; 기타 = 0
타 관광활동	NATOUR	자연/생태관광 참여횟수(회/년)
	CUTOUR	문화관광 참여횟수(회/년)
	INTOUR	산업관광 참여횟수(회/년)
	PLTOUR	위락관광 참여횟수(회/년)
농촌공익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WTP	지불의사 있음=1; 없음=0
농촌공익기능 인식 중요도	IMNATURE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기능 = 1; 기타 = 0
	IMECO	생태계 보전기능 = 1; 기타 = 0
	IMLOCAL	전통문화 보전기능 = 1; 기타 = 0
	IMFLOOD	국토 보전기능 = 1; 기타 = 0
	IMSAFE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 = 1; 기타 = 0
지역구분	CAPITAL	서울 및 수도권 = 1; 기타 = 0
	LGCITY	6대 광역시 = 1; 기타 = 0
	SMCITY	중소도시 = 1; 기타 = 0
인구통계적 특성	NEWINC	가계소득(만원)
	WHITE	화이트컬러 직업군 = 1; 기타 = 0
	DMARRY	기혼 = 1; 기타 = 0
	LIVING	주요 성장지역으로서의 농촌 = 1; 기타 = 0
	RELATIVE	가족/친인척 중 농촌거주자 있음=1; 없음=0
관광성향	TEND3	휴식 및 체험 혼합형 선호 = 1, 기타 = 0
지출	TOTEXP1	농촌관광 방문객 총지출(만원/회)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된 설명변수는 위의 <표 3-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제시된 설명변수는 농촌지역 방문목적에 따라 농촌관광형과 농촌방문형, 그리고 농촌관광 참여자 전체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 모형에 포함되었다. 주요 설명변수 중 주5일 근무제 관련변수는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시간의 외연적 변화가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요모형에 포함되었다. 타 관광활동 관련변수들은 농촌관광이 이들과 보완 내지는 경쟁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포함되었다. 농촌의 공익기능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안관광으로서 농촌관광이 농촌내부자원의 활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지역구분 및 인구통계적 특성과 선호관광성향은 통상적으로 관광수요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방문량 수요모형에 필요한 가격변수로서 농촌관광에 소요된 총지출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로서 참여결정모형에는 관광참여 유무가, 소비량결정모형에는 연간 관광횟수가 각각 이용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의 평균값을 농촌관광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시된 설명변수에 대한 통계치를 통해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참여유형에 따라 주요 관련변수가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농촌관광수요와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형성되고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중요 설명변수인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응답은 주5일 근무제(DFIVE1), 격 주5일 근무제(DFIVE2), 주5일 근무제 미실시(DFIVE3),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무 관련(DFIVE4) 등 모두 4개로 구분되는 더미변수이다.¹⁾ 전체적으로 볼 때, 주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이 아직은 다수로서 42%를 점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 및 격 주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은 각각 24%, 1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주5일 근무제 무관련 집단의 비율은 19%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목적 방문자의 주5일 근무제 비율은 27%로서 무경험자의 2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을 제외한 타 관광활동에 참여한 횟수로서 전체 표본의 자연생태관광(NATOUR) 참여횟수는 개인당 1.2회, 문화관광(CUTOUR) 0.5회, 산업관광(INTOUR) 0.4회, 위락관광(PLTOUR) 1.1회로 나타났다.

1) 모형추정상의 특이행렬(singular matrix)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더미변수 중 주5일 근무제 미실시 변수(DFIVE3)를 기간변수로 취급하여 모형에서 배제시켰다. 따라서 나머지 세 변수는 기간변수에 대한 농촌관광 참여율 또는 관광량의 상대적 변화로 해석된다.

농촌관광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농촌관광 비경험자그룹의 타 관광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공익기능에 대한 지불의사를 알아보는 것과 농촌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이 사용될 경우 각 공익기능에 대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각 공익기능자원에 대하여 중요도를 파악하였는데 예시된 5개 공익기능자원 중 지역사회 유지 및 전통문화 계승·보전 기능(IMLOCAL)이 3.41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점하고 있으며, 국토보전기능(IMFLOOD)이 3.12로 두 번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 SAFE)이 2.86이고, 생태계 보존기능(IMECO)가 2.80으로 비슷하며, 자연경관 및 농촌체험 장소로서의 기능(IMNATURE)이 2.61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농촌관광 참여유형에 따라 농촌공익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농촌관광’목적 방문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농촌의 공익기능은 국토보전기능 IMFLOOD(3.32)이며, ‘농촌방문’목적 방문그룹과 비경험자그룹의 경우 지역사회 유지 및 전통문화 계승·보전 기능(IMLOCAL)이 각각 3.42, 3.46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지역구분 역시 3개의 더미변수로 이루어져 있다.²⁾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CAPITAL)가 전체 응답자의 43%를 점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는 32%를 점하고 있다. 농촌관광 참여유형별로 보았을 때, 그룹 간 지역분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 가계소득(NEWINC)은 295만원이고, 직업구분으로서 화이트컬러비율(WHITE)은 57%, 기혼비율(DMARRY)은 50%, 유년시절의 성장배경지로서의 농촌지역비율(LIVING)은 38%,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농촌지역에 거주자가 있는 비율(RELATIVE)은 62% 등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의미의 ‘농촌관광’ 참여유형 그룹은 가구당 월별 소득(NEWINC)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소극적 의미의 ‘농촌방문’ 참여유형 그룹에서는 DMARRY와 WHITE, LIVING, RELATIVE의 모든 변수에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관광성향(TEND)이 휴식 및 체험혼합형을 선호하는 비율은 4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농촌관광’ 참여유형 그룹에서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Poisson hurdle의 방문량결정 모형에만 포함되는 변수로서 수요함수에 필요한

2) 지방의 중소도시그룹(SMCITY)이 기간변수로 사용됨에 따라 모형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지역구분변수의 계수에 대한 해석은 기간변수에 대한 관광참여율 또는 관광량의 상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가격변수인 총지출은 ‘농촌관광’ 참여유형 그룹에서 방문 1회에 수반된 총비용으로서 방문그룹 당 26.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방문’ 참여유형 그룹에서는 23.4만원, 전체 참여자에서는 13.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농촌관광활동 유무별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농촌관광 n=284		농촌방문 n=192		비경험 n=490		합계 n=966	
DFIVE1	0.27	(0.44)	0.26	(0.44)	0.21	(0.41)	0.24	(0.42)
DFIVE2	0.17	(0.38)	0.13	(0.34)	0.14	(0.34)	0.15	(0.35)
DFIVE4	0.17	(0.38)	0.20	(0.40)	0.20	(0.40)	0.19	(0.39)
NATOUR	1.03	(1.75)	1.07	(2.01)	1.41	(4.09)	1.23	(3.19)
CUTOUR	0.41	(0.88)	0.48	(0.96)	0.53	(1.52)	0.49	(1.26)
INTOUR	0.35	(0.92)	0.44	(0.93)	0.47	(1.17)	0.43	(1.06)
PLTOUR	0.94	(1.69)	0.90	(1.54)	1.32	(2.96)	1.12	(2.40)
WTP	0.64	(0.47)	0.63	(0.48)	0.58	(0.49)	0.61	(0.48)
IMNATURE	2.46	(1.41)	2.58	(1.43)	2.72	(1.37)	2.61	(1.40)
IMECO	2.62	(1.25)	2.94	(1.37)	2.86	(1.26)	2.80	(1.29)
IMLOCAL	3.31	(1.33)	3.42	(1.28)	3.46	(1.36)	3.41	(1.34)
IMFLOOD	3.32	(1.42)	3.02	(1.42)	3.05	(1.46)	3.12	(1.45)
IMSAFE	3.10	(1.53)	2.85	(1.55)	2.71	(1.58)	2.86	(1.57)
CAPITAL	0.46	(0.49)	0.44	(0.49)	0.41	(0.49)	0.43	(0.49)
LGCITY	0.26	(0.44)	0.31	(0.46)	0.37	(0.48)	0.33	(0.46)
SMCITY	0.28	(0.44)	0.25	(0.43)	0.22	(0.41)	0.24	(0.42)
NEWINC	311	(134)	307	(132)	281	(134)	295	(134)
WHITE	0.56	(0.49)	0.53	(0.50)	0.59	(0.49)	0.57	(0.49)
DMARRY	0.54	(0.49)	0.64	(0.48)	0.43	(0.49)	0.50	(0.50)
LIVING	0.36	(0.48)	0.54	(0.49)	0.34	(0.47)	0.38	(0.48)
RELATIVE	0.62	(0.48)	0.73	(0.44)	0.58	(0.49)	0.62	(0.48)
TEND3	0.51	(0.50)	0.47	(0.50)	0.41	(0.49)	0.45	(0.49)
TOTEXPI	26.74	(22.74)	23.40	(20.38)	-	-	13.24	(20.67)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농촌관광 참여유형별로, 그리고 주어진 변수 그룹 내에서 관련변수 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비록 통계적 검정절차에 따른 비교는 아니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예상되는 변수의 변이는 궁극적으로 농촌관광 참여 및 방문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관광수요모형은 이들 공변

량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통계적 검정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2. 모형추정

가. 농촌관광 모형

관광목적의 농촌관광 참여자 조사 자료에 Poisson hurdle 모형과 Tobit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는 <표 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추정된 결과의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검정 중 이론적 검정은 파라미터의 부호가 이론적으로 예상된 부호와 일치하는가를 보며, 통계적 검정은 개별 독립변수에 대하여는 t -검정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최우검정을 하였다. 먼저 Poisson hurdle 모형 중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 관련변수는 격 주5일 근무제(DFIVE2) 실시가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0% 유의수준). 그리고 소득(NEWINC)과 혼합형관광 선호성향(TEND3)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유의수준).

반면에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 SAFE)과 거주지구분에서 6대광역시 거주자들은 ‘농촌방문’ 참여유형에 있어서 참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각각 10%와 5% 유의수준).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타 관광활동은 일반적으로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분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와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관광시장 진입장벽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직업구분에 있어 화이트컬러의 농촌관광 참여율은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목적 방문객의 방문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농촌관광 방문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유의수준). 농촌관광 이외의 여타 관광활동으로서 자연생태(NATOUR) 및 역사·문화관광(CUTOUR)의 수요는 농촌관광과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관광활동의 증가에 따라 농촌관광 방문량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각각 1%, 5% 유의수준).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 중 생태계 보존기능(IMECO)과 자연경관 및 농촌체험 장소로서의 기능(IMNATURE), 국토보전기능(IMFLOOD),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 SAFE)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강할수록 농촌관광 방문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각각 1%, 5%, 5%, 10% 유의수준).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 거주자들이 농촌관광 방문량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 유의수준).

<표 3-3> 농촌관광모형 추정결과

	Poisson-Hurdle				Tobit	
	Participation		Consumption		Consumption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DFIVE1	0.2218	1.163	0.3274***	3.474	0.9228*	1.745
DFIVE2	0.3934*	1.816	-0.1698	1.381	0.7349	1.212
DFIVE4	-0.0811	0.388	0.1211	1.064	-0.1986	0.342
NATOUR	-0.0220	0.691	0.1487***	10.013	0.0730	0.949
CUTOUR	-0.0643	0.869	0.0941**	2.231	-0.1644	0.805
INTOUR	-0.0938	1.205	0.0325	0.764	-0.2266	1.082
PLTOUR	-0.0550	1.303	0.0329	1.443	-0.1429	1.307
WTP	0.1768	1.145	-	-	0.4672	1.088
IMNATURE	0.0496	0.764	0.0631**	2.153	0.2202	1.246
IMECO	0.0978	1.443	0.1142***	3.432	0.4599**	2.474
IMLOCAL	0.0385	0.601	-0.0328	1.107	0.0304	0.174
IMFLOOD	-0.0881	1.410	0.0592**	2.004	-0.0911	0.534
IMS SAFE	-0.1069*	1.761	0.0484*	1.735	-0.2027	1.222
CAPITAL	-0.1295	0.693	0.0250	0.257	-0.3914	0.751
LGCITY	-0.5038**	2.502	0.1965*	1.857	-1.1614**	2.082
NEWINC	0.0012**	2.227	-0.0005	1.634	0.0026*	1.676
WHITE	-0.1261	0.803	-0.0561	0.697	-0.3030	0.712
DMARRY	0.2383	1.562	0.0029	0.038	0.5712	1.351
LIVING	-0.2593	1.617	0.0406	0.474	-0.5923	1.334
RELATIVE	0.0172	0.110	-0.0073	0.088	0.0471	0.108
TEND3	0.3452**	2.323	0.0535	0.686	0.9126**	2.206
TOTEXP1	-	-	-0.92E-07	0.525	-	-
CONSTANT	-1.3017*	1.758	1.3793***	4.534	-2.8270	1.409
Sigma					4.9512***	21.058
Log likelihood func.			-1097.701			-1158.74
Likelihood ratio test				122.08***		

주: t 값은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나. 농촌방문 모형

고향 또는 가족/친지 방문목적의 농촌방문 수요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4> 농촌방문모형 추정결과

	Poisson-Hurdle				Tobit	
	Participation		Consumption		Consumption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DFIVE1	0.2355	1.079	0.1016	0.966	1.0384	1.336
DFIVE2	0.0276	0.106	0.1539	1.130	0.2684	0.292
DFIVE4	0.1257	0.546	0.1355	1.147	0.6994	0.851
NATOUR	-0.0295	0.868	0.0516**	2.538	-0.1035	0.843
CUTOUR	-0.0059	0.078	-0.0948**	1.936	-0.1172	0.416
INTOUR	0.0008	0.011	0.0844**	2.036	0.0902	0.308
PLTOUR	-0.0389	0.842	0.0885***	3.380	-0.0428	0.270
WTP	0.0526	0.299	-	-	-0.0991	0.158
IMNATURE	0.0264	0.354	0.0444	1.456	0.3056	1.206
IMECO	-0.0685	0.885	0.1385***	4.317	0.0737	0.280
IMLOCAL	0.0090	0.122	0.1399***	4.379	0.2626	1.039
IMFLOOD	0.0754	1.042	0.0202	0.639	0.4228*	1.712
IMSAFE	-0.0050	0.072	0.0497*	1.695	0.1818	0.763
CAPITAL	0.1198	0.555	-0.3351***	3.168	-0.1160	0.151
LGCITY	0.0453	0.200	-0.3053	2.705	-0.3014	0.375
NEWINC	0.0009	1.442	-0.0001	0.407	0.0030	1.325
WHITE	-0.1969	1.133	-0.1274	1.468	-0.8902	1.437
DMARRY	0.5530***	3.135	0.2632	2.738	1.9602***	3.092
LIVING	0.6042***	3.448	0.1989	2.088	2.3646***	3.718
RELATIVE	0.4580**	2.417	0.2850	2.539	1.9012***	2.818
TEND3	0.0363	0.214	0.1216	1.379	0.3192	0.527
TOTEXP1	-	-	-0.84E-6***	3.290	-	-
CONSTANT	-2.4571***	2.836	2.1148***	6.879	-6.0626**	2.122
Sigma					6.5257***	17.023
Log likelihood func.					-906.97	-894.282
Likelihood ratio test					25.37	

주: t 값은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농촌방문목적의 방문수요 중 참여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혼자 그룹과 농촌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룹, 그리고 농촌지역에 가족이나 친지가 거주하는 집단은 농촌방문목적 유형의 시장참여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 1%, 5%). 여타 관광유형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계수의 부호가 산업/사회관광을 제외한 여타관광에서 대체재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층의 직업군은 농촌방문목적의 참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촌방문 방문량 결정에 있어서는 자연생태(NATOUR), 산업관광(INTOUR), 위락관광(PLTOUR)가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각각 5%, 5%, 1% 유의수준). 그리고 농촌의 공익기능 중 생태계 보존기능(IMECO), 전통문화 보전기능(IMLOCAL),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AFE)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각각 1%, 1%, 10% 유의수준). 반면 문화관광(CUTOUR)은 방문량 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유의수준). 또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보다 참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지출(TOTEXP1)은 '농촌방문'목적 방문량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방문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각각 1% 유의수준).

다. 농촌관광 및 방문 통합모형

농촌관광목적 및 방문목적에 포함한 전체 농촌관광 참여자의 참여결정과 관광소비량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참여량결정모형으로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DFIVE1)와 주 5일 근무제 격주 실시(DFIVE2)의 경우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유의수준). 소득(NEWINC), 기혼자(DMARRY), 농촌지역에 가족 및 친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RELATIVE)와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응답자(TEND3)는 전체농촌관광 참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각각 10%, 1%, 1%, 5%, 5% 유의수준). 이와는 달리 위락관광(PLTOUR)의 수요는 농촌관광과 대체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10% 유의수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AFE), 그리고 광역시 거주자는 참여결정에 있어서 지방의 중소도시보다 시장의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0%, 5% 유의수준).

<표 3-5> 전체 농촌관광 참여자의 추정결과

	Poisson-Hurdle				Tobit	
	Participation		Consumption		Consumption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DFIVE1	0.3481*	1.941	0.1708**	2.469	1.2293***	2.770
DFIVE2	0.3584*	1.745	-0.0883	0.996	0.5547	1.080
DFIVE4	0.0276	0.147	0.1512*	1.925	0.2795	0.587
NATOUR	-0.0341	1.248	0.1076***	10.363	0.0376	0.577
CUTOUR	-0.0604	0.934	0.0030	0.100	-0.2333	1.391
INTOUR	-0.0742	1.103	0.0561**	1.995	-0.0741	0.433
PLTOUR	-0.0653*	1.803	0.0416***	2.587	-0.1063	1.178
WTP	0.1833	1.294	-	-	0.3347	0.937
IMNATURE	0.0555	0.933	0.0453**	2.181	0.3048**	2.070
IMECO	0.0370	0.596	0.1397***	6.232	0.4350***	2.828
IMLOCAL	0.0388	0.657	0.0342	1.638	0.1860	1.269
IMFLOOD	-0.0277	0.483	0.0552***	2.697	0.1846	1.294
IMSAFE	-0.0968*	1.722	0.0544***	2.812	0.0070	0.051
CAPITAL	-0.0255	0.144	-0.0389	0.557	-0.3588	0.818
LGCITY	-0.3723**	2.020	0.0703	0.946	-0.8693*	1.880
NEWINC	0.0016***	3.215	-0.0003	1.438	0.0028**	2.163
WHITE	-0.2303	1.621	0.0017	0.030	-0.5603	1.579
DMARRY	0.5568***	3.956	0.0844	1.428	1.2900***	3.626
LIVING	0.2143	1.461	0.1647***	2.737	0.7823**	2.140
RELATIVE	0.2940**	2.021	0.0822	1.305	0.8966**	2.426
TEND3	0.3195**	2.318	0.0813	1.447	0.7944**	2.300
TOTEXP1	-	-	-0.49E-6***	3.519	-	-
CONSTANT	-1.0290	1.516	1.7292***	8.357	0.2308	0.139
Sigma					4.6526	28.469***
Log likelihood func.	-1668.873				-1704.644	
Likelihood ratio test	71.54***					

주: t 값은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소비량결정요인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그룹(DFIVE1)과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없는 집단(DFIVE4)이 주 5일 근무제 미실시 집단(DFIVE3)보다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각각 5%, 10% 유의수준). 농촌관광 이외의 여타 관광활동으로서 자연생태관광(NATOUR)과 산업관광(INTOUR), 위락관광(PLTOUR)는 농촌

관광과 방문량 결정에 있어서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각각 1%, 5%, 1% 유의수준). 그리고 유년기 성장지역이 농촌지역인 경우(LIVING) 농촌관광에 대한 방문횟수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1% 유의수준).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자연경관 및 농촌체험 장소로서의 기능(IMNATURE)과 생태계 보존기능(IMECO), 국토보전기능(IMFLOOD),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IMSAFE)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강할수록 방문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각각 5%와 1%, 1%, 1% 유의수준). 반면에 총지출은 농촌관광 방문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1% 유의수준).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Poisson hurdle 농촌관광 수요모형에 있어서 참여결정과 방문수요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결정과정에 통계적으로 상이한 영향력(즉, 계수의 크기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계수의 크기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 중에서도 각 결정과정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관광수요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와 방문량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두개의 결정과정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농촌관광 수요모형에 있어서 시장참여 및 방문량결정을 분리해야할 필요성은 Tobit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obit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Poisson hurdle 모형의 참여결정 및 방문량결정 모두 또는 어느 하나에 대해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obit 모형의 경우 두 결정과정의 구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연유한 것이다. Poisson hurdle과 Tobit 모형과의 비교는 두 함수의 추정과정을 통해 계산된 대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 LLF)의 값을 비교하는 우도비율(LR)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LR = 2(LLF_{M1} + LLF_{M2} - LLF_{tobit})$. 식에서 LLF_{M1} 과 LLF_{M2} 는 각각 Poisson hurdle 참여결정과 방문량결정 모형의 대수우도함수값을, LLF_{tobit} 은 Tobit 모형의 대수우도함수값을 의미한다. LR검정의 통계량은 Chi-square값을 취한다.

검정결과, 농촌방문목적 참여유형은 $\chi^2=122.08$ 로서 臨界値=38.93(유의수준=0.01, 자유도=21)을 상회한다. 그리고 전체 농촌관광 참여자의 경우 $\chi^2=71.54$ 로서 臨界値=38.93(유의수준=0.01, 자유도=21)을 상회한다. 따라서 두 모형에는 Poisson hurdle과 Tobit 모형이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촌관광수요에 있어 참여결정과 방문량결정은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두 개의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농촌방문목적 참여유형에는 $\chi^2=25.37$ 로서 臨界値=38.93(유의수준=0.01, 자유도=21)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곧 농촌지역 방문에 있어서 참여결정의 요인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참여결정과 방문량 결정의 분리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농촌관광 참여율 및 소비량의 추정

Poisson hurdle 수요모형의 참여결정과 소비량결정 모형으로부터 농촌관광수요의 결정요인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두 개의 분리 모형으로부터 농촌관광참여율과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관광목적의 농촌관광 수요모형 중 참여결정모형에 의한 농촌관광 참여율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hat{r}_1 = \frac{1}{1 + \exp[-(\beta_{0_1} + \sum_{k=1}^{21} \beta_{k_1} x_{k_1})]} = 28.068\%$$

위의 식에서 \hat{r}_1 은 농촌관광 참여율 추정치를, β_{k_1} 과 x_{k_1} 은 농촌관광 수요모형의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 참여율은 28.068%로 추정되었다.

한편, Poisson hurdle의 두 번째 모형인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참여자의 농촌관광 소비량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hat{q}_1 = \exp(\beta_{0_1} + \sum_{j=1}^{21} \beta_{j_1} x_{j_1}) = 2.6898$$

위의 식에서 \hat{q}_1 은 참여자의 농촌관광횟수 추정치를, β_{j_1} 과 x_{j_1} 은 농촌관광 수요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횟수는 2.6898회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방문목적의 농촌방문 수요모형으로부터 농촌방문 참여율과 방문수요량을 추

정하였다. 먼저 농촌방문 참여율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hat{r}_2 = \frac{1}{1 + \exp[-(\beta_{0_2} + \sum_{k=1}^{21} \beta_{k_2} x_{k_2})]} = 18.263\%$$

위의 식에서 \hat{r}_2 은 농촌방문 참여율 추정치를, β_{k_2} 와 x_{k_2} 는 농촌방문 수요모형의 참여량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방문 참여율은 18.263%로 추정되었다.

Poisson hurdle의 두 번째 모형인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참여자의 농촌방문 소비량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hat{q}_2 = \exp(\beta_{0_2} + \sum_{j=1}^{21} \beta_{j_2} x_{j_2}) = 3.2739$$

위의 식에서 \hat{q}_2 는 참여자의 농촌방문횟수 추정치를, β_{j_2} 와 x_{j_2} 는 농촌방문 수요모형의 소비량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방문횟수는 3.2739회로 추정되었다.

제4절 농촌관광수요 추정

1.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량 추정

연간 농촌관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서 익년도 시점에서 지난 한 해의 농촌관광 참여횟수를 응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묻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의 기억력 쇠퇴로 인해 관광참여자의 지출 추정 못지않은 회상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차조사 방법은 응답자의 회상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량추정에 있어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시차조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농촌관광량을 추정하기 위해 각 월

의 초기시점에서 전월의 누적 농촌관광횟수를 물었다. 시차조사 역시 연말에 근접하여 진행됨에 따라 누적관광량 추정에 있어 회상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연말에 매우 근접한 예컨대, 11월과 12월의 누적관광량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초·중반의 누적관광량은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월별 누적관광량의 변화는 실제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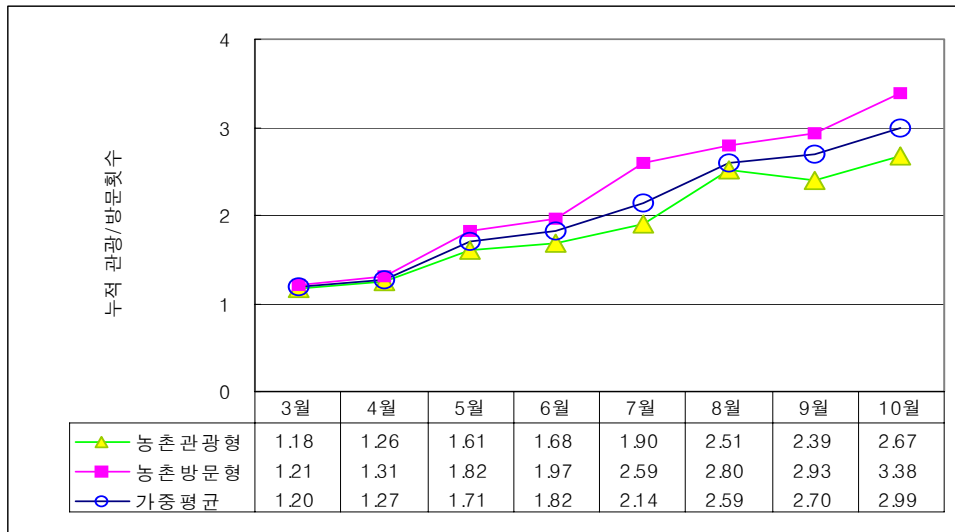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연간 농촌관광량은 시차조사를 통해 수집된 8개(3월~10월) 누적관광량 데이터 포인트를 연말까지 확장하는 방법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누적관광량 자료에 적용된 모형은 로지스틱함수이다. 로지스틱함수는 주어진 기간 내에서 성장 또는 포화효과에 대한 제약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성장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로지스틱모형에 있어 초기의 성장은 서서히 진행되나 중반에 이르러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다가 다시 후반에 가서는 초기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결국은 포화점에 이른다. 농촌관광의 누적 참여량 역시 초반의 성장률은 저속으로 진화하나 중반 시점인 7월과 8월에 이르러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인 후 후반에 이르러 초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로지스틱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고향 또는 친인척 방문목적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는 경우 역시 방문량의 누적분포는 농촌관광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연간 농촌방문량을 추정하였다.

시차조사를 통해 2004년 3월에서 10월까지 수집된 8개의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누적 농촌방문량은 <그림 3-1>에서 보는 것과 같다. 두 유형 간의 월별 평균값은 농촌관광 및 농촌방문의 월별 참여율에 의해 가중 평균화된 값이다.

각각의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누적 농촌방문량에 적용된 로지스틱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at{d}_t = \frac{1}{k + (ab)^t},$$

위 식에서 t 는 시간(월)을, \hat{d}_t 는 t 시점에서 추정된 누적관광량(또는 누적방문량)을 각각 나타낸다. 추정되어야 할 파라미터는 k , a , b 이다. 괄호 안에 포함된 파라미터 중 하나(b)는 제약조건에 의해 1보다 작아야 한다. 포화수준은 $1/k$ 에 의해 결정되며, 로지스틱 곡선의 변곡점은 $\log_e(e^g/b)$ 에 의해 계산된다. 위의 로지스틱함수는 파라미터에 대해 비선형이므로 비선형 추정절차에 의해 추정되어야 한다.



<그림 3-1>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농촌방문량

농촌관광 참여자의 연간 농촌관광량 추정모형 및 농촌방문자의 연간 농촌방문량 추정모형의 적합도는 계수의 t -값과 chi-square 값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양호하다<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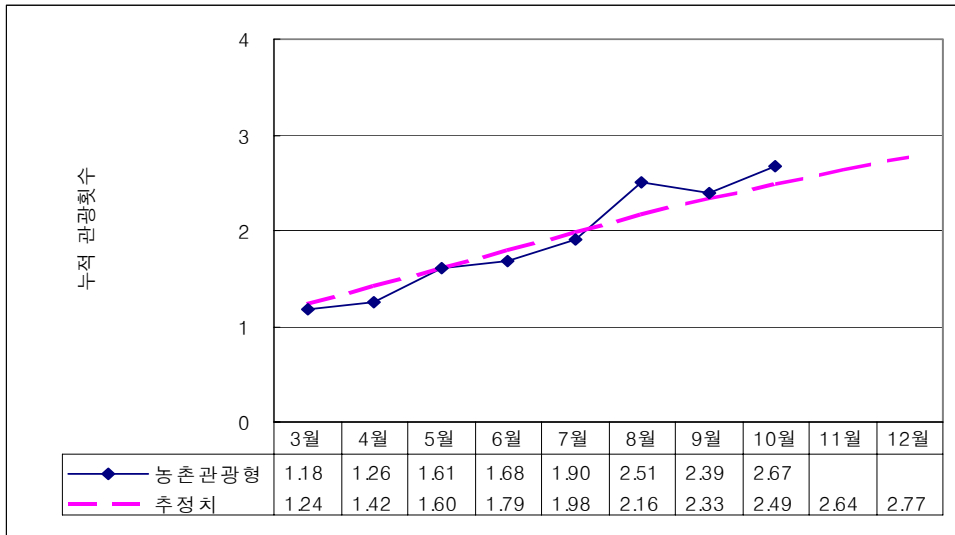
<표 3-6> 연간 농촌관광량 및 농촌방문량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농촌관광모형		농촌방문모형	
	계수	t -값	계수	t -값
k	0.2897	2.2472**	0.1948	1.4817
a	1.6791	9.5636***	1.4346	5.2705***
b	0.4782	5.7626***	0.5671	9.3994***
Log-Likelihood Func. Restricted	-33.93		-33.72	
Log-Likelihood Func. Unrestricted	-6.59		-10.18	
χ^2	54.67 (p<0.000)		47.07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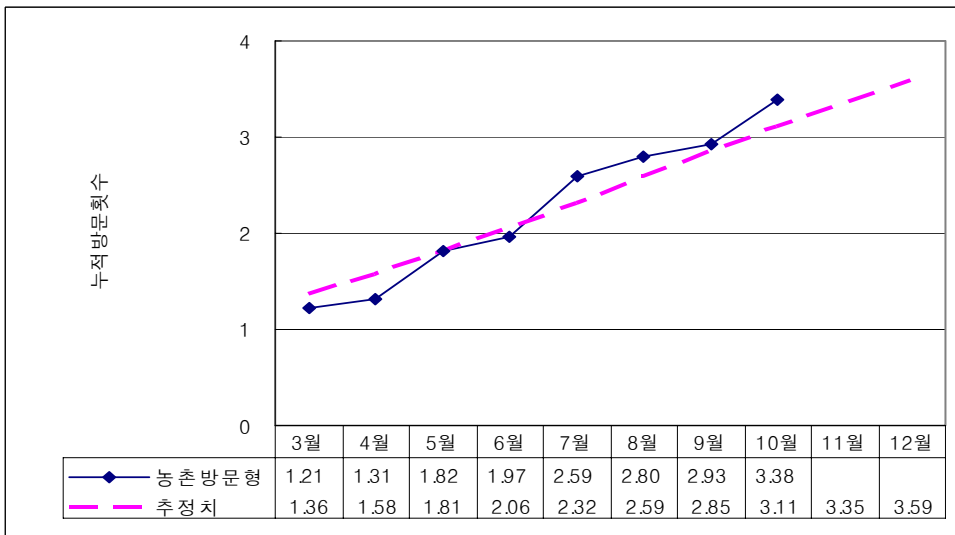
주: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연간 농촌관광량 및 농촌방문량은 로지스틱함수를 연도 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은 2.77회로 나타

났다. 또한 농촌방문자의 1인당 농촌방문량은 3.59회로 추정되었다. 월별 누적관광량 및 누적방문량 추정치를 실제치에 대비시켜 표현하면 각각 <그림 3-2>와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 3-2> 농촌관광 참여자의 월별 누적 농촌관광량 및 추정치



<그림 3-3> 농촌방문자의 월별 누적 농촌방문량 및 추정치

시차조사를 통해 수집된 누적관광량 자료에 로지스틱함수를 적용하여 추정된 농촌관광량과 연말시점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포아송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된 관광량을 비교하였다. 시차조사 자료모형에 의한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관광량 2.77회는 연말시점 자료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관광량 2.69회에 비해 3% 정도 초과한 수치다. 더욱이 연말조사는 2003년의 관광량인 반면, 시차조사는 2004년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차조사 자료모형에 의한 농촌관광량 추정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시차조사 자료모형에 의한 농촌방문 참여자의 1인당 방문횟수는 3.59회로서 연말시점 자료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방문량 3.27회에 비해 9.8% 초과한 수치다. 농촌관광량의 경우에 비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양쪽 모두 파라미터 추정치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차이라면 통계적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앞의 농촌관광량 추정에서 입증된 시차조사 자료모형의 우수성을 연장한다면 농촌방문량 추정치 역시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차조사자료에 의한 관광량의 추정은 연말시점 조사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총 농촌관광량 추정을 위한 요소로서 참여자 일인당 농촌관광량은 시차조사 자료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한다.

2. 농촌관광 총량 추정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총 농촌관광량은 국민 1인당 농촌관광량에 총 국민 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일인당 농촌관광량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총 농촌관광량(TQ_1)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widehat{TQ}_1 = q_1 \times r_1 \times P$$

식에서 q_1 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 r_1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2004년 추계인구)를 의미한다. 이미 q_1 과 P 는 알려져 있으므로 농촌관광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참여율, r_1 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예의 시차조사로부터 해당 연도의 r_1 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가정을 요구하므로 정확하지 않다. 반면에 농촌관광 참여율은 연말시점 조사에 의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 연말시점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 농촌관광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

정된 농촌관광 참여율은 28.07%이다. 따라서 추정된 농촌관광 총량, TQ_1 은 다음 식에서 보는 것과 같다.

$$TQ_1 = 2.766(\text{회/인}) \times 28.07\%(\text{참여율}) \times 48,082,163(\text{명}) = 37,333,537(\text{회})$$

위의 추정식 중 $q_1 \times r_1$ 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촌관광횟수를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국민 1인당 농촌관광량은 0.776회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을 목적을 여행한 횟수는 연간 총 37,334천회로 추정되었다.

한편, 고향방문 또는 농촌의 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농촌방문의 총량(TQ_2)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widehat{TQ}_2 = q_2 \times r_2 \times P$$

식에서 q_2 는 농촌방문자의 1인당 농촌방문량, r_2 는 농촌방문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를 의미한다. 이미 q_2 과 P 는 알려져 있으므로 농촌방문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촌방문율, r_2 를 알아야 한다. 연말시점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 농촌방문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방문 참여율은 18.26%이다. 따라서 추정된 농촌방문 총량, TQ_2 는 다음 식에서 보는 것과 같다.

$$TQ_2 = 3.586(\text{회/인}) \times 18.26\%(\text{참여율}) \times 48,082,163(\text{명}) = 31,489,073(\text{회})$$

위의 추정식 중 $q_2 \times r_2$ 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촌방문횟수를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국민 1인당 농촌방문량은 0.655회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이 아닌 고향 또는 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총 31,489천회로 추정되었다.

한편, 농촌방문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농촌관광에 포함했을 경우 농촌관광(광의) 총량(TQ_{1+2})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widehat{TQ}_{1+2} = \left(\frac{r_1 q_1 + r_2 q_2}{r_1 + r_2} \right) \times (r_1 + r_2) \times P$$

위의 식은 앞의 두 식에 대응하여 설명하기 위해 인구 수(P)를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한 것이다. 먼저 식의 처음 부분은 참여자의 농촌관광량 및 농촌 방문량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며, 두 번째 구성은 농촌관광 및 방문의 참여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구성요소의 곱은 국민 일인당 농촌관광량(광의)을 의미한다. 추정된 광의 개념의 농촌관광 총량, TQ_{1+2} 는 다음 식에서 보는 것과 같다.

$$TQ_{1+2} = 3.089(\text{회/인}) \times 46.33\%(\text{참여율}) \times 48,082,163(\text{명}) = 68,822,610(\text{회})$$

식에서 참여자의 농촌관광량(광의)은 일인당 3.089회이다. 따라서 이 수치에 참여율을 곱한 국민 일인당 상응하는 농촌관광량은 1.431회로 추정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을 포함하여 고향 또는 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총 68,823회로 추정되었다.

참여자의 농촌관광(방문)량, 참여율, 그리고 국민 1인당 및 총 농촌관광(방문)량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표 3-7>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7> 농촌관광 수요량 추정

	참여자		국민 전체	
	참여율	횟수/인	횟수/인	총 횟수(천회)
농촌 관광	28.07%	2.766	0.776	37,334
농촌 방문	18.26%	3.586	0.655	31,489
합 계	46.33%	3.089	1.431	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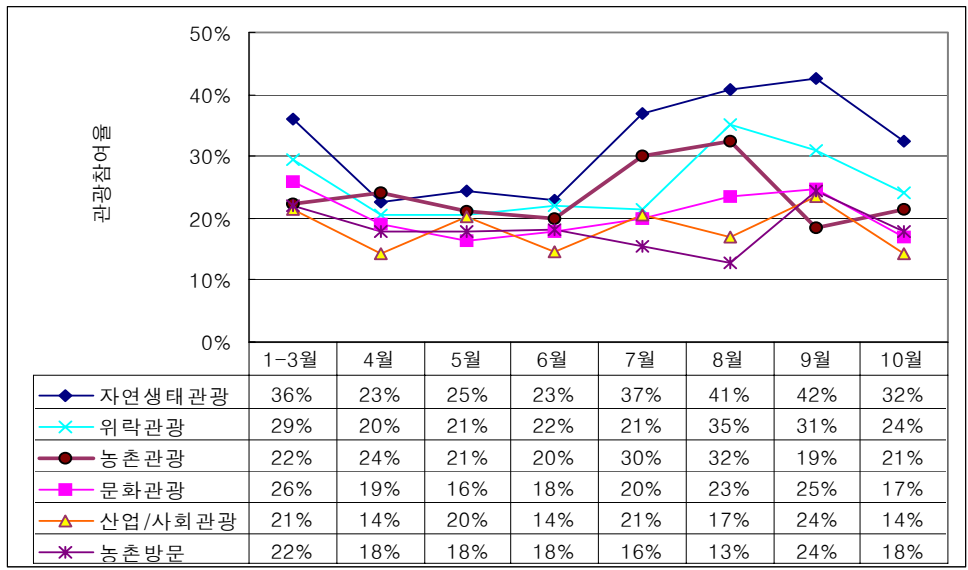
3. 농촌관광과 타 관광유형의 관광수요

농촌관광 역시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 중 하나로서 타 관광활동과 대체 또는 보완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민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농촌관광의 위치도 타 유형 관광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관광의 유형을 자연/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 산업/사회관광, 위락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기

간 중 각 관광유형에 따라 월별 참여도, 참여횟수, 그리고 누적 참여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각 관광유형에 대해서는 설문서에서 구체적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각 관광유형에 따른 관광참여율과 관광량의 월별 추세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이 총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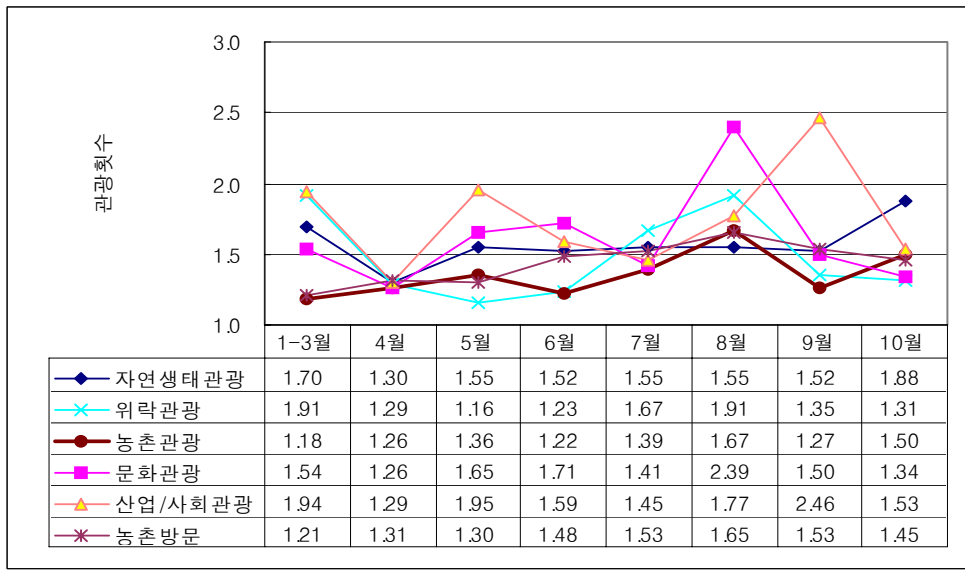
해당 관광유형의 대중적 지지도로 볼 수 있는 관광참여율의 추이는 <그림 3-4>에서 보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관광유형으로서 자연/생태관광의 참여율은 4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특히 7월~9월)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 참여율은 계절별로는 여름인 7월~8월에 피크를 이루고 있다. 성수기의 농촌관광 참여율은 자연/생태관광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9월의 농촌관광 참여율은 타 관광유형에 비해서도 현격히 떨어지는 수준이며 10월 들어 다소 회복되는 추세다. 위락관광의 참여율은 8월~10월에 높으나 그 밖의 월별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다. 그 밖에 역사/문화관광 및 산업/사회관광은 월별로 뚜렷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참여율에 있어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사기간 중 농촌방문 참여율은 추석에 포함된 9월에 정점을 이루는 것과 8월에 최저수준을 보이는 것 외에는 월별로 뚜렷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4월~6월 동안은 관광유형 간 참여율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7월~9월에 이르러서는 관광유형 간 참여율의 차이는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참여율이 해당 관광유형의 대중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참여자의 관광량은 해당 관광유형에 대한 충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유형별 참여횟수는 해당 관광유형의 참여율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림 3-5>. 참여율면에서 대중성이 다분했던 자연/생태관광 참여자의 관광량은 타 관광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10월을 제외하고는 전체 관광유형의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참여율면에서 하향 안정성을 보였던 산업/사회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참여자의 관광량은 월별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의 역사/문화관광과 5월 및 9월의 산업/사회관광 참여자의 방문량은 다른 관광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위락관광 참여자의 관광량은 7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외는 타 관광유형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농촌관광 참여 경험자의 농촌관광량은 5월, 8월, 10월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관광량으로 미루어 보건대, 농촌관광의 대중적 지지도는 갖추어졌으나 충성도(재방문)면에서 아직은 진입단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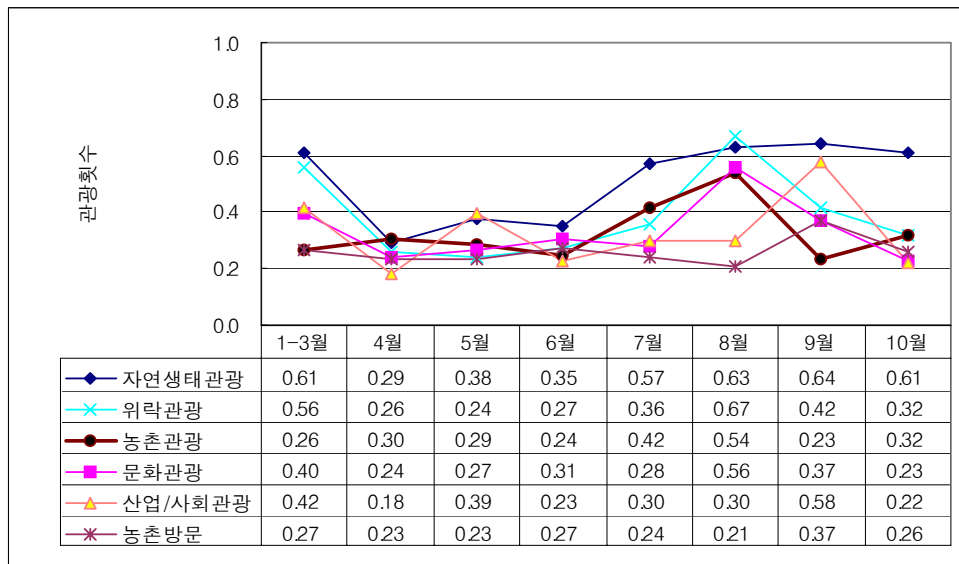
주: 1-3월은 이 기간 중의 누적참여율을 나타냄(이하 같음).

<그림 3-4> 월별/관광유형별 관광참여율



<그림 3-5> 관광유형별 관광횟수(참여자)

참여자의 관광량과 그에 대응하는 참여율을 곱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해당 관광유형의 (평균)관광량이다. 따라서 평균관광량은 참여율에 의한 대중성과 참여자의 관광량에 의해 대변되는 충성도를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3-6>는 관광유형별 평균관광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중성과 충성도를 대표성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의 관광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생태관광이다. 자연/생태관광은 5월의 산업/사회관광, 그리고 8월의 위락관광과 같은 수준의 평균관광량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월에서 가장 높은 참여량을 보이고 있다. 위락관광은 정점인 8월에 타 관광유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량을 보이다가 두 번째 수준인 9월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역시 정도는 미약하나 위락관광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사회관광은 5월과 9월에 피크를 이루나 그 밖의 구간에서는 하향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농촌관광의 평균 참여량은 7월과 8월에 타 관광유형과 비교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관광활동이 뜸한 4월에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구간에서는 하향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촌방문의 평균참여량은 9월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3-6> 관광유형별 관광횟수(전체)

4. 농촌관광 시장규모(관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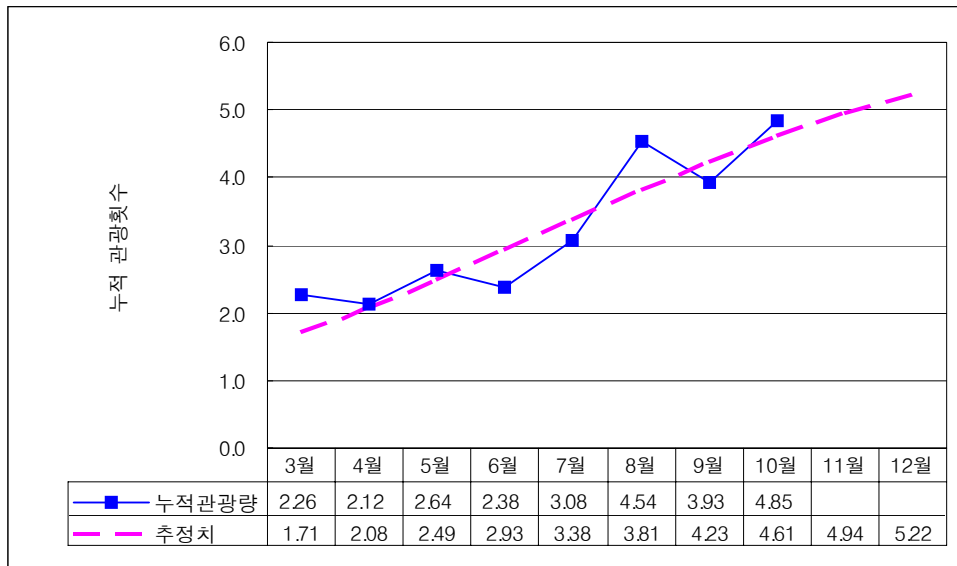
농촌관광 참여율과 참여자의 농촌관광량을 타 유형의 관광과 비교해 봄으로써 수요 측면에 있어서 농촌관광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농촌관광은 비교적 높은 참여율로 인해 대중적 지지도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자별 관광량(즉, 낮은 재방문율)을 유지함에 따라 관광상품으로서의 충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평균 개념으로서 농촌관광은 전체 국내관광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농촌관광량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총 관광량의 추정이 필요하다. 일인당 연간 관광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앞에서 농촌관광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농촌관광의 경우 참여자의 누적관광량을 사용하였으나 국내관광량 추정을 위해서는 참여자 및 비참여자 모두를 포함한 평균 관광량에 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일인당 국내관광량은 초기에 낮은 속도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여름시즌 중에 다가감에 따라 변곡점을 이루며 이후 처음의 증가추세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차조사를 통해 월초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월까지의 누적 국내관광량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10월까지 8개의 누적관광량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들 자료에 로지스틱함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3-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연간 국내관광량 추정모형의 적합도는 계수의 t -값과 chi-square 값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양호하다. 연간 국내관광량은 로지스틱함수를 연도 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추정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관광량은 5.22회로 나타났다. 누적 국내관광량의 추정치를 실제치에 대비시켜 표현하면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8> 연간 국내관광량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계수	t -값
k	0.1378	2.3516**
a	1.0317	7.8054***
b	0.7450	10.563***
Log-Likelihood Func. Restricted	-12.45	
Log-Likelihood Func. Unrestricted	-4.26	
χ^2	16.38 (p<0.000)	

주: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그림 3-7> 월별 누적 국내관광량 및 추정치

국내 총 관광량은 해당연도의 인구에 1인당 국내관광량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따라서 2004년도의 총 국내관광량은 250,997천회로 추정된다. 농촌관광 총량은 같은 연도에 37,334천회로 추정되었으므로 농촌관광이 총 국내관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른다<표 3-9>.

한편, 총 국내관광일수는 1인당 국내관광일수에 해당연도의 인구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시차조사로부터 추정된 관광유형별 관광일수의 가중평균값은 1인 1회당 2.274일(숙박횟수로는 1.274일)이다. 이 수치에 1인당 국내관광량 5.22회를 곱하면 1인당 국내관광일수는 11.872일이 된다. 따라서 총 국내관광일수는 570,834천일로 추정된다. 시차조사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일수의 1인 1회당 평균은 2.181일(숙박횟수로는 1.181일)이다. 이 수치에 1인당 농촌관광량 0.776회를 곱하면 1.694일에 해당하는 1인당 농촌관광일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총 농촌관광일수는 81,429천일로 추정된다. 총 농촌관광일수가 총 국내관광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추정된다<표 3-9>.

<표 3-9> 농촌관광수요의 시장규모

	농촌관광 또는 방문(B)				국내관광(A)				방문횟수	방문일수
	방문횟수(B)		방문일수(b)		방문횟수(A)		방문일수(a)		B/A (%)	b/a (%)
	횟수/인	총 횟수 (천회)	일수/인	총일수 (천일)	횟수/인	총 횟수 (천회)	일수/인	총일수 (천일)		
농촌관광	0.776	37,334	1,694	81,428	5.22	250,997	11.872	570,834	14.9	14.3
농촌방문	0.655	31,489	1,704	81,916					12.5	14.4
합 계	1.431	68,823	3,397	163,344					27.4	28.6

제5절 농촌관광 수요모형 개발의 시사점

본 장에서의 연구목적은 대안관광으로서 농촌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개발하고, 농촌관광 참여에 있어 참여목적에 따른 유형별 구분을 통해 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개발에 있어 주요 착안점은 소비자행동론적 시각에서 볼 때, 농촌관광수요의 본질을 수요자의 관광참여결정 및 방문량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농촌관광수요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주5일 근무제 및 관련변수, 다른 유형의 관광수요,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 자원에 대한 인식 등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설명변수들과 함께 수요모형에 포함되었다. 농촌관광수요는 여가시간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하는 주5일 근무제와 타 관광활동과의 보완 및 대체관계라는 틀 내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농촌내부의 다양한 공익기능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농촌관광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속성을 파악함으로써 농촌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모형의 설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참여 및 소비량결정으로 구분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서 표본선택모형을 고찰하였다. 표본선택모형 중 가산자료의 특성을 갖는 방문수요량을 적절히 다룰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동안 농촌관광량이 '0'으로 표현되는 시장 비참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산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Poisson hurdle 모형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수요를 분석하였다. 모형추정결과를 통해 참여 및 소비량결정은 상이한 변수에 의해 영

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관광 수요모형의 설정에 있어 결정과정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결정과정이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가정한 Tobit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농촌관광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관광’목적 방문객들의 참여결정에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격 주5일 근무제, 소득과 혼합형 관광선호그룹이 참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의 공익기능 중에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이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거주자는 지방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관광시장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타 관광활동은 일반적으로 농촌관광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목적 방문객의 참여시장은 소득에 대해 우등재이며, 격 주5일 근무제가 농촌관광 참여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향후 농촌관광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농촌관광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기능 중 특히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익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는 광역시 거주자들의 농촌관광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적으로 농촌관광은 체험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목적 방문객의 방문량 결정에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5일 근무제, 자연생태관광 및 문화관광 수요,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기능, 국토보전기능,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 생태계 보전기능으로서의 농촌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광역시 거주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농촌관광’목적 방문객의 방문량은 타 관광활동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수요는 자연생태관광 및 문화관광수요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기존 참여자의 농촌관광 방문량의 증가는 이들 관광수요(특히, 자연생태 관광)의 증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관광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참여율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주5일 근무제는 역시 농촌관광 횟수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농촌관광 수요량은 주5일 근무제의 전면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실증적으로 가파른 상승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의 공익기능자원 중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기능, 생태계 보전기능의 중요도 인

식이 농촌관광량의 증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 따라 농촌어메니티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생태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을 활용한 홍보는 농촌관광 재방문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시 거주자들은 농촌관광 방문량에 대해 횡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방문’목적 방문객들의 참여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기혼자와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응답자와 농촌지역에 가족이나 친지가 살고 있는 경우가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에 해당되었다. 이 경우 도시의 출향민이나 독지가와 부단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결정을 유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방문’목적 방문객들의 방문량 결정에는 타 관광활동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수요는 자연생태관광 및 산업관광수요와 위락관광수요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공익기능 중에서 생태계 보존기능, 전통문화 보전기능,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은 방문량 결정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반면 문화관광 수요는 농촌관광 방문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 거주자들이 방문량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광역시 거주자들에 대해 자연생태관광 및 산업관광과 위락관광자원과 연계된 상품의 개발과 체험학습이나 농촌사회 이해나 문화이해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체험과 수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참여결정에는 주 5일 근무제, 격 주 5일 근무제가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며, 소득에 대해 우등재의 성격을 가지며, 기혼자와 농촌지역에 연고가 있는 집단과 혼합형 관광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반면 위락관광은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대해 대체적인 관계를 가지며, 농촌의 공익기능 가운데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주 5일 근무제 제도의 도입이 농촌관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연고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체험과 휴식의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방문량에 있어서는 주 5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없는 응답자와 여타관광 수요 중에서 자연관광, 산업관광, 위락관광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며,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자연경관 및 농촌체험 장소로서의 기능과 생태계 보존기능, 국토보전기능,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강할수록 방문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유년기를 농촌 지역에서 보낸 응답자도 방문량에 대해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지출은 농촌관광 방문량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 경우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출항민을 대상으로 교육적 체험프로그램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조하는 연성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수요모형은 참여결정과 방문량 결정과정으로 구분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방문량결정모형을 지출함수로 대체할 경우 본 수요모형은 농촌관광 총량뿐만 아니라 총지출 예측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농촌관광 총량은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또는 인구)에 참여 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후 참여가구(또는 개인)당 방문횟수를 곱함으로써 추정된다. 농촌관광 총지출은 위의 농촌관광 총량에 소비량(지출)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가구(또는 개인)당 지출을 곱함으로써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의 관광수요모형은 농촌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대안관광에 있어 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수요량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활동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한 방법은 연말시점조사(season end survey)에 의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사방법은 응답자로 하여금 관광방문횟수나 여행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회상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회상오차(recall bias)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지출 등과 관련된 회상오차를 줄이기 위해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시차조사방법(wave survey method)이다. 이 조사방법은 주어진 기간(예컨대, 10개월 간) 동안 일정한 시점(예컨대, 매달 말)에서 해당하는 기간(예컨대, 한 달)에 발생한 관광활동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시차조사는 특히 여행 중 다양한 시점과 항목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회상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시차조사 방법은 또한 관광활동의 계절적 수요에 따른 변동과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이 동태적으로 진행되는 정책변수의 영향에 따른 관광수요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시차조사에 있어서 개인의 연간 관광수요량은 각 시점에서 조사된 누적관광량의 변화패턴을 이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모형(예컨대, 로지스틱 함수)을 적용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

제4장 농촌관광 지출의 결정요인과 추정

제1절 서론

국내 농촌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농촌정주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의 농촌지역 침체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농림부(2004)는 DDA와 FTA협상 등 앞으로의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마을 1,000개소를 조성하고 1社1村 운동과 청소년 체험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내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내여행과 관광부문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2004)의 발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국민여행형태와 패턴의 변화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할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웰빙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국민 여가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농촌관광과 맞물려 농촌관광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소득원으로 일부지역이지만 활발한 도·농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직접적 수익창출을 가져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은 국내외의 변화와 맞물려 농촌지역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일부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농촌관광은 공급측면에서의 양적증대의 단계에서 질적 다변화와 다양화의 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타 특수목적의 관광과 경쟁 혹은 보완관계를 이루며,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오늘날 국내 농촌관광은 수요층의 특성변화에 따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관광분야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수요에 대해 농촌관광 참여 및 소비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설명하고 수요모형을 통해 농촌관광 방문자의 지출구조와 패턴을 살펴보며, 지출의 추정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효율적 유치와 운영을 위해 정책입안자나 농촌관광공급자에게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고찰

지출조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 가족구성, 지역, 물가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 지출조사와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는 특수목적의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많은 연구가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중 대부분은 관광지출에 관한 2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관광지출과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특수목적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소비행태의 분석에는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부자료는 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출 역시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같은 인구·통계적 수준의 변수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ivio and Rosanna, 1993; Huh, 2000; Chi, Hong and Morrison, 1995).

Livio(1993)는 캐나다 통계청자료(1979-89)를 이용하여 OLS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의 여행 지출을 조사하였다. 숙박여행객과 소득은 正의 관계가 환율은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유가에 따라 자가용으로 여행하는 당일 혹은 숙박여행객들은 正의 관계를 가지며, 자가용 당일 여행객(단순 쇼핑객)들은 환율에 負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uh(2000)는 1995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더블허들모형을 통해 여가에 대한 가계의 총지출에 가구주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계의 총지출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여가지출에 正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가지출을 능동과 수동적 여가지출로 분류하여 가구주의 연령, 인종, 가족형태, 소득원의 존재여부가 두 가지 범주의 여가지출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i 등(1995)은 1990년 CES조사를 이용하여 관광상품을 식음료, 숙박, 교통, 오락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러한 범주가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Tobit분석을 통해 인구통계,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네 가지 범주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특수목적 관광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그리 많지 않다. Taylor 등(1993)의 연구에서는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OLS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의 일인

당 일일평균지출을 종속변수로 소득과 TV를 통한 여행정보습득이 방문객지출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야영객과 방문그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인당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방문객 지출과 역사유적지 사이에 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ob(1991)의 연구에서는 NZ(뉴질랜드) Tourist and Publicity Department의 1986년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FLC(Family Life Cycle)를 8단계로 나누어 25세 미만의 개인여행객은 사회지향적인 성향을 가지며, 아이를 동반한 여행객은 숙박, 식음료, 여행, 관광, 쇼핑, 오락항목의 지출액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eones 등(1998)은 생태관광 수요연구에서 자연관광 여행객이 많은 지출을 하며, Tobit분석을 통해 '0'의 지출에 대한 처리를 하였다. 자연관광객은 지출에 있어서 正의 관계가 있으며, 자연생태지역 150마일 이내 거주자는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계효과의 분해를 통해 방문객의 성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위락관광객의 지출패턴 연구(Jang, Bai, Hong and O'Leary, 2004), 그리고 비소비적 야생관련 관광의 지출 분석(Cai, 1997), 자연생태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해 지출에 의한 분류를 통한 집단간 비교연구(Mok and Iverson, 2000) 등과 같은 관광활동에 참가하는 관광자의 지출은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수들과 인문지리, 여행패턴, 목적지의 성격, 그리고 관광활동 등과 관련된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지출패턴을 알기 위해 방문자의 행동을 참여결정과 소비량결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해줄 수 있는 수요모형이 필요하다. 참여결정을 포함하는 관광수요모형의 설정과 이러한 모형추정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에는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s)이 있다. 지출함수 설정에 있어서 방문량 관측치에 대해서는 분석시 正의 방문량 관측치만을 사용하여 파라메타를 추정하게 되면 최소자승법(OLS)은 불일치 추정을 결과하게 되며, 방문량이 '0'인 경우의 측정값들은 OLS이용시 수요함수는 편의·불일치된 추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본선택모형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관광지출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double-hurdle 모형이다.

Double-hurdle 모형의 기본 가정은 한 재화에 대한 잠재수요자가 될 것과 해당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ragg, 1971). Double-hurdle 모형의 추정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모든 표본에 대해 Probit 선택모형을 적용하는 단계, 두 번째는 正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절두

(truncated)모형에 따른 표본선택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Double-hurdle 모형의 경우 참여 및 지출소비를 위한 두 가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설명변수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융통적이며, 소비자 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Chi, 1997; Yen and Jensen, 1996). 본장에서 농촌관광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모형은 double-hurdle 모형이다.

제3절 자료 및 모형추정

1. 자료 및 변수

농촌관광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응답자로부터 지출회상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 중의 하나인 시차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수행되었다. 각 조사시점에서 전월에 발생한 농촌관광지출을 포함한 농촌관광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지출모형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동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시차조사로부터 총 1,912개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으나 지출함수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결측치가 없는 1,629개이다. Double-hurdle 지출모형은 Limdep 8.0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모형의 추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시차조사로부터 수집되기는 했으나 Double hurdle 모형의 참여결정과정은 이미 제3장에서 연말시점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촌관광 수요모형 추정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따라서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은 지출결정모형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였다. 지출결정모형의 추정은 正의 소비지출로부터 관찰되는 표본에 대해 사절두(truncated)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농촌관광 지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된 설명변수는 <표 4-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설명변수로서 농촌관광 활동과 관련된 변수와 지역구분으로서 수도권지역과 광역시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다. 또한 여타유형의 관광에 대한 참여도와 관광성향을 의미하는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소득, 결혼여부, 직업구분,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과 농촌관광객의 전체지출액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1>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정의
수도권지역(LCAPITAL)	거주지역중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1; 기타=0
광역시권역 거주(LGCITY)	거주지역중 6대 광역시(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거주자
여타관광유형 참여횟수(OTVISIT)	자연/생태·역사/문화·산업/사회·위락관광 참여횟수
휴식형 관광선호집단(PREFACT)	휴식위주의 관광선호 집단=1; 기타=0
활동적 관광선호집단(PREFPASS)	활동과 체험적 관광 선호집단=1; 기타=0
가구당 월별 소득(NEWINC)	응답자의 가구소득 (만원/월)
결혼여부(MARRY)	응답자의 결혼여부 기혼=1; 미혼=0
직업구분에 따른 화이트칼라층(WHITE)	응답자의 직업 사무직(전문직, 사무직, 공무원·교직원)=1; 기타=0
연령(AGE1)	응답자의 연령
성별(GENDER)	응답자의 성별 남자=1; 여자=0
교육수준(EDU)	응답자의 교육수준 대졸이상=1; 대졸이하=0
농촌관광 참여자의 방문유형(FAMILY)	가족단위 농촌관광 참여자=1; 기타=0
숙박일수(LENGTH)	농촌관광 참여자의 숙박일수
그룹내 방문자수(NEWPARTY)	농촌관광 참여자의 방문그룹내 방문자수
식·음료비 비중(RFOOD)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 중 식·음료비 비중
교통비 비중(RAUTO)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 중 교통비 비중
오락비 비중(RPLAY)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 중 오락비 비중
쇼핑비 비중(RSHOP)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 중 쇼핑비 비중
숙박비 비중(RLODGE)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 중 숙박비 비중
총지출(TOTEXP)	농촌관광 참여자의 총지출(만원/회)

농촌관광 지출함수에 포함된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다. 각 변수의 평균값은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출 모형은 농촌방문목적 구분에 따라 별개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농촌관광 참여는 다시 관광목적의 농촌관광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방문목적의 농촌관광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를 ‘농촌관광’으로 구분 하였으며,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를 방문한 경우는 ‘농촌방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4-2>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표준편차)			합계 N=1,629
	농촌관광 N=381	농촌방문 N=286	비참여자 N=962	
LCAPITAL	0.43(0.49)	0.40(0.49)	0.49(0.50)	0.46(0.49)
LGCITY	0.44(0.49)	0.46(0.49)	0.43(0.49)	0.44(0.49)
OTVISIT	2.25(3.14)	2.27(3.97)	1.13(1.92)	1.59(2.75)
PREFACT	0.16(0.36)	0.16(0.37)	0.13(0.34)	0.14(0.35)
PREFPASS	0.33(0.47)	0.30(0.45)	0.27(0.44)	0.29(0.45)
NEWINC	331(138)	307(140)	313(137)	316(138)
MARRY	0.54(0.49)	0.59(0.49)	0.49(0.50)	0.52(0.49)
WHITE	0.49(0.50)	0.42(0.49)	0.48(0.49)	0.47(0.49)
AGE1	34(9.07)	35(9.34)	34(9.08)	34(9.14)
GENDER	0.49(0.50)	0.55(0.49)	0.45(0.49)	0.47(0.49)
EDU	0.74(0.43)	0.70(0.45)	0.72(0.44)	0.72(0.44)
FAMILY	0.39(0.48)	0.70(0.45)	-	0.21(0.41)
LENGTH	1.18(1.08)	1.60(1.73)	-	0.55(1.12)
NEWPARTY	3.69(4.06)	2.84(2.53)	-	1.36(2.78)
RFOOD	0.35(0.20)	0.31(0.25)	-	0.33(0.22)
RAUTO	0.27(0.19)	0.40(0.25)	-	0.33(0.23)
RPLAY	0.07(0.12)	0.04(0.95)	-	0.06(0.11)
RSHOP	0.04(0.99)	0.08(0.17)	-	0.06(0.13)
RLODGE	0.14(0.18)	0.04(0.11)	-	0.10(0.16)
TOTEXP	23.95(23.50)	17.40(17.18)	-	21.14(21.26)

우선 ‘농촌관광’에 해당하는 방문객들의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는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는 43%이며, 6대 광역시 거주자는 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타관광유형의 평균 방문횟수는 2.25회였으며, 활동적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16%, 휴식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33%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혼자는 54%, 전문·사무·공무원/교직원으로 구성된 직업군은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광’목적 방문객들의 평균연령은 34세였으며, 남자의 비율이 49%였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74%였고, 방문유형 중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평균 체제일수는 1.18일로 나타났고, 그룹내 평균 방문자수는 3.69명이었으며, 총지출의 평균은 23.45만원이었으며, 전체 지출에서 식음료비의 비중은 35%, 교통비의 비중은 27%, 오락비의 비중은 7%, 쇼핑비는 4%, 숙박비의 비

중은 14%로 나타나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농촌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는 '농촌관광'의 방문객들은 식음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촌지역 방문객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를 방문한 경우, 즉 '농촌방문'으로 분류된 그룹의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는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는 40%였으며, 6대 광역시 거주자는 4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타관광유형의 평균방문횟수는 2.27회였으며, 활동적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16%, 휴식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30%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혼자는 59%로 미혼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이트컬러층 직업군의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방문'형 목적의 방문객들의 평균연령은 35세였으며, 남자의 비율이 55%였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70%로 나타났고, 방문유형 중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평균 체제일수는 1.60일로 나타났고, 그룹내 평균 방문자수는 2.84명이었다. 지출부분에서 총지출의 평균은 17.4만원이었으며, 전체 지출에서 식음료비의 비중은 31%, 교통비의 비중은 40%, 오락비의 비중은 4%, 쇼핑비는 8%, 숙박비의 비중은 4%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는 '농촌방문'형의 응답자들은 교통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는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는 49%였으며, 6대 광역시 거주자는 4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타관광유형의 평균 방문횟수는 1.13회였으며, 활동적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13%, 휴식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27%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1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혼자는 49%로 미혼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이트컬러층의 직업군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방문'형 목적의 방문객들의 평균연령은 34세였으며, 성비의 구성은 남자의 비율이 45%로 나타났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72%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들의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의 거주자는 46%였으며, 6대 광역시 거주자는 44%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타관광유형의 평균방문횟수는 1.59회였으며, 활동적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14%, 휴식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은 29%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1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혼자는 52%로 미혼그룹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이트컬러층 직업군의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4세였으며, 남자의 비율이

47%였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72%로 나타났고, 방문유형 중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평균 체제일수는 0.55일로 나타났고, 그룹내 평균 방문자수는 1.36명이었다. 지출부분에서 총지출의 평균은 약 21만원이었으며, 전체 지출에서 식음료비의 비중은 34%, 교통비의 비중은 33%, 오락비의 비중은 6%, 쇼핑비는 6%, 숙박비의 비중은 1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들의 항목별 지출에서는 식음료비와 교통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출모형의 추정

농촌관광활동에 대해 조사된 자료에 正의 소비량(농촌지역방문객)으로 관찰되는 표본에 사절두(truncated)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소비량결정(지출함수)에 대해 추정된 결과는 <표 4-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추정된 결과의 통계적 검정은 개별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t -검정을 통해 전체에 대해서는 최우검정을 하였다. 농촌지역 방문객들을 방문목적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농촌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를 ‘농촌관광’으로 구분하였고,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를 방문한 경우를 ‘농촌방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리하였다.

‘농촌관광’ 목적관련 방문객의 지출은 가족단위 방문객, 숙박일수, 전체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숙박비의 비중, 그리고 그룹내 방문자수에 의해 유의한 正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상 1% 유의수준). 반면에 전체 지출 중에서 교통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농촌관광의 지출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수준). 인구통계적 특성 중 농촌관광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로서 남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5% 수준).

‘농촌방문’형 방문목적을 가진 응답자의 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그룹내 방문자수(1% 수준), 수도권거주자, 여타유형의 관광량, 총 지출 중 쇼핑비의 비중(이상 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방문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화이트컬러층의 직업군, 총 지출 중 교통비의 비중(이상 1% 수준), 그리고 식음료비의 비중(5%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전체 방문객의 지출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숙박일수, 가족단위 방문객, 그룹내 방문자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교통비의 비중은 농촌관광 지출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 1% 수준). 그 밖에 여타유형의 관광참여도, 소득, 남성 등의 변수가 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상 5% 수준).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여타지역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수준).

<표 4-3> 농촌관광활동 지출 추정 결과

변수명	농촌관광(N=380)		농촌방문(N=286)		합계(N=666)	
	Coefficient	t-value ^a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LCAPITAL	5.7632	0.567	25.0315**	2.321	14.8788*	1.70
LGCITY	11.3938	1.100	9.0981	0.936	11.7305	1.36
OTVISIT	0.8295	0.899	1.3301**	2.391	1.3244**	2.24
PREFACT	-5.6597	0.626	1.2001	0.163	-1.9705	0.27
PREFPASS	-2.8731	0.456	-7.3789	1.145	-5.2910	0.99
NEWINC	0.0336	1.545	0.0185	0.858	0.0419**	2.23
MARRY	-8.7072	0.927	6.6595	0.831	-3.0175	0.40
WHITE	-0.8976	0.150	-19.3980***	2.874	-8.4569	1.63
AGE1	-0.2047	0.419	-0.1128	0.304	0.0993	0.26
GENDER	15.1722**	2.462	5.9571	1.076	12.4647**	2.45
EDU	3.3937	0.461	-4.1537	0.625	-3.0428	0.50
FAMILY	28.3450***	3.633	5.1312	0.768	17.8007***	2.94
LENGTH	16.6025***	5.211	2.0155	1.184	8.0988***	4.34
NEWPARTY	4.5874***	6.583	5.0557***	5.051	5.0834***	7.84
RFOOD	27.7695	1.380	-29.7745**	2.163	-8.1687	0.58
RAUTO	-66.1482***	2.641	-91.0988***	4.194	-103.762***	5.06
RPLAY	38.7499	1.431	1.7649	0.063	21.0650	0.95
RSHOP	35.7668	0.962	32.6695**	2.041	36.6930*	1.86
RLODGE	94.5840***	4.183	6.8942	0.315	84.0641***	4.89
CONSTANT	-92.2793***	3.193	-7.6439	0.366	-68.4782***	3.06
Sigma	30.8947***		24.0010***		31.7018***	
Log Likelihood Function	-1497.912		-1046.528		-2573.770	

주: t-값은 절대값을 나타냄.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제4절 지출의 추정

1. 농촌관광지출 추정

앞에서 설정된 지출모형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하였다. 지출함수로서 적용된 모형은 사절두 회귀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이다. 모든 관측치 중 지출이 발생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선택의 규칙이 적용됐으므로 본 모형은 '0'에서 절단된 사절두 회귀모형이다. 관광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농촌관광 참여자의 지출은 다음의 식을 통해 추정된다.

$$\hat{s}_1 = \beta_0 + \sum_{k=1}^{19} \beta_{k_1} x_{k_1} - \sigma_1 \frac{\phi_1}{\Phi_1} = 239,188(\text{원})$$

위의 식에서 \hat{s}_1 은 농촌관광 참여자 지출의 조건부 평균값, β_{k_1} 과 x_{k_1} 은 농촌관광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ϕ_1 , Φ_1 은 각각 농촌관광 지출모형의 밀도함수와 분포함수를, 그리고 σ_1 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지출은 방문그룹당 239,188원으로 추정되었다.

방문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찾은 농촌방문자의 지출추정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hat{s}_2 = \beta_0 + \sum_{j=1}^{19} \beta_{j_2} x_{j_2} - \sigma_2 \frac{\phi_2}{\Phi_2} = 166,520(\text{원})$$

위의 식에서 \hat{s}_2 는 농촌방문 참여자 지출의 조건부 평균값, β_{k_2} 와 x_{k_2} 는 농촌방문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와 변수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ϕ_2 , Φ_2 는 각각 농촌방문 지출모형의 밀도함수와 분포함수를, 그리고 σ_2 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결과에 의하면 농촌방문 참여자의 농촌방문 지출은 그룹당 166,520원으로 추정되었다.

2. 농촌관광 시장규모(지출)

농촌관광을 위해 사용된 지출의 총 규모는 농촌관광 참여자의 총 관광일수에 1인 1일당 지출액을 곱함으로써 구해진다. 총 농촌관광일수는 국내 인구수에 농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농촌관광 참여자 수)에 다시 참여자 1인당 총 관광일수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관광목적 참여자의 농촌관광 총 지출규모, \hat{S}_1 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hat{S}_1 = ss_1 \times d_1 \times r_1 \times P = 2,418,070,161,906(\text{원})$$

식에서 ss_1 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d_1 은 관광참여자의 총 농촌관광일수, r_1 은 농촌관광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2004년 추계인구)를 나타낸다. 앞의 <표 3-10>으로부터 총 농촌관광일수는 81,428천일(=6.034일*28.07%*48,082,163명)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인 1일당 지출을 알면 지출측면에서 본 농촌관광의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일인 1일당 농촌관광지출은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그룹당 지출을 그룹내 인원수와 체재일수로 나눈 값으로서 29,696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04년에 농촌관광을 위해 지출된 총 금액은 약 2조 4,180억으로 추정된다.

방문목적의 농촌방문 참여자의 총 지출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농촌방문 참여자의 총 지출규모, \hat{S}_2 는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hat{S}_2 = ss_2 \times d_2 \times r_2 \times P = 1,842,338,943,103(\text{원})$$

식에서 ss_2 는 농촌방문 참여자의 1인 1일당 지출, d_2 는 방문자의 총 농촌방문일수, r_2 는 농촌방문 참여율, 그리고 P 는 총 국내 인구수(2004년 추계인구)를 나타낸다. 앞의 <표 3-10>으로부터 총 농촌방문일수는 81,916천일(=9.328일*18.26%*48,082,163명)로 추정되었다. 일인 1일당 농촌방문지출은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그룹당 지출을 그룹내 인원수와 체재일수로 나눈 값으로서 22,491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04년에 농촌관광을 위해 지출된 총 금액은 약 1조 8,422억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4-4>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4> 농촌관광 총 지출액 추정

	지출/그룹 (원)	지출/1인/1일 (원)	체재일수/인 (일)	참여율 (%)	총 농촌 관광일수(천일)	총지출(백만)
농촌관광	239,187	29,696	6.034	28.07	81,428	2,418,070
농촌방문	166,520	22,491	9.328	18.26	81,916	1,842,339

주: 그룹당 지출은 지출함수로부터 추정된 값임.

지출의 공간분포로서 목적지와 경유지간 총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공간구분별 적용된 구성비는 제2장의 농촌관광 실태조사로부터 계산된 것이다. 농촌관광목적 방문객은 목적지에서 총지출의 90.6%에 해당하는 약 2조 1,900억을 사용했으며, 경유지에서의 지출은 약 2,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촌방문목적 방문객의 목적지에서의 지출구성은 총지출의 약 87.6%에 달하는 약 1조 6천억원에 이르며, 경유지에서의 지출구성은 약 2,2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5>. 한편, 국내 총 관광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촌관광지출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총 관광지출을 추정하였다. 국내 총 관광지출은 제2장에서 언급된 네 관광유형의 1인 1일당 지출과 농촌관광 및 농촌방문의 1인 1일당 지출의 가중평균에 총 국내 관광일수를 곱함으로써 도출되었다. 국내 총 관광지출액은 2004년도에 약 15조 6,000억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관광목적의 농촌관광 참여자의 총 지출이 국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이른다.

<표 4-5> 총 지출의 공간분포 및 시장규모

단위: 백만

	목적지	경유지	합계(B)	총 국내 관광지출액(A)	B/A(%)
농촌관광	2,190,772	227,299	2,418,070	15,596,116	15.5
농촌방문	1,613,888	228,450	1,842,339		11.8
합 계	3,881,565	466,499	4,260,409		26.3

제5절 농촌관광 지출수요모형 추정의 시사점

지출수요모형 설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목적의 농촌관광형 참여자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가족단위 방문객, 숙박일수, 그룹내 인원수, 그리고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숙박비의 비중 등이다. 이들 결정요인은 농촌관광지출의 크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관광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숙박을 하는 가족형 방문자의 증대가 곧 관광수입의 증대로 이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타겟 마켓에 대한 시장전략으로서 관광농원이나 민박, 체험농장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농촌지역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드웨어적인 양적 증가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교통비는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체 관광지출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원거리 방문자의 경우 이동거리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다른 지출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촌관광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농촌방문목적 농촌참여자의 지출은 수도권지역의 도시민, 여타유형의 관광참여도, 그룹내 방문자수, 그리고 쇼핑비의 비중과 관련된 변수에 의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수도권주민의 농촌방문활동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촌방문이 타 관광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방문목적의 참여자는 토산품 등의 구입을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화이트컬러의 직업군과 식음료비의 비중, 교통비의 비중은 농촌관광 지출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측면에서 볼 때, 화이트컬러 계층의 농촌방문활동은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교통비 또는 식음료지출이 클수록 나머지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모형은 또한 그룹당 관광지출의 추정을 위해 이용되었다. 지출추정치를 이용하여 총 농촌관광지출을 추정하였으며, 국내 총 관광지출액과 대비시켜 봄으로써 지출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촌관광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제5장 농촌관광 시장세분화

제1절 농촌관광 참여이유의 요인화

농촌관광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해 농촌관광 참여이유(선택속성)에 관한 22개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수는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표현되었다. 농촌관광의 선택속성에 대한 질문은 농촌관광 참여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적용되었다. 다만 방문 경험이 없는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만약 농촌을 방문할 경우를 가정하여 각 선택속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통합하여 요인분석을 한 이유는 요인분석 후 각 선택속성의 유사성에 의해 묶인 요인에 대해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만약 양자간 차이가 없다면 농촌관광의 경험유무가 농촌관광의 선택속성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장세분화를 수행함에 있어 양자를 모두 통합한 자료에 의해 진행해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주어진 요인에 대하여 양자간 차이가 검증된다면 모든 절차는 경험유무에 따라 분리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요약하는 R-type 요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value) 기준을 적용하여 값이 1보다 클 경우에 대해 요인을 적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결과는 <표 5-1>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분석 결과에 대해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2>.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참여이유에 대한 5개 요인 중 2개 요인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간에 있어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농촌관광 참여자 그룹과 비참여자 그룹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농촌관광 세분시장별 프로파일을 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표 5-1> 농촌관광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a (factor)	요인변수 (variable)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요인 1 (34.0% ; $\alpha=0.900$)	- 민속놀이	.753
	- 생태체험	.717
	- 겨울축제	.711
	- 자연채취체험	.674
	- 어촌체험	.664
	- 농촌생활체험	.664
	- 자연탐방	.637
	- 농경체험	.595
	- 자연학습	.573
	- 건강체험	.556
- 지역농산물 축제	.555	
요인 2 (8.7% ; $\alpha=0.705$)	- 농가민박	.788
	- 관광농원	.727
	- 주말농장	.479
요인 3 (7.8% ; $\alpha=0.633$)	- 농산물구입	.788
	- 향토음식	.733
요인 4 (5.2% ; $\alpha=0.725$)	- 휴식 및 여가	.785
	- 농촌의 자연과 경관	.765
	- 자연휴양림	.554
요인 5 (4.9% ; $\alpha=0.701$)	- 명절/관혼상제	.861
	- 가족/친지방문	.826
	- 지역행사	.524

주: 추출된 요인별 설명분산의 누적계수는 60.9%임.

<표 5-2>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선택속성 요인의 차이분석

구분	참여자		비참여자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2.97	.81	3.26	.70	-8.018	.000*
요인 2	2.78	.82	2.99	.76	-5.677	.000*
요인 3	3.72	.79	3.77	.70	-1.509	.132
요인 4	2.96	.97	2.94	.89	.471	.638
요인 5	3.14	.96	3.09	.85	.990	.322

주: *는 $p < 0.01$.

제2절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참여자)

1.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화

앞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관광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3>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참여이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적 일관성 검정에서는 모든 요인의 Cronbach α 값이 6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을 고려하여 이름을 명명하였다. 먼저 요인 1은 ‘겨울축제’, ‘민속놀이’, ‘어촌체험’, ‘자연탐방’, ‘생태체험’, ‘건강체험’, ‘지역농산물축제’로 7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이고 있어 “체험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관광농원’, ‘농가민박’, ‘자연학습’, ‘자연채취체험’, ‘농경체험’, ‘농촌생활체험’, ‘주말농장’의 7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학습 교육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농산물구입’과 ‘향토음식’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었기에 “먹거리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명절/관혼상제’, ‘가족/친지방문’, ‘지역행사’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고향방문형”으로, 그리고 요인 5는 ‘휴식 및 여가’, ‘농촌의 자연과 경관’, ‘자연휴양림’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단순 휴식형”으로 명명하였다.

2.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군집분석

다섯 가지 요인으로 추출된 농촌관광 선택속성을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계수 값을 사용하여 5개의 적절한 군집수를 유효군집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K-means 군집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한 군집을 추구편의 속성에 대한 5가지 요인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DMR Test(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대표성을 가지는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군집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다.

농촌관광 참여자 군집으로서 군집1 “복합적 참여형”은 전체적으로 요인별 수치가 높게 나타나 복합적인 농촌관광 참여형태를 나타내는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2 “적극적 참여형”은 농촌관광 방문객들이 ‘먹거리 선호형’ 요인에만 낮은 평균을 보이며 다른 요인에는 모두 높은 수치를 가지는 형태를 나타내어 적절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 3 “소극적 참여형”(군집3)은 모든 요인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이 군집명을 명명하였다. 군집 4 “교육적 참여형”은 ‘학습교육형’ 요인에 대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 5 “단순 휴식형”(군집5)은 ‘단순 휴식형’ 요인에만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이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표 5-3>농촌관광 참여자의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a (factor)	요인변수 (variable)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요인 1 체험 추구형 (37.1% ; $\alpha=0.869$)	- 겨울축제	.761
	- 민속놀이	.713
	- 어촌체험	.697
	- 자연탐방	.637
	- 생태체험	.590
	- 건강체험	.558
	- 지역농산물 축제	.549
요인 2 학습 교육형 (8.5% ; $\alpha=0.860$)	- 관광농원	.732
	- 농가민박	.716
	- 자연학습	.662
	- 자연채취체험	.553
	- 농경체험	.515
	- 농촌생활체험	.492
	- 주말농장	.461
요인 3 먹거리 선호형 (7.3% ; $\alpha=0.737$)	- 농산물구입	.760
	- 향토음식	.701
요인 4 고향 방문형 (5.0% ; $\alpha=0.701$)	- 명절/관혼상제	.821
	- 가족/친지방문	.762
	- 지역행사	.543
요인 5 단순 휴식형 (4.7% ; $\alpha=0.647$)	- 단순 휴식 및 여가	.785
	- 농촌의 자연과 경관	.750
	- 자연휴양림	.520

주: Varimax 회전 후 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별 설명분산의 누적계수는 59.1%임.

<표 5-4> 농촌관광 참여자의 선택속성을 통한 군집간의 분산분석

	군집1(N=153) 평균(표준편차)	군집2(N=207) 평균(표준편차)	군집3(N=99) 평균(표준편차)	군집4(N=179) 평균(표준편차)	군집5(N=125) 평균(표준편차)	F값	p값
체험 추구형	3.40(.63) H ^a	3.56(.55) VH	2.18(.74) VL	2.81(.74) M	2.37(.77) L	115.469	.000*
학습 교육형	2.80(.63) M	3.36(.52) H	2.22(.67) L	3.30(.61) H	2.13(.67) L	128.116	.000*
먹거리 선호형	3.78(.70) H	2.84(.73) L	2.14(.79) VL	3.44(.76) M	2.09(.75) VL	137.957	.000*
고향 방문형	3.69(.72) H	3.55(.68) H	3.21(.81) M	3.02(.85) L	1.85(.64) VL	133.806	.000*
단순 휴식형	4.04(.62) H	3.96(.55) H	2.45(.69) L	3.61(.65) M	4.04(.63) H	127.990	.000*
	복합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교육적 참여형	휴식형		

주1: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05$)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VL(very low), L(low), M(middle), H(high), VH(very high)로 구분하여 표기함.

주2: * $p < 0.01$.

3. 농촌관광 참여자의 관광시장 세분화

농촌관광 참여자들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군집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의 비교분석은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분시장에 따라 연령, 결혼여부, 학력수준, 직업,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분시장의 비교분석에서는 3번 군집(소극적 참여형), 4번 군집(교육적 참여형)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번 군집(복합적 참여형)과 2번 군집(적극적 참여형), 그리고 5번 군집(단순휴식형)에서는 20대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순 휴식형” 군집에서만 미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군집에서는 기혼자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는 모든 군집에서 대졸이상의 응답자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는 사무직에 속한 응답자들이 정적이고 단순한 휴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비스직에 속한 응답자들은 농촌관광 참여시 복합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그리고 소극적 참여를 추구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교육적 참여형” 군집에는 주부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농촌관광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군집간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Cluster1 복합적 참여형	Cluster2 적극적 참여형	Cluster3 소극적 참여형	Cluster4 교육적 참여형	Cluster5 휴식형	χ^2	Sig.
성별	남	49.4%	54.2%	53.6%	48.8%	51.2%	1.591	.810
	여	50.6%	45.8%	46.4%	51.2%	48.8%		
연령	20대	34.2%	42.4%	34.0%	27.9%	46.5%	54.029	.000
	30대	29.1%	38.1%	46.4%	30.3%	32.3%		
	40대	22.8%	17.1%	14.4%	23.6%	15.7%		
	50대 이상	13.9%	2.4%	5.2%	18.2%	5.5%		
결혼여부	기혼	61.4%	51.4%	50.0%	69.6%	40.9%	35.338	.000
	미혼	37.3%	48.1%	48.0%	30.4%	59.1%		
	기타	1.3%	0.5%	2.0%	-	-		
학력수준	대졸 이상	69.0%	72.2%	71.4%	62.5%	77.2%	8.266	.082
	대졸 이하	31.0%	27.8%	28.6%	37.5%	22.8%		
직업	전문직	15.8%	14.6%	11.2%	15.5%	17.6%	66.375	.000
	사무직	14.6%	16.5%	13.3%	11.3%	31.2%		
	생산/기술직	8.2%	5.2%	7.1%	6.5%	2.4%		
	서비스직	16.5%	17.5%	18.4%	11.3%	7.2%		
	공무원/교직원	12.7%	10.8%	13.3%	15.5%	9.6%		
	자영업	8.2%	9.0%	4.1%	11.3%	6.4%		
	학생	3.8%	11.3%	15.3%	4.8%	12.8%		
	주부	14.6%	12.3%	11.2%	16.7%	7.2%		
기타	5.7%	2.8%	6.1%	7.1%	5.6%			
소득	100만원 미만	3.8%	3.3%	6.1%	4.2%	3.2%	24.389	.226
	100-200만원	22.2%	19.6%	18.4%	20.2%	15.1%		
	200-300만원	17.7%	25.4%	26.5%	29.2%	28.6%		
	300-400만원	23.4%	20.1%	20.4%	22.0%	13.5%		
	400-500만원	15.2%	15.8%	7.1%	11.9%	15.1%		
	500만원 이상	17.7%	15.8%	21.4%	12.5%	24.6%		
지역	서울	19.6%	18.4%	21.4%	20.2%	36.2%	47.787	.036
	경기	18.4%	22.2%	29.6%	17.3%	18.1%		
	부산	5.1%	6.1%	4.1%	7.1%	4.7%		
	대구	7.6%	8.0%	8.2%	8.9%	6.3%		
	인천	14.6%	13.7%	5.1%	13.1%	9.4%		
	대전	4.4%	6.6%	7.1%	6.5%	-		
	울산	5.7%	6.6%	2.0%	3.0%	6.3%		
	광주	12.0%	8.5%	7.1%	8.3%	5.5%		
기타	12.7%	9.9%	15.3%	15.5%	13.4%			

농촌관광 참여자들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군집과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들과의 비교분석은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촌관광 참여자들의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응답자들이 모든 세분시장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유년기 성장지역이 농촌지역인 응답자들은 “복합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교육적 참여형” 군집에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낸 응답자들은 “적극적 참여형”, “단순 휴식형” 군집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호 관광성향별로 나타난 결과는 휴식위주의 관광활동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에 있어서 “단순휴식형”과 “소극적 참여형” 군집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휴식과 체험의 혼합형 관광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복합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형”, “교육적 참여형” 군집에서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농촌관광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군집간 비교분석

사회/심리적 특성		Cluster1 복합적 참여형	Cluster2 적극적 참여형	Cluster3 소극적 참여형	Cluster4 교육적 참여형	Cluster5 휴식형	χ^2	Sig.
주5일 근무제 실시	주5일 근무실시	34.2%	34.9%	23.5%	28.6%	36.2%	6.375	.173
	주5일 근무미실시	65.8%	65.1%	76.5%	71.4%	63.8%		
농업종사 가족/친지	있음	73.2%	72.0%	78.4%	71.4%	51.6%	24.662	.000
	없음	26.8%	28.0%	21.6%	28.6%	48.4%		
유년기 성장지지역	도시지역	49.4%	60.0%	37.1%	44.6%	73.6%	40.734	.000
	농촌지역	50.6%	40.0%	62.9%	55.4%	26.4%		
선호 관광성향	휴식위주	29.5%	22.9%	39.2%	34.4%	40.5%	39.131	.000
	활동/체험	14.7%	17.6%	14.4%	12.9%	19.8%		
	혼합형	35.9%	45.7%	20.6%	40.5%	28.6%		
	유동적	19.9%	13.8%	25.8%	12.3%	11.1%		

제3절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비참여자)

1.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화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에 대한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화는 만약 향후 농촌관광에 참여한다면 농촌관광 참여이유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7>에 나타나 있다.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이 참여할 경우 참여이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적 일관성 검정에서는 Cronbach α 값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자연채취체험’, ‘농촌생활체험’, ‘민속놀이’, ‘생태체험’, ‘농경체험’, ‘자연학습’, ‘겨울축제’, ‘어촌체험’, ‘자연탐방’, ‘건강체험’으로 10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이고 있어 “체험 학습형”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농산물구입’, ‘향토음식’, ‘지역농산물 축제’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먹거리 선호형”이라고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휴식 및 여가’, ‘농촌의 자연과 경관’, ‘자연휴양림’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단순 휴식형”으로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농가민박’, ‘관광농원’, ‘주말농장’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농가/농원 방문형”으로 요인명을 제시하였다. 요인 5는 ‘명절/관혼상제’, ‘가족/친지방문’, ‘지역행사’의 3개 속성에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내어 “고향방문형”으로 각각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표 5-7>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참여이유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a (factor)	요인변수 (variable)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요인 1 체험 학습형 (30.5% ; $\alpha=0.864$)	- 자연채취체험	.741
	- 생태체험	.726
	- 농촌생활체험	.721
	- 민속놀이	.711
	- 농경체험	.668
	- 자연학습	.634
	- 겨울축제	.612
	- 어촌체험	.612
	- 자연탐방	.604
	- 건강체험	.401
요인 2 먹거리 선호형 (10.2% ; $\alpha=0.699$)	- 농산물구입	.762
	- 향토음식	.731
	- 지역 농산물 축제	.519
요인 3 단순휴식형 (7.6% ; $\alpha=0.636$)	- 휴식 및 여가	.759
	- 농촌의 자연과 경관	.744
	- 자연휴양림	.577
요인 4 농가/농원 방문형 (5.7% ; $\alpha=0.690$)	- 농가민박	.783
	- 관광농원	.703
	- 주말농장	.543
요인 5 고향방문형 (5.0% ; $\alpha=0.700$)	- 명절/관혼상제	.866
	- 가족/친지방문	.803
	- 지역행사	.572

주: Varimax 회전 후 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별 설명분산의 누적계수는 60.9%임.

2.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군집분석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선택속성에 따른 군집의 형성은 “복합적 참여형”(군집1)은 ‘먹거리 선호형’ 요인과 ‘농가농원 방문형’, ‘고향 방문형’의 요인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이 향후 농촌관광 참여이유에 대해 복합적인 형태의 농촌관광 참여이유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복합적 참여형”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휴식형”(군집2)은 ‘단순휴식형’ 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형”(군집3)은 ‘체험 학습형’ 요인과 ‘농가/농원 방문형’ 요인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적극적인 의미의 농촌관광 참여형태로 볼 수 있는데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의 향후 농촌관광 참여이유에 있어서 적극적인 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극적 참여형”(군집4)은 ‘농가/농원 방문형’ 요인에 대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나머지 요인에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소극적 참여형” 군집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고향 방문형”(군집5)은 ‘고향 방문형’ 요인에만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요인명을 따라서 군집명을 결정하였다<표 5-8>.

<표 5-8>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선택속성과 편익세분화를 통한 군집간의 분산분석

	군집1(N=215) 평균(표준편차)	군집2(N=168) 평균(표준편차)	군집3(N=224) 평균(표준편차)	군집4(N=135) 평균(표준편차)	군집5(N=249) 평균(표준편차)	F값	p값
체험 학습형	3.35(.57) Ma	3.20(.57) L	3.77(.50) H	2.63(.79) VL	3.23(.68) L	70.903	.000*
먹거리 선호형	3.33(.68) H	3.36(.77) H	2.67(.65) L	2.42(.72) VL	3.14(.76) M	58.121	.000*
단순 휴식형	3.11(.56) L	4.20(.57) VH	3.81(.54) M	3.78(.71) M	4.05(.57) H	105.087	.000*
농가/농원 방문형	3.05(.68) H	2.58(.66) L	3.09(.63) H	3.20(.91) H	3.01(.79) M	16.716	.000*
고향 방문형	3.04(.62) H	2.77(.72) M	2.80(.63) M	2.37(.78) L	4.03(.47) VH	203.966	.000*
	복합적 참여형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고향 방문형		

주1: DMR-test(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05$)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VL(very low), L(low), M(middle), H(high), VH(very high)로 구분하여 표기함.

주2: * $p < 0.01$.

3.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시장 세분화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군집간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의 <표 5-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령과 결혼여부, 학력수준, 직업, 소득,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의 연령대별 군집간 비교를 살펴보면 30대에서는 “복합적 참여형” 군집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군집에서는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혼자 그룹은 “복합적 참여형” 군집과 “고향 방문형” 군집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혼 그룹은 “단순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의 군집에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학력수준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군집에서 대졸이상의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세분시장의 비교에서는 모든 세분시장에서 사무직 직업군의 응답자들이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군집간 차이는 200만원대가 “복합적 참여형”,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세분시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군집에서는 300만원대 소득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지역구분에 따른 비교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군집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기지역 거주자들은 “복합적 참여형”과 “고향 방문형” 군집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군집간 비교는 <표 5-10>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유무변수와 유년기 성장지역, 그리고 선호관광성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친척이나 친지가 있는 응답자들은 “복합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형”, “고향 방문형” 세분시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에 종사하는 친척이나 친지가 없는 집단은 “휴식형”과 “소극적 참여형” 군집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의 유년기 성장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군집에서 도시지역 응답자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선호관광성향에 따른 농촌관광 비참여자들이 추구하는 세분시장은 휴식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고향 방문형” 군집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휴식과 체험의 혼합형 관광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복합적 참여형”,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군집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5-9>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군집간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Cluster1 복합적 참여형	Cluster2 휴식형	Cluster3 적극적 참여형	Cluster4 소극적 참여형	Cluster5 고향 방문형	χ^2	Sig.
성별	남	43.5%	42.2%	49.5%	44.1%	46.8%	2.749	.601
	여	56.5%	57.8%	50.5%	55.9%	53.2%		
연령	20대	30.9%	42.1%	51.0%	45.4%	40.4%	36.281	.000
	30대	37.3%	35.4%	35.4%	34.8%	30.6%		
	40대	19.1%	15.9%	11.7%	12.1%	19.2%		
	50대 이상	12.7%	6.7%	1.9%	7.8%	9.8%		
결혼여부	기혼	57.0%	42.8%	36.5%	48.6%	51.8%	29.399	.000
	미혼	41.3%	56.6%	63.5%	51.4%	47.4%		
	기타	1.8%	0.6%	-	-	0.8%		
학력수준	대졸 이상	65.9%	70.5%	78.8%	69.2%	71.3%	9.284	.054
	대졸 이하	34.1%	29.5%	21.2%	30.8%	28.7%		
직업	전문직	10.0%	15.1%	14.4%	17.5%	10.8%	74.393	.000
	사무직	23.1%	28.9%	21.2%	23.1%	21.9%		
	생산/기술직	8.6%	1.2%	2.4%	3.5%	4.8%		
	서비스직	14.9%	18.7%	15.4%	11.2%	12.7%		
	공무원/교직원	9.5%	6.6%	12.0%	8.4%	14.7%		
	자영업	5.9%	5.4%	2.9%	8.4%	9.2%		
	학생	4.5%	9.6%	18.3%	13.3%	11.2%		
	주부	11.8%	7.2%	4.8%	7.0%	8.8%		
기타	11.8%	7.2%	8.7%	7.7%	6.0%			
소득	100만원 미만	5.4%	4.3%	3.4%	6.3%	4.0%	38.217	.008
	100-200만원	25.2%	20.7%	21.5%	12.6%	19.2%		
	200-300만원	26.1%	29.3%	24.9%	22.4%	16.8%		
	300-400만원	20.7%	20.7%	21.5%	23.1%	24.4%		
	400-500만원	14.9%	8.5%	13.7%	13.3%	16.0%		
500만원 이상	7.7%	16.5%	15.1%	22.4%	19.6%			
지역	서울	18.8%	27.1%	27.4%	36.4%	29.5%	83.965	.000
	경기	22.9%	18.7%	18.8%	30.1%	31.9%		
	부산	13.5%	6.6%	9.6%	7.7%	5.2%		
	대구	10.3%	13.3%	7.2%	3.5%	4.4%		
	인천	6.7%	13.9%	9.6%	7.0%	8.4%		
	대전	4.9%	1.2%	7.2%	4.2%	6.0%		
	울산	8.1%	9.6%	7.2%	0.7%	6.4%		
	광주	7.6%	3.0%	3.8%	4.9%	3.6%		
기타	7.2%	6.6%	9.1%	5.6%	4.8%			

<표 5-10>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군집간 비교분석

사회/심리적 특성		Cluster1 복합적 참여형	Cluster2 휴식형	Cluster3 적극적 참여형	Cluster4 소극적 참여형	Cluster5 고향 방문형	χ^2	Sig.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	주 5일 근무 실시	25.6%	27.1%	28.4%	25.2%	24.3%	1.158	.885
	주 5일 근무 미실시	74.4%	72.9%	71.6%	74.8%	75.7%		
농업중사 가족/친지 유무	있음	61.3%	49.4%	54.8%	34.5%	67.2%	44.734	.000
	없음	38.7%	50.6%	45.2%	65.5%	32.8%		
유년기 성장지역	도시지역	64.0%	71.5%	73.6%	80.1%	61.4%	19.941	.001
	농촌지역	36.0%	28.5%	26.4%	19.9%	38.6%		
선호 관광성향	휴식위주	30.1%	27.9%	15.9%	35.7%	30.5%	45.736	.000
	활동/체험	10.5%	9.7%	18.8%	15.7%	12.9%		
	혼합형	40.6%	43.0%	47.1%	35.7%	28.9%		
	유동적	18.7%	19.4%	18.3%	12.9%	27.7%		

제4절 세분시장별 차이비교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있어 요인화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들 간의 비교에서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요인화와 군집형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표 5-11>에 나타내었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경우 요인은 ‘체험추구형’, ‘학습교육형’, ‘먹거리 선호형’, ‘고향방문형’, ‘단순 휴식형’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경우 ‘적극적 참여형’, ‘먹거리 선호형’, ‘단순 휴식형’, ‘농가/농원 방문형’, ‘고향방문형’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두 집단간의 요인화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농촌관광 참여자의 경우 “복합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교육적 참여형”, “휴식형”의 5가지 군집으로 형성 되었다. 이에 비해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경우 “복합적 참여형”,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고향 방문형”의 5가지 군집으로 형성되어 군집의 형성에 있어서도 1개의 군집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표 5-11>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른 요인화와 군집의 차이

	농촌관광 참여자	농촌관광 비참여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추구형 ○ 학습 교육형 ○ 먹거리 선호형 ○ 고향 방문형 ○ 단순 휴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참여형 ○ 먹거리 선호형 ○ 단순 휴식형 ○ 농가/농원 방문형 ○ 고향 방문형
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참여형 ○ 적극적 참여형 ○ 소극적 참여형 ○ 교육적 참여형 ○ 휴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참여형 ○ 휴식형 ○ 적극적 참여형 ○ 소극적 참여형 ○ 고향 방문형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세분시장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들 간의 비교는 <표 5-12>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세분시장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우선 농촌관광 참여자 그룹을 살펴보면 “복합적 참여형” 군집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20대 기혼이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고 농촌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두 번째 군집은 “적극적 참여형”으로 경기지역의 20대 기혼자들이며, 대졸이상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이다.

세 번째 군집은 “소극적 참여형” 군집으로 경기지역의 30대 기혼이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서비스직의 구성원이 많은 그룹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휴식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군집은 “교육적 참여형” 군집으로 서울 지역의 30대 기혼이며, 대졸이상의 학력과 주부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혼합형 관광을 선호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된 세분시장이다.

다섯 번째 군집은 “단순 휴식형”으로 서울지역의 20대 미혼이며,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성장하였고 휴식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이다.

농촌관광 참여자들에 대한 시장세분화는 “복합적 참여형” 세분시장에는 출향민을 위한 행사와 같은 지역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체험프로그램과 농촌자체가 가지는 어메니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 참여형” 세분시장에는 20대의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농촌지역사회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참여형” 세분시장에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행사와 아울러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자연스러운 농촌경관을 감상하거나 단순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참여형” 세분시장은 30대 주부가 주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집단으로 주로 교육이나 학습적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세시풍속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거나 농작물 생산체험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휴식형” 세분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편성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런 농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프트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위의 휴양림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한 산책로나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관광 비참여자 그룹의 “복합적 참여형” 세분시장의 프로파일은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200만원대의 소득수준과 30대 기혼이면서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고 유년기는 도시지역에서 성장

하였으며,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이 세분시장에는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농가/농원에서 농산물 재배체험이나 농경생활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군집은 “휴식형”으로 서울지역의 200만원대의 소득을 가지며, 20대 미혼이고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으며, 도시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혼합형 관광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이다. 이 세분시장은 도시지역에서 성장하고 농촌에 대한 연고가 전혀 없는 집단으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나 농촌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이 농촌관광 공급자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사1촌 운동과 같은 자매결연 방식의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교류형식을 통한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군집은 “적극적 참여형” 군집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이 200만원대이며, 20대 미혼이고 대졸이상의 사무직의 구성원이 많은 그룹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휴식위주의 관광성향과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성향의 복합적인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으로 구성되었다. “적극적 참여형” 세분시장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농촌관광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시장으로 주말농장과 전통체험마을, 팜스테이 등에서 개별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성향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체험과 휴식의 혼합된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군집은 “소극적 참여형” 군집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전체 소득이 300만원대의 20대 미혼이며,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으며, 도시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휴식형 관광성향과 혼합형의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된 세분시장이다. “소극적 참여형” 세분시장에는 농촌관광 공급자가 개별적이거나 직장단위의 농가/농원방문객들에 대해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농경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잠재고객에게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군집은 “고향 방문형”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 전체 소득이 300만원대이며, 20대 기혼이고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성장하

였고 휴식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이다. “고향 방문형” 세분시장은 단순휴식과 고향방문(친지방문)의 형태를 나타내며, 농촌관광 잠재고객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할 경우 다양한 지역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미지제고와 다른 잠재고객으로의 구전의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5-12> 세분시장에 따른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인구통계 및 사회/심리적 변수들 간의 차이비교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수준	직업	소득	지역	농업 종사 유무	성장 지역	선호 관광성향
참여자	복합적 참여형	20대	기혼	대졸 이상	서비스 직	-	서울	있음	농촌	혼합형
	적극적 참여형	20대	기혼	대졸 이상	서비스 직	-	경기	있음	도시	혼합형
	소극적 참여형	30대	기혼	대졸 이상	서비스 직	-	경기	있음	농촌	휴식형
	교육적 참여형	30대	기혼	대졸 이상	주부	-	서울	있음	농촌	혼합형
	휴식형	20대	미혼	대졸 이상	사무직	-	서울	있음	도시	휴식형
비참여자	복합적 참여형	30대	기혼	대졸 이상	사무직	200만원대	경기	있음	도시	혼합형
	휴식형	20대	미혼	대졸 이상	사무직	200만원대	서울	없음	도시	혼합형
	적극적 참여형	20대	미혼	대졸 이상	사무직	200만원대	서울	있음	도시	혼합형
	소극적 참여형	20대	미혼	대졸 이상	사무직	300만원대	서울	없음	도시	휴식형 · 혼합형
	고향 방문형	20대	기혼	대졸 이상	사무직	300만원대	경기	있음	도시	휴식형

이러한 세분시장별 프로파일의 수립은 농촌관광 사업자나 공급자들에게 각각의 세분시장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마케팅 방안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농촌관광 서비스품질과 관광행동

1. 농촌관광 서비스속성에 대한 평가

본 절의 연구목적은 농촌관광의 서비스품질에 따른 사후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한 참여자의 농촌관광 시 인식하는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Gap)를 측정하기 위하여 Gap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인 Gap의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농촌관광 선택속성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결과
(농촌관광 참여자)

변수명	중요도		만족도		Gap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지역주민의 친절	3.82	10	3.44	3	-0.39*	1
지역의 특산품	3.57	12	3.14	11	-0.43*	2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3.71	11	3.28	8	-0.45*	3
자연환경	4.36	1	3.84	1	-0.53*	4
지역적 특색	3.86	8	3.32	7	-0.56*	5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4.00	7	3.41	5	-0.59*	6
주변의 관광지	4.05	6	3.45	2	-0.61*	7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3.86	9	3.23	9	-0.65*	8
숙박시설	4.09	5	3.39	6	-0.71*	9
음식	4.10	4	3.39	6	-0.73*	10
교통편/접근성	4.23	2	3.43	4	-0.79*	11
부대시설(화장실 등)	4.15	3	3.21	10	-0.94*	12

주: *는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자연환경(4.36)이 다양한 서비스 선택속성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편/접근성(3.43), 부

대시설(화장실 등)(4.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특산품(3.57)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한 참여자의 농촌관광 후에 느낀 만족도에 있어서도 자연환경(3.84)이 제공받은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의 관광지(3.45), 지역주민의 친절(3.44), 교통편/접근성(3.4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의 특산품(3.19)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Gap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Gap의 모든 항목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Gap의 평균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하여 사후 만족도가 각 속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이 된 농촌관광 참여자에 대하여 제공된 농촌관광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관광 참여자가 지각하는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지역주민의 친절(-0.39)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특산품(-0.43),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0.45), 자연환경(-0.53)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관광 선택속성의 기대수준 보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Gap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대시설(화장실 등)(-0.94) 항목에 있어서는 Gap의 크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대수준 보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한 것을 의미한다.

농촌방문목적의 참여자의 농촌관광 시 인식하는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인 Gap의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는 <표 5-14>와 같다.

농촌방문목적 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역시 자연환경(4.19)이 다른 선택속성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편/접근성(4.14), 부대시설(화장실 등)(4.1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특산품(3.57)이 농촌을 방문할 때 가장 고려되지 않는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참여자의 농촌관광 후에 느낀 만족도에 있어서도 자연환경(3.81)이 제공받은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친절(3.67), 음식(3.66), 숙박시설(3.5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특산품(3.25)과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3.25)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Gap들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Gap의 모든 항목이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방문목적의 참여자가 지각하는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지역주민의 친절(-0.17)로 나타났으며,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0.32), 지역의 특산품(-0.36),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0.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대시설(화장실 등)(-0.79) 항목에 있어서는 Gap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지 않은 농촌관광 참여자 모두에게 기대수준 보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부대시설(화장실) 등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5-14> 농촌관광 선택속성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 결과
(농촌방문자)

변수명	중요도		만족도		Gap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지역주민의 친절	3.81	8	3.67	2	-0.17*	1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3.78	9	3.47	5	-0.32*	2
지역의 특산품	3.59	11	3.25	10	-0.36*	3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3.81	8	3.42	7	-0.39*	4
자연환경	4.19	1	3.81	1	-0.41*	5
음식	4.04	4	3.66	3	-0.43*	6
숙박시설	3.99	5	3.57	4	-0.45*	7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3.70	10	3.25	10	-0.46*	8
지역적 특색	3.85	7	3.33	9	-0.53*	9
주변의 관광지	3.87	6	3.34	8	-0.55*	10
교통편/접근성	4.14	2	3.43	6	-0.72*	11
부대시설(화장실 등)	4.11	3	3.34	8	-0.79*	12

주: *는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의 기술통계는 <표 5-15>와 같다(비참여자는 각 서비스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을 물었음).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자연환경(4.29)이 다른 선택속성들 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대시설(화장실 등)(4.17), 숙박시설(4.14), 교통편/접근성(4.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 비참여자가 농촌관광 선택 시 가장 고려하지 않는 선택속성은 지역의 특산품(3.56)으로 나타났다.

<표 5-15>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명	중요도	
	평균	순위
자연환경	4.28	1
부대시설(화장실 등)	4.17	2
숙박시설	4.14	3
교통편/접근성	4.13	4
주변의 관광지	3.95	5
음식	3.94	6
지역적 특색	3.86	7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3.82	8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3.78	9
지역주민의 친절	3.77	10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3.67	11
지역의 특산물	3.56	12

2. 농촌관광 서비스속성과 관광만족도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한 참여자의 농촌관광 시 제공받은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표 5-16>와 같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연환경과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가 각각 1% 수준에서 농촌관광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관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자연환경,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숙박시설 등의 속성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참여자의 농촌관광 시 제공받은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17>와 같다. 분석결과, 다른 농촌관광의 서비스 속성 중 음식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농촌관광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농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5-16>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관광 참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회귀계수	t
지역주민의 친절		-0.010	-0.211
지역의 특산품		-0.057	-0.967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0.053	0.990
자연환경		0.131	2.847***
지역적 특색		0.073	1.296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0.215	4.227***
주변의 관광지		0.007	0.148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0.047	0.984
숙박시설		0.095	1.995**
음식		-0.027	-0.629
교통편/접근성		0.041	0.903
부대시설(화장실 등)		0.039	0.916
N=R ² =0.226, F=10.140, Sig=0.000			

주: ***는 1% 수준, **는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표 5-17>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방문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회귀계수	t
지역주민의 친절		0.074	1.008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0.016	-0.213
지역의 특산품		-0.018	-0.221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0.088	1.256
자연환경		0.087	1.158
음식		0.122	1.719*
숙박시설		0.128	1.628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0.022	0.296
지역적 특색		-0.094	-1.113
주변의 관광지		0.056	0.680
교통편/접근성		0.000	-0.004
부대시설(화장실 등)		0.047	0.713
R ² =0.169, F=5.126, Sig=0.000			

주: *는 10%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제6장 농촌관광과 농촌공익기능의 가치

제1절 공익기능 가치평가의 의의

농촌관광의 주요 소재로서 농촌관광 효용의 대상인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산출하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과도한 이용 또는 대체자원 조성을 위해 쉽게 멸실될 수 있는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의 보전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가치평가를 위한 파라미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불의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해야 한다. 이때, 지불의사모형의 추정을 통해 공익기능가치 평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장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보다 중요한 접근은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지불의사에 있어 농촌관광 유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의 총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인 보전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용가치는 문자 그대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용을 통해 해당 자원으로부터 효용을 구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보전가치는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자원의 존재 그 자체,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유산적 의미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일정한 대가를 무릅쓰고서라도 보전함으로써 자신의 대안적 효용을 구하는 과정이다. 사용가치와 보전가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식은 없으나 양자간에는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사용가치를 농촌관광으로 인식하여 농촌관광활동을 통해 농촌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자원의 총 가치를 구성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는 상승적 보완관계일 것이라는 명제가 통용될 수 있다. 예의 농촌관광에 있어서 농촌관광활동이 이용의 대상인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보전을 위한 인식제고 또는 소득이전 등과 연계된다면 농촌관광은 농촌의 농촌다움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에 대해 정의 내린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선 순환적 활용”을 현실 세계에서 지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된 접근방법으로서 수집된 표본조사자료에 조건부 가치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였다. CVM 질문 방법으로서 폐쇄형 질문을 적용하였으며, WTP 추정모형은 단일 양분선택형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한편,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지불의사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추정된 지불의사액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양자간에 비교하였다.

제2절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CVM 연구는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수원휴양림의 가치평가, 휴양가치의 추정등 비교적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엄기철(1995)의 대체법에 의하여 처음 연구되었다. 그 후 오세익 외(2001)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가상순위 결정법, 대체법, 그리고 단일 양분선택형 CVM으로 각각 추정하였다. 한편, 유진채 외(2001)는 친환경농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기능의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으며, 유진채·이희찬(2003)은 조건불리지역의 공익기능자원에 대한 가치를 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논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1991년에 처음으로 대체법과 헤도닉 가격법에 의해 시도되었다(미쓰비시연구소, 1991). Yoshida(2001)는 역시 대체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전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산간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Yoshida(1997)는 이중 양분 선택형CVM을 사용하여 일본 농업의 다면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한편, 이중 양분 선택형 CVM을 사용하여 추정된 일본의 중산간지 농업의 다면적 가치는 평가한 연구도 있다(Yoshida, 1999). 일본의 연구는 대체법으로 추정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가 대체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환경가치의 평가를 위해 CVM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유럽 전역에 환경규제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ESA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자연적, 역사적, 농업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농촌경관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ESA 정책에 의해 보존되는 경관의 가치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CVM 방법이 여러 지역에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Garrod & Willis(1994)이다. 이 연구는 조건불리지역에 속해있는 영국 남서부의 ESA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보존의 총 가치를 추정하고 ESA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ESA 지역에 적용된 연구로서 Hanley 외(1998)가 있다. 이 연구는 대상 ESA 지역에 대해 이중 양분선택형 CVM과 지불카드 선택실험 CVM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경관보존의 가치를 평가, 비교하였다. 이중 양분선택형 CVM의 경우 주민, 관광객,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 면접 또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택실험 CVM의 경우는 별도의 대면조사를 통해 제시된 경관요소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 후 8가지 지불리스트 중에서 그에 대한 지불금액을 밝히도록 하였다. 선호순위와 평균 WTP의 추정을 위해서 선형 및 2차 방정식 모형이 사용되었고, 또 개별 경관요소들의 한계 WTP를 추정하기 위해 2차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선택실험 CVM에 의한 평균 WTP 추정치가 이중 양분선택형 CVM 추정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택실험과 이중양분선택형 CVM 모두 환경가치평가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선택실험 CVM의 경우는 ESA 정책이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경관요소의 한계 WTP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CVM과 편익추정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능한 모든 행위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으로부터 구축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만족을 좀 더 함축적인 개념으로서 효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모든 사물은 크든 작든 간에 효용을 가져야 한다. 개별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 또는 감수해야 될 가격이나 비용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큰 효용(가치)을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농촌지역의 공익적 기능 중 자연경관이 이용의 대상으로서 혹은 심미적, 휴양적, 사회적 가치의 대상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몇몇 소비자들은 이들 효용을 얻기 위해 지불의사(WTP)를 갖게 될 것이다.

히스(Hicks)의 보상 또는 동등 잉여 추정을 유도하기 위한 양분선택형 CVM의 이

론적 근거는 효용이론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Hanemann, 1984). 개인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u=u(r, y; s)$, 여기에서 r 은 지시변수로서 개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r=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0$ 으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y 는 소득이며, S 는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벡터)을 의미한다. 함수에 포함된 관측할 수 없는 임의요소로 인해 개인의 효용은 평균 $v(r, Y; S)$ 와 오차항 ϵ_r 의 확률분포를 갖는 임의변수(random variable)로 취급될 수 있다. $\epsilon_r(r=1, 0)$ 은 평균이 0이고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개인이 '예'를 선택한다는 것은 제시된 비용(B)을 지불하여 정책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효용수준이 높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1, Y-B; S)+\epsilon_1 \geq v(0, Y; S)+\epsilon_0$. 이 경우 개인의 지불확률은 다음과 같다: $\text{Prob}(\text{yes}) = F_\eta(dv)$, 여기에서 dv 는 간접효용함수의 차이, $v(1, Y-B; S) - v(0, Y; S)$ 를, 그리고 $F_\eta(dv)$ 는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다.

WT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WTP분포의 집중경향(central tendency) 추정이 이용된다. 그 중의 하나가 추정된 WTP 분포의 평균, m^+ (truncated mean)을 계산하는 것이다:

$$m^+ = \int_0^{B^{\max}} \text{Prob}(\text{yes})dB ,$$

여기에서 적분의 상한값 B^{\max} 는 응답자에게 주어진 가격대 중 최대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CVM에서는 일반화된 추정방법이며(Bishop & Heberlein, 1979; Willis 외 1995; Lee & Chun, 1999), 무한값(∞)에서 적분하는 것에 비해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Hanemann & Kanninen, 1998).

지불확률, $\text{Prob}(\text{yes})$ 가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간접효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로짓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text{Prob}(\text{yes}) = (1+e^{-dv})^{-1} .$$

간접효용함수의 차이, dv 를 로짓모형으로 나타낼 경우 효용이론에 부합하는 함수형태로서 로그로짓(log logit)을 선택할 수 있다.

로그로짓: $dv = \alpha + \beta_1 \ln B + \beta_2 \ln Y + \beta_3 S$.

위의 모형은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대해 적용된다. 양자간의 차이는 모형간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모형의 차이가 입증된다고 해서 모형의 파라미터로부터 추정된 지불의사 역시 같은 방향으로 차이 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편익추정을 위해 이용되는 파라미터 추정치들은 그 자체가 임의변수이므로, 편익추정치 역시 미지의 확률분포를 갖는 임의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라미터 추정치의 불안정성은 편익추정치에 있어서의 불안정성과 연결된다(Adamowicz 외, 1989).

농촌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WTP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지불의사모형으로부터 도출된 WTP를 양자 간에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도출된 지불의사액이 점 추정치일 경우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파라미터 추정치의 불안정성만큼이나 편익추정치도 불안정할 것이므로 올바른 비교가 되기 어렵다.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양분선택형 CVM에서 제시된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평균 WTP를 중심으로 신뢰구간을 계산한 후 주어진 유의수준에서 신뢰구간들 간의 중복여부를 따짐으로써 양자 간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WTP의 신뢰구간이 양자 간에 충분히 중복된다면 농촌관광 참여자나 비 참여자에 있어 지불의사의 차이는 없는 것이 된다.

제4절 상품구성 및 자료

1. 상품구성

CVM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설문서를 통한 가상시장의 구축과 그로부터 응답자의 응답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것이다. 가상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는 재화의 공급수준, 시장유형, 지불수단과 지불의사 유도방법 등이다. 일단 작성된 설문서를 이용하여 응답자로부터 대상재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지불수단(예컨대 직접지불, 세금, 기금조성 등)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제시된 가격대와 단계의 수가 적절한지를 관찰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연말시점 조사를 의미함). 사전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설문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복합재 (composite good)로 인식될 대상상품의 내용구성이다. 공익적 기능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1) 전통문화보전기능, 2) 생태계보전기능, 3) 자연경관제공 4) 국토보전기능, 5)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능 등을 선정하였다.

2. 자료

농촌 공익기능자원의 가치평가 및 농촌관광활동 유무에 따른 지불의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는 시차조사자료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6개 광역시, 그리고 주요 중소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1,912개 표본 중 모형설정과 관련하여 결측치가 없는 1,688개의 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폐쇄형 CVM질문으로서, 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을 전망한 후 가상적 상황에서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화폐적 가치를 세금 또는 기부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지불의사를 물었다. 제시가격대로서 응답자에게는 다음의 10개 가격 중 하나가 주어진다: 1,000, 5,000, 1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또는 300,000. 응답자는 위의 가격들 중 주어진 하나에 대해서만 ‘예’ 또는 ‘아니오’라고 표함으로서 지불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제5절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1. 모형의 설정 및 추정

편익추정을 위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설정된 간접효용의 차이(dv)를 개념적인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6-1>에서 보는 것과 같다.

$$dv = f(\text{LOFFER, EXIST, OPTION, BEQUEST, LOCAL, ECO, GREEN, LAND, SAFE, WILLING, LCAPITAL, RELATE, CHOOD, AGE, GENDER, MARRY, EDU, WHITE, INC, USE})$$

<표 6-1> 변수 설명

변수 요약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WTP	지불의사 유=1; 무=0
제시가격	LOFFER	지불제시액(만원)
농촌 공익기능 가치	EXIST	농촌 공익기능의 존재가치=1; 기타=0
	OPTION	농촌 공익기능의 선택가치=1; 기타=0
	BEQUEST	농촌 공익기능의 유산가치=1; 기타=0
	USE	농촌 공익기능의 이용 가치=1; 기타=0
농촌공익기능 인식 중요도	LOCAL	전통문화 보존기능=1; 기타=0
	ECO	생태계 보존기능=1; 기타=0
	GREEN	자연경관 및 녹지 공간 제공기능=1; 기타=0
	LAND	국토 보존기능=1; 기타=0
	SAFE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1; 기타=0
농촌관광 참여의사 정도	WILLING	참여의사 횟수(회)
지역구분	LCAPITAL	서울 및 수도권=1; 기타=0
인구통계적 특성	RELATE	가까운 친지 중 농업종사자 있음=1; 없음=0
	CHOOD	어린시절 성장지역으로 도시=1; 농촌=0
	AGE	연령(세)
	GENDER	남자=1; 여자=0
	MARRY	기혼=1; 미혼=0
	EDU	대졸이상=1; 기타=0
	WHITE	화이트칼라 직업군=1; 기타=0
	INC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본 연구의 가치추정 모형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평균)는 다음 <표 6-2>에 제시 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값을 농촌관광형, 농촌방문형, 농촌관광 비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총 1,688 표본 중 농촌관광에 참여한 표본은 742명으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형이 24.5%, 농촌방문형이 19.5%, 농촌관광 비참여가 56.0%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집단 간의 평균값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농촌관광 참여유무에 따른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표준편차)			
	농촌관광형 n=413	농촌방문형 n=329	비참여형 n=946	합계 n=1,688
WTP	0.453(0.498)	0.523(0.500)	0.445(0.497)	0.462(0.499)
LOFFER	1.427(1.585)	1.360(1.670)	1.277(1.610)	1.330(1.616)
EXIST	0.392(0.489)	0.447(0.498)	0.352(0.478)	0.380(0.486)
OPTION	0.140(0.348)	0.116(0.320)	0.101(0.302)	0.114(0.318)
BEQUEST	0.235(0.424)	0.225(0.418)	0.332(0.471)	0.287(0.453)
LOCAL	3.937(0.816)	3.872(0.778)	3.934(0.778)	3.923(0.787)
ECO	4.015(0.867)	3.912(0.877)	3.997(0.826)	3.985(0.847)
GREEN	4.153(0.797)	4.018(0.781)	4.074(0.749)	4.082(0.768)
LAND	3.724(0.961)	3.963(0.894)	3.776(0.908)	3.747(0.918)
SAFE	3.988(0.915)	3.967(0.885)	3.983(0.894)	3.981(0.897)
WILLING	2.867(4.967)	3.152(6.522)	1.836(2.226)	2.345(4.172)
RELATE	0.598(0.491)	0.839(0.368)	0.560(0.497)	0.624(0.485)
CHOOD	0.642(0.480)	0.413(0.493)	0.690(0.463)	0.624(0.484)
LCATIPAL	0.436(0.496)	0.395(0.490)	0.503(0.500)	0.466(0.499)
MARRY	0.545(0.499)	0.599(0.491)	0.488(0.500)	0.524(0.500)
WHITE	0.499(0.501)	0.422(0.495)	0.484(0.500)	0.476(0.500)
INC	330.460(138.809)	300.304(139.402)	314.292(137.395)	315.521(138.416)
AGE	34.765(8.805)	35.948(9.750)	34.010(9.004)	34.572(9.132)
GENDER	0.487(0.500)	0.532(0.500)	0.452(0.498)	0.476(0.500)
EDU	0.738(0.440)	0.702(0.458)	0.732(0.443)	0.727(0.445)
USE	0.232(0.524)	0.213(0.511)	0.215(0.534)	0.219(0.527)

농촌 공익기능 보전가치 추정을 위한 양분선택형 CVM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추정
한 결과는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정된 결과의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검정으
로서 이론적 검정은 파라미터의 부호가 이론적으로 예상한 부호와 일치하는가를 보

며, 통계적 검정은 개별 독립변수에 대하여는 t -검정을 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우도(log likelihood function)검정을 하였다.

지불의사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모형은 단일 양분선택형 로짓모형이다. 제시가격에 대한 계수의 부호는 부(-)로, 소득은 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시가격이 높을수록 농촌의 공익기능 보전가치 지불의사가 감소한다는 것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촌관광 참여자중 농촌관광형의 경우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면, 농촌공익기능이 이용가치에 비해 선택가치(OPTION)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1% 수준), 유산가치(BEQUEST)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농촌공익기능 중 생태계보전(ECO)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할수록 지불의사에 정(正)의 영향을 주었다(이상 5% 수준).

농촌공익기능 가치의 존재가치(EXIST), 농촌공익 기능의 전통보전기능(LOCAL), 자연경관기능(GREEN), 국토보전기능(LAND), 안전한 농산물 기능(SAFE), 그리고 농촌관광 참여의사 정도(WILLING), 친지 중 농업종사유무(RELATE), 등은 농촌공익기능의 보전 가치를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변수들인 유년시절의 성장지역(CHOOD), 소득(INC), 결혼여부(MARRY), 연령(AGE), 직업(WHITE), 거주지(LCAPITAL), 성별(GENDER), 교육수준(EDU)은 지불의사와는 통계적으로 무관하게 나타났다

둘째, 농촌관광 참여자중 농촌방문형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의 공익기능중 이용가치가 존재가치(EXIST)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농촌관광 참여 의사정도(WILLING)에서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상 5% 수준), 교육수준(EDU)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나타났다(10% 수준).

농촌 공익기능 중 선택가치(OPTION), 유산가치(BEQUEST), 농촌공익 기능의 전통보전기능(LOCAL), 생태계보전 기능(ECO), 자연경관기능(GREEN), 국토보전기능(LAND), 안전한 농산물 기능(SAFE)등은 농촌 공익기능의 보전 가치를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변수들인 성장지역(CHOOD), 친지 중 농업종사유무(RELATE), 거주지(LCAPITAL), 결혼여부(MARRY), 직업(WHITE), 소득(INC), 연령(AGE), 성별(GENDER)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농촌공익 기능이 이용가치에 비해 존재가치(EXIST)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화이트칼라의 직업군(WHITE)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비해, 연령(AGE)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상 5% 수준), 친지 중 농업종사자 있을수록(RELATE)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10% 수준). 반면에 거주지(LCAPITAL)는 지불의사에 유의하게(1% 수준) 부의 영향을 주었다.

농촌 공익기능 중 선택가치(OPTION), 유산가치(BEQUEST), 농촌공익 기능의 전통보전기능(LOCAL), 생태계보전 기능(ECO), 자연경관기능(GREEN), 국토보전기능(LAND), 안전한 농산물 기능(SAFE)과 농촌관광 참여의사 정도(WILLING)는 농촌 공익기능의 보전 가치를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변수들인 성장지역(CHOOD), 친지 중 농업종사유무(RELATE), 결혼여부(MARRY), 소득(INC), 성별(GENDER)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공익기능이 이용가치에 비해 선택가치(OPTION)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존재가치(EXIST)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친지 중 농업종사자 있을수록(RELATE)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상 1% 수준), 농촌 공익기능 중 생태계보전(ECO)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농촌관광 참여의사 정도(WILLING)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INC)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 5% 수준). 또한 농촌공익기능이 이용가치에 비해 유산가치(BEQUEST)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나이(AGE)에서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이상 10% 수준). 반면에 어린 시절 성장지역이 도시일 경우(CHOOD),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인 경우(LCAPITAL) 지불의사는 유의하게(5% 수준) 부의 영향을 주었다.

농촌공익 기능의 전통보전기능(LOCAL), 자연경관기능(GREEN), 국토보전기능(LAND), 안전한 농산물 기능(SAFE)등은 농촌 공익기능의 보전 가치를 위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변수들인 결혼여부(MARRY), 직업(WHITE), 성별(GENDER), 교육수준(EDU)은 지불의사와는 통계적으로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농촌공익 기능 보전가치 지불의사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결정과정에서 포함된 19개의 변수 중 10개의 변수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공익 기능 보전가치의 지불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농촌관광 참여와 비참여의 3가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3> 양분선택형 CVM에 의한 보전가치 추정모형 결과

변수명	농촌관광형		농촌방문형		비참여자		전체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nstant	-1.7120	-1.615	-1.1545	-1.002	-1.5071	-2.110**	-1.3530	-2.583***
LOFFER	-0.8249	-8.365***	-0.7570	-7.236***	-0.8704	-13.624***	-0.8040	-17.251***
EXIST	0.2219	0.689	0.7462	2.067**	0.5017	2.270**	0.4743	2.960***
OPTION	1.1798	2.801***	0.6633	1.355	0.4670	1.560	0.7356	3.403***
BEQUEST	0.8951	2.503**	0.2631	0.642	0.1191	0.526	0.3034	1.785*
LOCAL	-0.1338	-0.733	-0.3359	-1.547	0.1150	0.887	-0.0226	-0.241
ECO	0.4872	2.346**	0.1627	0.794	0.1551	1.127	0.2266	2.315**
GREEN	0.0481	0.240	0.2133	0.984	0.0329	0.238	0.0539	0.541
LAND	-0.1553	-0.914	0.1931	0.906	-0.1516	-1.233	-0.0903	-1.026
SAFE	0.1366	0.789	-0.1303	-0.647	0.0812	0.690	0.0776	0.898
WILLING	0.0387	1.287	0.0991	2.150**	0.0044	0.111	0.4454	2.293**
RELATE	0.1913	0.724	0.6184	1.598	0.3118	1.829*	0.3477	2.657***
CHOOD	-0.3503	-1.294	-0.3060	-1.068	-0.0179	-0.096	-0.2759	-2.073**
LCATIPAL	-0.0991	-0.401	-0.4033	-1.394	-0.4646	-2.804***	-0.2942	-2.395**
MARRY	0.1514	0.426	0.1600	0.447	-0.1416	-0.670	-0.0151	-0.096
WHITE	-0.3608	-1.392	-0.1036	-0.344	0.3401	1.989**	0.0656	0.524
INC	0.0011	1.260	-0.0003	-0.319	0.0010	1.638	0.0009	2.026**
AGE	0.0050	0.248	0.0153	0.787	0.0280	2.281**	0.0158	1.732*
GENDER	0.2649	1.086	0.1056	0.383	-0.1305	-0.797	0.0521	0.437
EDU	0.1699	0.548	0.6371	1.801*	-0.0843	-0.426	0.0731	0.497
Log-likelihood	-217.42		-175.19		-491.28		-899.31	
Model χ^2	134.00(p<0.000)		105.01(p<0.000)		317.41(p<0.000)		531.71(p<0.000)	
% Right Pred	76.5		75.4		75.3		74.7	
McFadden R2	0.24		0.23		0.24		0.22	
No. of Obs	413		329		946		1688	

주: t-치는 절대값임.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2. 편익추정 및 농촌관광활동 유무에 따른 지불의사 비교

로그로짓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로부터 평균 WTP를 추정하였다. 농촌관광활동 유무에 따른 편익추정치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는 신

뢰구간을 추정하였다. 신뢰구간 설정에 필요한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 Krinsky & Robb(1986)에 의해 제안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추정된 파라미터의 비선형함수에 대한 경험적 분포를 구축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양분선택형 CVM에 의해 추정된 WTP의 신뢰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어 왔다(예컨대, 이희찬, 2001; Park 외, 1991). 편익추정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로짓모형 파라미터의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1,000회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계산되었다.

모형의 파라미터로부터 유도된 WTP추정치는 <표6-4>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촌관광형의 경우 파라미터로부터 유도된 WTP는 가구당 평균 101,002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는 95% 신뢰구간은 88,563~113,441원이다. 농촌방문형에 의한 WTP는 평균 110,234원이며, 평균의 95% 신뢰구간은 95,993~124,475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농촌관광활동 미참여자의 경우 평균 WTP는 75,556원, 평균의 95% 신뢰구간은 68,389~82,723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결과로부터 농촌관광 참여유형에 따른 농촌공익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액은 농촌관광형과 농촌방문형과의 지불의사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 미참여자와 각 농촌관광 참여 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농촌공익 기능 차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액

(95% 신뢰구간)

	농촌관광형	농촌방문형	농촌관광 미참여
상한값	113,441	124,475	82,723
평균	101,002	110,234	75,556
하한값	88,563	95,993	68,389

결론적으로 농촌관광활동은 그것이 관광목적이든 아니면 방문목적이든 간에 농촌공익기능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7장 공급적 측면에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001년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임박하면서 각 부처가 농촌관광 관련 시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농림부는 2001년 5월 「농외소득증대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을 향후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촌관광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행자부와 농진청 환경부 등에서도 마을단위 농촌관광시범사업 내지는 농촌관광과 관련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7-1> 각 부처 마을단위 관광사업 추진현황(2005)

부처	사업명	사업특징	마을 개수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공모방식,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76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공모방식,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 방식	2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을 위한 기반정비	31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공모방식, 생태 우수마을 홍보	11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공모방식,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추진	45

자료 : 농촌관광포털(<http://www.greentour.or.kr>)

그러나 1984년부터 추진된 관광농원은 2000년까지 1,340억원의 국고를 지원, 400여 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절반 이상이 휴·폐업하였다. 현재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운영 주체의 경영능력 부족,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경영이 부실화되었다. 시설확충에 치

우쳤고 체험프로그램,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강신겸, 2002).

또한 농가들이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하고 주민이 노령화되어 농촌관광 사업의 추진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과 호응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농촌관광을 주도해 나아갈 경영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의식을 갖춘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은식 외(2003)의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에서 이러한 농촌관광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을의 여건으로서 해당마을이 관광지로서의 조건 자체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마을이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어느 마을에서나 지원금을 활용한 사업 이익의 배분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 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등장한다.

둘째는 시설에 관한 문제로서 도시민이 농촌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전통적 농가 주택은 목욕실, 화장실에 대한 접근이 불편하고 단열 효과가 낮은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이 매력적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개량된 주택인 경우도 대부분 폐쇄형인 터라 하나의 출입구, 하나의 거실, 하나의 화장실을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관광객의 수용에는 부적합한 편이다. 또한 대체로 마을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시설들은 공동주차장, 공중화장실, 직판장, 체험시설 가능 공간, 단체 방문객 숙박시설, 단체 방문객 교육시설, 효과적인 안내판 등이다. 그 밖에 등산로, 산책로, 하천 변, 연못과 꽃길 정비 등이 거론되었다. 아직까지는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마을 단위 공동이용시설의 항목들도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셋째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서 주민의 노령화는 농촌관광 사업의 추진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과 호응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많은 마을에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농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리더에 불신도 나타난다. 특히 지원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마을 리더와 일반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농촌 마을에서 농촌관광을 주도해 나아갈 경영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의식을 갖춘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마을에서 처음 농촌관광을 시작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상담과 컨설팅 등을 해 줄 전담 창구가 없다. 한편 농촌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

과 연계되어 협력을 하고 있는 마을이 농촌관광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민의 호응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과 어떤 경로로 협력이 가능한지 아는 것은 대부분의 농촌 마을 주민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체험프로그램은 마을을 알리고 방문객을 유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험 부족 및 아이디어 빈곤 등으로 전국에서 일률적 체험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고, 마을에서 판매되는 음식이나 농·특산물도 마을 특성이 배어있지 않고 단조로워 소비자들에게 식상함을 주기 쉽다.

넷째는 홍보의 문제로서. 농촌관광의 홍보 수단은 대체로 인터넷, 유인물, 구전 등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비중이 높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 시스템은 개별 농가 단위, 마을 단위, 시·군 단위 등으로 편재되어 있고, 정보내용 역시 다양한 수위로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체계적 정보 습득이 어렵다. 반면 공급자 편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지속적인 콘텐츠 변경,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 등에 제약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방문의 계절적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관광 공급에서의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농촌관광이 성장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가 본 연구의 주요 과제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촌관광의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며 세부적 연구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농촌관광 사례연구나 선진국의 농촌관광마을 개발사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둘째, 농촌마을의 농업인들 의견과 시행착오, 바램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를 설문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농촌관광마을을 유형별로 선정하여 수익을 분석하였다.

넷째, 농촌마을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공급측면에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문헌조사는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여건과 선진국 사례연구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현지조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인 유형별 9개의 마을을 대상³⁾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마을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수입 분석을 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에 나타난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공급요인과 여건

1. 농촌관광에 관한 선행연구

그 동안의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나 보고서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공급실태 분석과 일반적인 정책건의로 마무리되고 있는 등 농촌관광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제시가 미흡하고 실천·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다.

전영미 외(2003)는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비방향”(한국농촌계획학회)에서 농촌지역에 잠재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마을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민의 여행목적, 선호하는 관광자원을 조사·비교하였다. 이 논문에서 향후 농촌관광의 성공여부는 마을의 독창성의 여하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방문객 서비스와 관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에서의 다양한 자원의 발굴보다는 다른 마을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자성 발굴에 주력해야 하며, 마을의 물리적인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돈구 외(2001)의 “농촌 자연생태 관리기법 및 휴양자원을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연구 대상지를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경기도 양평군 봉미산(산음휴양림)과 강하면 일대, 경상남도 창원군 우포늪으로 선정하여 각각 도시근교형, 농촌지역형, 산림지역형, 인공조림지의 녹색관광에 대한

3) 고드미마을, 구병아름마을, 서천이색체험마을, 생거진천 화랑촌, 부레미 마을, 신룬리 마을, 양수리 마을, 용바위 골, 한드미 마을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농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은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은 경제적 편익을 얻으며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관광을 도입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별사업자들이 중심이 아닌 마을 단위, 즉 지역중심형 농촌관광개발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리더의 양성, 농촌관광 전문가와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농촌관광이 성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다른 관광지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을 지적하였다.

문옥표(2003)의 “한국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개발-일본과 비교”(한국문화와 농촌관광 발전전략,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사례들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 농촌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농촌사회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농촌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시설의 투자나 아이디어의 개발만이 아니라 농촌관광의 운영 및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조직과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양자(2001)의 “수도권 민박마을의 형성과 지역변화-화성군 서신면과 가평군 북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농촌관광이 우리나라에서의 실현여부와 지역에서 1차산업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주민이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고 환경보전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녹색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녹색관광은 연성적 관광으로 수도권에서는 크게 동쪽 내륙 농·산촌형과 서해안의 연안 도시형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환경오염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지속적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성대회(1999)의 “농촌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제천시를 중심으로”(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는 농촌지역의 개발부진, 농촌경제의 정체와 도·농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자원 개발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하여 현안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민의 관광욕구와 다양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기초하여 농촌관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쇠퇴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경제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추진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정책개발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태연(2003)은 농촌관광의 발전에 필요한 공급요인은 물질적 관광자원으로써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과 지방정부 및 공공단체와 관광업 종사자, 주민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지역 및 국가의 법규 등으로 나누고 정리하였다.

2. 농촌관광의 발전에 필요한 공급요인

김태연(2003)은 ‘농촌의 개념과 원칙’에서 농촌관광의 발전에 필요한 공급요인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했다.

가. 자연적 문화유산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유산들은 농촌관광업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각 지역에 어떤 역사적 기념물이나 자연보존지역 등이 있는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지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의 자원들의 현재 보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는 향후 복원 또는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단, 구체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전반적인 매력, 경관으로써의 가치, 특성, 위치나 접근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해야 할 일은 이들 자원들을 통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이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관심, 기본적인 매력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관심, 그리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준 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 내의 다른 마을 등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사한 자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성공여부, 그리고 현재 개발되지 못했지만 향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자원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연적 문화유산들이 관광업의 발전에 따라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자연적 문화자원들은 어떤 경우 아주 적은 수의 관광객의 방문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파괴되기 쉬운 자원들이라면 관광업 보다는 보존, 보호 활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 활동은 실제로 관광객들의 접근을 전혀 금지하기 보다는 아주 제한된 수, 또는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강력한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역으로 소수의 관광객에게 아주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모든 것을 감안한 특정한 형태의 관광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기관, 단체, 주민의 의향 및 참여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지역 관광업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관광업 발전에 있어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지역 관광업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낮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이들의 무관심이나 냉소로 인해 초기의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 본인들의 생각을 말할 기회와 실제 관광업 발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관광업 발전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러한 참여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이들은 관광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며, 관광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하부구조를 책임지고, 관광업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가능한 예산의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지역의 총체적인 토지이용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2) 자연보호 또는 문화관련 단체들

이들은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관광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관광업의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룹들

호텔 및 기타 숙박업소, 식당, 관광코스 운영, 관광시설의 경영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관광업의 발전과정에서 실제 재정적인 투자를 행하고 관광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룹이다. 이들을 통해 현재 관광업계의 추세, 관광객의 기대수준, 만족도,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가 있다. 만약 현재 관광업을 경영하는 그룹이 없다면, 현재 지역에 잠재적으로 이런 사업을 경영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사업자들과 토지 소유 및 경영자들

이들은 잠재적으로 관광업을 경영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기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룹들이다. 이들은 관광업의 발전에 서로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피해를 염려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 일반 지역주민들

향후 관광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관광업에 고용될 수 있는 이 그룹은 관광업과 함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분포나 통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그들이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 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하게 하므로 관광업의 발전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광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관심정도, 재정적·인적·조직적 자원의 능력, 관광업 경영을 위한 환경 및 기술정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지역에서 관광업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만약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관광업은 지역에 적합한 발전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 하부구조 및 관광시설

현재 관광업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석해야 할 대상도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양적으로 하부구조나 잠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이 어느 정도 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선 다양한 숙소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숙소의 수준과 가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식당의 수준과 음식의 질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료로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자원의 형태, 위치,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셋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무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적절한 도로망과 이정표의 존재여부, 그리고 도로상태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상점, 병원, 우체국, 산책로나 하이킹로, 스포츠 시설, 물과 전기의 공급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에 있어 현재의 상태와 향후 개선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며, 이는 재정투자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라. 법규 및 정책적 방향

관광업과 관련된 법규들은 관광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법규의 관료적인 운용이나 관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정책적 지원환경의 미흡은 지역에서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역할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업의 발전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정책 차원에서 중소 사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토개발계획 또는 개발지구의 선정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공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반대로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여건

가. 농촌관광시장 규모

농촌관광 시장규모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농촌관광시장 규모를 추측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995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관광객 중 농어촌 관광지⁴⁾ 참여율은 약 34%, 순수 농어촌 관광지⁵⁾ 참여율은 7.4%라고 추정한다.⁶⁾

한국관광연구원에 의하면 1999년 국민 10명 중 1명 꼴(11.7%)로 철새도래지, 갯벌, 습지 등 생태관광자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민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1년 농촌관광총량은 총 30,930천명/년으로, 2001년 국내관광 총량 327,928천명/년(한국관광공사, 2001)의 9.4%⁷⁾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농촌관광 전망

전체적인 관광패턴에 있어 유흥 및 오락위주에서 체험관광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s)는 향후 관광의 형태를 기존의 단순한 여행 형태에서 자연밀착형, 모험추구형, 문화·추구형, 건강추구형, 체험관광 등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와 여가시간 확대로 실내 중심의 단순 여가활동보다 야외 중심의 동적인 여가 행태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시간제약에서 탈피한 가족 중심의 여행 행태가 정착되어 1박2일 혹은 2박3일의 체류형 숙박여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탐사 여행, 고고 유적 답사, 전통문화 탐구 등 문화·교양 창조형 등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관광·여가의 유형이 확대될 것이며,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및 건강 중심의 여가활동 증가와 저비용의 계획적 여행형태 정착, 저가형의 문화·여가활동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방문 수요를 야기함과 동시에 생협, 한 살림, 기타 소비자 단체 중심의 농촌현장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어촌 관광지의 의미는 순수 농어촌 관광지와 농어촌 지역에 입지한 관광지 및 자연공원 등을 말함.

5) 순수 농어촌 관광지란 농어촌정비법상에서 말하는 관광농원, 민박마을,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을 말함.

6) 박시현, 농촌관광수요실태전망, 2003

7) 과거의 조사자료, 관련연구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농촌관광 시장은 국내관광시장의 8~10%정도를 점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7-2> 관광여행 활동형태

구분	1993		1997		2001	
	당일	숙박	당일	숙박	당일	숙박
자연명승지·풍경관람	35.5	31.2	32.4	30.8	36.4	35.1
고적·사적지·박물관	8.1	9.6	7.8	9.1	8.9	10.2
명절 민속행사 참가	0.2	2.0	0.2	1.5	0.2	2.1
농장 및 과수원 놀이	0.6	1.6	0.7	1.2	0.5	1.0
유흥·오락	26.7	17.1	24.9	18.6	22.8	14.8
온천·휴양	4.2	4.1	7.0	3.8	6.0	3.7
수영·해수욕	3.6	8.4	4.0	11.9	5.5	12.5
등산·캠핑·하이킹	8.3	8.8	6.1	7.5	8.1	7.3
낚시	5.0	4.3	9.9	7.1	3.6	2.1
도시구경	1.1	5.6	1.8	4.8	2.7	6.5
산업시설구경	2.4	3.3	0.2	0.6	0.3	0.6
스포츠레저활동·관람	4.0	3.4	4.1	2.6	4.4	3.8
기타	0.4	0.4	0.8	0.5	0.6	0.3

자료: 박시현,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농촌경제연구원, 2003.

다.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예측⁸⁾

국민 국내관광 총량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⁹⁾은 2001년 9.4%에서 2011년에는 15.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기초할 때 농촌관광 총량은 2001년에 연인원 30,930천명이 2011년에는 연인원 92,107천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2001년 12,897억원(농촌관광총량×농촌관광 1인 1일당 지불의사 금액)으로 농림부분 GDP의 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관광 1인 1일당 지불의사 금액(43,408원)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얻어진 수치이다.

농촌관광 지불의사 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38,406억원으로 농림부분 GDP의 17.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단, 2011년 농림부분 GDP는 KREI전망치).

그러나 도시민 조사에서 농촌관광 여건이 성숙할 경우, 도시민 1인당 잠재적 지불

8) 전국관광수요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한국관광연구원 작성)의 예측치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5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자료에 기초한 추정치와 200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

9) 농촌경제연구원(경북대와 공동)이 도시민의 농촌관광 선호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농촌관광 수요 및 시장규모를 예측한 자료

의사 금액(224,242원)은 실제보다 5.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가정할 경우,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예측치보다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다만 이는 도시민이 잠재 수요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표 7-3> 농촌관광의 수요 및 시장규모 예측

구 분	2001(실측치)	2005	2008	2011	단위: 천 명 비고
국민국내관광 총량 (일·명/년)	327,929	507,436 (10.5)	536,876 (10.9)	605,968 (12.2)	제2차 관광기본계획
농촌관광점유율(%)	9.4	11.4	13.1	15.2	연평균 4.9% 증가
농촌관광 총량 (일·명/년)	30,930	57,847	70,330	92,107	연평균 11.5% 증가
농촌관광시장규모 (농업부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2,897억원 (5.4%)	19,955억 원	27,684억 원	38,406억 원 (17.6%)	

주: 시계열 분석 후,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영향을 감안한 수요임.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 관광개발계획, 2002.

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 관광에 대한 의견

농촌지역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41.8%)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부모친지 방문 시 인근에 유명관광지(21.1%)가 있거나 자녀교육 등 가족들의 농촌체험 기회(15.9%)를 갖거나 향토음식 음미(6.6%), 문화행사 참여(5.8%), 농·특산물 구입(4.8%), 여행비용의 저렴(1.3%), 농촌봉사활동 참여(1.0%) 등으로 나타난다.

여행횟수는 년 3~4회(37.5%)정도였으며, 그 중 농촌여행으로는 년 1~2회(44.3%)정도 또는 그 이상 방문하는 경우도 일부(38.6%) 나타나 응답자 전체 수의 과반수이상(82.8%)이 농촌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여행 시 걱정된 지역의 범위는 2~3개 시, 군(55.6%)으로 응답해 현재 마을 단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주변 지역의 어느 정도까지를 네트워크로 연계시켜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농촌여행 시 이용하는 숙박시설로는 민박(23.1%)이 많았으나 친지나 숙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49.3%였으며, 현지에서 농촌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숙박형태는 주로 마을 주변의 여관이나 모텔(65.8%)을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농촌여행 시 불편한 사항으로는 숙박시설(43.5%), 교통

여건(24.0%), 의료시설(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 마을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여건이 미비한 탓으로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시 방문객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마을 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정도가 낮고 농촌 여행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을 파악한 결과, 농촌관광에 있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을 내에 민박이 있을 경우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 그리고 인근의 편리한 시설을 원하는 경우 마을내의 민박의 경쟁력 강화 혹은 숙박형태보다는 체험프로그램 등의 요소를 제공하여 유인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이다.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여행의 형태는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이용한 1~2박 정도의 형태(85.3%)라고 한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그 외 당일(9.5%), 여름휴가 등을 이용한 장기체류(5.2%) 등이 있었다.

<표 7-4>도시민의 농촌 여행패턴과 불편사항

(N=1,718)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여행횟수	없음	86	5.0	농촌여행횟수	없음	295 17.2
	1~2회	471	27.4		1~2회	761 44.3
	3~4회	645	37.5		3~4회	417 24.3
	5~9회	334	19.4		5~9회	165 9.6
	10회이상	182	19.4		10회이상	80 4.7
	계	1,718	100.0		없음	1,718 100.0
여행적정범위	마을단위	205	11.9	불편사항	숙박시설	748 43.5
	면,군단위	209	12.2		음식수준	125 7.3
	2~3개 시군	955	55.6		교통여건	413 24.0
	2~3일 코스확보가 가능한 지역	349	20.3		통신등 인터넷시설	182 10.6
	계	1,718	100.0		의료시설	212 12.3
					기타	38 2.2
			계	1,718 100.0		

자료: 전영미 외,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비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 2003.

향후 농촌관광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유기농산물과 볼거리, 먹거리 등의 상품개발을 우선시 하였다. 그 외 농촌마을 고유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인근 관광시설과의 연계 강화 등을 들었다.

<표 7-5> 농촌관광 사업 추진시 우선사항

구 분	빈도 (N=1,718)
리더 육성	186
차별화된 상품개발	956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강화	551
숙박시설 정비	337
공동편의시설(체육시설, 놀이터) 확충	153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566

자료: 전영미 외, “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비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 2003.

마. 농촌 관광자원의 기능별 중요도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방문자와의 교류에 영향을 주는 농촌의 기능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7-6>에 나타났다. 기능별 중요도에 있어 ‘친숙하고 소박한 농촌의 자연환경(7.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유로운 휴가장소(7.36)’, ‘친환경적인 농업 및 농산품(7.22)’, ‘농산촌의 문화·풍습 및 농산촌 생활체험(6.98)’, ‘도시와 농촌의 인적교류(6.57)’, ‘농산촌의 생산체험(6.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 농촌 관광자원의 기능별 중요도

농촌기능	기능별 중요도(N=578)	
	평균점수(표준편차)	환산점수 (10점 만점)주)
친숙하고 소박한 농촌의 자연환경	7.43(1.84)	10.0
여유로운 휴가 장소 및 시설	7.36(2.04)	9.9
친환경적인 농업 및 농산품	7.22(2.03)	9.7
문화·풍습 및 농산촌 생활체험	6.98(2.05)	9.4
도시와 농촌의 인적교류	6.57(2.13)	8.8
생산체험	6.27(2.20)	8.4

주: (해당 기능 중요도 × 10) / [기능최고점수(7.43)]

자료: 전영미 외, “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비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 2003.

도시민이 선호하는 중요한 농촌 관광자원을 각 기능별로 산술 한 결과 <표 7-7>에 서와 같은 자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농촌 관광자원의 기능별 중요한 자원요소

농촌기능	중요한 자원요소
자연환경	계곡, 휴양림, 산, 숲, 온천, 폭포, 공원, 자연호수 등
여유로운 휴가 장소 및 시설	산림휴양시설, 온천휴양지, 산책로/산길, 등산로, 관광농원, 식물원, 전통숙박시설 등
친환경적인 농업 및 농산물	재래전통식품, 유기농 쌀, 친환경 농업 견학, 과수 채소작물의 구입, 과수 및 원예작물의 생산 가공시설, 버섯·죽순·밤 등 임산물 구입, 특용작물(인삼, 담배 등)구입, 화훼·화목·약포·허브의 구입, 산나물
문화·풍습 및 농산촌 생활체험	역사문화유적지, 전통문화행사축제, 지역향토음식, 전통마을, 역사적 건축물, 사찰, 전통공예체험시설 등
도시와 농촌의 인적교류	주말농장, 직거래 장터, 지역축제,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시·농촌 교류 프로그램, 도시 농촌 자매결연 등
생산체험	과수, 원예작물의 수확체험, 감자 및 고구마 캐기, 화훼·화목·약포·허브의 수확 체험, 된장·고추장·메주 만들기 체험, 모내기 및 벼베기 체험, 버섯·죽순·밤 등 임산물 수확 체험, 재래 전통식품의 제작 체험, 산나물 채취 체험, 목공품·죽제품 생산체험, 떡과 메밀국수 만들기 체험 등

자료: 전영미 외,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비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 2003.

4.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가능성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도시화,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 탁한 공기, 고밀도 주거공간,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생활조건의 악화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도시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연체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또는 자유업에 종사하거나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에 나들이를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민들의 방문의사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고속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국의 어디에서나 30분 내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4시간이면 전국 어디에나 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 국민의 1일 나들이 코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의 개선으로 좋은 물건, 좋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의 이용이 잦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그 지역의 방문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도가 방문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촌의 장소적인 매력을 상품으로 하는 농촌관광의 전망이 그만큼 밝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이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와 함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살림, 생협 등 회원제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되었으며, 일시적이었지만 축산물 소비가 감소하였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반영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방문 수요를 야기하며 결국에는 농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박시현 외, 2002).

제3절 외국의 사례 연구

외국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외국의 농촌관광의 등장배경, 정부의 지원정책, 주요프로그램과 최근의 동향, 그리고 국내 농촌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농촌관광 등장배경

유럽연합은 농촌관광을 농가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농촌 지역개발정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주요 지원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을 기반, 둘째 농촌지역의 자연, 전통,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 셋째 작은 사업 규모로서 지역의 전통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련, 넷째 농촌 환경과 지역의 자원을 유지·보존하는 지속적인 사업 다섯째, 농촌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표 7-8> 유럽 농촌관광시장의 단계별 특징

농촌관광 여건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		
	시장형성초기	양적 성장기	질적 발전기
농업 · 농촌 정책	· 농업정책(시장접근)의 후퇴 ·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고용유지기능 강조	· 농업정책에서 농촌개발정책 으로의 이동	· 농촌개발정책의 강화와 각종 정책 간 조율(농업, 농촌, 지역, 환경, 관광 정책 등)
수요 여건	· 여가시간의 부족 · 정보의 부재 · 농촌지역 접근성의 미비	· 여가시간의 확대 · 정보통신수단의 발전 · 농촌지역 접근성의 향상	· 타 부문 관광과의 경쟁대두 · 농촌관광의 진정성 추구
공급 여건	· 농촌관광자원의 비 조직화 · 농촌관광상품 개발주체의 미비	· 시장참여자 그룹의 확산 · 농촌관광공급자 조직의 네트워크화	· 네트워크화 된 공급자 그룹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고품질화
정책 접근	· 농외소득 개발 · 고용유지	·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 관광시장의 조직화 · 수요, 공급양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촉진 및 추진 기구 마련	·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 품질화 · 행정적 단위에서 역사, 문화적 단위로의 농촌 관광의 추진

자료: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농촌경제연구원, 2003

한편, 1991년부터 도입된 농촌 지역개발 프로그램인 리더(LEADER)사업에서도 농촌관광이 주요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리더사업의 주요목표는 농촌지역 경제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며, 회원국들에게는 리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리더사업 예산의 35-40%가 농촌관광에 쓰여 지고 있으며, 리더사업에서는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인정되지 않고 단체를 단위로 한 지원만이 인정되고 있다.¹⁰⁾ 지원금은 주로 시설정비, 상품개발, 마케팅, 교육·훈련사업 등에 지원이 되고 있다.

오랜 도시화와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았다. 농촌관광 정책은 농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영국민이 자랑하는 전원풍경의 보호, 전 국민에게 여가기회를 확대한다는 다양한 목적¹¹⁾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 많은 수의 농가민박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행하지 않고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민박의 경쟁력 강화(서비스의 질적

10) 다만, 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개인이 이용할 수는 있음.

11) 영국에서는 관광지 분산배치에 의해 국토이용의 균형과 도로망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고 농촌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립공원의 과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관광이 추진되었음.

향상,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7-9> 농촌관광의 등장 배경 및 주요 목적

국가	등장 배경 및 주요 목적
프랑스	제2차대전 이후 농촌의 고건축 및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적 수요와 국민적 바캉스 수요 대응의 일환
영국	1970년대 본격화 되었으며 농촌의 자연·경관 유지, 보전과 농가의 경영다각화에 초점
독일	1960년대 후반 시작되었으며, 농외소득향상과 이농 방지가 주요 목적
이탈리아	알프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
미국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중심으로 관광개념을 발전시킴
일본	1980년대 본격화되었으며 국민 전체에게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 보급 및 농촌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
대만	1983년부터 대만 정부 농림청세 '관광농장시험 발전 계획'이 수립됨

자료 : 농림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002
 농촌생활연구소,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3

유럽대륙의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의 바캉스 수요가 증폭하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전후 농촌의 건축물이나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에서의 관광이 강조되면서 농촌관광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독일과는 달리 농업정책의 대안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전체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서 기인한 산물이다. 이러한 까닭에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포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농가 민박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의 호텔 숙박이나 유사한 휴가의 형태가 모두 농촌관광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유래하였다.

영국의 농촌관광은 유럽 대륙보다는 다소 늦은 197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륙의 농촌관광을 보전하려는 다차원적 성격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산물 과잉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이 구체화되었으며, 영국인이 자랑하는 전원 풍경의 보호와 전 국민에게 여가 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적에서 적극 추진 되었다. 무엇보다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영국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촌관광은 상당한 성장 산업으로서 부각하였고, 영국 정부가 1970년대 후반 농촌관광을 휴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목하고 그 추진 조직으로 탄력을 얻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농가의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이농을 방지하고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농촌관광이 시작되었다. 이는 마침 장기 체류형 휴가문화와 여가수요의 다양화 등이 결합되어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알프스의 산악지역이며 농업조건이 불리한 인구 과소지역인 바이에른 주에서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이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낙농, 축산과 관광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농업조건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통해서 저하된 농업소득률을 보상할 수 있는 부업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박시현 외, 2002).

이탈리아는 주로 알프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주립공원처럼 주민을 위한 공간제공, 외래방문객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 즉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중심으로 관광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공원은 지역별로 농촌휴가협회(Farm Vacation Association)나 ABBA(American Bed and Breakfast Association)로 불리는 숙박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방협회는 1980년대부터 농민들이 농촌관광을 농외소득원으로 삼을 것을 장려하고 있다(조영숙 외, 2002).

일본은 농촌관광을 농촌지역의 활성화, 도시와 농촌의 공존관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책으로 위치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정에서 농촌관광은 농업생산이 열악한 중산간지역 농촌 활성화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농촌관광은 유럽 국가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일본의 경우는 휴가일수가 많지 않아 체류형 관광보다는 주유형 관광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일본의 농촌관광은 농가 민박보다는 농·특산물 판매와 작은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둘째, 일본의 농촌관광은 그 방식에 있어 도시농촌 교류를 강조한다. 물론 유럽의 농촌관광도 일종의 도시농촌교류임에 분명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농촌관광을 통한 도시민 편익에서의 이득, 농촌주민 편익에서의 이득을 강조하고, 쌍방간의 다각적 교류를 통한 상호 만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박시현 외, 2002).

선진국에서도 농촌관광은 농촌·농업을 다양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지원을 통하여 충분한 공급여건과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

일본은 유럽과는 다르게 농가 민박보다는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는 점은 일본과 농업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2.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원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 조직이 합심하여 농촌의 관광 사업을 추진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1950년대에 이미 농업종사자가 농장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부지 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도시인에게 대여하는 민박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63년에는 정부가 5개년 경제계획에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국토정비지방개발국을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1988년부터 농업종사자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농업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정부령을 공포하고 농가의 관광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7-10> 선진국 농촌관광의 주요 행정지원

국가	주요 행정지원
프랑스	보조금, 융자지원, 다양한 연수 교육
영국	보조금, 융자지원,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 및 후원이 주류
독일	보조금, 융자지원, 창업 프로그램
이탈리아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정부가 협회와 활동지원
미국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관광청의 교육훈련 개입
일본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주도
대만	농림청 주도, 관광농장 시범발전계획, 교육, 훈련, 연구

자료 : 농림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002
 농촌생활연구소,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3

영국에서는 정부 기관이 농촌의 농촌다움 보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관광의 방향 설정부터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농촌지역을 ‘국민의 공동유산’(Common Inheritance)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전원지역위원회와 관광국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의 6원칙」을 제정하여 바

람직한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국은 농촌휴양지 계획(Country Access Scheme)과 농촌경관 관리인제도(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를 시행하여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농촌 경관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촌휴양지계획은 의무적으로 휴경되는 농지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농가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도입하였다. 농촌경관 관리인 제도는 전통적인 농촌 경관 6가지를 복원 또는 보전하여 휴양시설로 이용하고자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영국은 역사적 경관, 석회암지대의 초지 경관, 저지대의 평화로운 경관, 수변의 경관, 해안선의 경관, 구릉지 경관을 농촌의 전통적인 경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에서 EU의 보조금까지 합하여 1994년 이후 3년 동안 4,5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독일 정부는 농가의 민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가 민박을 경영하는 경우 보조금과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보조금은 개별농가(사업체) 투자촉진보조 정책과 농업융자정책, 구 동독주에 대한 정책 등의 일환으로 지급되어 오고 있다. 저리 융자금은 농업신용은행의 특별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융자대상으로는 농가의 겸업 촉진 투자와 지역 경관의 보전·이미지 향상, 농촌 후계자·젊은 층의 활동 공간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민박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유럽의 장려 조치와 유럽부흥 프로그램 특별 대출, 연방·주 정부의 장려책, 기타 사업 상담 등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5년 농가휴가법을 제정하여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의 자격을 침대 상한수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농가민박이 일반 관광숙박업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농업관광사업의 급속한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상한수 이내의 소득은 농가 민박업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농가휴가협회 전국연합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박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반적으로 40-50%의 투자 지원(보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가는 축사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하고 손님방을 개량하면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자금지원은 저리자금 은행융자 50%와 정부보조금 50%로 충당한다. 또 농가휴가협회가 농가민박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회에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관광정책으로는 지역관광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도로확장, 상하수도 등 하부구조 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유원지 보존을 위한 세금우대, 기금조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 등이 있다. 연방정부와 산하 기관들 간의 협력증진 도모와 지역특성이 있는 관광 정책을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제개발사업 수립과 주 단위의 농촌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업소득만으로 취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산촌이나 과소지역에 대해 농촌·농업관광에 대한 농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농가민박 또는 농가 식당을 개업하거나 시설을 개조할 경우, 농업근대화 자금과 중산간 지역 활성화 자금, 진흥산촌·과소지역 경영개선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숙박시설과 휴식시설로서 식당이나 욕실 등의 개·보수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조영숙 외, 2002).

선진국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등의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교육과 훈련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원체계와 교육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 행정지원이 미흡하다.

3. 주요 농촌관광 프로그램

프랑스의 농촌관광 활동은 전국 최대 민박 조직인 ‘지트 드 프랑스(Gite de France)’ 전국연맹의 민박사업과 농업회의소에서 공동 상표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농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표 7-11> 농촌관광 프로그램

국가	농촌관광 프로그램 종류
프랑스	‘지트 드 프랑스(Gite de France)’와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
영국	소규모 민박을 중심으로 숙박형과 식사형 발달.
독일	농가에서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 중심으로 숙박과 레저형이 발달.
이탈리아	농가민박, 캠프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농촌관광 형태로 발달.
미국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인종, 지형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발달.
일본	특산물, 전통문화, 자연자원형, 농촌민박과 자연 관찰형 민박 발달.

자료 : 농림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002
 농촌생활연구소,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3

<표 7-12>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조직과 사업내용

조직명	주요 사업 내용
농업회의소 “농업·관광협회”	농업회의소에서 의뢰받은 농업시찰 단체여행을 기획하는 조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라는 공동 상표 네트워크를 구성, 가입 농가를 중심으로 민박사업 추진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	농촌의 주택을 보수·유지하고,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전국 민박조직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가족 휴가촌 협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촌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9년에 설립
“롯데” 전국연맹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소규모 호텔을 부흥하기 위해 1949년에 발족
“농촌관광진흥 센터(TER)”	농촌관광의 진흥을 위해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과 롯데 전국연맹, 가족 휴가촌 협회, 농업·관광협회, 각도 관광위원회 전국연맹이 1971년 창설. 현재 협회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은행, 관광·레저 관련기관 등 30여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관광부, 농업부,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조사와 연구활동을 하고, 농촌관광 관련조직 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고 있음

자료 :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저, 강신겸 외 역, 『녹색관광』, 1997(서울:(주)일신사). pp.75-77.
http://www.농림부.go.kr 에서 재인용

먼저 지트 전국 연맹은 1955년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 처음 설립되었는데, 전국의 농촌 민박을 체계화하고 단일 조직망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트 연맹이 체계화한 민박 유형은 전체 5가지 유형으로 독채 대여형과 객실 대여형, 아동 민박, 농가 캠핑, 간이 민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민박 농가는 지트 연맹이 정한 등급 기분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4등급까지 등급을 보리의 수로 표시하는데, 등급심사는 지트 연맹 도협회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약 5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급 인정의 경우, 각 위원별로 환경과 옥외설비, 건물의 상태, 실내설비 및 실내장식을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도달할 경우에만 부여하게 되어 있다.

한편,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지트 연맹의 민박사업에 비해 훨씬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이 사업은 1981년부터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공동 상표 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농업회의소가 별도로 정한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크게 농가 민박과 레스토랑, 레저 등 3종류로 구분되며, 농가별로 농가숙박, 식사, 특산물, 승마, 어린이농장체험, 농업체험, 사냥, 가족단위체류, 캠핑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7-13>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유형 구분

민박 유형	서비스 내용
독채 대여형 (Gite rural)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를 독채로 대여
객실 대여형 (Chambre d'Hotes)	주로 아침 식사와 객실을 제공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높음
아동용 민박 (Gite d'Enfants)	농가에서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중에 운영(연령별로 유형이 세분)
농가 캠핑장 (Camping la Ferme)	농가의 부지 또는 삼림 등에 캠핑장을 마련 (매우 저렴한 가격임)
간이·단체민박 (Gite d'Etappe·de Gruppe)	위층은 객실, 아래층에는 공동 편의시설을 둔 저가형 민박

자료 :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저, 강신겸 외 譯, 『녹색관광』, 1997(서울:(주)일신사). p.95.
<http://www.농림부.go.kr>에서 재인용

영국의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소규모 민박을 중심으로 숙박형과 식사형이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민박농가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농촌의 생활이나 문화, 역사적 유산, 풍경, 마을 주민의 환대 등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박의 운영형태는 농가 일손을 줄이기 위해 침대와 아침식사만을 제공하는 B&B(Bed & Breakfast)형 민박형태는 농민들이 민박사업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일을 하면 민박을 부수적으로 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사고와 가치를 알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도 1983년에 설립된 농장휴가협회가 전국 민박 농가를 공동 네트워크로 조직하고 공동 상표를 사용하여 민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민박농가의 등급 판정을 정부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농촌·농업 관광은 프랑스에 비해 소박하며 농가에서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려는 이용객을 위주로 숙박과 레저형이 발달되어 있다. 농촌 숙박시설로는 객실형 민박과 별채형 민박, 여관, 하숙, 간이·특급 호텔, 유스 호스텔, 야영장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독일의 숙박 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레저시설로는 공공시설인 다목적 온천시설과 향토박물관, 음악당 등이 있으며 농가의 사유시설로 승마장, 자동차 야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독일농업협회(DLG)와 식량농업부 정보서비스협회는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농촌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 프로그램은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품질을 인증한 농가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7-14> DLG의 품질보증 대상 민박과 평가 항목

대상 숙박 시설	주요 평가 항목
공 통	안전성, 농장의 전체적 인상, 농장 고유의 레크레이션 설비, 주위 환경
객실형 민박	객실, 라운지 대어부분, 급식시설, 화장실
별채형 민박, 리조트 하우스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아영장	주변 환경, 휴게소, 취사장, 세탁장, 화장실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용 숙박시설	침실, 라운지, 놀이터, 급식·위생시설

자료 :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저, 강신경 외 역, 『녹색관광』, 1997(서울:(주)일신사). P.154.

이 DLG의 품질보증마크는 국립특허기관이 인정한 ‘DLG점수’ 마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따라 각 지역의 담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를 총괄하는 심사위원회는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단체, 관광협회,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들로서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것에 대한 품질 보증은 5가지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평가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전국적으로 3개의 농가휴가협회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전국 농가휴가협회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농가민박, 캠프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농촌관광 형태를 지닌다. 이탈리아는 농가의 관광소득이 농업소득을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는데, 최근 농가휴가협회가 중심이 되어 종전의 규제기준을 소득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가에서는 여성이 주로 민박을 운영하지만 민박 및 레스토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민박으로 인한 소득은 민박등록 여건상 법률로 민박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민박소득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농가들이 농가휴가를 조직하고 전국 단위별 농가휴가협회들이 구성되어 민박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전국농가협회가 하나로 단일화 되어 있다. 회원회비, 관광책자 광고와 판매수입으로 운영한다. 협회는 편의시설, 서비스, 가격수준 등을 농가별로 등급화,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농촌관광개발 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관광개발에

관심이 있는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타 보조를 제공하고 전문적 지도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농촌관광이 관광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민간부분과 더불어 주 정부, 연방정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농촌은 여행자들의 다양한 활동 및 욕구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2,400여개 농촌지역의 카운티(County)들 중 대략 400여 개 주에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 관광개발은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인종, 지형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자원의 특성에 따라 특산물, 전통문화, 자연자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의 특산물은 버섯이나 산채, 과일 등의 음식물과 칠기, 도자기 등의 공예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또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통문화 상품으로는 절이나 신사, 지역축제, 민속공예, 전설, 떡치기, 전통요리 등이 관광객에게 제공되고 있다. 자연자원으로 온천이나 산, 강, 산림, 동물, 새, 반딧불 맑은 공기나 녹음,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거의 모든 자연자원을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일본에는 농촌관광 이용객을 위한 농가의 숙박시설로 농촌민박과 자연 관찰형 민박이 있다. 농가 민박은 원래 일반 농가에 잠시 머무르는 홈스테이 또는 팜스테이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농가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개조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사체험 학습이 강조되면서 고교생의 수학여행에서도 농가 민박을 이용하는 등 후세대를 위한 농촌관광 사업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조영숙 외, 2002).

<표 7-15>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활용자원	프 로 그 램
특산물	버섯, 산채, 과일 등 음식물 칠기, 도자기 등 공예품 버섯따기, 요리 시식, 도자기 박물관 등 이벤트 상품
전통문화	절, 신사, 지역축제, 민속공예, 전설, 떡치기, 전통 요리, 증기기관차, 에도(江戸)시대 상점가 재현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생활 민속 볼거리 제공
자연자원	온천, 산, 강, 산림, 동물, 새, 반딧불, 맑은 공기, 녹음,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해녀, 취미농장, 주말농장 등

자료 : 문옥표,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제8집, 1998. pp.80~81.

선진국에서는 농촌관광 사업을 하는 농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박이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홍보비용 등을 절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4. 농촌관광의 최근 동향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추진 사업으로 정보서비스와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민박 이용자 도로표지판을 확충하는 한편, 이용객의 욕구에 부응하여 레저형 민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정보서비스와 예약시스템은 가정에서 안내서를 받아보고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로 예약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의 민박 이용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용객의 요구 변화에 따라 민박도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민박을 하면서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려는 이용객이 늘어나 낚시, 승마, 스키 등 다양한 레저형 민박을 개발하고 있다.

<표 7-16>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국가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프랑스	정보서비스와 예약시스템, 안내표지판 확충, 레저형 민박(낚시, 승마, 스키)
영국	농장 내 공예센터, 농장 박물관, 클레이사격장 등 농장 내 관광자원 개발
독일	시골의 조용함,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장소, 영농체험, 동물동행 등 농장 내 관광자원 다원화 개발

영국에서는 최근 농가의 민박 사업이 발전됨에 따라 민박과 병행하여 농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장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어업 식량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경영 다각화사업을 장려함에 따라 촉진되고 있는데, 농장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1991년에는 ‘전국농장매력물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농장 내 공예센터·농장박물관, 경관박물관, 클레이사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에 농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농촌·농업

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관광연구협회의 조사 결과,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가족적인 유대관계와 시골의 조용함, 어린이의 놀이터, 스포츠 장소, 영농 체험, 인적 교류, 동물 동행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부족했던 프로그램으로서 향토음식 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직판과 연계시키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선진국에서는 농촌관광의 방문객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문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농촌관광이 되어야 한다.

5. 국내 농촌관광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동양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민간주도의 협회가 네트워크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협회의 기능을 돕고 지원하며 보조금, 저리융자, 세금지원, 관계법규 정비 등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전국 그린투어리즘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화에 중점적으로 치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농림부 2001). 결국 생산자협회 조직이 품질보증, 등급화, 표준화를 주도하고 공동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하며, 회원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사회와 정부가 도와야 함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다.

농촌관광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관광수요 및 관광여건에 의해 좌우되어진다. 유럽의 경우 관광에 대한 오랜 전통과 장기휴가 등의 여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농촌관광 발달이 가능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식 및 관광여건이 유럽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산업의 발달이 유럽보다는 더딘 편이다. 즉,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정책적인 노력보다는 시장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7-17> 농촌관광의 특징과 국내적용의 시사점

구분	관광여건	농촌관광형태	산업화 정도	정책의 특성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주 5일 근무제 · 주단위 장기휴가 일반화 · 관광이 일상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민박 장 · 기체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관광산업의 틀 속에서 농촌 관광 활성화 · 등급제 실시 · 정책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인 산업화 노력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등과 연계 · 산업전체의 마케팅 및 개별 경영자의 경영 노력을 중시 · 개별경영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주2일 휴가 · 주 단위 장기휴가 미발달 · 관광시장이 미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 농촌교류형, 체험활동형, 단 · 기체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직(농산어촌 활성화기구) 등의 활동에 의존 · 자생적인 산업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정비, 도시쪽의 수요 창조, 제도 및 규제완화 등이 주요 · 정책지원은 주로 공공을 대상 · 지역가꾸기, 도시농촌교류 등 차원에서 농촌관광을 추진 · 지역단위로 지원, 개별경영자에게는 용자 및 규제완화
국내 적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비해서 관광여건 미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일본형 도시 농촌교류 · 장기적으로 유럽의 체제형 농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노력 요구(영업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기반정비에 초점을 맞추되 개별 경영체의 경영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 · 수요자 확보 노력이 중요

자료 : 박시현, 외국의 농촌관광 현황과 시사점, 농업정책학회,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체제, 수요자를 농촌으로 유인하는 정책 등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점에서 일본의 도시 농촌교류를 촉진하는 각종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농장 단위의 농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장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축사, 창고)을 개조하여 숙박 건물로 활용하며 농장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다.

급속하게 관광수요가 증가하며 소비자 수요도 다양화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10년에 걸쳐 농촌관광의 확산이 기대된다. 관광수요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2008년 완전 노령연금 지급개시 등으로 향후 체험관광, 생태관광, 숙박형 교류형태 증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층의 체험관광 수요가 농촌관광 수요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부터 자동차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량소비형 대중관광(Mass Tourism)은 환경부담 증가와 지역 내 과급효과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역사탐방,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문화체험 관광 등 테마관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농촌 자체를 테마로 하는 체류형 농촌 관광수요는 미미한 수준이나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국내 관광수요는 점차 대중관광 지양과 환경부담 감소, 가족단위 체험관광의 확대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농촌관광 공급체제는 생활 및 여가 기반시설 등의 하드웨어 부분과 여가, 체험프로그램, 비즈니스 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경영주체인 농촌주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다양한 농촌관광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여가·체험·교류 프로그램을 메뉴로 제시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활용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주말농원,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 증대, 농의소득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전반적으로 생활 및 여가기반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며,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및 부녀화 추세 하에서 지역주민의 협력에 기초한 경관 정비 노력도 저조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마을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성, 건설성이 고향 가꾸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정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농촌에서 어메니티(Amenity)를 창출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관광서비스를 매개로 농산물·특산물 판매와 소규모 가공사업을 연계시키는 농촌 비즈니스 체계 및 이를 운영할 경영주체를 확보하는 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 등 도시민 수용체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농촌관광 마을의 공급실태분석

1. 조사방법과 조사마을의 개황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5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모집단은 농림부의 농촌녹색관광 마을이다. 표본추출을 위해 이들 모집단을 가구 수 비례에 관광유형별로 9개 마을을 임의 추출하였다. 임의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서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현황, 자원부존현황과 관광유형, 농촌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방문객의 특성, 농촌관광 사업이후의 변화,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포함하였다.

<표 7-18> 조사마을의 농촌 관광사업 형태 및 참여 년도와 농가수

관광 마을	정부지원 형태	유형별 분류	농촌 관광사업 참여 년도	농촌 관광사업 참여 농가수
G1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민박·휴양형	2004. 7	18
G2 마을	아름마을	"	2004. 5	14
S1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	2004.10	30
S2 마을	"	농업·농촌체험형	2001. 3	20
S3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	2003. 7	18
V 마을	"	"	2003. 6	18
Y1 마을	"	농산물판매형	2002. 4	31
Y2 마을	"	"	2002. 5	26
H 마을	"	"	2003. 2	39

정부의 지원 형태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가장 많은 6개의 마을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이 2개, 아름답마을이 1개였다. 농촌관광사업 참여 년도는 농촌 관광사업을 가장 일찍 시작한 마을은 S2 마을로 2001년이었고, 2002년이 1개 2003년이 2개, 2004년이 3개의 마을이었다. 참여 농가수는 H 마을이 가장 많은 39농가였고, 구병아름마을이 가장 적은 14농가로 조사 되었다.

위의 유형구분은 송미령의 “그린투어리즘 마을의 경영전략”에서 그린투어리즘 추진 마을들의 유형별 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는데 농산물 판매형은 농산물 판매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업·농촌체험형은 체험활동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또한 농촌휴양형은 숙박비와 음식물판매비를 합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마을의 크기는 S1마을이 102가구 293명으로 가장 주민수가 많았으며 Y2 마을이 80가구 250명으로 두 번째로 큰 마을로 나타났다.

<표 7-19> 조사마을의 마을 개요

관광 마을	위치	총 가구 수	주민 수	특산물
G1 마을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40가구	80명	유기농 오리농법 쌀, 무농약 표고, 유기농 고추
G2 마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구병리	26가구	53명	송로주, 메밀베게, 메주
S1 마을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102가구	293명	엄나무 엑기스, 동동주, 해랑이콩
S2 마을	충북 진천읍 연곡리 보련	35가구	80명	생거진천쌀, 고추, 서리태, 콩
S3 마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문리	38가구	90명	친환경농산물
V 마을	경기도 이천시	30가구	76명	배, 복숭아, 고추
Y1 마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60가구	180명	포도, 복숭아, 배
Y2 마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80가구	250명	배, 복숭아, 사과
H 마을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39가구	72명	우렁이 오리쌀, 고로쇠수액

자료 : 각 마을 홈페이지

2. 응답자의 일반현황

응답자는 비율은 남성이 70.6%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사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민박을 하시는 분들은 고령자인 경우가 많았다. 크리스컬-윌리스 검정을 한 결과 유의 확률은 0.073으로 0.05보다 크므로 유형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도 0.340으로 0.05보다 크므로 유형별 차이가 없다.

<표 7-20>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단위 : 명수, %

유형	성별			연령					
	남	여	무응답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무응답
민박·휴양형 (n=13)	11 (84.6)	1 (7.7)	1 (7.7)	2 (15.4)	2 (15.4)	1 (7.7)	5 (38.6)	2 (15.4)	1 (7.7)
농업·농촌 체험형(n=12)	6 (50.0)	6 (50.0)	0 (0.0)	0 (0.0)	5 (41.7)	2 (16.7)	4 (33.3)	1 (8.3)	0 (0.0)
농산물판매형 (n=9)	7 (77.8)	2 (22.2)	0 (0.0)	0 (0.0)	4 (44.4)	5 (55.6)	0 (0.0)	0 (0.0)	0 (0.0)
합계 (n=34)	24 (70.6)	9 (26.5)	1 (2.9)	2 (5.9)	11 (32.4)	8 (23.5)	9 (26.5)	3 (8.8)	1 (2.9)

<표 7-21> 응답자의 직업과 학력

단위 : 명수, %

유형	직업						학력					
	농사	자영업	회사원	무직	기타	무응답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민박·휴양형 (n=13)	8 (61.5)	2 (15.4)	0 (0.0)	0 (0.0)	2 (15.4)	1 (7.7)	4 (30.8)	1 (7.7)	6 (46.2)	1 (7.7)	0 (0.0)	1 (7.7)
농업·농촌 체험형(n=12)	8 (66.7)	0 (0.0)	0 (0.0)	3 (25.0)	1 (8.3)	0 (0.0)	8 (66.6)	2 (16.7)	0 (0.0)	2 (16.7)	0 (0.0)	0 (0.0)
농산물 판매형 (n=9)	7 (77.8)	0 (0.0)	0 (0.0)	1 (11.1)	1 (11.1)	0 (0.0)	1 (11.1)	1 (11.1)	4 (44.5)	2 (22.2)	1 (11.1)	0 (0.0)
합계 (n=34)	23 (67.6)	2 (5.9)	0 (0.0)	4 (11.8)	4 (11.8)	1 (11.8)	13 (38.2)	4 (11.8)	10 (29.4)	5 (14.7)	1 (2.9)	1 (2.9)

응답자의 직업이 67.6%가 농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영업은 5.9%로 나타났다. 마을의 관광사업 대표자의 경우 사업일이 많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관광사업 일만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민박의 경우 고령이신 분들이 농사는 짓지 않고 민박을 하시면서 용돈을 버시는 경우가 있었다.

직업의 경우 크러스컬-윌리스 검정을 한 결과 유의 확률은 $p > 0.05$ 보다 크므로 유형별 차이가 없다. 학력은 0.033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중비교를 한 결과 농업·농촌체험형과 농산물판매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체험형은 초등졸이 대부분이고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별로 없는 반면 농산물 판매형은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77.8%로 나타났다.

<표 7-22> 응답자의 소득수준

단위: 명수, %

유 형	1천 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 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 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 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 원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무응답
민박·휴양형 (n=13)	3 (23.0)	4 (30.9)	3 (23.0)	0 (0.0)	0 (0.0)	1 (7.7)	0 (0.0)	2 (15.4)
농업·농촌체 험형(n=12)	4 (33.3)	3 (25.0)	4 (33.3)	0 (0.0)	0 (0.0)	0 (0.0)	0 (0.0)	1 (8.4)
농산물판매형 (n=9)	0 (0.0)	0 (0.0)	3 (33.3)	0 (0.0)	0 (0.0)	4 (44.5)	2 (22.2)	0 (0.0)
합계 (n=34)	7 (20.6)	7 (20.6)	10 (29.4)	0 (0.0)	0 (0.0)	5 (14.7)	2 (5.9)	3 (8.8)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3천만원 미만이 70.6%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0.6%로 나타났다. 크러스컬-윌리스 검정을 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01로 0.05보다 작으므로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한 결과 농업·농촌체험형과 농산물판매형이 유형별 차이가 있었으며, 농업·농촌체험형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의 농가는 한 가구도 없었지만 농산물판매형은 66.7%나 5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3. 농촌관광마을의 자원부존현황과 관광유형

농촌관광마을의 운영사업으로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체험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6개 마을), 다음이 숙박(3개 마을) 사업이며 특산품이나 농산물 판매 사업은 미미했다. 2003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역시 체험학습에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체험학습은 농촌관광에서 주력하는 점이다. 특산농산물과 가공품 판매는 특별히 농촌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관광에서 주력하는 부분에서 소외 되었다.

<표 7-23> 농촌관광 운영사업

유형	관광마을	체험 학습	수련회 와 연수	주말농장, 입대농장	자연·경 관감상 및 휴양	특산농산물 가공품 판매	숙박	복합적
민박· 휴양형	G1 마을	○	○	○	-	-	-	-
	G2 마을	-	-	-	○	-	○	-
	S1 마을	-	-	-	-	-	-	○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	-	-	-	-	-	-
	S3 마을	○	-	-	-	-	-	-
	V 마을	○	-	-	-	-	-	-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	-	-	-	-	○	-
	Y2 마을	○	-	-	-	-	-	-
	H 마을	○	-	-	-	-	○	-

관광 사업의 자원에 대한 설문에서 47.1%의 주민들은 자연생태환경이 좋아 관광 사업을 시행하기 좋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의 장점들은 서로 비슷한 구성비를 나타냈다. 민박·휴양형은 자연환경이 좋고 주변에 유명 놀거리, 볼거리가 풍부해 80.0%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농촌체험형의 경우 도시로부터 거리와 접근성(21.1%)과 마을고유의 전통보존(21.1%)이 타 유형보다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4> 농촌관광 사업 마을의 장점

단위 : 개수, (%)

유형	자연생태 환경이 좋은 마을	주변에 유명 놀거리, 볼거리 풍부함	농업이 강하고 좋은 농특산물이 있음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좋음	마을고유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음	기타	합 계
민박·휴양형	11 (55.0)	5 (25.0)	2 (10.0)	1 (5.0)	1 (5.0)	0 (0.0)	20 (100.0)
농업·농촌 체험형	7 (36.8)	2 (10.4)	1 (5.3)	4 (21.1)	4 (21.1)	1 (5.3)	19 (100.0)
농산물 판매형	7 (50.0)	2 (14.3)	2 (14.3)	2 (14.3)	1 (7.1)	0 (0.0)	14 (100.0)
합 계	25 (47.1)	9 (17.1)	5 (9.4)	7 (13.2)	6 (11.3)	1 (1.9)	53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사업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숙박객 유치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28.9%로 가장 주력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가 24.4%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반면, 보조금 유치나 식당운업을 통한 경영활동은 관심 사업분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농촌관광 주력사업은 민박·휴양형이 농특산

물 생산 및 판매(44.5%)에 주력하고 있었고, 농산물 판매형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45.4%)에 농업·농촌체험형은 숙박객 유치(44.7%)에 가장 주력하는 사업 분야로 나타났다.

<표 7-25> 농촌관광의 주력 사업분야

단위 : 개수, (%)

유형	농촌다운 자연자원 보전에 의한 보조금유치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	숙박객 유치	식당 등에서의 향토 음식 판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2 (11.1)	8 (44.5)	4 (22.2)	2 (11.1)	2 (11.1)	0 (0.0)	18 (100.0)
농업·농촌 체험형	1 (6.3)	1 (6.3)	7 (44.7)	1 (6.3)	6 (37.4)	0 (0.0)	16 (100.0)
농산물 판매형	1 (9.1)	2 (18.2)	2 (18.2)	0 (0.0)	5 (45.4)	1 (9.1)	11 (100.0)
합계	4 (8.9)	11 (24.4)	13 (28.9)	3 (6.7)	13 (28.9)	1 (2.2)	45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큰 계기는 앞으로 수입이 좋고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6%로 반 이상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줄어드는 농촌소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대로 농촌관광 사업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2003년 조사한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33.3%로 앞으로 수입 및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비중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이다.

<표 7-26> 농촌관광 사업의 관심 계기

단위 : 개수, (%)

유형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수입이 좋고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마을을 보니 잘되어서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0 (0.0)	0 (0.0)	2 (66.7)	0 (0.0)	1 (33.3)	3 (100.0)
농업·농촌 체험형	0 (0.0)	1 (33.3)	1 (33.3)	0 (0.0)	1 (33.3)	3 (100.0)
농산물판매형	1 (33.3)	0 (0.0)	2 (66.7)	0 (0.0)	0 (0.0)	3 (100.0)
합계	1 (11.1)	1 (11.1)	5 (55.6)	0 (0.0)	2 (22.2)	9 (100.0)

4. 농촌관광마을 시설과 프로그램

농촌관광 공급의 제약요인중의 하나로 생각하던 시설의 부족은 지속적인 투자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농촌관광마을의 전체 시설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G1 마을은 모두 마을 공동 소유인 숙박시설로 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 5개를 가지고 있고, 식당의 규모는 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타시설로 한증막이 있다.

G2 마을은 숙박시설로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 22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15개를 소유하고, 마을이 7개를 소유하고 있다. 평수는 개인소유는 100평, 마을소유 100평이다. 식당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 모임장은 마을소유로 60평이고, 야외광장·운동장은 마을소유로 100평이다. 농산물 판매장은 참여농가는 14농가이고 마을소유로 10평이 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논밭 과수원은 약 2,000평 정도이며 바베큐장은 마을소유로 6평, 기타시설로는 목욕탕, 족구장, 주차장 시설이 있다.

S1 마을은 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12개 가지고 있으며 식당은 마을 소유로 30평이고 100명을 수용 가능하다. 모임장 역시 마을소유로 30평이다. 야외광장·운동장은 마을소유로 30평, 농산물 판매장은 마을소유로 20평이 있고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 과수원은 개인소유로 1,000평이고, 동물원·식물원도 개인소유로 4,000평이다.

S2 마을은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마을소유로 10평이 있다. 모임장은 마을소유로 40평이고, 야외광장·운동장도 역시 마을소유로 500평이다. 농산물 판매장은 마을소유로 6평이었으며 공동숙박시설은 없었다.

S3 마을은 소유한 시설은 모두 마을 공동소유로 숙박시설은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25개 가지고 있으며 식당은 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V 마을은 총 수용인원은 50명인 숙박시설이 개인소유와 마을소유로 개인이 8개 70평을 소유하고 마을이 2개 20평을 소유하고 있다. 식당은 마을이 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100명이다. 모임장은 마을소유로 50평이 있고, 야외광장·운동장도 마을소유로 550평이 있다.

Y1 마을은 숙박시설로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12개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소유는 200평, 마을소유는 60평이다. 식당은 총 수용인원이 200명이고 마을소유로 60평이다. 모임장은 개인소유가 50평, 마을소유가 40평이고 농산물 판매장은 개인소유가 20평, 마을소유가 50평이다.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 과수원은 개인소유로 1만

평이 있고 바베큐장은 개인소유로 50평, 마을소유로 30평이다. 기타시설로는 체험장, 공중화장실이 있다.

Y2 마을에서는 개인민박과 마을 펜션을 합해서 숙박시설이 방이 20개 수용인원은 80명이었다. 식당은 마을공동소유로는 12명을 수용가능하며 이 마을의 특징은 주요 시설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H 마을은 방 21개에 총 1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중 9개는 개인소유고 12개는 마을의 수요이다. 식당의 총 수용인원은 64명이고 마을 공동소유이다. 모임장과 39명이 참가하는 마을공동의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 과수원이 마을 공동소유로 5,000평이 있다. 기타시설로 파고라, 정자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표 7-27> 농촌관광마을의 전체 시설유무

	민박·휴양형			농업·농촌체험형			농산물판매형		
	G1 마을	G2 마을	S1 마을	S2 마을	S3 마을	V 마을	Y1 마을	Y2 마을	H 마을
숙박시설	○	○	○	×	○	○	○	○	○
식당	○	○	○	○	○	○	○	○	○
모임장	○	○	○	○	○	○	○	×	○
야외광장 ·운동장	○	○	○	○	○	○	○	×	○
낚시터	×	×	×	×	×	○	×	○	×
농산물 판매장	×	○	○	○	×	○	○	×	○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	○	○	×	×	○	○	○	○
동물원·식물원	○	×	○	×	×	○	×	×	×
바베큐장	○	○	×	×	×	×	○	○	○
산책로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민박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기 때문에 민박하는 방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Y2-D농가의 경우 체험프로그램만을 하는 농가를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민박시설은 없다. 그 외에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었으며 방의 수나 시설의 크기는 각 농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28> 농촌관광마을의 시설 보유현황

유형	농가	시설 보유 현황
민박· 휴양형	G2-A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20명
	G2-B농가	방 수 4개, 수용인원 20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G2-C농가	방 수 7개, 수용인원 150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G2-D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10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G2-E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10명
	S1-A농가	방 수 12개, 수용인원 48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S1-B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8명
	S1-C농가	방 수 3개, 수용인원 15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50평
	S1-D농가	방 수 18개, 수용인원 70명
	S1-E농가	방 수 3개, 수용인원 10명
농업· 농촌 체험형	S2-A농가	방 수 3개, 수용인원 20명
	S2-B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4명
	S2-C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4명
	S2-D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30명
	V-A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40명
	V-B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10명
	V-C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4명
	V-D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10명
농산물 판매형	Y1-A농가	방 수 3개, 수용인원 50명, 식당 수용인원 100명, 모임장 50평, 야외광장·운동장 200평, 동물원·식물원 10평, 바비큐장 30평, 산책로, 갤러리
	Y1-B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4명
	Y1-C농가	방 수 1개, 수용인원 7명
	Y1-D농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H-A농가	방 수 2개, 수용인원 10명
	H-B농가	방 수 4개, 수용인원 50명
	H-C농가	방 수 10개, 수용인원 50명, 식당 수용인원 50명, 모임장 28평, 야외광장·운동장, 낚시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논밭·과수원

<표 7-29>는 농촌관광마을의 숙박시설 현황으로 마을 별로 방의 크기나 개수는 다양했고, 취사시설의 경우 공용취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7-29> 농촌관광마을의 숙박시설 현황

유형	농가	방크기와 갯수	개량 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민박·휴 양형	G2-A농가	대-1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	모든 방마다 주방시설과 그릇이 있음
	G2-B농가	소-1개 대-3개	떨러있는 방-2개	떨러있는 방-2개	주방시설 및 그릇 있는 방이 2개, 주방시설만 있는 방이 2개
	G2-C농가	중-4개 대-2개	떨러있는 방-3개	떨러있는 방-3개	주방시설 및 그릇 있는 방이 1개
	G2-D농가	대-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G2-E농가	대-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1-A농가	중-10개 대-2개	떨러있는 방-8개	떨러있는 방-2개	공동취사장 이용
	S1-B농가	중-2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각 방마다 떨러있음	공동취사장 이용
	S1-C농가	대-3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1-D농가	소-1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1-E농가	소-1개 중-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농업·농 촌체험형	S2-A농가	대-3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2-B농가	중-1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2-C농가	중-1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S2-D농가	대-2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각 방마다 떨러있음	모든 방마다 주방시설 마련
	V-A농가	대-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V-B농가	대-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V-C농가	중-1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각 방마다 떨러있음	공동취사장 이용
V-D농가	대-2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각 방마다 떨러있음	공동취사장 이용	
농산물 판매형	Y2-A농가	대-3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Y2-B농가	중-1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Y2-C농가	대-1개	각 방마다 떨러있음	각 방마다 떨러있음	공동취사장 이용
	H-A농가	중-2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H-B농가	중-1개 대-3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H-C농가	중-4개 대-6개	공동화장실 이용	공동샤워실 이용	공동취사장 이용

주: 방 크기에서 소는 1-2인, 중은 3-4인, 대는 5인 이상임.

농촌관광 공급의 제한요소 중의 하나인 “하나의 화장실을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역시 관광객의 수용에는 부적합한 편이다.”라는 의견

에서 보았듯이 개선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서 방문객이나 민박농가간에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Y2-D농가는 민박을 하지 않고 과수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과수를 판매하고 있어서 숙박시설 현황에는 제외됐다.

농촌관광 마을의 프로그램 내용은<표 7-30>와 같다. G2 마을에서는 농사체험은 한시적으로 개인이 주체로 하고 있고, 자연체험은 상시적으로 마을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 만들기 체험은 개인주체로 상시적이고, 야외스포츠체험은 마을주체로 상시적으로, 기타체험은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S1 마을에서는 모든 체험이 마을주체이고 농사체험은 한시적, 자연체험과 역사·문화체험, 건강·보양체험, 만들기 체험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2 마을에서는 모든 체험이 마을주체이고 농사체험만이 한시적이다. 화랑촌은 농사체험보다는 전통문화체험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S3 마을에서는 모든 체험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V 마을에서도 모든 체험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각각의 체험의 주체는 마을이 아니고 농가 개인이 하는 것이다.

Y1 마을에서는 농사체험, 자연체험, 만들기 체험은 상시적, 건강·보양체험과 기타 체험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Y2 마을에서는 농사체험은 한시적이지만 나머지 체험은 상시적이었다. 그리고 각 체험들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의 체험행사는 없었다. 용바위 골은 정크아트 갤러리가 있어 현대적인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H 마을에서는 모든 체험이 마을주체이고 역사·문화체험만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농사체험은 주로 고구마 캐기가 많았고, 건강·보양체험에서는 두부나 떡만들기, 장담그기가 많았다. 또한 만들기 체험은 목공예가, 야외스포츠 체험은 국궁(활쏘기)과 썰매타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체험이나 역사·문화체험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체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7-30> 농촌관광 마을의 프로그램 내용

유형	관광마을	농사체험	자연체험	역사·문화체험	건강·보양체험	만들기체험	야외스포츠체험	기타
민박·휴양형	G1 마을	계절별로	미동산수목원	단체견학	×	염색, 한옥, 목공예	국궁	×
	G2 마을	감자캐기 옥수수·복숭아 따기	산책로 탐방	×	두부·메밀묵 만들기	새끼 꼬기	족구	산딸기 따기 산나물 채취
	S1 마을	오리입식, 고구마캐기	갯벌, 우렁이 생태관찰	이하복 전통가옥, 박물관	엄나무 발효차 담그기	미니솥대, 수수깡공작	썰매타기	×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고구마 캐기	×	×	×	솥 만들기	활쏘기	×
	S3 마을	산나물 뜯기, 농산물 수확	송어 잡기, 메뚜기 잡기	×	장 만들기, 막국수 만들기	짚공예,	국궁, 썰매타기	×
	V 마을	농산물 수확	생태 공원	사물놀이, 박물관	인절미 만들기	도자기, 염색	썰매타기, 널뛰기	×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고구마 캐기, 감자캐기	야생화, 토종 농식물	×	○	○	썰매타기	×
	Y2 마을	과일 숙기, 과일 재배	산림욕	박물관, 정크아트	×	도자기 피리	구기	×
	H 마을	과종 및 수확	동굴, 박쥐 탐험	연극, 음악회	떡, 두부 만들기	목공예, 풀잎손수건	×	×

주 : ○는 체험프로그램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모름.

5.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의 특성

방문객 유형으로는 가족 단위가 4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단체가 26.3%, 회사단체 14.8%, 모임(계) 13.4%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모든 단체가 비슷하게 방문하는 경우와 백화점 등과 연계한 계약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 관광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박·휴양형은 가족단위(48.0%)가 가장 많았으며, 농업·농촌체험형은 가족단위(52.4%)와 학생단체(42.8%)가 대부분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형의 경우 모임(계) 26.7%로 다른 유형의 마을보다 구성비가 조

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31>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유형

단위 : 개수, %

유형	가족단위	학생단체	회사단체	모임(계)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12 (48.0)	2 (8.0)	3 (12.0)	4 (16.0)	4 (16.0)	25 (100.0)
농업·농촌 체험형	11 (52.4)	9 (42.8)	0 (0.0)	1 (4.8)	0 (0.0)	21 (100.0)
농산물 판매형	5 (33.3)	5 (33.3)	1 (6.7)	4 (26.7)	0 (0.0)	15 (100.0)
합계	28 (45.9)	16 (26.3)	4 (14.8)	9 (13.4)	4 (6.6)	61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함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계절별 분포는 여름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과 가을이 79.4%라는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계절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마을 유형별로 보면 농산물 판매형의 경우는 44.4%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을에 높은 방문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인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32> 농촌관광마을의 계절별 방문객 분포

단위 : 개수, %

유형	봄	여름	가을	겨울	별 차이 없음	무응답	합계
민박·휴양형	1 (7.7)	8 (61.5)	0 (0.0)	1 (7.7)	2 (15.4)	1 (7.7)	13 (100.0)
농업·농촌 체험형	0 (0.0)	7 (58.3)	3 (25.0)	0 (0.0)	2 (16.7)	0 (0.0)	12 (100.0)
농산물 판매형	0 (0.0)	5 (55.6)	4 (44.4)	0 (0.0)	0 (0.0)	0 (0.0)	9 (100.0)
합계	1 (2.9)	20 (58.8)	7 (20.6)	1 (2.9)	4 (11.8)	1 (2.9)	34 (100.0)

농촌관광을 하는 목적으로는 ‘자녀들의 교육, 학습(28.6%)을 위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고(23.8%) 싶어서’, ‘농촌의 전통적 문화체험(19.0%)’이 뒤를 이었다. 이는 방문객들이 즐기지만 하는 관광보다는 배우고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박·휴양형의 경우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고 싶다’가 37.5%로 가장 많았고, 농업·농촌체험형은 ‘농촌의 전통문화 체험’이 40.1%, 농산물 판매형은 ‘아이들의 교육, 학습’이 29.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3>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방문목적

단위 : 개수, %

유형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들의 교육, 학습을 위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서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농촌의 전통적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농사 체험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축제현장/유명명소에 왔다가 우연히	가족/단체의 의견으로 자신의 의견없이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9 (37.5)	7 (29.2)	1 (4.2)	3 (12.5)	1 (4.2)	0 (0.0)	1 (4.2)	1 (4.2)	1 (4.2)	24 (100.0)
농업·농촌체험형	3 (13.6)	6 (27.3)	0 (0.0)	1 (4.5)	9 (40.1)	2 (9.0)	0 (0.0)	1 (4.5)	0 (0.0)	22 (100.0)
농산물 판매형	3 (17.6)	5 (29.4)	0 (0.0)	0 (0.0)	2 (11.8)	4 (23.5)	0 (0.0)	0 (0.0)	3 (17.7)	17 (100.0)
합계	15 (23.8)	18 (28.6)	1 (1.6)	4 (6.3)	12 (19.0)	6 (9.5)	1 (1.6)	2 (3.2)	4 (6.4)	63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마을의 방문객 연령은 자녀를 동반한 30~40대(82.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목적이나 방문객 유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학생인 부모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농촌관광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30~40대에 편중해 있었기 때문에 유형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표 7-34>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연령

단위 : 개수, %

	20세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기타	합계
빈도수 및 백분율	3 (8.8)	0 (0.0)	28 (82.4)	1 (2.9)	2 (5.9)	34 (100.0)

방문객의 체제기간은 응답자의 57.5%가 1박을 하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인 경우 40.0%로 나타났다. 당일이나 1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95%로 대부분이었다.

민박·휴양형의 농가가 68.7%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1박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산물 판매형은 50.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당일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35>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체제 기간

단위 : 개수, %

유형	2시간 이하	2~3시간	당일	1박	2박	3박 이상	합계
민박·휴양형	0 (0.0)	0 (0.0)	5 (31.3)	11 (68.7)	0 (0.0)	0 (0.0)	16 (100.0)
농업·농촌체험형	1 (7.1)	0 (0.0)	5 (35.7)	8 (57.2)	0 (0.0)	0 (0.0)	14 (100.0)
농산물 판매형	0 (0.0)	0 (0.0)	5 (50.0)	4 (40.0)	1 (10.0)	0 (0.0)	10 (100.0)
합계	1 (2.5)	0 (0.0)	15 (37.5)	23 (57.5)	1 (2.5)	0 (0.0)	40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방문객의 지역적 분포는 <표 7-36>와 <표 7-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같은 도의 도시와 특별시나 광역시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판매형의 유형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방문객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양수리마을이나 신론리마을의 경우 가까이 서울특별시가 있고 경기도라는 이점에서 이런 측면이 더욱 강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부레미마을이나 용바위 골도 마찬가지였다. 용바위 골은 충북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가까워서 주로 방문객들은 경기도나 서울시 사람들이 많았다. 구병아름마을이나 서천이색체험마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7-36>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지역적 분포(i)

유형	관광마을	같은 도의 도시	같은 도의 농촌	특별시나 광역시	다른 도의 도시	다른 도의 농촌
민박·휴양형	G1 마을	50%	-	50%	-	-
	G2 마을	30%	10%	40%	15%	5%
	S1 마을	20%	10%	30%	40%	10%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50%	-	30%	20%	-
	S3 마을	40%	-	30%	30%	-
	V 마을	40%	5%	40%	10%	5%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5%	-	80%	15%	-
	Y2 마을	20%	-	80%	-	-
	H 마을	10%	10%	30%	20%	30%

<표 7-37> 농가 방문객의 지역적 분포(ii)

유형	농가	같은 도의 도시	같은 도의 농촌	광역이나 직할시	다른 도의 도시	다른 도의 농촌
민박·휴양형	G2-A농가	-	-	-	-	-
	G2-B농가	-	-	-	-	-
	G2-C농가	20%	30%	20%	10%	20%
	G2-D농가	50%	-	50%	-	-
	G2-E농가	40%	10%	20%	20%	10%
	S1-A농가	25%	15%	20%	30%	10%
	S1-B농가	30%	5%	30%	20%	15%
	S1-C농가	20%	-	50%	10%	-
	S1-D농가	-	20%	-	80%	-
S1-E농가	50%	-	40%	10%	-	
농업·농촌 체험형	S2-A농가	50%	-	30%	20%	-
	S2-B농가	50%	-	-	50%	-
	S2-C농가	80%	-	-	20%	-
	S2-D농가	60%	-	40%	-	-
	V-A농가	70%	-	30%	-	-
	V-B농가	50%	-	30%	20%	-
	V-C농가	5%	-	90%	5%	-
V-D농가	80%	-	-	20%	-	
농산물 판매형	Y1-A농가	30%	-	70%	-	-
	Y1-B농가	20%	-	80%	-	-
	Y1-C농가	50%	-	50%	-	-
	Y1-D농가	5%	-	95%	-	-
	H-A농가	-	-	-	-	-
	H-B농가	10%	10%	30%	20%	30%
	H-C농가	20%	5%	60%	10%	5%

방문객의 특성에 관한 결과는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였으며 다만 2005년 현재는 주5일 근무가 많이 보급되면서 체류시간이 더 길어졌다.

6. 농촌관광사업 이후의 변화

설문대상농가가 주변의 농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전체 유형에서 ‘농사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민박을 ‘소개해 준다’와 ‘농산물 판매 알선해준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을 고용원으로 채용한다

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표 7-38> 주변농가와 공동수행 프로그램

유형	농가	민박을 소개해준다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한다	농산물 판매를 알선해 준다	주민을 고용원으로 채용한다	마을 주민과 모든 일을 함께 한다	기타
민박·휴양형	G2-A농가	○	○	○	×	○	×
	G2-B농가	-	-	-	-	-	-
	G2-C농가	○	×	○	×	×	×
	G2-D농가	○	○	×	×	×	×
	G2-E농가	×	×	○	×	×	×
	S1-A농가	○	○	○	×	○	×
	S1-B농가	○	○	○	×	○	×
	S1-C농가	○	×	○	○	×	×
	S1-D농가	○	○	○	×	×	×
S1-E농가	○	×	×	×	○	×	
농업·농촌 체험형	S2-A농가	×	×	×	×	×	×
	S2-B농가	○	×	×	×	×	×
	S2-C농가	×	○	×	×	○	×
	S2-D농가	×	○	○	×	×	×
	V-A농가	×	○	×	×	○	×
	V-B농가	×	○	×	×	○	×
	V-C농가	○	○	○	○	○	×
	V-D농가	×	○	×	×	×	×
농산물 판매형	Y1-A농가	×	○	×	○	×	×
	Y1-B농가	×	×	×	×	×	×
	Y1-C농가	○	○	○	×	×	×
	Y1-D농가	○	○	×	×	×	×
	H-A농가	×	○	×	×	○	×
	H-B농가	×	○	×	×	○	×
	H-C농가	○	×	×	×	×	×

<표 7-39>은 농촌관광마을의 재료 구입처에 관한 항목으로 설문대상 마을의 식재료의 구입은 대부분 농가들이 자기 집 혹은 주변농가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9> 농촌관광마을의 재료 구입처

유형	농가	자기 집 혹은 주변농가로부터	시장에서 구입	공급해주는 업자로부터	기타
민박·휴양형	G2-A농가	50	50	-	-
	G2-B농가	80	20	-	-
	G2-C농가	50	50	-	-
	G2-D농가	50	50	-	-
	G2-E농가	30	70	-	-
	S1-A농가	80	20	-	-
	S1-B농가	70	30	-	-
	S1-C농가	10	80	10	-
	S1-D농가	50	50	-	-
	S1-E농가	40	60	-	-
농업·농촌체 험형	S2-A농가	50	50	-	-
	S2-B농가	80	20	-	-
	S2-C농가	70	30	-	-
	S2-D농가	50	50	-	-
	V-A농가	70	30	-	-
	V-B농가	70	30	-	-
	V-C농가	50	-	50	-
	V-D농가	30	70	-	-
농산물 판매형	Y2-A농가	30	70	-	-
	Y2-B농가	10	90	-	-
	Y2-C농가	20	80	-	-
	H-A농가	70	30	-	-
	H-B농가	60	40	-	-
	H-C농가	100	-	-	-

농촌관광 사업 농가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표 7-40>에서 S2 마을에서는 농산물 판매로 1년에 60만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Y1 마을에서는 음식물 재료구입으로 1년에 1,000만원, 농산물 판매로는 15,000만원, 고용원 채용으로 1,000만원, 숙박 알선으로 10,0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H 마을은 1년에 음식물 재료구입을 1,000만원, 농산물 판매로 2,000만원, 고용원 채용으로 2,000만원, 숙박 알선으로 4,000만원, 기타로 1,0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38.2%가 500만원 이하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00만원 이

상이 17.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농업·농촌체험형은 500만원 이하의 과급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58.3%, 농산물판매형은 5,000만원 이상의 과급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44.5%으로 가장 많았다.

<표 7-40> 농촌관광 사업 농가의 경제적 과급효과의 정도

단위 : 개수, %

유형	500만원 이하	500~2,000만원	2,000~5,000만원	5,0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민박·휴양형	3 (23.1)	3 (23.1)	1 (7.7)	0 (0.0)	6 (46.1)	13 (100.0)
농업·농촌 체험형	7 (58.3)	0 (0.0)	0 (0.0)	2 (16.7)	3 (25.0)	12 (100.0)
농산물 판매형	3 (33.3)	2 (22.2)	0 (0.0)	4 (44.5)	0 (0.0)	9 (100.0)
합계	13 (38.2)	5 (14.7)	1 (2.9)	6 (17.6)	9 (26.5)	34 (100.0)

주 : 1년 동안에 미친 과급효과에 대한 의견

농촌관광사업 실시후의 변화에 관한 응답으로 가장 큰 변화로는 ‘공동시설을 설치·정비하여 마을 환경이 좋아졌다’와 ‘소득이 증가했다’,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대체로 농촌관광 사업을 한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농촌관광 사업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노인 분들의 참여와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이 마을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객의 증가로 소음, 쓰레기가 많아졌다’나 ‘마을주민들 사이에 사업소득이 편중되고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함으로써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41> 농촌관광 사업 실시 후의 변화

항 목	점 수
우리 마을의 유래나 관련 이야기를 더욱 알게 되었다.	4.1
우리 마을의 전통세시풍속을 더욱 알게 되었다.	3.9
마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향상되었다.	4.2
공동시설을 설치·정비하여 마을환경이 좋아졌다.	4.3
관광객의 증가로 소음, 쓰레기가 많아졌다.	3.3
마을주민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3.6
마을주민들 사이에 사업소득이 편중되고 있다.	3.1
우리 집의 소득도 증가하였다.	3.3
마을주민의 화합이 늘었다.	3.3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	3.2
마을일에 노인 분들의 참여와 활동이 많아졌다.	3.9
우리 마을은 도시의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4.0
지역특산물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3.5
지역특산물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5
공동시설 설치로 마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4.0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3.3
우리 마을은 전국의 다른 농촌관광마을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	4.2
농촌에서 여성(주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4.4
도시에 친구가 생겨서 주부들의 농촌생활이 활기 있게 됐다.	3.0

주 :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농촌관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응답에서 79.4%가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관광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표 7-42> 농촌관광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개수, %

	잘한 일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기 타	무응답	합 계
빈도수 및 백분율	27 (79.4)	5 (14.7)	1 (2.9)	0 (0.0)	1 (2.9)	34 (100.0)

7. 농촌관광마을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

농촌관광마을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이 46.8%로 가장 많았고, 팸플렛이나 홍보용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사업을 하는 마을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도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인터넷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유형별로는 민박·휴양형과 농업·농촌체험형은 홈페이지 운영의 비율이 각각 52.5%와 54.5%로 가장 높았으나 농산물판매형의 경우는 방송국 기자에게 홍보 의뢰가 41.2%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3> 농촌관광마을의 홍보방법

단위 : 개수, %

유형	홈페이지 운영	시·군, 농협 등에 협조 의뢰	여행사 의뢰	지역내 민간 단체협조	팸플렛이나 홍보용 자료 제작	방송국 기자에게 의뢰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12 (52.2)	2 (8.7)	1 (4.3)	0 (0.0)	7 (30.4)	1 (4.3)	0 (0.0)	23 (100.0)
농업·농촌 체험형	12 (54.5)	1 (4.5)	0 (0.0)	0 (0.0)	7 (31.8)	2 (9.1)	0 (0.0)	22 (100.0)
농산물 판매형	5 (29.4)	2 (11.8)	0 (0.0)	0 (0.0)	2 (11.8)	7 (41.2)	1 (5.9)	17 (100.0)
합계	29 (46.8)	5 (8.1)	1 (1.6)	0 (0.0)	16 (25.8)	10 (16.1)	1 (1.6)	62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관광사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응답으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26.2%), 경영교육·서비스 교육이 필요성(23.9%), 시설정비에 관련된 지원(21.7%), 금융지원(15.2%), 홍보를 공동으로 조직화(8.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며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운 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 조사한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의 조사결과에서 시설부족의 필요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시설부문의 투자로 시설이 많이 확충되면서 현재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필요성을 요구한다.

유형별로 보면 민박·휴양형은 경영교육,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40.4%), 농업·농촌 체험형은 금융지원(31.6%), 농산물판매형은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41.7%)이 각각의

유형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4> 관광 사업의 애로사항

단위 : 개수, %

유형	경영교육, 서비스 교육 등이 필요	홍보를 공동으로 조직화 할 필요	금융 지원	시설 정비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필요성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6 (40.0)	0 (0.0)	1 (6.7)	3 (20.0)	5 (33.3)	0 (0.0)	15 (100.0)
농업·농촌체험형	4 (21.1)	3 (15.8)	6 (31.6)	4 (21.1)	2 (10.4)	0 (0.0)	19 (100.0)
농산물 판매형	1 (8.3)	1 (8.3)	0 (0.0)	3 (25.0)	5 (41.7)	2 (16.7)	12 (100.0)
합계	11 (23.9)	4 (8.7)	7 (15.2)	10 (21.7)	12 (26.2)	2 (4.3)	46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환경정비 사항으로는 민박시설 개선이 57.8%로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나 상하수도 등 마을주변환경 정비가 19.0%, 공동 놀이공간 확대가 16.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박·휴양형과 농업·농촌 체험형은 민박시설 개선이 64.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7-45>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시설 및 환경)

단위 : 개수, %

유형	민박시설 개선	개별 주택의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 주변 환경정비	공동 놀이공간 확대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9 (64.4)	0 (0.0)	1 (7.1)	3 (21.4)	1 (7.1)	14 (100.0)
농업·농촌체험형	10 (62.4)	1 (6.3)	4 (25.0)	1 (6.3)	0 (0.0)	16 (100.0)
농산물 판매형	4 (33.4)	1 (8.3)	3 (25.0)	3 (25.0)	1 (8.3)	12 (100.0)
합계	23 (57.8)	2 (4.8)	8 (19.0)	7 (16.6)	2 (4.8)	42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는 마을주민의 화합이 46.6%로 가장 높았고 역량 있는 마을지도자 육성이 37.2%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체험형과 농산물판매형은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인적자원

으로 마을주민의 화합을 꾀았으며 민박·휴양형의 경우는 역량 있는 마을지도자 육성에 많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7-46>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 (인적자원)

단위 : 개수, %

유형	마을주민의 화합	역량 있는 마을지도자 육성	마을사업의 마을전원 참여	전문 인력의 참여	합계
민박·휴양형	7 (41.2)	10 (58.8)	0 (0.0)	0 (0.0)	17 (100.0)
농업·농촌체험형	7 (50.0)	3 (21.4)	3 (21.4)	1 (7.2)	14 (100.0)
농산물 판매형	6 (50.0)	3 (25.0)	2 (16.7)	1 (8.3)	12 (100.0)
합계	20 (46.5)	16 (37.2)	5 (11.6)	2 (4.7)	43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판매수단으로는 신문·인터넷 홍보(52.6%)와 농특산물 판매(31.6%)로 80%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민박·휴양형이 신문·인터넷 홍보(46.7%)와 농특산물 판매확대(46.7%)가 가장 높았으며 농업·농촌 체험형은 신문·인터넷 홍보(78.6%) 농산물 판매형은 농특산물 판매확대(55.6%)를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판매수단으로 응답하였다.

<표 7-47>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장기 정비사항(홍보 및 판매)

단위 : 개수, %

유형	신문·인터넷 홍보	농특산물 판매 확대	마을의 전통민속품개발	기타	합계
민박·휴양형	7 (46.7)	7 (46.7)	1 (6.6)	0 (0.0)	15 (100.0)
농업·농촌 체험형	11 (78.6)	0 (0.0)	3 (21.4)	0 (0.0)	14 (100.0)
농산물 판매형	2 (22.2)	5 (55.6)	1 (11.1)	1 (11.1)	9 (100.0)
합계	20 (52.6)	12 (31.6)	5 (13.2)	1 (2.6)	38 (100.0)

주 : 복수응답 포함

제5절 농촌관광 마을의 수익분석

농촌관광마을의 수익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7-48>과 <표 7-49>에 구성되어 있다. 마을 전체 이용객수를 보면 S3 마을(60,000명)이 가장 많은 방문객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Y2 마을(14,500명), V(12,000명)순으로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숙박객수의 유형별 평균이용자수는 농산물판매형(3,133명), 민박·휴양형(2,350명), 농업·농촌체험형(700명)으로 나타났다. 마을식당이용자수는 농산물판매형 5,5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전체 이용객수는 농업·농촌 체험형이 24,333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수를 보이고 있다. 재방문 비율은 농산물 판매형이 평균 50%로 가장 높고 민박·휴양형은 26.6%, 농업·농촌체험형은 24.3%로 재방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인당 평균 지출액의 경우 농산물판매형이 30,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박·휴양형이 15,333원, 농업·농촌 체험형이 1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8> 방문객수와 재방문 비율 및 1인당 평균 지출액(i)

유형	관광 마을	마을 숙박객수		마을식당 이용자수		마을 전체 방문객수		재방문 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	
		개별	유형별 평균	개별	유형별 평균	개별	유형별 평균		개별	유형별 평균
민박·휴양형	G1 마을	700명	2,350명	500명	2,433명	800명	4,200명	20%	10,000원	15,333원
	G2 마을	5,500명		5,000명		10,000명		20%	11,000원	
	S1 마을	850명		1,800명		1,800명		40%	25,000원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600명	700명	1,000명	4,333명	1,000명	24,333명	3%	15,000원	12,000원
	S3 마을	-		-		60,000명		30%	15,000원	
	V 마을	1,500명		12,000명		12,000명		40%	6,000원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6,000명	3,133명	2,000명	5,500명	10,000명	9,733명	40%	30,000원	30,000원
	Y2 마을	400명		10,500명		14,500명		30%	30,000원	
	H 마을	3,000명		4,000명		4,700명		80%	30,000원	

각 농가마다 숙박객수, 식당이용자수, 전체이용객수, 재방문 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다. 고령자가 경영주일 경우는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영세하게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외소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로 민박사업을 하는 농가는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고령자들의 경우 농사

를 소규모로 하거나 거의 짓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민박사업은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농외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표 7-49> 방문객수와 재방문비율 및 1인당 평균 지출액(ii)

유형	농가	숙박객수	식당이용객수	전체이용객수	재방문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	총소득 추정액
민박·휴양형	G2-A농가	260명	480명	720명	35%	15,000원	10,800천원
	G2-B농가	50명	0명	50명	10%	6,000원	300천원
	G2-C농가	150명	750명	750명	60%	10,000원	7,500천원
	G2-D농가	100명	0명	100명	40%	7,500원	750천원
	G2-E농가	100명	450명	500명	70%	10,000원	5,000천원
	S1-A농가	58명	58명	58명	30%	20,000원	1,160천원
	S1-B농가	60명	40명	60명	10%	15,000원	900천원
	S1-C농가	80명	60명	80명	10%	20,000원	1,600천원
	S1-D농가	56명	56명	56명	0%	50,000원	2,800천원
S1-E농가	85명	85명	85명	10%	15,000원	1,275천원	
농업·농촌 체험형	S2-A농가	80명	0명	80명	1%	25,000원	2,000천원
	S2-B농가	100명	80명	100명	2%	10,000원	1,000천원
	S2-C농가	150명	0명	150명	10%	20,000원	3,000천원
	S2-D농가	200명	0명	200명	2%	20,000원	4,000천원
	V-A농가	300명	0명	300명	30%	6,000원	1,800천원
	V-B농가	150명	0명	150명	30%	6,000원	900천원
	V-C농가	150명	0명	150명	80%	7,500원	1,125천원
V-D농가	900명	0명	900명	20%	6,000원	5,400천원	
농산물 판매형	Y1-A농가	300명	6,000명	10,000명	30%	10,000원	100,000천원
	Y1-B농가	20명	20명	80명	10%	4,500원	360천원
	Y1-C농가	40명	40명	150명	20%	10,000원	1,450천원
	Y1-D농가	-	-	800명	30%	30,000원	24,000천원
	H-A농가	300명	-	300명	30%	30,000원	9,000천원
	H-B농가	1500명	0명	1,500명	80%	15,000원	22,500천원
H-C농가	200명	500명	700명	95%	15,000원	10,500천원	

<표 7-50>는 농촌관광마을의 총 수입과 비중에 대한 항목으로 수익 면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은 S3 마을로 350,000원으로 나타났고 수익은 전부 체험 활동 이용료였다. 하지만 S3 마을은 참여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Y2 마을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농산물 판매수익의 비중이 69.9%로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 마을 또한 농산물 판매수익이 전체 수입의 59.7%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산물판매형이 평균 260,266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민박·휴양형이 평균 44,650천원으로 가장 수익이 낮게 나타났다. 농업·농촌 체험형의 체험활동이용료(80.3%), 농산물 판매형의 농산물 판매수익(60.2%)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농가 소득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박휴양형의 경우 수입원중 음식판매비(47.2%)와 숙박이용료(47.0%)로 각각 나타났다.

송미령·성주인은 “농촌관광의 현실과 비전”에서 토고미 마을의 수익 7억원 중 농산물 판매액이 6억원이라는 것을 예로 들며 농산물 판매액이 농촌관광 수입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결과는 위의 수익분석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50> 농촌관광마을의 총 수입과 비중

단위 : 천원, %

유형	관광마을	숙박시설이용료	음식판매비	농산물판매수익	체험활동이용료	총수입합계
민박·휴양형	G1 마을	3,000 (37.5)	4,000 (50.0)	1,000 (12.5)	0	8,000 (100.0)
	G2 마을	55,000 (51.1)	50,000 (46.4)	2,000 (1.9)	600 (0.6)	107,600 (100.0)
	S1 마을	5,000 (27.2)	9,250 (50.4)	1,600 (8.7)	2,500 (13.6)	18,350 (100.0)
	평균	21,000 (47.0)	21,083 (47.2)	1,533 (3.4)	1,033 (2.3)	44,650 (100.0)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3,000 (19.9)	5,000 (33.0)	600 (3.8)	8,500 (56.3)	15,100 (100.0)
	S3 마을	0	0	0	350,000 (100.0)	350,000 (100.0)
	V 마을	9,000 (4.1)	49,000 (22.5)	50,000 (22.9)	110,000 (50.5)	218,000 (100.0)
	평균	4,000 (2.1)	18,000 (9.3)	16,867 (8.7)	156,167 (80.3)	194,366 (100.0)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100,000 (33.3)	20,000 (6.7)	150,000 (50.0)	30,000 (10.0)	300,000 (100.0)
	Y2 마을	2,400 (0.8)	24,400 (7.6)	225,000 (69.9)	70,000 (21.7)	321,800 (100.0)
	H 마을	24,000 (15.1)	20,000 (12.6)	95,000 (59.7)	20,000 (12.6)	159,000 (100.0)
	평균	42,133 (16.2)	21,467 (8.2)	156,667 (60.2)	40,000 (15.4)	260,266 (100.0)

주 : 비용을 빼지 않은 소득임

<표 7-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입의 계절적 분포는 모든 유형에서 여름과 가

을에 농가 수입의 구성비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Y2 마을의 경우는 여름은 없고 봄과 가을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체험프로그램이 봄과 가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7-51> 농가 총수입의 계절별 분포

유 형	관광 마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민박·휴양형	G1 마을	0%	50%	30%	20%
	G2 마을	15%	60%	20%	5%
	S1 마을	-	-	-	-
농업·농촌 체험형	S2 마을	0%	50%	50%	0%
	S3 마을	20%	30%	30%	20%
	V 마을	20%	20%	40%	20%
농산물 판매형	Y1 마을	15%	30%	40%	15%
	Y2 마을	50%	0%	50%	0%
	H 마을	-	75%	-	-

제6절 공급측면에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많은 농촌관광마을들이 경영교육과 서비스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의 농민들은 농촌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박시설의 개선, 마을주민의 화합, 신문·인터넷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농촌관광 마을 중에 성공한 마을도 있으며 실패한 마을도 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이점, 뛰어난 자연환경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하지만 자연적인 조건이 좋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뛰어난 농산품으로 매력을 높인다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성공적인 농촌관광마을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유럽처럼 민박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체험이나 농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민박시설이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독립

된 구조이기 보다는 농가의 남은 방을 이용하거나, 개량이 잘 된 농가에게 의무 형식으로 민박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하루이상 머물면서 체험할 만한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지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일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걸음마 단계의 수준이지만, 2003년의 연구 결과에 비하면 우리나라 농촌관광도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인 팽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 공동시설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했는데 이는 2003년에 요구했던 시설을 조사대상 마을들 거의 대부분이 갖추고 있었다. 성장단계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농촌마을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 상태에 이르러 질적인 성장도 더욱더 진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농촌관광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농촌관광의 선진국처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또한, 2003년에 지적됐던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과 농촌관광을 하는 농민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농촌관광을 만드는 길이다.

따라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은 첫째, 마을주민의 화합이다. 사업의 이익에 대해 공평한 배분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농촌마을 주민간의 갈등은 증폭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마을 내에서도 주민간의 의견 교환 및 역할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역량 있는 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농촌관광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도 경영교육과 서비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가의 민박시설에 대한 개선이다. 2003년에 비해 마을 공동시설은 많은 곳이 보급되어 졌으며 민박시설도 더 나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화장실과 샤워장등과 같은 위생시설물들도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사장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취사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체제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넷째,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이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농촌관광의 농촌체험프로그램 대부분이 농작물 수확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부족으로 잘되는

마을의 농촌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벤치마킹한 탓으로 만들기 체험이나 야외스포츠 체험은 모든 마을이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관광마을의 프로그램이 개성 없이 비슷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무료함을 주고 농촌관광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체험할 프로그램이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촌관광 방문객들의 체제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농촌관광마을의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화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홍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와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관광 마을의 홈페이지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허술한 관리와 고령화된 농촌에서의 홈페이지의 관리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와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촌관광 방문객의 계절적 편차를 극복하는 일이다. 농촌관광 방문객은 거의 여름과 가을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겨울은 방문객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겨울에 농촌에서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겨울은 농한기로 마을의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절적 프로그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관광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축제나 행사 때의 짧은 방문은 농촌마을의 수입이 되기 힘들다. 이제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처럼 농촌방문객이 마을에 오랜 기간 체제하면서 지출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농촌관광마을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마을의 장점을 부각 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을 찾고 개발하는 것으로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면 휴향형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농산물판매형,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한 곳이라면 농업·농촌 체험형등의 마을의 이미지와 특성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7장 참고문헌

- 강신겸(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환경』, 11(4):12-20
-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2
- 김범수(2002). 한국과 일본의 Green Tourism에 대한 방문객 의식조사, 『두레친환경농업연구지』 4(1):41-49.
- 김범수, · 한상열 · 이주희(2002).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16(1): 83-103.
- 김양자(2000). 농촌 관광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綠友研究論集』 39: 119-145.
- 김태연, 농촌관광의 제 개념과 원칙 『계간 농정연구 겨울』 2003
- 류선무(1999). 농촌자원의 활용과 건강휴양마을 조성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162-166.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 개발의 필요성, 『月刊 상업농경영 제146호』, pp.58-61, 국제농업개발원, 2000. 3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의 개발요점, 『月刊 상업농경영 제148호』, pp.64-67, 국제농업개발원, 2000. 5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의 구성요건, 『月刊 상업농경영 제147호』, pp.64-68, 국제농업개발원, 2000. 4
- 박석희(2002) 綠色農村觀光의 概念과 育成技法, 『농촌생활과학』, 23(2): 40-47
- 박석희(2002)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통테마마을 육성전략, 『京畿大學校論文集』 44(1):549-573.
- 박시현 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2002
- 박시현 외,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박은식 외, 『농촌관광마을』,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박은식 외, 『농촌민박 실태 및 발전방향』,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박은식 외, 『전통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농촌생활연구소, 2002
- 박호균 외(2001). 한국 관광농원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전략 연구, 『地域社會開發研究』, 26(1):45-73.
- 송미령(2003), 그린투어리즘 마을의 경영전략, 한국농업정책학회
- 송미령 · 성주인, “농촌관광의 현실과 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송미령 · 성주인,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오순환 · 박석희(2001). 농촌체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적 효과, 『소비문화연구』 4(2):131-144.
- 유승우 · 최동주(2001).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24(3):47-62.
- 윤두호(2002).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21C형 신관광자원 개발 방안, 『月刊 自治發展』 8(3):110-124.
- 윤영석 · 박송희(1998) 농촌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례연구 : 함평군을 중심으로, 『錦城環境專門大學論文集』 3:219-252.
- 이관영(1999). 환경친화적 농어촌 정비의 방향 : 농어촌 관광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농어촌진흥』, 134:125-130.
- 조록환(2002). 녹색관광과 농촌 활성화, 『연구와 지도』, 43(1):48-52.
- 조록환(2002). 녹색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 『농촌생활과학』 23(2):68-74.

- 조영숙 외,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2
- 조혜정(2002). 농촌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영암군 민박가정과 증가를 중심으로, 『外著 2002 지역발전 연구』 2(1):123-134.
- 최승엽(2002) 유럽 농촌개발의 새로운 움직임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관광, 『강원광장』 48:50-54.
- 홍성권·김성일(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韓國造景學會誌』 30(1):18-28.
- 황대용 외,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농촌생활연구소, 2003
- Busby, G. and S. Rendle (2000). "The transition from tourism on farms to farm tourism." *Tourism Management* 21: 635-642.
- CEC (2003). Using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to Develop Sustainable Tourism in non-traditional tourist destinations. Brussel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ountryside Agency (1998). Leisure Day Visits. London, Countryside Agency.
- Countryside Agency (2000). The economic impact of recreation and tourism in the English countryside 1998. Wetherby, Countryside Agency.
- Countryside Commission,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et al. (1995). Sustainable rural tourism. Cheltenham, Countryside Commission.
- DETR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London, HM Stationery Office.
- English Tourism Council and Countryside Agency (2001). Working for the Countryside: A strategy for rural tourism in England 2001-2005. London, English Tourism Council.
- Green Tourism Association (2003). What is urban green tourism.
<http://www.greentourism.ca/what.html#what>
- Haffey, D. (2003). Nature-based Tourism in the North East. Newcastle, One North East.
- Joppe, M. and R. Dodds (2001). Urban Green Tourism: Applying ecotourism principles to the city. World Tourism Organisatio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Preparatory Americas Conference, Cuiaba, Brazil.
- Newsome, D., S. Moore, et al. (2002). Natural Area Tourism: Ecology, impact and management. Clevedon, Channel View Publication.
- Yutaka Arai, "RURAL TOURISM IN JAPAN: THE REGENERATION OF RURAL COMMUNITIES", Rural Life Research Institute, 1999

홈페이지

농촌관광포털 (<http://www.greentour.or.kr>)

농림부 (<http://www.maf.go.kr>)

정보화마을홈 (<http://www.invil.org>)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고드미마을 (<http://www.godmee.com>)

구병아름마을 (<http://www.sulsul.org>)

서천이색체험마을 (<http://esec.go2vil.org>)

생거진천 화랑촌 (<http://boryen.go2vil.org>)

양수리마을 (<http://www.greentour.or.kr/Villages/Default.aspx?villageid=88>)

신론리마을 (<http://www.sinnon.net>)

부레미마을 (<http://www.buraemi.com>)

용바위 골 (<http://www.greentour.or.kr/Villages/Default.aspx?villageid=32>)

한드미마을 (<http://www.sanchonmaeul.com>)

제8장 연구의 요약

제1절 농촌관광수요: 조사 및 실태

농촌관광 수요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6대 광역도시, 기타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총 1,912개의 유효표본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를 방문 유형에 따라 체험중시형과 인적교류형으로 구분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족 혹은 친구/친지와 함께 농촌관광을 동행하였으며, 교통수단은 승용차(73.6%)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촌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주변사람들(40.1%)과 인터넷(29.8%)이 주로 이용되었다. 농촌관광 참여자들이 이용한 숙박형태는 부모·형제의 집(31.4%)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펜션(15.0%)과 친구/친척집(14.5%)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참여인원은 3-4(39.6%)명으로 구성된 여행그룹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참가자 중 약 69%가 농촌관광 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은 농촌관광 경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촌방문 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농촌관광 참여자들이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참여자를 방문 유형에 따라 관광중시형과 방문교류형으로 구분하여 지출유형을 살펴보았다. 관광중시형의 경우 지출한 금액은 방문그룹당 239,585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유형별로 식음료비가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교통비, 숙박비, 기타비용, 오락비, 쇼핑비의 순을 보였다. 방문교류형의 경우 지출한 금액은 방문그룹당 174,080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 숙박비, 오락비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중시형의 경우 1인 1일당 지출액은 29,745원(목적지 90.6%, 경유지가 9.4%)을 지출 하였고 방문교류형의 경우 23,512원(목적지가 87.6%, 경유지 12.4%)을 지출 하였다.

관광유형별 지출은 역사/문화 관광이 256,046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연/생태관광으로 255,674원, 위락 관광은 242,833원, 산업/사회관광

유형은 171,619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관광유형의 평균 총지출은 240,31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유형별 1인 1일당 지출을 살펴보면 역사/문화 관광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위락관광, 산업/사회 관광, 자연/생태관광 유형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 관광의 1인 1일당 평균 지출액은 27,818원 이었으며 목적지에서 25,624원, 경유지에서 2,195원을 지출하였다. 관광 유형별 지출의 평균 구성비율은 식음료비가 30.7%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비 24.1%, 숙박비 18.0%, 오락비 11.1%, 기타비용 9.3%, 쇼핑비 6.8%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관광 유형별로는 자연 생태관광과 역사문화 관광은 식음료비의 지출 구성비율이 가장 높고 산업/사회관광은 교통비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위락 관광의 경우 식음료비가 구성비율이 가장 크며 오락비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구성 되어있다.

‘향후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89.8%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94.4%가 향후에도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농촌관광 참여예정횟수는 1-2회 참가가 60.4%, 3-5회가 3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년기 성장지역은 도시지역이 63.4%였으며, 가족 및 가까운 친척의 농업 종사자가 있는 응답자가 61.4%였다. 성별은 여성이 52.2%로 남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49.8%로 미혼자 비율과 비슷하였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8.1%,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이 11.0%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가 200-350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직과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에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응답자는 28.5%였다.

제2절 농촌관광 수요모형 및 관광량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관광으로서 농촌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개발하고, 모형분석을 통해 농촌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개발에 있어 주요 착안점은 농촌관광수요의 본질을 수요자의 관광참여결정 및 소비량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농촌관광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모형은 관련재화에 대한 수요분석에 있어서 소비자행동론과 관련해서 참여와 소비량결정의 구분이 중요한 이슈일 경우 표본선택모형 중에서 유용한 방법인 Poisson hurdle 모형과 참여와 소비량 결정간의 구분에 특별한 의의를 두지 않는 Tobit 모형이다. ‘농

촌관광'목적 참여유형의 경우 참여결정과 방문량결정은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두 개의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방문'목적 참여유형은 참여결정과 방문량 결정의 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관광 수요모형의 주요 결정요인은 두 모형간에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순수목적의 농촌관광에 해당하는 '농촌관광'목적 방문객들의 참여결정에는 격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여부와 소득과 혼합형 관광선호그룹이 긍정적 영향을 가지며, 광역시 거주자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은 농촌관광 참여결정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량 결정의 주요결정요인은 주5일 근무제, 자연생태관광 및 문화관광 수요,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기능, 국토보전 기능,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능, 생태계 보전기능으로서의 농촌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광역시 거주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목적의 방문객들의 참여시장은 농촌관광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관련하여 주 5일 근무제 실시여부가 주요한 정책변수로 작용하며,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익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로 광역시 거주자들의 농촌관광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내용적으로 체험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방문량에 있어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어메니티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생태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농촌의 공익기능자원을 활용한 홍보는 농촌관광 재방문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시 거주자들은 농촌관광 방문량에 대해 횡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연간 농촌관광량은 시차조사를 통해 수집된 8개(3월~10월) 누적관광량 데이터 포인트를 연말까지 확장하는 방법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누적관광량 자료에 적용된 모형은 로지스틱함수이다. 로지스틱함수는 주어진 기간 내에서 성장 또는 포화효과에 대한 제약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성장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은 2.77회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방문자의 1인당 농촌방문량은 3.59회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총 농촌관광량은 국민 1인당 농촌관광량에 총 국민 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일인당 농촌관광량은 농촌관광 참여자의 1인당 농촌관광량에 농

촌관광 참여율을 곱한 값이다. 농촌관광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 참여율은 28.07%이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국민 1인당 농촌관광량은 0.776회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을 목적을 여행한 횟수는 연간 총 37,334천회로 추정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이 아닌 고향 또는 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한 농촌방문량을 추정하였다. 농촌방문 참여결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방문 참여율은 18.26%이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국민 1인당 농촌방문량은 0.655회이며, 총 방문횟수는 연간 총 31,489천회로 추정되었다. 한편, 농촌관광과 농촌방문을 모두 합하였을 경우 참여자의 농촌관광량(광의)은 일인당 3.089회이다. 따라서 이 수치에 참여율을 곱한 국민 일인당 상응하는 농촌관광량은 1.431회로 추정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이 농촌관광을 포함하여 고향 또는 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총 68,823회로 추정되었다.

농촌관광 참여율과 참여자의 농촌관광량을 타 유형의 관광과 비교해 봄으로써 수요 측면에 있어서 농촌관광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농촌관광은 비교적 높은 참여율로 인해 대중적 지지도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자별 관광량(즉, 낮은 재방문율)을 유지함에 따라 관광상품으로서의 충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촌관광량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총 관광량의 추정이 필요하다. 일인당 연간 관광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시차조사를 통해 수집된 월별 누적 국내 관광량에 로지스틱함수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2004년도 1인당 국내관광량은 5.22회, 총 국내관광량은 250,997천회로 추정되었다. 국내 총 관광량에 대한 농촌관광량의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제3절 농촌관광 지출모형 및 지출금액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관광의 하나로 자리 잡은 농촌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관광의 수요모형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농촌관광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농촌지역 방문객의 방문목적별 유형에 따라 모형간 지출의 결정요인 파악과 추정을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正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절두(truncated)모형에 따른 표본선택규칙을 적용하는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농촌관광 수요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된 설명변수는 농촌관광 활동과 관련된 변수와 거리에 대한 변수, 그리고 여타유형의 관광에 대한 참여와 선호관광 성향이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농촌관광객의 전체지출과 각 지출항목

별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회상오차(recall bias)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차조사방법(wave survey method)을 통해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관광량에 대해 약 한달 간격으로 시차간격을 두고 조사하여 수집되었다.

농촌관광 지출모형의 주요 결정요인은 '농촌관광'형 목적 방문객들은 남성과 가족단위 방문객, 숙박일수의 증가와 그룹내 방문객수의 증가, 그리고 숙박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 지출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목적의 농촌관광의 유형에 참여하는 가족단위 방문객으로 관광농원이나 민박, 체험농장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농촌지역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드웨어적인 양적 증가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출의 유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통비는 전체지출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교통비의 비중이 전체 지출증가에 대해 제약요인으로 설명되지만 다른 항목의 지출 비중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농촌방문'형 목적의 농촌지역 방문객들은 수도권지역의 거주자가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타유형의 관광횟수의 증가와 그룹내 방문자수와 쇼핑비의 비중은 긍정적 결정요인으로 추정되었으나 화이트컬러의 직업군과 식음료비와 교통비의 비중은 농촌관광 지출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방문 유형은 해당지역에서 영화촬영지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유원지 등의 관광지 개발을 통해 화이트컬러층의 직업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특산품 개발과 홍보를 통한 적극적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 전체 방문객의 지출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수도권 거주자와 여타유형의 관광횟수와 소득의 증가, 남성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숙박일수와 그룹내 방문자수, 숙박비 비중과 쇼핑비 비중의 증가가 역시 총지출에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비의 비중은 총지출에 부정적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포괄적인 의미의 농촌관광 방문객에게는 수도권에 거주자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농가민박이나 농원 등의 농촌지역 숙박시설의 활용을 통한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지출은 방문그룹당 239,188원이었다. 이 금액을 1인 1일당 지출액으로 환산한 후 여기에 총 농촌관광일수를 곱하여 추정한 국내 농촌관광 총 지출액은 약 2조 4,180억원이었다. 이 금액 중 90.6%에

해당하는 약 2조 1,900억은 농촌관광 목적지에서 지출되었으며, 경유지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2,273억원이었다. 한편, 국내 총 관광지출액은 2004년도에 약 15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국내 총 관광지출액의 15.5%를 점하였다.

제4절 농촌관광 시장세분화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관광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농촌관광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시점에 다양해진 수요층의 욕구를 인식하고 농촌관광 수요자 조사를 통해 농촌관광 선택속성에 따라 세분시장을 파악하여 효율적 마케팅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시장세분화의 기준과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동분석적 의미의 편익세분화를 사용하여 농촌관광 방문객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농촌관광 방문객의 시장세분화를 위해 우선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여 세분시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5가지 요인, 즉 ‘체험추구형’, ‘교육적 체험형’, ‘먹거리 선호형’, ‘고향방문형’, ‘휴식형’을 추출하여 이를 통해 ‘교육·체험형’, ‘휴식형’, ‘먹거리 선호형’, ‘소극적 참여형’, ‘복합적 참여형’의 5가지 군집을 결정하였다.

한편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군집은 적극적 참여형, 먹거리 선호형, 단순 휴식형, 농가/농원 방문형, 고향 방문형의 5가지 요인에서 ‘복합적 참여형’, ‘휴식형’,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고향 방문형’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심리적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이 비교분석에 사용되어 각각의 세분시장별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은 대부분 20, 30대이며, 기혼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서비스직과 주부, 사무직 종사자들이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며, 혼합형 관광성향과 휴식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군집이 분류되어 있다. 농촌관광 비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은 20, 30대와 대졸 이상의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월 200, 300만원대의 가구 소득을 가진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도시지역에서 성장하였으며, 휴식형 관광성향과 혼합형 관광성향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관광 참여자의 세분시장 중에서 “교육적 참여형” 세분시장은 30대 주부가 주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집단으로 주로 교육이나 학습적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세시풍속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거나 농작물 생산체험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관광 비참여자 세분시장 중 “고향 방문형”군집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 전체소득이 300만원대이며, 20대 기혼이고 대졸이상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성장하였고 휴식위주의 관광을 선호하는 세분시장이다. “고향 방문형” 세분시장은 단순휴식과 고향방문(친지방문)의 형태를 나타내며, 농촌관광 잠재고객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할 경우 다양한 지역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미지제고와 다른 잠재고객으로의 구전의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요인과 만족도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서비스품질에 대한 선택속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농촌관광 참여자의 농촌관광 서비스품질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자연환경이 다른 선택속성들 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편/접근성, 부대시설(화장실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한 참여자의 농촌관광 후에 느낀 만족도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이 농촌관광 서비스속성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 참여자가 지각하는 농촌관광 서비스 속성 중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지역주민의 친절로 나타났으며, 부대시설(화장실 등) 항목에 있어서는 gap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대수준 보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속성 중 부대시설(화장실 등)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한 참여자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농촌관광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 역시 농촌관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관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자연환경,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속성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6절 농촌관광과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농촌의 공익 기능의 보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기법의 양분선택형 설문기법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CVM기법에 의해 간접효용함수의 차이를 로짓모형의 로그함수의 형태로 모수의 값을 최우추정법에 의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회귀계수로부터 평균 WTP 값을 추정하였다. 농촌공익기능의 보전가치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WTP를 종속변수로 농촌공익기능 가치, 농촌공익기능 인식중요도, 농촌관광 참여의사, 지역구분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농촌공익기능의 보전가치를 추정 하였다. 농촌관광 참여자중 농촌관광중시형의 경우 설명변수로서 농촌공익기능의 선택가치와 유산가치, 농촌공익기능 인식 중요도인 생태계보전기능 등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참여자중 농촌방문교류형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농촌의 공익기능 중 존재가치와 농촌관광 참여 의사 정도, 인구통계적 특성인 교육수준 등이다. 농촌관광 비참여자의 경우는 존재가치, 화이트칼라의 직업군, 연령, 친지 중 농업종사자 있을수록 지불의사에 정(正)의 영향을 주었으며,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지불의사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농촌공익 기능 보전가치 지불의사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 본 결과 각각의 결정과정에서 포함된 19개의 변수 중 10개의 변수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농촌관광 참여유형에 따른 농촌공익 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 추정액을 보면, 농촌관광형은 101,002원(하한값 88,563원, 상한값 113,441원), 농촌방문형은 110,234원(하한값 95,993원, 상한값 124,475원)으로 나타나 두 유형간에 통계적(95% 신뢰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관광 미참여자의 지불의사 추정액은 75,556원(하한값 68,389원, 상한값 82,723원)으로서 앞의 두 유형 어느 것보다 통계적으로 중첩되지 않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농촌관광은 농촌 공익기능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7절 농촌관광 마을의 공급실태 분석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5년 5월~7월에 수집 되었고, 모집단은 농림부의 농촌녹

색관광 마을이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의 가구 수에 비례해 관광유형별로 9개 마을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관광마을의 운영사업의 대부분은 체험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다음이 숙박, 특산품·농산물 판매사업이 뒤를 이었다. 또한 농촌관광 공급의 제약요인중의 하나로 생각했던 시설의 부족은 지속적인 투자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부분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경영교육·서비스 교육의 필요성 등의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경우 농사체험은 고구마 캐기로, 만들기 체험은 목공예, 야외스포츠는 썰매타기 등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특색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사업 실시 이후의 변화로 ‘공공시설을 설치·정비로 마을 환경 개선’, ‘소득증가’, ‘농촌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 부정적 평가 보다 농촌관광 사업 농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 분석결과 제시되었다.

각 농가마다 숙박객수, 식당이용자수, 전체이용객수, 재방문 비율, 1인당 평균 지출액에 크게 차이를 보였다. 고령주가 경영주일 경우는 소규모로 영세하게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규모 민박사업을 하는 농가는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치 않은 민박사업은 좋은 농외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의 총수입과 비중을 보면 수익 면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의 수익구조는 전부 체험활동 이용료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입의 계절적 분포는 모든 유형에서 여름과 가을에 농가 수입의 구성비가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체험프로그램이 이시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 “우리나라 농촌관광발전 방향 및 방안”의 연구결과에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이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인 팽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유럽 선진국처럼 민박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체험이나 농산물 판매 중심의 구조이고 이는 민박시설의 독립적이지 못한 구조, 하루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의 부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촌관광마을의 경영교육과 서비스교육 프로그램의 확립과 농촌관광마을홍보, 마을주민의 화합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농촌관광은 초보 단계 수준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양적으로 늘어난 농촌마을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2
- 강신겸(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환경』, 11(4):12-20
- 고정민·정연승 (2002). 주5일 근무와 소프트웨어산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 김범수(2002). 한국과 일본의 Green Tourism에 대한 방문객 의식조사, 『두레친환경농업연구지』, 4(1):41-49.
- 김범수,·한상열·이주희(2002).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16(1): 83-103.
- 김양자(2000). 농촌 관광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綠友研究論集』 39: 119-145.
- 김용근·유기준·조중현·장혜진 (2001). 도시민 의식조사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방안. 『관광농업연구』, 8(2): 17-31.
- 김태연, 농촌관광의 제 개념과 원칙 『계간 농정연구 겨울』 2003
- 농림부(2004). 농업·농촌종합대책,
- 농촌생활연구소 (2000). 농촌·농업관광에 관한 요구도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류선무 (1999). 농촌자원의 활용과 건강휴양마을 조성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162-166.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 개발의 필요성, 『月刊 상업농경영 제146호』, pp.58-61, 국제농업개발원, 2000. 3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의 개발요점, 『月刊 상업농경영 제148호』, pp.64-67, 국제농업개발원, 2000. 5
- 류선무, 관광농촌마을의 구성요건, 『月刊 상업농경영 제147호』, pp.64-68, 국제농업개발원, 2000. 4
- 박석희 (1998). 농산촌지역 수변공간의 관광개발 전략모색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1(2): 257-271.
- 박석희(2002) 綠色農村觀光의 概念과 育成技法, 『농촌생활과학』, 23(2): 40-47
- 박석희(2002)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전략, 『京畿大學校論文集』 44(1):549-573.
- 박시현 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2002
- 박시현 외,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박은식 외, 『농촌관광마을』,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박은식 외, 『농촌민박 실태 및 발전방향』,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박은식 외, 『전통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농촌생활연구소, 2002
- 박호균 외(2001). 한국 관광농원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전략 연구, 『地域社會開發研究』, 26(1):45-73.
- 박호균·유성호·이성우 (2001). 한국 관광농원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전략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6(1): 45-73.
- 서울시정연구원 (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보호원 (2001). 여가소비문화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
- 송미령(2003), 그린투어리즘 마을의 경영전략, 한국농업정책학회

- 송미령·성주인, “농촌관광의 현실과 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송미령·성주인,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오순환·박석희(2001). 농촌체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적 효과, 『소비문화연구』 4(2):131-144.
- 유승우·최동주(2001).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24(3):47-62.
- 유진채·이희찬(2003).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44(1): 111~130.
- 윤두호(2002).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21C형 신관광자원 개발 방안, 『月刊 自治發展』 8(3):110-124.
- 윤영석·박송희(1998) 농촌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례연구 : 함평군을 중심으로, 『鎭城環境專門大學論文集』 3:219-252.
- 이강욱·김희수(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이관영(1999). 환경친화적 농어촌 정비의 방향 : 농어촌 관광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농어촌진흥』, 134:125-130.
- 이호철(2000).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방안-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167-203.
- 이훈·정철·정란수(2003). 인터넷 조사방법을 활용한 주5일 근무제가 직장인 여가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7(1): 63-83.
- 이희찬(2004). 농촌관광 참여 및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 연구』, 45(4): 53-78.
- 이희찬·김현(2004). 농촌관광 수요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9(2): 131-146.
- 이희찬·김영·안윤수·김은자(2003). 농촌관광 수요모형 개발 연구. 『관광학연구』, 27(2):197-212.
- 이희찬(2003). 농촌관광수용의 결정요인. 『관광농업연구』, 10(1):130-143
- 이희찬(2002). 지역축제참가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Tobit 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26(1):31-46.
- 이희찬,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향조사와 가치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장태연 (2003). 과산포 검정을 통한 택시교통사고 모형설정. 『교통공학』, 23(1D): 2734.
- 조록환(2002). 녹색관광과 농촌 활성화, 『연구와 지도』, 43(1):48-52.
- 조록환(2002). 녹색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 『농촌생활과학』 23(2):68-74.
- 조영숙 외,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2
- 조혜정(2002). 농촌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영암군 민박가정과 증가를 중심으로, 『外著 2002 지역발전 연구』 2(1):123-134.
- 최숙희 (2001).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삼성경제연구소.
- 최승엽(2002) 유럽 농촌개발의 새로운 움직임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관광, 『강원광장』 48:50-54.
-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 한국관광공사(2002). 2001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 행자부(2004). 제 50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신활력지역발전구상.
- 허갑중 (2002).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관광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홍성권·김성일(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韓國造景學會誌』 30(1):18-28.
- 황대용 외,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농촌생활연구소, 2003

- 황지영 (2002). 주5일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추정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청구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Blaylock, J. R. & Blisard, W. (1993). Women and the demand for alcohol: Estimating participant and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7(2): 319-334.
- Bockstael, N, Strand, E. McConnell, K. & Arsanjani, F. (1990). Sample selection bias in the estimation of recreation demand functions: An application to sportfishing. *Land Economics*, 66(1): 40-49.
- Bowker, J. & Leeworthy. (1998). Accounting for ethnicity in recreation demand: A flexible count data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64-78.
- Busby, G. and S. Rendle (2000). "The transition from tourism on farms to farm tourism." *Tourism Management* 21: 635-642.
- Cameron, A. C. & Trivedi, P. K. (1986). Econometric models based on count data : Comparisons and applications of some estimator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46: 347-364.
- Cameron, A. C. & Trivedi, P. K. (1998).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C (2003). *Using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to Develop Sustainable Tourism in non-traditional tourist destinations*. Brussel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hi, L. A., Hong, G. S. & Morrison. (1995).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for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4(4): 15-40.
- Chi, Y.-N. (1997). A double-hurdle expenditure analysis of nonconsumptive wildlife related recreation. Ph.D.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age, Baton Rouge.
- Countryside Agency (1998). *Leisure Day Visits*. London, Countryside Agency.
- Countryside Agency (2000). *The economic impact of recreation and tourism in the English countryside 1998*. Wetherby, Countryside Agency.
- Countryside Commission,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et al. (1995). *Sustainable rural tourism*. Cheltenham, Countryside Commission.
- Cragg, J. G. (1971). Some statistical model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with applications to the demand for durable goods. *Econometrica*, 39: 829-844.
- Creel, M. & Loomis, J. (1990).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tages of truncated count data estimators for analysis of deer hunting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2: 434-441.
- Creel, M. & Loomis, J. (1992). Recreation value of wetland in the San Joaquin Valley: Linked multinomial logit and count data trip frequency models. *Water Resources Research*, 28(10): 2597-2606.
- DETR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London, HM Stationery Office.
- Englin, J. & Shonkwiler, J. (1995). Estimating social welfare using count data models: An application to long-run recreation demand under conditions of endogenous

- stratification and trun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104-112.
- Englin, J., Boxall, P., & Watson, D. (1998). Modeling recreational demand in a Poisson system of equation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2): 255-263.
- English Tourism Council and Countryside Agency (2001). *Working for the Countryside: A strategy for rural tourism in England 2001-2005*. London, English Tourism Council.
- Faria, A., Fenn, P., & Bruce, A. (2003). A count data model of technology adoption.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8: 63-79.
- Fix, P., Loomis, J., & Eichhorn, R. (2000). Endogenously chosen travel costs and the travel cost model: An application to mountain biking at Moab, Utah. *Applied Economics*, 32(10): 1227-1238.
- Green Tourism Association (2003). What is urban green tourism.
<http://www.greentourism.ca/what.html#what>
- Greene, W. (1995). *Econometric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Greene, W. (1995). LIMDEP. Econometric Software, Inc.
- Grogger, J. T. & Carson, R. T. (1991). Models for truncated coun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6: 225-238.
- Grogger, J. T. (1990).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n analysis of daily homicide coun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5: 295-303.
- Guitart, C. (1982). UK charter flight package holidays to Mediterranean: A statistical analysis, *Tourism Management*, 3(1): 16-39.
- Gurmu, S. & Trvedi, P. (1996). Excess zeros in count models for recreational trip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14(4): 469-477.
- Haffey, D. (2003). *Nature-based Tourism in the North East*. Newcastle, One North East.
- Hausman, J., Hall, B. H., & Griliches, Z (1984) . *Econometric Models for Count Data with an Application to the R&D Relationship*. *Econometrica*, 52(7): 909-937.
-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53-161.
- Hellerstein, D. & Mendelsohn, R. (1993).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unt data model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604-611.
- Hellerstein, D. (1989). *The use of count data models in travel cost analysis: An application to the boundary waters canoe area*,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 Hellerstein, D. (1991). *Using count data models in travel cost analysis with aggregate dat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8): 860-866.
- Huh, E. (2000). *Leisure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ear-Retired Household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Unpublished dissertation.
- Hur, K., Hedeker, D., Henderson, W., Khuri, S., Daley, J. (2002). Modeling clustered count data with excess zeros in health care outcomes research. *Health Services & Outcomes Research Methodology*, 3: 5-20.
- Jang, S. C., Bai, B., G. S. Hong. & O'Leary, J. T. (2004). Understanding travel expenditure patterns: a study of Japanese pleasure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by income

- level. *Tourism Management*, 25: 331-341.
- Joppe, M. and R. Dodds (2001). *Urban Green Tourism: Applying ecotourism principles to the city*. World Tourism Organisatio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Preparatory Americas Conference, Cuiaba, Brazil.
- Judge, G. Griffiths, W. Hill, R. & Lee, T. (1980).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mbert, D. (1992).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with and applications to defects in manufacturing, *Technometrics*, 24: 1-14.
- Lee, H. C. (2003). Estimating Recreational Boater Expenditures on Trips and Boating Use in a Wave Survey. *Leisure Sciences*, 25: 381-397.
- Lee, H. C. (2002). Regional Flows of Boater Trip Spend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 77-84.
- Lee, H. C. (1999). Valuing Environment Quality Change on Recreational Hunting in Korea: A Contingent Valuation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57: 11-20.
- Leones, J., Colby, B. & Crandall, K. (1998). Tracking expenditures of the elusive nature tourists of southeastern Arizo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Winter): 56-64.
- Livio Di Matteo. & Rosanna Di Matteo. (1993).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s by Canadian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93(Spring): 34-42.
- Lutz, J., Englin, J., & Shonkwiler, J. (2000). On the aggregate value of recreational activities: A nested price index approach using Poisson demand system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15: 217-226.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o, E. J & Jarvis, L. P.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CBI Publishing Co., Boston, Massachusetts.
- Mok, C. & Iverson, T. J. (2000). Expenditure-base segmentation: Taiwanese tourists to Guam. *Tourism Management*, 21: 299-305.
- Mullahy, J. (1986). Specification and testing of some modified count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33: 341-365.
- Newsome, D., S. Moore, et al. (2002). *Natural Area Tourism: Ecology, impact and management*. Clevedon, Channel View Publication.
- OECD (1994). *Tourism policy and international tourism in OECD countries: 1991-199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earce, P.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Tourist Behaviour*, Pergamon Press, Oxford.
- Portney, P. & Mullahy, J. (1986). Urban air quality and acute respiratory illness.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 21-38.
- Rob Lawson. (1991). Patterns Of Tourist Expenditure And Types Of Vacatio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spring: 12-18.
- Ryan, C. (1991). *Recreational Touris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harpe, D. L., Abdel-Ghany, M., Kim, H., & Hong, G. S. (2001). Alcohol consumption decisions in Kore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22(1): 7-24.
- Shaw, D. G. (1988). On-site samples' regression: Problems of non-negative integers, truncation, and endogenous stratific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37(2): 211-23.
- Taylor, D., R. Fletcher & Clabaugh, T. (1993).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regional expenditures, and economic impact of visitors to historical sites with other recreational visi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summer): 30-35.
- Tomlin, K. (2000). The effect of model specific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models: An application of count data models. *Southern Economic Journal*, 67(2): 460-468.
- Vuong, Q. (1989). Likelihood ratio tests for model selection and non-nested hypothesis. *Econometrica*, 57: 307-334.
- Yen, S. & Adamowicz, W. (1994). Participation, trip frequency and site choice: A multinomial-poisson hurdle model of recreation demand.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42: 65-76.
- Yen, S. & Jensen, H. (1996). Determinants of household expenditures on alcohol.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1): 48-67.
- Yen, S. T. (1993). Working Wives and Food away from Home: The Box-Cox Double Hurdle Model.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884-895.
- Yutaka Arahi, "RURAL TOURISM IN JAPAN: THE REGENERATION OF RURAL COMMUNITIES", Rural Life Research Institute, 1999

홈페이지

고드미마을 (<http://www.godmee.com>)
 구병아름마을 (<http://www.sulsul.org>)
 농림부 (<http://www.maf.go.kr>)
 부레미마을 (<http://www.buraemi.com>)
 생거진천 화랑촌 (<http://boryen.go2vil.org>)
 서천이색체험마을 (<http://esec.go2vil.org>)
 신론리마을 (<http://www.sinnon.net>)
 양수리마을 (<http://www.greentour.or.kr/Villages/Default.aspx?villageid=88>)
 농촌관광포털 (<http://www.greentour.or.kr>)
 용마위 골 (<http://www.greentour.or.kr/Villages/Default.aspx?villageid=32>)
 정보화마을홈 (<http://www.invil.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한드미마을 (<http://www.sanchonmaeul.com>)

<부록 1: 시차조사 설문조사표>

농촌관광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다소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가 및 관광수요는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주5일 수업제, 휴가분산제, 완전노령연금제 등 향후 예정된 복지정책의 도입은 이러한 증가추세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가 및 관광효용의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일은 이제 개인적 주요 관심사안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가 및 관광활동의 양상도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관광활동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관광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관광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위의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숫자로만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질문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해주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가효용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이 희 찬 교수



연구기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 02-3408-3183 FAX: 02-3408-3312

조사일자: 2004년 월 일

조사지역: ()시·도 ()동·군

조사자: _____

농촌관광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농촌관광에서 지출하신 모든 비용에 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두 번 이상 농촌관광을 다녀오신 경우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농촌관광에서의 지출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 ☞ 가족, 친지,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여행하신 분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같이 여행하신 그룹을 위해 지출된 그룹의 모든 경비를 적어 주십시오. (그룹의 비용을 모르면 개인지출만 응답)
- ☞ 관광목적지에서 발생한 지출과 관광목적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지출로 구분해 주십시오.

지출 유형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0'을 기입)	농촌관광 목적지 및 인근지역	기타지역 (경유지, 타 관광지 등)
식료비 (외식, 주류, 식품, 음료 등)	원	원
교통비 (자가운전의 경우 주유비, 톨게이트비 등)	원	원
오락비 (노래방, 관람, 게임, 체형 등)	원	원
숙박비 (민박, 호텔, 여관, 콘도, 펜션, 캠프장 등)	원	원
쇼핑비 (기념품, 토산품, 기타쇼핑 등)	원	원
기 타 (그밖에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원	원

13. 위의 지출내역은 방문그룹 전체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① 방문그룹 전체 ② 개인

☞ 14. 현재까지 (2004년 1월~5월말까지) 방문하신 농촌관광 총 횟수는 몇 회입니까? ()회

농촌관광참여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다음은 농촌을 방문할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하여 주십시오. <농촌관광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얼마나 중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				
	전혀 아님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2. 교통편/접근성										
3. 숙박시설										
4. 부대시설(화장실 등)										
5. 자연환경										
6. 지역주민의 친절										
7. 음식										
8.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9.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10. 주변의 관광지										
11. 지역의 특산품										
12. 지역적 특색										

16. 귀하께서 참여하신 **농촌관광의 참여이유**를 설명하는 각 문항에 대해 가장 적절히 묘사한 곳에 하여 주십시오. <농촌관광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하여 주십시오>

농촌관광 참여이유	매우 아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가민박을 체험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 관광농원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자연학습(야외교실, 자연학습시설 방문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4. 자연탐방(트래킹, 하이킹, 야영, 래프팅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5. 자연채취체험(버섯따기, 산나물 채취, 밤따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6. 생태체험(별자리관찰, 조류관찰, 야생식물생태관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7. 농경체험(모내기, 보리밭기, 감자, 고구마 캐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8. 농촌생활체험(과수원체험, 감자, 고구마 구워먹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9. 민속놀이/전통문화(쌈매타기, 천연염색 등)를 체험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체험(황토찜질방, 토담집, 온돌방 등)을 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1. 주말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2.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 농산물 축제(딸기축제, 인삼축제 등)에 참가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4.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5. 향토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먹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6. 농촌지역의 사찰 또는 문화유적을 답사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7.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친구/친지 방문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18. 지역 공동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9. 동창회, 명절, 관혼상제에 참석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0. 단순 휴식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1.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2. 어촌체험(갯벌체험, 어촌민박, 해산물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23. 겨울축제(눈꽃축제, 빙어축제 등)에 참가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일반적인 관광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지난 한 달 동안 (5월) 농촌관광을 제외한 어떤 유형의 관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신 관광유형 중 해당되는 관광의 참여여부에 하시고 참여횟수와 숙박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2004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각각의 관광유형에 참여하신 총 횟수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여부	관 광 유 형	참여 횟수	각 여행에서의 숙박일수			1월-5월 총 참여횟수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	자연/생태관광: 산악형 관광(설악산), 해양관광(섬, 바닷가, 호수), 온천	()회	()일	()일	()일	()회
㉡	역사/문화관광: 역사유원지(고궁, 사찰), 민속공예 전시관람, 제작체험, 문화행사, 축제, 스포츠관람	()회	()일	()일	()일	()회
㉢	산업/사회관광: 공업단지, 박람회(EXPO), 도시거주 가족친지 방문	()회	()일	()일	()일	()회
㉣	위락관광: 놀이시설, 유원지, 레저타운(호텔, 리조트), 스포츠(골프, 스키), 카지노, 민속촌	()회	()일	()일	()일	()회
㉤	해당 없음: 관광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집 또는 주위에서 소일하였음 (☞ “22번” 문항으로)					

18. 위에서 참여하신 관광 중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관광유형, 방문장소, 숙박일수, 여행인원은?

관광유형: ㉠ 자연/생태관광 ㉡ 역사/문화관광 ㉢ 산업/사회관광 ㉣ 위락관광
숙박일수: () 일 여행인원: () 명 주요 방문장소: ()

19. 누구와 함께 위의 관광을 하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친지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 ⑥ 기타()

20. 위의 관광에서 지출하신 모든 비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 가족, 친지,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여행하신 분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같이 여행하신 그룹을 위해 지출된 그룹의 모든 경비를 적어 주십시오. (그룹의 비용을 모르면 개인지출만 응답)

지출 유형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0'을 기입)	관광 목적지 및 인근지역	기타지역 (경유지, 타 관광지 등)
식료비 (외식, 주류, 식품, 음료 등)	원	원
교통비 (자가운전의 경우 주유비, 톨게이트비 등)	원	원
오락비 (노래방, 관람, 게임, 체험 등)	원	원
숙박비 (민박, 호텔, 여관, 콘도, 펜션, 캠프장 등)	원	원
쇼핑비 (기념품, 토산품, 기타쇼핑 등)	원	원
기 타 (그밖에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원	원

21. 위의 지출내역은 방문그룹 전체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① 방문그룹 전체 ② 개인

22. 귀하의 관광성향은 주로 어떠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을 선호한다
 ②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을 선호한다
 ③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과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이 혼합된 것을 선호한다
 ④ 특별히 선호하는 관광이 없이 때나 상황에 따라 관광선호가 바뀐다

23. 귀하께서는 올해 들어 총 몇 번의 국내관광에 참여하십니까? () 회

24. 귀하께서는 올해 들어 총 몇 번의 해외관광에 참여하십니까? () 회

농업·농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5. 농촌은 식량공급기능 외에도 다음 표에 예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존재 유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유형	각 기능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는 기능	①	②	③	④	⑤
2. 동식물, 야생조류, 어류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	①	②	③	④	⑤
3. 자연경관, 녹지공간, 농촌체험 등의 장소로서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4. 홍수피해경감, 토사붕괴방지, 자연제방 등의 국토보전기능	①	②	③	④	⑤
5.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26. 농촌의 공익기능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선택)

- ① 방문 유무에 관계없이 농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존재가치)
 ② 농촌방문 또는 농산물이용 등을 통해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용가치)
 ③ 장래에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가치)
 ④ 농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속가치)
 ⑤ 아무런 가치가 없음 (무가치)

농촌관광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다소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가 및 관광수요는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주5일 수업제, 휴가분산제, 완전노령연금제 등 향후 예정된 복지정책의 도입은 이러한 증가추세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가 및 관광효용의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일은 이제 개인적 주요 관심사안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가 및 관광활동의 양상도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관광활동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관광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관광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위의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 숫자로만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질문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해주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가효용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이 희 찬 교수

연구기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 02-3408-3183 FAX:

02-3408-3312

조사일자: 2004년 월 일

조사지역: ()시·도 ()동·군

조사자: _____

지난 1년 동안의 관광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p>농촌관광의 예:</p> <p>① 농업과 관련된 관광활동에 참여한 경우: 농가민박, 체험농장, 주말농장, 농업·농산물 축제, 전통문화체험, 수산물 채취</p> <p>② 농촌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일반민박, 자연휴양림, 등산, 야영, 캠핑, 트래킹, 하이킹, 낚시, 자연학습, 갯벌체험, 명승지, 펜션</p> <p>③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 친구, 친지를 방문한 경우</p>
--

- ① 예 ② 아니오 (☞ “15번” 문항으로)

2.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에 참여하신 횟수와 숙박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12월)
참여횟수	회	회	회	회
숙박일수	일	일	일	일

*****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다녀오신 농촌관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촌관광” 하나를 골라 3번 문항에서 14번 문항까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

3. 가장 대표적이라고 선택하신 **농촌관광**에 대해서: 언제(몇 월) 어디로 여행하셨습니다까?

(농촌 관광지를 포함하여 두 곳 이상을 방문하신 경우 여행 장소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여행 시기	여행 장소	숙박일수
월	농촌 관광 장소 1:	일
	기타 여행 장소 2:	일
	기타 여행 장소 3:	일
	총 숙박일수:	일

4. 누구와 함께 농촌관광을 가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친지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 ⑥ 기타()

5.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을 가셨습니까?

- ① 승용차 ② 기차 ③ 버스 ④ 비행기 ⑤ 기타()

6. 농촌관광에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습득하셨습니까?

- ① TV ② 신문/잡지 ③ 인터넷 ④ 여행사 ⑤ 주변사람들 ⑥ 기타()

7. 숙박하신 경우 구체적 장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농가민박 ② 일반민박 ③ 관광농원 ④ 모텔/호텔 ⑤ 펜션 ⑥ 친구·친척집
 ⑦ 캠프장 ⑧ 자연휴양림 ⑨ 본인의 별장(주말농장) ⑩ 기타()

8.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분이 이 농촌관광에 참여하셨습니다까? ()명

9. 함께 여행하신 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남자 ()명	성인여자 ()명	청소년 ()명	어린이 ()명
----------------------	----------------------	---------------------	---------------------

10. 농촌지역을 관광하신 후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1. 귀하께서는 지난해 참여하신 “가장 대표적인 농촌관광”으로 (장소) _____ 를 다녀오셨습니다 (질문3에서 대답하신 장소와 동일한 곳). 농촌관광의 참여이유에 대해 가장 적절히 설명한 곳에 ✓하여 주십시오.

농촌관광 참여이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가민박을 체험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 관광농원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자연학습(야외교실, 자연학습시설 방문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4. 자연탐방(트래킹, 하이킹, 야영, 래프팅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5. 자연채취체험(버섯따기, 산나물 채취, 밤따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6. 생태체험(조류관찰, 야생식물생태관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7. 농경체험(모내기, 보리밭기, 감자, 고구마 캐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8. 농촌생활체험(감자, 고구마, 옥수수 구워먹기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9. 민속놀이(연날리기, 썰매타기 등)를 체험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체험(황토찜질방, 토담집, 온돌방 등)을 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1. 주말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2.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 농산물 축제(딸기축제, 인삼축제 등)에 참가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4.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5. 향토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먹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6. 농촌지역의 사찰 또는 문화유적을 답사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7.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친구/친지 방문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18. 지역 공동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9. 동창회, 명절, 관혼상제에 참석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0. 단순 휴식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1.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2. 어촌체험(갯벌체험, 어촌민박, 해산물 등)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23. 낚시활동을 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4. 겨울축제(눈꽃축제, 빙어축제 등)에 참가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5. 단체관광에 동참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6. 기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농촌을 방문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하 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농촌에 대한 여행정보										
2. 교통편/접근성										
3. 숙박시설										
4. 음식										
5. 자연환경										
6. 지역주민의 친절										
7. 부대시설(화장실/주차시설)										
8. 농산물의 품질 및 종류										
9. 가능한 체험활동의 종류										

관광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께서는 지난해 참여하신 “가장 대표적인 농촌관광”으로 (장소) _____ 를 다녀오셨습니다 (질문3에서 대답하신 장소와 동일한 곳).

농촌관광에서 지출하신 모든 비용에 관해서 답해 주십시오.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 ☞ 가족, 친지,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여행하신 분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같이 여행하신 그룹을 위해 지출된 **여행그룹의 모든 경비**를 적어 주십시오. (그룹의 비용을 모르면 개인지출만 응답)
- ☞ 개인으로 또는 단체로 여행하신 분은 **본인이 부담하신 지출만** 답해 주십시오.
- ☞ 관광목적지에서 발생한 지출과 관광목적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지출로 구분해 주십시오.

식료비 (외식, 주류, 식품, 음료)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교통비 (자가운전일 경우 주유비, 톨게이트비)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5천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오락비 (노래방, 관람, 게임, 체험)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숙박비 (민박, 호텔, 여관, 콘도, 펜션, 캠프장)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3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만원 이상 ~ 6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만원 이상 ~ 12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쇼핑비 (기념품, 토산품, 기타쇼핑)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기타	목적지 에서	경유지/ 타관광지 에서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출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원 이상 ~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만원 이상 ~ 6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위의 지출내역은 방문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 ① 방문그룹 전체 ② 개인

15.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을 제외한 어떤 유형의 관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신 관광유형에
 ✓하시고 참여횟수와 숙박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여부	예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12월)	
		참여 횟수	숙박 일수	참여 횟수	숙박 일수	참여 횟수	숙박 일수	참여 횟수	숙박 일수
<input type="checkbox"/>	자연/생태관광: 산악형 관광(설악산), 해양관광(섬, 바닷가, 호수), 온천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관광: 역사유원지(고궁, 사찰), 민속 공예품 전시관람 및 제작체험, 문화행사 및 축제, 스포츠관람								
<input type="checkbox"/>	산업/사회관광: 공업단지, 박람회(EXPO), 농촌이 아닌 타지역에 사는 가족·친지 방문								
<input type="checkbox"/>	위락관광: 놀이시설, 유원지, 레저타운(호텔, 리조트), 스포츠(골프, 스키), 카지노, 민속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관광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집 또는 주위에서 소일하였음								

농업·농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6. 농촌은 식량공급 기능 외에도 다음 표에 예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존재 유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유형	각 기능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자연경관, 녹지공간, 정서교육, 농촌체험 등의 장소로서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2. 동식물, 야생조류, 어류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는 기능	①	②	③	④	⑤
4. 홍수피해경감, 토사붕괴방지, 자연제방 등의 국토보전기능	①	②	③	④	⑤
5.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능	①	②	③	④	⑤

17.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농촌의 공익기능이 유지·보전되지 않는다면 국민정서가 메말라지고 전통문화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저해되며, 아름다운 농촌풍경과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농촌의 공익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이나 기금, 지원금 등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19번” 문항으로)

18. 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하 가구에서 지원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얼마입니까? (가구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4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60,000원
<input type="checkbox"/> 70,000원	<input type="checkbox"/> 80,000원	<input type="checkbox"/> 90,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15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만원

19. 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다음 중 어느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십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자연경관, 녹지공간, 정서교육, 농촌체험 등의 장소로서의 기능	(순위)
○ 동식물, 야생조류, 어류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	(순위)
○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는 기능	(순위)
○ 홍수피해경감, 토사붕괴방지, 자연제방 등의 국토보전기능	(순위)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능	(순위)

다음은 본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향후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농촌관광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1년에 몇 회나 참여하실 예정입니까? _____ 회
22. 귀하(전업 주부이신 경우 남편)의 직장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격주실시 ③ 아니오(24번 문항으로) ④ 관련 없음(24번 문항으로)
23. 주5일 근무제나 격주 휴무제 실시로 인해 관광(여행)참여가 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4. 귀하께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관광(여행)참여가 증가하리라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25.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몇 번의 국내관광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⑨ 8회 ⑩ 9회 ⑪ 10회 이상 (구체적으로: _____회)
26.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몇 번의 해외관광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이상
27. 귀하가 어릴 때(초등학교를 졸업 때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도시지역 ② 농촌지역
28. 귀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29. 귀하의 관광성향은 주로 어떠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을 선호한다
 ②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을 선호한다
 ③ 휴식위주의 편안한 관광과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이 혼합된 것을 선호한다
 ④ 특별히 선호하는 관광이 없이 때나 상황에 따라 관광 선호가 변한다
30. 귀하의 현 주소는? ()시·도 ()구·군
3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3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3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34.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35. 귀하의 종교는?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기타()
36. 귀하의 직업은 어느 범주에 속하십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서비스직 ⑤ 공무원·교직원
 ⑥ 자영업 ⑦ 학생 ⑧ 퇴직·무직 ⑨ 기타() ⑩ 주부(가장의 직업:)
37.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⑧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⑨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⑩ 500만원 이상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농촌관광마을 공급실태조사>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1	약사동 마을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3리	31/51	11	5	2	2	2	4		백운계곡, 약사계곡, 광덕산, 각흘산, 국망봉자연휴양림, 온천/산정호수 역새꽃축제, 이동갈비축제/수동관광지, 백운, 소요산, 장흥관광지, 광릉수목원, 수락산유원지, 허브랜드	(농)쌀, 고추, 콩, 배, 약초, (특)고로쇠, 약초, 산나물/갈비촌, 파주골순두부촌	1. 고로쇠수액 체험, 2. 산나물체험, 3. 밤남시	게류남시터 운영, 산책로, 유기농 약초작목반, 농산물 가공사업, 주말농장 체험사업,민박시설, 각종 축제, 약사골 유기농 약초생산
2	오감 마을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가야1리	40/78	3	3	5	1	0	1	전통 옹기마을/전통 품물, 가마니 짜기, 짚신삼기		(농)친환경오리농법 쌀, 잡곡, 영지버섯, 영아자, 오이, 쪽새, 부추, 반딧나물, (특)쌀, 영지버섯, 부추	쌀매장이용 및 칩캐기 체험, 원두막체험 및 수확 체험, 김장담구기 & 메주쭈기	
3	주월리 마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27/52	3	1	8	2	0	5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 유적	감악산, 임진강	(농)개성인삼, 산머루, 콩, (특)황복, 참깨	1. 산머루, 인삼 등 농산물 수확체험, 2. 참깨, 황복 등 지역 특산물 시식, 3. 임진강변 백사장 야영 및 낚시, 4. 참깨장 및 머루주 담그기 체험	주말농장 운영, 백사장 민물생태 체험, 낚시 및 수렵대회, 어선 탑승 체험, 주말농장 운영, 명산 감악산 등반, 지역특산품 이용 음식 만들기, 1인1나무 갖기 행사, 스케이팅장 및 눈썰매장 운영
4	고송 마을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2리	40/71	5	6	6	4	1	9	비룡산, 승지산, 아흔아홉골산, 비룡골, 쑥골 아흔아홉골, 승지골, 깨박골, 고송천		(농)친환경오리농법 쌀, 잡곡, 영지버섯, 영아자, 오이, 쪽새, 부추, 반딧나물, (특)쌀, 영지버섯, 부추	친환경체험농장 및 농촌 체험 민박운영, 주말농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판매장 운영, 식품가공공장 설치, 오토캠핑장 운영, 문화체험학교 운영, 생태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정비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5	상수 마을	경기 양평군 지제면 수곡2리	35/70	10	30	5	5	2	0	수곡서원	칠보산, 수곡저수지	(농)친환경왕우렁이 농법쌀, 채소, 과수	1. 친환경농산물 판매, 2. 메뚜기 잡기 행사, 3. 과수따기 행사, 4. 수곡서원 효친교육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
6	매화 마을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65/72	36	60	2	60	60	0	소군산, 섬강, 3.1만세운동기념비/3.1만세운동정신, 민속품 전시관, 각종 전통풍속	소군산, 섬강, 칠봉유원지, 한솔오르벨리, 동서울레스피아, 간현국민관광지	(농)무농약오리쌀, 인삼, 담배, 단무지, 밤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특)쌀, 고춧가루, 무말랭이, 무시래기, 식용야생화, 도토리전분, 감자전분	1. 소군산 산마루 채취대회, 2. 오리방사대회, 3. 농촌체험학교 개설운영, 4. 조업밤고구마 심기, 캐기 행사, 5. 가을걷이 농촌체험 행사	민박, 영농체험장, 농촌음식체험, 농특산물 가공, 판매
7	배나무 골마을	강원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40/75	40	20	0	0	2	0	설악산, 속초 해수욕장, 장사동해수욕장, 오색동계곡, 도원리계곡, 청초호 및 영랑호, 속초8경, 척산온천, 석봉도자기박물관	설악산, 속초 해수욕장, 장사동해수욕장, 오색동계곡, 도원리계곡, 청초호 및 영랑호, 속초8경, 척산온천, 석봉도자기박물관	(농)쌀, 무공해야채, (특)도토리묵, 두부/도토리요리	1. 민박운영, 2. 무공해농산물 판매	1. 민박요금 예고제 실시, 2. 농산물 직판장 건립, 3. 도토리 요리 개발, 4. 도토리 줍기 및 도토리묵 체험, 5. 주말농장운영, 6. 겨울이끼기 가족행사 운영, 7. 짬뽕 만들기 참여행사 운영
8	덕고 마을	강원 횡성군 횡성읍 정암2리	33/42	10	11	0	1	1	0	세덕사 및 조충장군묘소, 지식, 신도비, 송덕비, 4선생비각, 장승/설날합동세배, 대보름맞이행사 및 달집태우기, 회다지소리, 세덕사의춘추향제, 단오제	덕고산, 정암천, 레포츠공원/꽃축제	(농)쌀, 고추, 단호박, 담배, 인삼, 표고, 복분자 (특)고추, 단호박, 표고, 복분자, 전통된장, 벌꿀	1. 시산제 및 봄 산나물 캐기, 2. 출향인사 초청 한마음대회, 3. 꽃마을 조성 "꽃축제" 실시, 4. 밤. 도토리 줍기 행사, 5. 단오제 및 장승, 물레방아, 디딜방아, 민속공예품제작 설치	1. 민박시설확충, 2. 전통민속음식 개발, 3. 농산물 판매장 설치, 4. 조수사육장 설치 운영, 5. 표고따기 및 고추심기, 된장담그기 등 체험행사, 6. 열음썰매장 및 눈썰매장 설치운영, 7. 대보름맞이 행사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9	수림대 마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3리	20/22	6	4	5	3	1	2		금당계곡, 대미산 수림천	(농)꽃고추, 옥수수, 감자, 콩 (특)산더덕, 취나물, 신령버섯, 느타리, 토종꿀 등 친환경 농산물	1. 수림대마을 펜션 운영, 2. 친환경 농업 체험, 3. 전통생활용품 5종(메밀베개, 짚신, 삼태기, 명석, 맷돌방석) 제작을 통한 전통체험	1. 체험농장 조성 (주말농장, 한우단지 조성, 토종동물농장, 산림욕장설치), 2. 농촌 빈집개발, 3. 민물고기 잡기행사 및 래프팅, 등산
10	수레 마을	강원 평창군 도암면 차항1리	29/57	13	10	4	2	0	0		오대산 국립공원, 삼악축산 목초지, 황병산, 백일평 계곡, 갈골천, 경포해수욕장 & 용평스키장 인접, 수레마을 농촌체험박물관, 백일평 삼림욕장 및 자연학습 체험장	(농)감자, 당근, 무, 배추, 양배추, 양파, 사과,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피망, 파프리카, 파세리 (특)황태, 토봉, 수출딸기, 서양란, 산채류	1. 주말농장(여름채소배), 2. 테마관광객 농사체험, 3. 우마차타기	1. 펜션사업, 2. 체험농장 운영 및 확대, 3. 동물농장 운영, 4. 주말농장 참여농가 확대, 5. 야생화단지 조성, 6. 농산물 판매장 개설
11	토마토 마을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48/75	25	10	0	5	5	3	화엄동사지/구전 문화(갓바위와 쌍소나무)	화악산, 두류산, 광덕산, 광덕계곡, 삼일계곡, 곡운구곡, 화음동정사지/토마토축제	(농)찰토마토, 표고, 오리쌀, 콩 (특)토종꿀, 더덕, 두릅, 장뇌	1. 민박운영, 2. 농산물 무인판매장 설치운영, 3. 솟가마 체험장 조성, 4. 토마토 축제 개최, 5. 계곡체험. 자연체험. 수확체험. 건강체험	1. 펜션사업, 2. 계절별 농촌체험행사 추진, 3. 오토캠핑장 설치 운영
12	원당 마을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	54/97	5	15	5	7	3	19	정월대보름 행사, 치성제	대암산, 서천, 원당천, 생태식물원, 약용작물재배시험장, 팔랑민속관, 지계전수관, 후곡약수터, 제4땅굴, 을지전망대	(농)품질인증쌀, 가시오이, 고추, 찰옥수수, 콩, 고냉지채소 (특)토종닭, 오리, 옛날막국수, 도라지, 양봉, 곰취, 느타리버섯		1. 체험프로그램 운영(느타리버섯체험, 가시오이수확체험, 곰취 및 산채채취, 울챙이국수 만들기, 허수야비 만들기, 순두부만들기, 등) 2. 농촌 학교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13	미산 마을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40/61	26	2	2	5	1	4		미산계곡, 개인산, 방태산, 왕성골, 파리목, 어유소, 약수골, 개인약수	(특)토종꿀, 고로쇠수액, 상황버섯, 송이버섯	1. 민박운영, 2. 체험프로그램 운영(고로쇠 수액 채취, 토종꿀 채취, 표고버섯 채취, 산채채취), 3. 주말농장 운영	1. 황토찜질방 운영, 2. 농산물 판매장 운영, 3. 민물어종 전시실 건립 및 운영, 4. 고로쇠 채취작목반 및 표고작목반 운영, 5. 농촌숙박시설 확충
14	대대 마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대대1리	51/51	25	2	3	1	0	0		북천, 반암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및 천연기념물(학, 고라니)	(농)쌀, 오이, 고추, 상추, 배추, 무, 콩, 감자	1. 민박운영, 2. 부녀회 식당 운영, 3. 농산물 직거래	1. 민박조성, 2. 체험농장 운영, 3. 농특산물 전문식당 및 전시판매장 운영, 4.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한 청소년 수련생 농촌 체험 기회제공, 5. 청정하천을 이용한 사계절 레포츠장 조성
15	상대촌 마을	충북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40/74	3	15	5	2	14	1	조선조 유학자 유완선생 효자정문, 가전비록, 시 지정 보호수 3그루, 성환당, 둔터/상여소리, 달구질소리, 산신제 및 농요 다수	국망산, 승대산, 원통산, 오감산, 복성저수지, 능암탄산온천단지, 동암유화온천, 골프장	(농)사과, 배, 쌀, 단호박 (특)복숭아 통조림, 복숭아식초	1. 주말농장운영, 2. 영농 체험학습 도장 운영	1. 황토방, 펜션, 통나무집 운영, 2. 농산물 판매장 및 식품가공공장 운영
16	한중리 마을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	24/39	7	16	0	1	0	0	고봉정, 관기산성	백록산, 보청천, 한중저수지, 석회암 자연동굴, 기대리. 원정리 소공원, 야생화단지, 낚시터	(농)쌀, 고추, 복숭아, 포도, 호도, 취나물, 감, 찹, 도토리묵 (특)유기농 복숭아, 토종잡곡, 꽃감, 배, 마늘, 고추	1.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일따기, 꽃감만들기, 산머싯따기, 산나물 채취, 감자캐기, 고구마 캐기, 가재잡기, 등), 2. 관광공예품 만들기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17	벽동 마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4리	22/44	10	6	3	2	1	3	성주면 낭혜화상 백월보광탑, 최고 운 유적비, 수부 리 귀부 및 이수, 금강암석불 및 비편/황유업 효자 정문, 황정직 효 자문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 수욕장, 성주석탄박물관, 성주계곡, 오서산, 보령 호, 서해바다의 일몰/신 비의 바닷길 축제, 보령 머드축제, 전어. 대하축 제, 오천키조개축제	(농)쌀위주의 곁물 류, 채소, 해산물	풍부한 지역 축제 실시 운영	1. 농업박물관 관람 및 체험, 2. 민박체험, 3. 유 적지 및 연계관광, 4. 우 마차타기 체험, 5. 도자기 굽기 체험
18	외암골 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40/80	14	0	8	14	4	0	건재고택, 참관 대, 송화대, 신장 대, 교수대, 외암 "이간의" 묘소와 신도비, 열녀 "안 동권씨" 정려, " 외암정사"와 강당 사, 용추와 석각/ 충청남도 도무형 문화제 제11호 연엽주	광덕산, 강당골 유원지, 신정호 유원지, 현충사, 온양박물관, 온양온천, 아 산온천/짚풀 문화제, 장 승제, 달집 태우기, 연날 리기, 쥐불놀이	(농)오리농법. 우렁 이농법쌀, 표고버섯, 오이, 늪은호박, 고 구마, 감자 (특)연엽 주, 사슴가공 건강 보조식품	1. 체험농장 운영, 2. 주말농장 운영, 3. 도농 공동참여 사업, 4. 환경 농산 물의 도시아파트 단 지내 순회 직거래관 매, 5. 기타 체험프 로그램 운영(장담그 기, 떡 메치기, 솟대 만들기, 두부 만들 기)	민박, 체험농장, 주말농 장, 농산물 직판장, 식품 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 영형태의 전통체험, 공방 체험, 민속체험, 농촌체험
19	돌서 마을	충남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42/49	5	35	0	1	1	0	쌍계사, 탑정호	대둔산, 수락산, 천등산, 쌍계사, 법계사, 양촌유원 지, 양촌재래시장	(농)딸기, 꽃감, 취 나물, 양촌집장 (특) 양촌감식초, 양촌집 장	1. 농사체험 프로그 램 (양촌 딸기 수확, 엽채류 및 녹즙채소 재배체험), 2. 농가식 당 운영, 3. 기타 체 험프로그램 운영(천 연염색, 집장가공)	1. 민박 운영, 2. 체험마 을 운영(딸기체험, 취나 물과 썩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반딧불이 체험, 집장. 감식초. 꽃감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체 험, 메뚜기잡기 체험),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 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 품 연계 판매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총가구	민박	체험농장	주말농장	농가식당	판매장	기타					
20	메뚜기 마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2리 승덕부락	40/54	9	10	3	2	3	13		서대산과 레저타운, 원홍사, 개덕사/탑제, 산신제	(농)친환경쌀, 들깨잎, 포도/보리밥, 도토리묵, 메밀묵, 손두부, 보리개떡, 밀가루 쫄쫄	체험프로그램 운영(산나물, 야생버섯 채취, 농사체험, 포도따기, 메뚜기 잡기)	1. 건강을 주제로 한 체험시설 확충(주말농장, 삼림욕장 조성), 2. 체험 기회 부여(버섯, 머루, 다래, 으름, 밤줍기, 메뚜기잡기, 토양약초 채취, 도토리 줍기, 가재잡기), 3. 마을 전통음식 체험기회 부여
21	은골 마을	충남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38/41	10	5	5	5	3	10		송대산, 큰골, 은골, 가냘골 저수지, 큰골 저수지, 물레바위, 상여바위, 지치바위, 말바위, 구기자한과공장/산신제	(농)쌀, 구기자, 고추, 밤, 표고 (특)구기자, 고추, 구기자한과	전통문화놀이 체험, 각종 농사체험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구기자한과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
22	가루실 마을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2리	25/25	10	4	2	4	1	7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삼교석 조보살입상, 이색영정, 봉산화전 4면 석불, 임존성, 이남규선생 고택/대목장, 소목장, 전통옹기명장	용봉산, 수암산, 흥동산, 덕승산, 가야산, 윤봉길의사 고택 및 기념관, 의종은 형제상, 보덕사, 향천사, 예당저수지, 둔리저수지, 남연군묘, 덕산온천/매헌문화재	(농)쌀, 콩, 들깨, 참깨, 고추, 배추, 무, 딸기, 배, 비육우, 낙농, 동충하초, 누에가루, 표고버섯 (특)딸기, 표고버섯, 동충하초, 누에가루, 두부, 도토리묵, 건고추, 밤	전통음식만들기, 새끼꼬기, 짚신삼기, 풍악놀이	딸기축제 시행, 민박운영, 주말농장, 체험농장, 농가식당, 낚시대회 시행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23	삼웅마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삼웅리 2리	37/62	20	20	3	12	20	1	영탑사(금동삼존불), 면천향교, 면천읍성/사물놀이패	아미산, 영웅산, 이배산, 다불산, 몽산, 삼웅저수지, 원동저수지, 해수욕장/진달래축제/서해대교, 삼교호관광지, 필경사, 김대건신부성역지, 합덕제수리박물관, 왜목마을	(농)파리고추, 느타리버섯, 수도작, 고구마, 잡곡류 (특)파리고추, 느타리버섯	영농체험, 등산로 개설	1. 마을 부존자원 활용 산책로, 양어장(낚시터) 조성, 2. 옹기체험장 및 분채학습장, 3. 영농체험, 매주, 장류, 김장, 두부떡 만들기 등 체험마을 운영, 4.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연계판매
24	오산마을	전북 군산시 육구읍 선제리	16/27	6	1	2	2	1	4	육구향교/자천대	서해안갯벌, 6.25 피난굴, 새만금 간척지, 정도사, 대원사, 천일염 생산지, 가시오가피 및 북분자군락지, 향토박물관, 조원농원	(농)쌀, 참쌀, 희찰보리, 쌀보리, 흑미, 호박고구마, 각종잡곡 (특)가시오가피, 북분자, 약초		1. 우리고장 탐방 (문화유적지 탐방 및 생태관찰), 2. 체험마을 운영(약초채취, 청정무공해 수경재배과정 관람, 갯벌 조개잡이 체험, 간장담그기 및 매주만들기 체험), 3. 친환경 농법 농산물 판매
25	봉대마을	전북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35/65	30	25	2	0	25	0	효열비, 열락제, 봉암대, 두락리고분군, 황산대첩비지, 실상사백장암 3층석탑, 아막성/관소리, 목기장, 웃칠장	지리산 관문, 봉대천, 흥부전 발상지, 실상사와 뱀사골 입구, 광한루, 만인의 총, 만복사지, 남원성, 남원관광단지, 베틀바위, 배남실, 시루봉 지맥, 목공예 단지/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농)고품질청정쌀, 고랭지고추, 산채류, 검은콩, 감자 (특)호박죽, 포도즙, 무공해 채소류(상추, 오이, 애호박, 가지), 고랭지 포도	1. 봄.여름.가을: 상추따기,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두부만들기, 2. 고유명절 농산물 판매행사	1. 민박운영, 2. 농사체험장 및 농가식당 운영(나물 채취, 박심기, 모심기, 도토리 줍고 목만들기), 3. 주말농장 운영, 4.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판매, 5. 가공식품 사업으로 포도즙, 호박죽 판매, 6. 소달구지 타기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26	진도 환경 농업 마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30/53	20	7	7	1	1	1		덕유산 국립공원, 구량천, 전북 자연환경 연수원, 푸른꿈 고등학교, 덕유산 반딧촌/정월대보름 대동 제		1. 유황오리축제, 2. 구량천 체험, 3. 허수아비 만들기, 4. 메주만들기	1. 체험농장 운영(우리콩 두부 만들기, 짬뽕예하기, 구들장 체험), 2. 농촌학교 운영, 3. 환경농업학교 운영, 4. 환경농산물 판
27	강경 마을	전남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13/17	1	2	3	0	1	0	석산마애여래좌상/자생사 텃기기술	두루봉 벌통산, 적성강, 섬진강, 불암사, 물레방아터	(농)두류 (특)감, 밤, 산채(취나물, 고사리, 두릅), 차	여름철 섬진강의 생태관찰 및 물놀이	1. 체험농장 운영(야생 녹차 텃기, 메주 청국장 만들기, 꽃감짜기, 짬뽕공예, 자연생태체험), 2. 청정 장수고을 이미지에 맞는 장수 건강식품 가공시설
28	덕정 마을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35/54	5	5	5	3	1	16	세계문화유산들꽃고인돌군, 고창읍성, 오거리당산, 전봉준생가, 석탄정/판소리(신재효6마당), 고창농악, 윤도장	들꽃학습원, 뚜라 조각공원, 고인돌군, 고창읍성, 전봉준생가, 석정온천, 선운산 도립공원/오거리당산제	(농)쌀, 친환경농법수박, 땅콩, 방울토마토, 고추, 과일(특)유기농포도, 분재, 복분자주, 풍천장어, 수출배	오거리 당산제, 종악놀이,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1. 민박농가, 조각공원, 들꽃 학습원, 2. 전통농사체험(포도따기, 들꽃제배, 복분자주 담기), 3. 자가농산물 위주 농가식당 운영, 4. 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판매, 5. 기타 체험프로그램 운영(민속 체험, 농촌농사체험, 식품 체험, 전원체험)
29	상금 마을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18/23	5	2	10	0	0	1		상금리 고인돌군, 고산성, 범우선사, 평금 저수지, 돌담, 용천굴, 노적봉, 매바위, 멧돌바위, 섬바위골, 가래재, 샷갓집/당산제	(농)쌀, 수박, 고추, 무, 배추 (특)누에가루, 누에환, 뽕잎차, 누에술, 복분자주	1. 민박운영, 2. 주말농장 조성 및 농사 체험(누에치기, 뽕따기, 누에환만들기, 뽕술담그기)	1. 자가농산물 위주 농가음식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2. 농산물 판매장 운영, 3.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연체험, 민속체험, 식품체험, 전원체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30	마동 마을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6/23	10	14	4	10	14	0	내소사(대웅전, 고려동종 금자화 엄경), 진서리도요지, 모항호랑가시나무군락/띠뷌놀이	장군봉 산책로, 바다와 갯벌체험장, 계곡, 마동들과 양어장, 하천낚시터, 갯벌맛사지, 해수탕, 보호수, 산약재단지, 산나물채취장, 조개채취장/정월보름, 줄다리기, 연중농악놀이, 그네,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소달구지타기/내소사, 격포, 변산 해수욕장, 부안댐, 석포댐, 월명암, 직소폭포, 낙조대, 구암지석묘공원, 원송이학교, KBS 촬영세트장 M37	(농)오가치, 참웃쌀, 오미자, 구기자, 고추, 배추, 무우, 상추, 시금치, 더덕, 도라지, 양파, 대파, 생강, 옥수수, 기장, 마늘, 감, 복숭아, 매실, 자도, 밤, 대추, 모과, 살구(특산약재 가공품(오가피추출액, 산약재 혼합추출액, 오가피주, 참웃담)	1. 자연체험(밤, 도토리 줍기, 고사리, 취나물, 버섯, 산더덕, 두릅채취), 2. 농경 체험(벼배기, 모내기, 감 따기), 3. 민속놀이(윷놀이, 줄다리기, 쥐불놀이), 4. 해양체험(굴, 조개 채취, 젓새우 뜨기), 5. 전원감상(논두렁 걷기, 삼림욕, 시골집 생활체험), 6. 기타체험(산약재 추출액 시식, 가공공정 관찰)	1. 민박운영, 2.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체험(자연채취, 생태체험, 자연탐방), 전원체험(전원감상, 농경체험, 생활체험(민속놀이), 3. 농가식당 운영, 4. 주말농장 운영, 5.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산약재) 판매
31	보덕 마을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평리	42/53	7	7	1	2	1	1	고인돌, 당산나무, 임란첩보서목, 복암리 고분군, 보산정사/쪽염색장, 나주쌈골나이	성모동산, 친환경 재배단지, 금성산과 계곡, 태산관광농원, 신평 저수지/당산제	(농)친환경 오리쌀, 각종 친환경 채소(특)보광골 열무, 고추, 참깨, 콩, 나주배, 들깨잎, 완두콩, 조, 수수 등 잡곡, 도라지, 더덕, 취나물 고사리 등 산채나물	1. 민박 운영, 2.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사체험(친환경 농산물 체험, 옛날 텃밭 가꾸기, 수확체험, 목장체험), 종교문화체험(기적수 체험, 십자가의 길 체험), 놀이문화체험(놀이체험, 음식체험), 산골체험	1. 성모동산 박물관 계원사업, 2. 신평저수지 개발, 3. 산골체험지구 조성, 4. 마을에서 생산된 청정농산물 판매, 4. 식품 가공공장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32	석정 마을	전남 나주시 다 시면 신평리	18/33	3	5	4	1	1	4	회화나무, 귀목, 옥산절, 암자 선 돌, 고인돌, 기암 개석 바위, 자연 동굴, 팔각정, 봉 화터, 든들	옥산 등산로, 기암개석, 자연동굴, 약수터, 폭포, 광개토농장, 눈썰매장, 큰 사랑 농장	(농)벼, 보리, 콩, 서 숙, 수수, 고추, 깨, 담배, 토마토, 메론 (특)버섯, 사슴뿔, 양봉, 배, 방울토마 토, 메론, 감, 밤, 매 실, 도라지, 자연산 녹차, 등굴레, 고사 리, 곰취나물, 메주 간장, 된장, 두부		호남 버섯농장, 사랑농장, 광개토농장, 사슴농장, 민 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메주 공 장, 된장, 두부, 농촌 각 종 농기구 전시장, 기타 사업 운영
33	시목 마을	전남 담양군 대 덕면 금산리	42/55	2	40	0	0	0	0		미암일기, 명옥헌원림 야 생화단지	(농)단감, 대춧맑은 쌀	도.농 교류프로그램 운영	1. 체험 프로그램 운영 (쌀겨 및 우렁이 체험. 견학, 나물채취, 야생약초 심기, 모심기, 야생화 관 찰, 도토리. 밤 줍기, 고 구마캐기, 메뚜기 잡기), 2. 야생동물 먹이주기, 3. 학생사생대회 개최
34	삼수 마을	전남 보성군 응 치면 봉산리	23/25	7	8	5	1	1	1	장춘제, 선사시대 유적(지석묘)/상 여소리, 모소리	보성 녹차밭, 울포 해서 녹차탕, 해수풀장, 수문포 해수욕장, 일립산, 제암산 자연휴양림, 용추계곡, 용 추 저수지, 임수골 저수 지/보성 다항제, 일립산 철쭉제	(농)배, 감, 친환경 쌀, 야생 고사리, 감 자, 호박, 우리밀 (특)올벼쌀, 삼백초, 버섯(느타리, 표고), 녹용(녹혈), 녹차된 장, 녹차국수, 녹차 고추장		1. 득음폭포 상류구간 산 골 돌아보며 민물고기잡 이, 다슬기잡이 체험, 2. 옛날식 농촌체험(벼탈골, 콩타작, 새끼꼬기, 짚신만 들기 체험), 3. 영농체험 (배꽃따기, 배숙기, 배봉 지석우기, 고사리채취, 녹 차잎따기, 표고버섯따기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35	계원 마을	전남 강진군 옥천면 영산리	35/62	3	18	3	1	1	9	주봉서원/대동제, 보리타작 놀이	월곡제 저수지(낙시터), 북골저수지 철새 도요지, 강진 맥우농장, 친환경 생태보전 토하 양식장, 새송이 버섯농장, 야생벚꽃 군락지, 탐진댐, 옥천사	(농)친환경 쌀, 고추, 참깨, 콩, 마늘, 기타 채소류 (특)옴천 토하짓, 강진 맥우, 새송이 버섯	1. 토하 채취 및 토하짓 담그기, 2. 강진 맥우농장, 3. 청자골 머쉬랜드에서 버섯 생산 및 판매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 운영
36	옥봉 마을	전남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27/36		3	2	1	1	7	풍물/사물놀이	월출산 국립공원, 대불방조제/감꽃축제	(농)쌀, 단감, 은행수박, 무, 배추, 참깨, 고추, 양파, 땅콩, 마늘 (특)쌀, 콩, 무, 배추, 참깨, 고추, 배, 단감, 은행	1. 청정지역 환경농산물 생산, 2. 팜스테이 마을 운영, 3. 생식체험, 4. 천연염색체험, 5.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장 운영	1. 민박운영, 2. 농가식당 운영, 3. 주말농장 및 사이버농장 운영(주주회원제 운영), 4. 농산물 판매장/직거래장 운영, 5.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자연학습행사, 영농체험행사, 농촌봉사활동, 녹색농촌체험, 황토/천연염색)
37	안동댐 마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23/23	13	13	3	5	2	0	7층전탑(통일신라시대), 남씨종택, 민속촌, 삼신당/하회탈춤인간문화제(이상호), 각설이 기능보유자(오팔순)	안동호, 민속박물관, 왕건 드라마 촬영장, 안동호 수상레저타운, 도산서원, 야외조각공원, 공예박물관, 베스낫시터/동제, 지신밟기, 단오제	(농)와룡쌀, 참쌀, 사과, 배, 수박, 고추, 콩, 참깨, 수수, 말린 산나물 (특)영지버섯, 태양초고추, 안동사과, 안동소주, 안동삼배, 안동간고등어, 참마, 와룡쌀/안동간고등어, 햇제사밥, 안동식혜, 메기매운탕, 안동찜닭, 춘두부	1. 자연학습 프로그램, 2. 주말농장 운영, 3.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민박운영, 2. 농가식당 운영, 3. 주말농장 운영, 4. 농산물 판매장 운영, 5.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전통문화체험, 전통먹거리체험, 전통농업체험 프로그램, 전통놀이체험, 레저, 자연생태학습 체험 활동)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38	보현 마을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송정. 절골부락	20/38	10	20	1	0	1	1	신라고찰 거동사, 정각리 3층석탑, 강호정, 충효재, 오리장림, 임고서원/동계, 농요, 짚문화	보현산, 보현산천문대, 기룡산, 영천댐, 보현천, 보현청소년야영장/보현산산나물 축제, 별빛 가족음악회	(농)고추, 사과, 감자, 벼, 콩, 어성초, 양파, 참깨, 팥, 배추 (특)약초, 산나물, 밤맛감자, 사과, 양파, 어성초, 고추	1. 도시주민과 농산물 직거래, 2. 농번기 농사체험	1. 민박 설치. 운영, 2. 주말농장(보현산 약초농장, 보현자연농원) 운영, 3. 농산물 판매장(송정 마을장터) 운영, 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민속놀이, 농사체험, 산나물 축제, 야생화관찰, 손두부만들기, 김장김치 담그기, 별자리 관찰, 문화제 탐방, 도자기 체험)
39	모깃골 마을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지곡리	50/96	22	14	0	2	2	10	주흘산, 관산지관, 문경관문 1.2.3, 교귀정, 문경새재 민요비, 조령원터, 신길원현감충렬비	문경새재박물관,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 타임캡슐, KBS 사극촬영장, 주흘산 혜국사, 안정암, 월복사, 문경새재회호비, 문경온천, 문경활공랜드, 운강 이강년 기념관	(농)사과, 산채, 벌꿀, 채소, 메주, 도토리묵, 손두부 (특)꿀사과		1. 주흘산 산약초 이용 전통약주 담그기, 2. 먹으면 약이되는 향토음식 만들기, 3. 농촌 농사체험, 4. 농촌 자연관찰, 5. 관광명승지 관광 및 문화. 자연관찰, 6. 온천관광, 7. 민속놀이, 8.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40	수산 마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70/136	20	26	5	4	5	0	성류굴, 굴참나무, 불영사 계곡	망향해수욕장/울진대게축제, 울진송이축제, 성류문화제	(농)친환경 쌀(새송쌀), 채소 (특)참깨, 고추, 마늘, 양파, 은어	1. 주말 체험농장 운영, 2. 전통가옥 운영, 3. 민박마을 운영, 4. 농가식당 운영, 5. 꽃길조성, 6.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 판매	1.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행사장 연계운영, 2. 친환경 농업 단지 체험 및 견학, 3. 주말 체험농장 운영, 4. 신년 해맞이행사 추진, 5. 민박마을 운영, 6. 농가식당 운영, 7. 등산로(산책로) 개설, 8. 꽃길조성, 9.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41	왕지 마을	경남 남해군 설천면	37/65	13	20	7	5	34	7	노랑층털사, 대원군 척화비/마을동계	남해대교, 한려관광농원, 층털사, 대원군 척화비, 구두산 등산로, 큰넷골 왕지폭포, 해맞이 왕지고개, 뉘시터, 해안산책로, 구두산 관광농원	(농)마늘, 쌀, 도종유자, 콩, 시금치, 민속채소 (특)유자, 두릅, 찹다래, 바지락	1. 뉘시터, 뉘시배 운영, 2. 민박운영, 3. 농가식당 운영, 4. 남천 서예학원 운영	1. 농가주택 개보수 및 민박 운영, 2. 체험농장 운영, 3.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4. 주말농장 운영, 5. 농수산물 판매, 6. 깃벌 체험장 조성, 물양장 조성으로 조개구이, 생선회, 활어판매장 등 다목적 시설 설치
42	웅곡 마을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40/62	15	20	5	0	0	0	낮바우성터	오봉산(서리산), 웅곡계곡, 상림숲, 바우성터/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농)쌀, 밤, 사과, 단감, 배, 흑두콩 (특)토종꿀, 흑돼지, 홍화, 산나물, 산약초	기타 체험프로그램 운영(밤줍기, 배사과따기, 토종꿀 채취)	1. 민박운영, 2. 체험농장 운영, 3. 민박농가와 병행 농가식당 운영, 4. 주말농장 경영, 5. 민박, 식당, 구관장을 통해 농산물 판매
43	연화 마을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40/75	6	29	2	2	1	0	임자명반자, 옥천사 자방루, 옥천사 향로, 대중, 연화리성터/마을동계	연화산 도립공원, 옥천사, 연화골, 영천강, 연화저수지, 금태산 계승사, 청년암, 당항포관광지	(농)벼, 보리, 단감, 밤, 고추 (특)배, 분재, 버섯/우리밀 민속주, 춘두부, 메밀묵	1. 농가식당 운영, 2. 동물농장(사슴) 운영, 3. 분재 판매	1. 민박운영, 2. 체험농장(친환경벼, 채소, 동물농장) 운영, 3. 우리밀 민속주, 메밀묵 등 농가식당 운영, 4. 농산물 판매, 5. 생태체험활동(연화산 산나물채취, 연화골 물고기잡기, 토종동물농장체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44	좌기 마을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2리	35/45	5	15	5	3	5	2	할망당.포제동산(마을제), 충효문, 효자문, 물허벅, 용기, 짚풀공예/달구소리(평토소리)	생태연못(구시흙못), 왕기식품(전통된장공장), 제주자연 생태문화 체험골, 제주도예원, 꽃자왈(원시림), 하우스 감귤원, 돌담, 도요지, 정미소, 한라육묘, 왕개동산/탐라문화제, 추사문화축제, 방어축제, 노을축제	(농)감귤, 한라봉, 봉황, 금감, 마늘, 감자, 보리, 콩, 양배추, 배추, 무, 양파, 유채, 조, 포도(특)한라봉, 봉황, 금감, 감귤, 마늘, 감자, 양파, 포도, 무릉된장, 간장	1.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맷돌로 곡식갈기, 도리깨타갈, 집줄농기, 돌담쌓기, 노람지엮기, 개끼꼬기), 2. 전통된장 만들기, 3. 농사체험(꿀따기, 사진찍기)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1. 농사체험(주말농장, 농장체험 활용), 2. 감귤따기 체험, 3. 장담그기 체험, 4. 생태문화 체험, 5. 육묘장 탐방
45	신대 마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신대부락	23/29	3	4	7	3	1	5	칠장사(5불회 패불탱, 칠당간, 대웅전, 소조사천왕상, 동종, 부도군, 사적비), 명적암/복조리공예	칠현산, 칠장산, 두교리저수지, 해안과 해수욕장	(농)벼, 잡곡, 메주콩, 채소, 호박, 감, 도토리, 밤, 고추(특)산나물, 도토리, 토종닭	저공해 내지 무공해 농산물 계약 재배, 가공, 칠장산 생태계 견학 및 체험하기로 서울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민에게 불거리 제공 및 농산물 직거래	1. 민박운영, 2. 저공해 내지 무공해 농산물을 원료로 한 청정건강식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3. 체험농장, 주말농장 운영, 4. 계약재배 및 가공계약을 통한 농산물 판매, 5. 골통품 전시 판매장 유치 및 칠현산 야생화 재배 판매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46	객현 1리 마을	경기 파주시 적 성면 객현1리	30/40	5(6)	10 (10)	2(6)	2	2	4(5)	감악산 설인귀비	감악산, 임진강, 안보관광 단지(임진각-도라산전망 대-제3땅굴-관문점), 미 타암, 산머루농원, 산림휴 양촌, 은혜수련마을/감악 산 산신제	(농)인삼, 콩, 산머 루, 호박, 표고버섯, 고추, 조경수, 산채, 양계, 양돈, 낙농 (특)산머루, 호박, 산채, 표고버섯, 인 삼	1. 산머루, 호박 등 농산물 수확하기, 2. 운동경기(축구, 족 구), 3. 물놀이(간이 수영장, 계곡), 4. 인절미 만들기, 5. 야생버섯 채집하기, 6. 휴염소 풀 뜯기 기	1. 마을환경개선(민박시 설, 농산물 판매장), 2. 녹색관광농원 육성(약초 공원, 관광약용농원, 관광 약축목장, 회원제 농장, 관광과수원 조성), 3. 산 지이용 소득사업(산채발 조성, 야생철화조립, 산지 유실수 조림, 토종별 사 육), 4. 정부지원사업 유 치(자연휴양림, 버섯박물 관, 향토음식점 등), 5. 체험프로그램 운영(산나 물 채취, 동물사육체험, 토종음식만들기, 건강주 담그기, 건강식 즐기기)
47	정자동 마을	경기 양주군 장 흥면 삼상리	19(14)/ 35	10	19	0 (19)	0	0(1)	0(1)	추사 김정희 선 생 필적 암각문, 이수광 묘, 이상 재 묘, 단경황후 의 묘 온릉과 권 율장군 묘	노고산, 곡릉천, 일영유원 지, 단경황후의 묘 온릉, 권율장군묘인근 장흥국 민관광단지, 송추유원지, 북한산 국립공원	(농)무공해쌀, 김장 채소, 느타리버섯, 화훼 (특)딸기, 양주 골 토종밤, 야생다 래	1. 농사체험(주말농 장 이용 파종. 관리. 수확하기), 2. 자연 체험(산. 들. 냇가 자연즐기기, 산나물 캐기, 물고기 잡기, 곤충채집하기), 3. 문화유산을 이용한 역사체험	1. 민박, 식당체험(농가숙 박, 시골향토음식, 제철음 식 먹기), 2. 직판장 체험 (유기. 무공해 농산물 판 매, 고추장, 된장, 김치담 그기), 3. 민속놀이 체험 (연날리기, 쥐불놀이, 짚 신삼기, 썰매타기, 팽이치 기), 4. 자연체험(밤줍기, 명산 산책로 걷기, 야생 유실수 따기), 5. 역사체 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48	연안 마을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36(15)/ 65	9(9)	6(3)	1(1)	3(3)	1(1)	0	상원사, 선운사, 백운사, 비룡사, 보광사, 법광사	갈미봉, 상루봉, 용문산, 백운봉, 상원계곡, 수득계곡, 태남계곡, 귀골계곡/상원사 산사음악회	(농)고추, 벼 (특)복숭아, 배	1. 밤줍기행사, 2. 상원사 산사음악회 개최, 3. 도시민 주말농장 체험	1. MT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박집 운영, 2. Temple Stay(사찰문화체험) 및 연등축제, 3. 전통 음식 만들기(매주만들기, 장담그기, 두부만들기), 4.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49	상현 마을	경기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20/36	6	9	5	6	1	0	장례식(상여문화)	중원산, 도일봉, 수리봉, 싸리재, 중원계곡, 중원폭포, 중원천, 반딧불이 서식지/단오행사, 들꽃축제, 메밀축제/용문산 관광지	(농)쌀, 감자 (특)콩, 오가피, 표고버섯, 메밀	1. 산채 수확행사, 2. 반딧불이 및 야생화 축제, 3. 단오날 그네뛰기, 투호 경기, 국악놀이	1. 전통주막집 및 대장간 재현, 2. 전통장날 재현 및 우마차운행, 3. 전통 농경법 체험(손모심기, 소쟁기), 4. 전통 흙집, 귀틀집 신축 운영
50	마암터 마을	강원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	17/21	10	4	2	5	1	0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객사문/강릉 단오제, 경포달맞이농악, 사천하평답교놀이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수청동 계곡, 부연동 계곡, 신왕저수지, 경포해수욕장, 연곡해수욕장, 주문진항/정동진 해돋이축제	(농)쌀, 배추, 단무지, 오이, 호박, 과일 (특)송이버섯, 표고버섯, 토종꿀, 산나물, 약초, 황어, 꼭지구, 은어, 메기, 뱀장어, 버들치, 자연산 돌각 돌미역, 첫갈류, 오징어, 황태, 한과, 고랭지 채소	1. 먹거리 체험, 2. 민박체험, 3. 베틀옷 감 판매, 4. 그림 감상 및 판매	1. 송이버섯채취 및 판매, 2. 표고버섯 판매, 3. 산나물 채취체험, 4. 물놀이 및 등산 체험, 5. 각종 먹거리 체험, 6. 황토초가집 체험(민박), 7. 주말농장 운영(농사체험), 8. 공동 판매장 설치, 9. 각종 문화/예술 체험행사 개최, 10. 여름바다 체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51	너와 마을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	37/63	4	26	0	2	1	4	신리 너와집, 통방아/성황제	육백산, 오산촌 계곡, 신리 너와집 및 통방아, 동활계곡, 풍곡계곡, 태백산/산나물 축제/환선굴, 맹방. 임원 해수욕장, 친은사, 죽서루, 준경묘, 영경묘	(농)찰옥수수, 고구마, 감자, 참깨, 들깨, 고랭지 채소, 잡곡 (특)둥굴래, 산머루, 전통메주, 헛개나무, 송이/질전병, 보리쌈밥, 산채비빔밥	1. 팜스테이 마을조성, 2. 새농어촌건설운동 연계 행사추진 (산송이따기 체험행사, 봄철 산나물 채취 행사)	1. 민박마을 조성(너와집 민박단지 조성), 2. 화전민 생활체험 농가신축, 3. 체험농장 조성(영농체험, 생활체험, 가공식품 만들기), 4. 민박마을 내 식당 운영
52	삼교 마을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삼교1리	18/36	10	5	5	1	1	0	삼교 안석경 선생묘, 삼교문집/매당덕 성황당 서낭제, 김응삼옹 고래 경, 횡성 회다지 소리, 매당 산죽 풍물놀이, 안석경 추모제	산채마을, 삼교계곡, 성우리조트, 청태산 휴양림, 둔내 자연휴양림, 보광휘닉스파크, 홍정계곡	(농)고랭지 채소, 감자 (특)산더덕, 산지재배 산채	산채 채취 체험, 더덕캐기, 토종별포뜨기	1. 구들난방을 이용한 황토주택 증축 민박운영, 2. 체험농장 운영, 3. 산채와 토종가축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4. 민박과 병행하여 주말농장 운영, 5. 농산물 판매장 운영
53	본동 마을	강원 영월군 주천면 도천2리	32/57	10	15	3	2	2	2	호미 씻이 놀이	비산, 주천강/생활체육행사 개최	(농)고추, 감자, 배추 (특)느타리, 전통메주	1. 감자, 고추, 풋옥수수 체험농장 설치, 2. 폐교를 활용한 단체숙박 및 잔디구장 설치 운영	민박, 체험농장, 전통메주공장, 전통 고추장. 된장공장 설치로 도시인 체험기회 부여
54	용항 마을	강원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16/26	5	2	1	1	1	2	셋다리 진골, 비금산골, 아락골, 평창강, 용당, 셋다리, 호랑이바위, 동굴용수로, 강변 모래사장, 뉘시터, 절벽	(농)고추, 포도, 옥수수 (특)산야채, 산약초		1. 고급 민박을 통한 숙박사업 운영, 2. 주변 자연환경의 음식을 이용한 자연식당 운영, 3. 뉘시터 운영, 4. 자연친화프로그램 운영, 5. 별자리체험, 6. 산림욕장 운영, 7. 황토 체험장, 8. 둥굴레체험, 9. 마을축제 개최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55	탑골 마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32/32	10	10	2	5	5	0	상원사, 월정사, 노성산, 유동리 5층석탑, 평창향교, 평창지붕동가옥, 평창대하리 전통가옥, 오대산 사고지, 백룡동굴, 세조대의 백초희장저고리, 탑동 3층석탑 /둔진평 농사놀이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상원사, 방아다리 약수, 신약수, 한국자생식물원,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대관령목장, 이승복기념관, 효석문화마을, 오대산 가시오가피농장, 희귀약초농장, 죽염된장공장, 인진숙공장, 오대산 진나무숲/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산나물 축제, 평창강 민속축제, 강원감자 큰잔치, 오대산축제,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	(농)당귀, 당근, 양파, 감자, 잡곡류, 채소류, 브로커리, 양채류 (특)산나물, 가시오가피, 죽염된장, 토종꿀, 당귀차, 인진숙, 장뇌삼, 더덕, 머위, 마가목차	1. 체험프로그램(산나물뜯기, 야생화분재 만들기, 농산물 수확, 알밤줍기 체험), 2. 주말농장 운영, 3. 황토방 민박 및 오대산 래프팅, 4. 오대산 등산 단풍놀이, 5. 전통음식 체험, 6. 일일가터 운영, 7. 눈썰매장 운영	1. 자연산 산나물 조성, 2. 오대산 인접 등산로 개설, 3. 눈썰매장 운영, 4. 삼림욕장 조성, 5.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6. 야생화 단지 조성, 7. 된장 담그기 현장체험, 8. 농촌체험형 민박 운영, 9. 주말농장 운영, 10. 토종가축 방목사육, 11. 산물가공 및 소포장 판매, 12. 사진촬영장 운영, 13. 야생화, 오가피, 희귀약초 분재만들기, 14. 황토 짬질방 운영, 15. 향토음식 개발 판매, 16. 체육공원 조성, 17. 희귀약초 농장
56	철새 마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53/85	10	33	33	2	3	0	고석정, 도피안사 3층석탑, 마애석불,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지석묘, 고석정, 토성/전통생활양식	겨울철새. 토교저수지,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제2땅굴, 월정역, 노동당사, 백마고지/태봉제, 통일기원예술제, 철인3종경기, DMZ 마라톤, 상노지경다지기, 해돋이 행사, 오리입식 행사	(농)오대쌀, 오이, 양봉, 느타리, 견고추, 들깨, 찰옥수수, 표고버섯, 수박, 콩, 돼지	겨울철 철새탐조를 중심으로 생태관찰 프로그램 운영	1. 펜션 중심 민박 운영, 2. 자연생태체험(두루미 관찰, 자연의 선물, 숲과 함께하는 놀이), 3. 평화역사체험(평화의 연날리기, 임격정놀이, 기원의 탑만들기), 4. 농촌생활체험(산나물 뜯기, 오대미만들기, 가을산 먹거리찾기), 5. 연계프로그램 운영(철의 삼각코스, 안보관광코스)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57	동촌 마을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42/61	12	10	10	6	4	0	운봉사 절터(부도), 호식총/산신제, 호음고개전설, 삼형제바나무전설, 느티나무전설	해산, 파로호, 호음계곡, 두루봉, 여좌동, 비수구미, 아들바위, 운봉사체육공원, 장승공원, 낚시터/호총제	(농)달래, 표고 (특)송이, 약초/막국수	해산영농체험 연수원 활용	1. 농촌생활체험 민박운영, 2.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사체험, 농촌가을전원생활체험, 전통놀이체험)
58	용대리 마을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3리	58/75	20	9	15	17	23	0	백담사 목조아미아불좌상부 복장유물, 봉정암 석가사리탑,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정월대보름맞이행사, 산고사, 만해마을축전 및 시화전	내설악, 진부령, 미시령, 백담계곡, 십이선녀탕계곡, 미시/황태축제, 빙벽대회령계곡, 진부령계곡, 북천, 연화동, 옥수골, 다리골, 굴골, 황태덕장, 매바위 인공폭포, 용대삼림박물관, 용대자연휴양림, 백담만해박물관, 옥수골관광농원	(농)옥수수, 감자, 콩, 팥 (특)황태, 치커리, 인진쑥, 토종꿀, 산약초, 산채, 목공예, 토종닭/황태요리, 송어회, 토종닭, 산채정식	1. 황태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민박사업 및 농특산물 판매, 2. 눈썰매장 및 바람도리 자유마차 운영	1. 민박(펜션 및 황토방) 운영, 2. 백담사 탐방, 3. 눈썰매장 운영, 4. 황태덕장 운영 전과정 견학, 5. 황태축제 개최, 6. 바람도리 마차관광, 7. 미시령 정상 야경관람, 8. 황태요리 체험, 9. 산나물 채취 체험, 10. 빙벽타기 대회 개최
59	동루골 마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1리	14/26	11	10	5	2	1	0	설악산 울산바위, 간이해수욕장		(농)감자, 벼, 옥수수 (특)삼백초차, 부추, 송이/막국수, 추어탕, 동동주, 토종돼지, 토종닭, 도토리묵	주말농장(삼백초차) 운영	1. 민박운영(황토방 운영, 원두막, 통나무집), 2. 체험농장 운영(주말농장, 인터넷농장), 3. 농가식당 운영, 4.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4. 전통메밀 막국수 축제 개최, 5.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기회제공, 6. 봄철 산나물 채취 이벤트 개최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60	고운리 마을	충북 충주시 상 모면 고운리	24/36	7	3	2	3	2	4		적보산, 계곡, 저수지, 철 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인근 수안 보 온천 및 스키장, 충주 호, 탄금대, 충렬사	(농)쌀, 감자, 고구 마 (특)고추, 밤		1. 문화유적 탐방, 2. 주 말농장 운영, 3. 전통놀이 체험(자치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제기차기)
61	명암리 마을	충북 진천면 백 곡면 명암리	30/57	1	2	1	1	6	1	이교영선생 효자 비, 충 장군비, 사기장굴	무계산, 백석봉, 모산, 옥 녀봉, 장수굴, 명암계곡, 명암폭포, 백곡저수지/산 신제, 추석 노래자랑 및 친목 운동회	(농)벼, 콩, 팥, 감 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들깨, 고추, 배추, 무, 참외, 수 박, 토마토, 오이, 순무, 포도, 배, 사 과,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머루, 다래, 담배 (특)양봉 및 한봉, 분재 및 정원수/두부, 메주, 도토리묵, 꽃감	1.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야생화, 약용 식물, 산채류, 과수, 유실수), 2. 분재원 운영	1. 민박운영, 2. 체험(주 말)농장 운영, 3. 참 숯가 마를 이용한 참숯제조 과정 체험, 4. 전통음식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5. 신토불이 농산물 전시 및 판매
62	석곡 마을	충남 아산시 영 인면 신봉2리	75/75	8	30	0	0	65	0	온양민속박물관, 맹사성고택, 이충 무공묘소, 아산읍 내리 당간지주, 온주아문/아산연 업주	고룡산, 신언천, 신봉저수 지, 영인산휴양림, 백련 사, 아산만, 삼교천, 아산 온천, 현충사	(농)무공해쌀, 과, 오이, 토마토, 호박, 저농약배	정월대보름 행사, 친환경농업 오리방 사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 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 매장, 떡요리개발(수수도 가니떡), 물고기 체험장, 황토 찜질방 체험, 등산
63	도정 마을	충남 논산시 양 촌면 인천리	32/32	10	8	0	1	1	0	쌍계사, 탑정호	양촌천, 양촌유원지, 양촌 재래시장	(농)딸기, 꽃감, 취 나물, 곰취나물, 양 파 (특)양촌감식초, 양촌집장	친환경 양촌딸기 제 배 견학	민박, 체험농장(수경채소 재배체험, 양촌집장 가공 체험),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메주가공, 식품가 공공장(양촌집장, 양촌감 식초)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64	바리실 마을	충남 금산군 제 원면 명곡리	33/62	12	12	12	12	1	12	금산인삼주, 물떼 기농요, 농바우끄 시기	대둔산, 서대산, 칠백의 총, 보석사, 봉황천 지천, 천내천/금산인삼축제, 산 안벗꽃축제, 금강민속축 제, 장동달맞이축제	(농)배, 사과, 고추, 벼 (특)인삼/인삼주, 인삼한과	소규모지구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운영	1. 민박운영, 2. 건강을 주제로 한 체험농장 운 영(인삼심기 및 캐기, 민 물고기 잡기, 토속음식 만들어먹기, 야생버섯 채 취), 3. 농가식당 운영, 4. 짚공예품(명석, 짚신, 복 조리) 직접 체험 및 판매
65	백제 인동 마을	충남 부여군 은 산면 거전리	64/64	3	35	0	1	1	24	백제문화제, 은산 별신제, 백마강 수박축제	백제문화유적지(낙화암, 고란사, 백마강, 구드레, 궁남지, 능산리 왕릉), 백 제역사 재현단지/정월대 보름축제, 망우제(원추리 배 축제)	(농)벼, 고추, 콩, 참 깨, 들깨 (특)백마강 알밤, 원추리, 맥문 동, 인동초, 표고, 배		1. 농사체험, 2. 마을전통 음식체험, 3.마을 전통공 예품 만들기 체험, 4. 팜 스테이(숙박, 민박), 5. 마 을 전통문화체험, 6. 환경 생태체험
66	하리 마을	충남 홍성군 광 천읍 매현리	28/42	16	6	2	1	1	2	상하리 미륵불, 용봉사 마애불, 전운상 영정/지승 제조, 결성농요, 홍성 땡땡이장	오서산, 홍주성, 남당항, 매현농원 수목원, AB지 구 방조제, 조양문, 철세 도래지/조선김죽제, 남당 리 대하축제	(농)오리농쌀, 마늘, 고추, 참깨, 들깨, 김장채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생강, 냉이 (특)오리농쌀, 친환경 유기농 포 도, 저농약 사과, 배, 복숭아/광천도 굴새우젓	친환경 과수 주말농 장(영이 농원)	1. 민박, 2. 체험농장 및 주말농장 운영(봄나물캐 기, 농사체험, 친환경농업 관찰, 천연염색체험, 유기 농채소 시식, 전통요리체 험), 3. 정자신축, 4. 동물 농장 운영(동물관찰체 험), 5. 마을 농산품을 이 용한 농가식당 운영, 6. 농산물 판매장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67	갈막 마을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26/26	4	4	2	2	1	13	이남규 고택, 이광임 고택, 천방산, 해국사	천방산, 어둔골, 곱적골, 방산 저수지/오리방사축제	(농)의 좋은 형제쌀, 콩, 들깨, 참깨, 고추, 감, 은행, 배추, 무, 수박, 사과, 배, 비육우, 낙농, 염소, 양계, 동충하초, 표고버섯 (특)의 좋은 형제쌀, 표고버섯, 동충하초, 저농약 수박, 두부, 도토리묵, 건고추, 밤, 호두, 은행	전통음식 만들기, 새끼꼬기, 짚신삼기, 풍악놀이	1. 민박 및 야영장(예동야영장) 운영, 2. 체험농장 및 주말농장 운영(밤줍기, 은행줍기, 전통음식만들기, 물고기잡기, 김장담그기, 전통 메주 만들기), 3. 녹색마을 함께 가꾸기, 4. 고택 동년연극제 개최, 5. 각종 축제 시행(허수아비축제, 추수한마당 축제), 5. 우리농촌 생태관광
68	영진 마을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1리	37/74	21	23	8	7	21	1	영량사, 보덕사, 성당사, 필경사 안국사/사물놀이패, 안섬풍어제, 장승제, 기시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남이홍장군문화제	국수봉, 아미산, 진명천, 대호천, 대호저수지, 온동저수지, 해창저수지, 대호. 석문방조제, 난지도해수욕장, 대호호. 석문호철새도래지, 한보철강, 왜목마을, 당진화력, 도비도휴양단지	(농)친환경쌀, 잡곡류 (특)황토배, 파리고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황토고구마, 호박, 땅콩, 고추, 마늘	민박 황토염색체험, 도자기체험, 숲속체험, 갯벌체험, 농사체험(황토배따기, 고구마캐기, 밤줍기 행사)	1. 민박원영, 2.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 3. 황토염색(짚질방) 체험, 4. 민물낚시, 5. 체험 프로그램 운영(숲속체험, 갯벌체험, 농사체험, 자연 생태체험, 전통음식 체험)
69	운암 마을	전북 정읍시 부전동 운암마을	20/22	5	5	0	2	6	0	내장산, 운암계곡, 허부농원과 허브건강센터, 부전저수지	내장산, 운암계곡, 허부농원과 허브건강센터, 부전저수지	(농)밭작물 (특)복분자, 감, 특용작물	허브와 복분자등을 재배하여 운암계곡과 짚질방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입확보	1. 기존 민박과 황토집 펜션을 설치 운영, 2. 복분자 및 허브체험 농장 운영, 3. 마을 공동으로 농가식당 운영, 4. 휴경지를 정리하여 주말농장으로 분양, 5. 농산물 판매장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70	동신 마을	전북 진안군 백 운면 동창리	18/33	12	5	1	1	1	0	영모정, 만육 최 양선생 유허비/매 사냥	팔공산, 선각산, 덕태산, 내동산, 백운동, 영모정, 성수온천, 풍혈냉천, 용담 댐, 운장산 휴양림, 마이 산, 신암리계곡	(농)인삼, 더덕, 고 추, 화훼, 배, 돼지, 오리쌀, 산채류, 잡 곡류, 약초 (특)오이 장아찌, 오가피등 한방약재	오리입식 행사, 가 을 걷이	1. 민박운영, 2. 환경농업, 과수, 오리농법, 고추, 고 구마캐기 등 농사체험장 운영, 3. 농가식당 운영, 4. 주말농장 분양, 5. 환 경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판매, 6. 산골 여름학교 운영 등을 통한 기타 체 험프로그램 운영(약초채 취, 다슬기잡기, 가재잡 기, 화일수확, 장류 담그 기, 떡 해먹기), 7. 숲가 마 황토점질 및 주변 관 광체험
71	원장안 마을	전북 장수군 계 남면 장안리	20/37	4	8	8	2	2	0	팔각정, 고 강백 규 투사묘, 장안 사절/좌도 농악	장안산, 장안산 계곡, 장 안산 갈대밭, 장안사, 장 안산 관광농원, 장안문화 예술촌	(농)고랭지 배추, 고 추, 오이, 호박 (특) 오미자, 산머루, 더 덕, 고추	민박, 고뢰쇠 시음 회, 대학생 MT등, 영농체험(감자캐기), 각종 모임 이벤트, 반딧불 감상, 김치 담기, 메주만들기	1. 기존 관광농원 및 신 축 농가를 중심으로 민 박 운영, 2. 체험농장 운 영(나물 채취, 천연염색 하기, 도자기 만들기, 도 토리. 밤 줍기, 농산물 수 확체험), 3. 장안산 관광 농원 식당 및 참여농가 민박집 활용 농가식당 운영, 4. 장안산 관광농원 활용 농산물 판매, 5. 방 갈로 신축 운영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재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72	화양 마을	전북 순창군 북흥면	21/21	10	5	1	2	1	10	전통사찰 구암사, 낙덕정	내장산, 백양사, 화양 저수지, 전북 산림 박물관, 강천산 군립공원, 회문산 자연휴양림/추령장승축제	(농)유기질 쌀, 하우스 오이, 고랭지 채소(시금치, 배추, 무), 고추 (특)고로쇠 약수, 표고버섯, 산두릅, 장뇌삼	화양관광농원 운영-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가축사육, 민박운영	1. 민박운영, 2. 농산물 판매장 운영, 3.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농장 운영(고로쇠수액 채취, 표고버섯 채취), 4. 닙시터 설치. 운영, 5. 주변 명소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6. 친환경 농업 육성
73	선산 마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44/65	15	5	1	1	1	0	고창읍성, 도솔암 마애불/고창농악, 윤도장	동학농민혁명발상지, 고창고인돌군, 선운사도립공원, 고창읍성, 무장읍성,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줄포만 갯벌체험장, 학원관광농원	(농)고품질쌀, 무, 고추, 땅콩, 사과, 배, 보리, 메밀 (특)수박, 무공해보리, 복분자주, 풍천장어	전통민속놀이(연날리기, 당산제, 쥐불놀이, 줄역사, 농악놀이 등)	1. 민박운영, 2. 체험 프로그램 운영(민속체험, 농촌농사체험, 식품체험, 전원체험), 3. 자가농산물 위주 농가음식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4. 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74	우신 마을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25/41	17	16	10	6	1	1	반계유적지, 유천도요지, 월천리석장승, 보안입성, 부안김씨종중 고문서, 정유재난호별치전적지/띠뱃놀이	굴바위, 선계폭포, 고인돌, 갯벌체험장, 갯벌머드팩, 삼림욕장, 산나물채취장, 장미농원, 암벽등반, 도자기체험장/우동리 당산제, 정원보름 달집태우기, 농악놀이/부안댐, 구룡담, 해수욕장, 내소사, 월명암, 직소폭포, 낙조대, 영상테마파크. 야생화단지, 곰소포구, 젓갈, 염전, 새만금방조제, 원숭이 학교	(농)고추, 배추, 무우, 상추, 시금치, 더덕, 도라지, 양파, 대파, 생강, 옥수수, 마늘, 배, 감, 복숭아, 매실, 자두, 밤, 대추, 모과, 살구(특)idch 가공품(한방 배즙, 한방 호박배즙, 양과즙, 배식초)	1. 자연체험(밭. 도토리 줍기, 고사리. 취나물. 버섯. 산더덕. 두릅채취), 2. 농경체험(배꽃따기, 배. 감. 복숭아 따기, 고구마캐기), 3. 전원감상(시골길 걷기, 호반 산책, 산림욕), 4. 민속놀이(웃놀이, 줄다리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5. 해양체험(굴. 조개 채취, 갯벌체험)	1. 민박운영, 2. 친환경농업, 약초재배, 과수원 등을 통한 농사체험장 운영, 3. 자연체험장 운영(자연채취, 생태체험, 자연탐방), 4. 농가식당 운영, 5. 주말농장 분양, 6. 환경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판매, 7. 기타 체험 프로그램 운영(전원체험, 문화체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75	계광 마을	전남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52/68	10	19	1	10	1	1	나주 노안천주교회, 쌍계정, 설재서원, 경현서원, 월정서원	병풍산, 이별재 고개, 친환경 재배단지, 주말농자, 영산강 역사 문화축전, 낚시터/대동계, 배꽃축제	(농)친환경쌀, 배, 고추, 참깨, 수박, 담배, 배추 (특)배, 조림갯잎	1. 민박운영(팜스테이), 2. 청소년 수련장 운영, 3. 갯잎가공공장 운영, 4. 주말농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	1. 도자기. 염색체험, 2. 초가집 체험 행사, 3. 마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판매, 4. 전통음식 문화강좌 개최
76	신촌 마을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흥리	46/46	6	20	20	2	1	0	성불사지, 광양조령리 부도, 형제 의병장사당, 황매천생가, 선비 최산두 묘	백운산, 백운산 4대계곡(성불, 어치, 금천, 동곡계곡), 백운산 자연휴양림, 섬진강, 봉강천, 백운저수지, 광양만, 매화마을, 도솔봉,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농)밤, 감, 배, 녹차, 산나물, 매실, 복숭아 (특)고로쇠약수, 한방 배즙, 밤, 두릅	고로쇠 약수 체험, 야생녹차체험, 배따기, 두릅채취 체험 등	1. 민박 운영, 2. 농사체험장 운영(고로쇠 약수체험, 산나물따기, 배과즙만들기 체험), 3. 민박농가를 활용한 농가식당 운영, 4. 지역특산물 판매, 5. 기타 체험프로그램 운영(숲체험, 황토길걷기, 다도체험, 산사체험, 짚풀공예체험)
77	상위 마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15/22							능주구씨 위패 추모제 1동/좌도 농악(상위결궁) 상채 정재호	지리산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만복대, 고리봉 등산코스, 지리산 온천,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섬진강/산수유꽃축제	(농)청정미, 밤, 더덕, 도라지, 토란, (특)산수유, 한봉, 오미자, 산더덕, 당귀, 고로쇠, 산 도토리, 산채(고사리, 취나물, 두릅)/산수유를 이용한 음식	주요 특산물인 산수유 나무 식재 및 가꾸기, 산수유 꽃길 걷기, 산수유 채취, 산수유차 직접 만들기 등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농촌문화체험 및 자연학습, 농사체험, 문수골 하늘별 감상, 농작물 수확 및 갈무리)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78	만수 마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15/23	5	7	0	0	0	3		무등산, 안양산, 만연산, 대동산, 연화봉, 화단봉, 백마강계곡, 안양목장, 안양산휴양림, 안양철쭉단지, 만연폭포, 도깨비 도로/안양산 철쭉제	(농)쌀, 흑염소, 깃소 (특)생약/흑염소탕, 토종닭	흑염소, 촌닭 등 사육 및 판매	1. 민박조성, 2. 체험농장 운영, 3. 농산물판매장 운영, 4. 마을안길 및 산책로 가꾸기, 5. 만수샘, 드들방아, 숯구터 체험시설 확충, 6. 꽃길조성. 돌담 쌓기
79	영복 마을	전남 강진군 음천면 영산리	24/24	4	7	2	1	1	0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전라병영성, 하멜체류지, 무위사극락보전, 월출산 금릉경포대	청자문화제	(농)미맥, 맥우, 토하, 표고, 새송이버섯, 오이		민박, 체험농장(버섯 체험, 밥 수확, 두릅 채취),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
80	탑림 마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12/24	7	3	0	1	1	0	진돗개, 상만사지오층석탑, 상만비자나무/남도들노래, 진도망가, 진도 다시래기, 진도 셋김치, 강강술래, 진도 아리랑	여귀산, 오봉산, 국립국악원, 아리랑 민속촌, 남도석성, 금갑 해수욕장	(농)흑쌀, 왕찰벼, 일반벼, 외대과, 구기자, 유기자, 고추, 배추, 무, 고구마, 감자, 당근, 생강, 들깨, 가지, 참깨 (특)육근,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건포미역, 멸치, 송어, 돔, 농어, 갈치	1. 환경과 건강 프로그램(현미밥 짓기, 자연식 나물 및 김치 만들기), 2. 관행농업 프로그램(쟁기질, 씨래질, 모내기, 추수), 3. 전통민속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강강술래, 널뛰기, 그네뛰기)	1. 흙 초가집 민박, 2. 체험농장 운영, 3. 주말농장 분양, 4. 동물농장(사슴, 토끼, 토종닭, 염소) 운영, 5. 정자 신축, 6. 천문관. 미생물관 운영, 7. 전통방식으로 지은 농산물 이용 농가식당 운영, 8. 대보름 행사 및 전통 민속놀이 프로그램(오곡밥 먹기, 쥐불놀이), 9. 나눔의 잔치행사(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더불어 먹기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81	창락 마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창락1리	41/80	19	11	0	3	0	8	희방사(월인석보, 법화경, 두운대사영정), 백룡사, 유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국립공원, 풍기온천, 희방사, 희방계곡, 선비촌, 부석사(무량수전), 남원천/눈꽃 축제, 해맞이 행사	(농)사과, 인삼, 더덕 (특)사과, 인삼, 더덕, 산채나물두부, 된장, 간장, 메밀묵	1. 눈꽃 축제 및 해맞이 행사, 2. 사과적과 및 더덕 심기(체험행사), 3. 소백산 철쭉제 참가, 4. 먹거리 체험(두부 및 메밀묵 만들기)	민박, 체험농장(사과따기, 더덕 심기),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등을 연계한 기타사업 운영
82	병천 마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31/52	8	22	9	4	1	3	견훤산성, 상오리 7층석탑, 동천정사	속리산 국립공원, 도장산, 백악산, 승무산, 용유계곡, 물안계곡, 박속골계곡, 장각폭포, 옥랑폭포, 성불사, 석문사, 신흥사, 미타사, 원적사, 심원사	(농)복수박, 포도, 고추, 고구마, 채소, 산나물, 송이버섯, 능이버섯, 사슴, 젓소, 한우 (특)병천복수박, 청화산포도, 백약오이, 액산차, 산채나물, 송이버섯, 능이버섯, 토종꿀벌, 엘크농용, 사슴액기스, 염소액기스	1. 민박 운영, 2. 농가식당 운영, 3. 농사체험농장 운영(사슴농장), 4. 주말체험농장 운영(고구마 재배, 채소농장, 고추 재배), 5. 상오리야영장, 입석쉼터 운영	1. 농사체험농장 운영(사슴농장, 염소사육, 젓소. 한우, 닭사육, 배. 복숭아. 꽃감. 자두. 복수박. 포도. 오미자 재배), 2. 주말농장 운영(고추, 옥수수, 고구마 채소 재배), 3. 식품가공공장 운영(된장), 4. 눈썰매장 운영, 5. 농수산물,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연계판매
83	고산 마을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삼산1리	26/42	1	3	0	0	0	22	암각화	탑산온천, 공룡발자국, 문익점 기념비, 탑리5층석탑	(농)사과, 자두, 양파, 마늘, 벼 (특)자두, 토종밤, 양봉	1. 민박 운영, 2. 체험농장(사화. 자두나무 가꾸기 및 수확), 3. 주말농장, 4. 농산물 판매장, 5. 식품가공공장 운영(고춧가루, 과일액기스), 6. 하천체험(물고기 잡기, 모래사장 조성 모래놀이 체험)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84	평리 마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43/83	19	12	0	0	12	0	표충사 3층석탑, 하씨고가, 칠탄정/범홍상원놀이	재약산, 승학산, 정각산, 향로산, 향로봉, 가래봉, 경주산, 백마산, 밀양댐, 표충사, 사자평, 내원암, 청칭폭포, 정승동, 칠발	(농.특)밀양고례대추, 고랭지 배추, 무, 고랭지 배 및 사과	1. 민박 운영, 2. 농가식당 운영, 3. 대추 직거래, 4. 고례 유료 낚시터 운영	1. 민박 운영, 2. 체험농장 운영(사과, 고랭지 배추와 무우, 취나물, 마늘, 고추, 버 등 밭일구기부터 수확까지 체험), 3. 체험목장 운영(염소. 사슴 돌보기), 5. 주말농장 분양, 6. 농산물 판매장 운영
85	영당 마을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35/48	9	19	0	3	3	1	약양정, 상선암, 쌍계사, 칠불사	다원관광농원, 상선암, 남도대교, 화개장터, 섬진강변 백사장, 80리 벚꽃길, 최참판댁, 고소성, 페리클라이드 장, 불일폭포/벚꽃축제, 고로쇠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농)벼, 밤, 녹차, 매실 (특)고사리, 송이버섯, 도라지/녹차된장, 녹차칼국수, 매실장아찌	다원관광농원 운영	민박, 체험농장(녹차 재배),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 운영
86	월성 마을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37/62	9	22	0	3	3	0	사선대, 용소폭포, 장군바위, 월성초당, 월성의거비/정월대보름 전통놀이	남덕유산, 샷갯골, 서덕이소류지, 상천 저수지/산나물 채취 축제, 고로쇠채취 축제, 3.1절 기념행사/위천수승대, 금원산자연휴양림, 월성 청소년수련원	(농)쌀, 찹쌀, 흑미, 감자, 고랭지 채소 (특)표고버섯, 산더덕, 사과, 양봉, 잣/도토리묵, 손두부, 청국장	민박체험, 토속음식 제공, 특산물(더덕)우체국을 통한 판매	1. 민박 확대 운영, 2. 체험농장(고로쇠물 채취, 산나물 채취, 채소재배, 다슬기잡기, 과일따기), 3. 주말농장 분양, 4. 북상 13경 명소와 문화제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개발, 5.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지역특산물 판매

No	마을 이름	주소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실태(계획)							주요 문화제	주요관광자원	농특산물/ 전통음식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	신규 추진계획
			참여/ 총가구	민박	체험 농장	주말 농장	농가 식당	판매장	기타					
87	송당리 마을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185/362	15	50	3	20	1	89	송당분향당/송당리마을제	아부오름, 온천 관광지, 이승만 대통령 별장,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관광승마장	(농)더덕, 콩, 감자, 육우, 낙농, 경주마(특)더덕, 축산물/메밀묵, 빙떡	민박, 음식점 운영	1. 민박 확대 운영, 2.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생산 판매, 3. 승마체험공간 조성, 4. 농사체험장 운영(메밀, 유채 재배), 5. 기존 목장을 이용하여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6. 주말농장 분양
88	혼인지 마을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245/485	50	50	25	20	10	90	혼인지, 말등포연대, 환해장성/마을포제, 풍어제, 영등굿, 전래민요	성산일출봉, 신양해수욕장, 해저관광 유람선, 섭지코지, 표선백사장, 일출관광랜드, 수전포, 황루알/정자마당 음악회	(농)감귤, 감자, 당근, 콩, 전복, 소라, 성게 (특)유채나물, 미역	1. 민박운영, 2. 관광농원(혼인지 농원) 운영, 3. 농산물 판매소 운영, 4. 낚시배 운영, 5. 관광식당 운영	1. 민박운영, 2. 관광농원(감귤따기 체험 및 감귤수매, 기타 농수 특산물 판매를 겸하는 형태) 운영, 3. 농수산물 판매소 운영, 4. 어촌계소라의 성(민박, 식당, 농수특산물 체험관광등을 연계), 5. 낚시배 운영, 6. 관광식당 운영(향토음식 판매)